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2016~2025)

2017. 06



충청북도

제 출 문

충청북도지사 귀하

충청북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06

사단법인 충북경제경영연구원

목 차

CONTENTS

01 제1장 연구의 개요 1

- 1. 연구의 개요 1
- 2. 연구의 준거 3

02 제2장 지역경제 현황 분석 11

- 1. 산업구조 및 전략산업 11
- 2. 경제규모 24
- 3. 제조업 생산 현황 28
- 4. 기업 투자유치 현황 47

03 제3장 산업입지 실태 분석 51

- 1. 산업용지 현황 51
- 2. 산업단지 현황 62

04 제4장 산업입지 수요 전망 99

- 1. 기존 계획(2008년) 평가 99
- 2.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수요 추정 107

05 제5장 산업입지제도 및 정책 검토 127

1. 제도 및 정책 개요	127
2.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137
3. 관련 계획 검토	140
4. 기존 산업입지 수급계획 검토	151
5. 현재 산업입지 수급정책 검토	155

06 제6장 산업입지 공급계획 163

1.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규모산정	163
2. 충북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171
3.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계획	176

07 제7장 충청북도 산업입지수급계획 205

1. 「산업입지법(제5조의2 제6항)」에 따른 사항	205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사항	210
3. 시·군 의견수렴 협조 공문	214

목 차

CONTENTS

표 목 차

[표 2-1] 충북 지역내총부가가치	11
[표 2-2] 충북 산업별 취업자 수	12
[표 2-3] 충북 전략산업 산업분류표	14
[표 2-4] 충북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	20
[표 2-5] 충북 대표 산업 현황	21
[표 2-6] 충북 대표 산업별 특화도	22
[표 2-7] 충북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4
[표 2-8]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내총부가가치	25
[표 2-9] 시·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25
[표 2-10] 충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소득 및 소비	26
[표 2-11] 충북의 수출금액	27
[표 2-12] 충북의 성질별 수출금액 비중	27
[표 2-13]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28
[표 2-14]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시·도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29
[표 2-15]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0
[표 2-16]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시·도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31
[표 2-17]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생산액 변화 추이	32
[표 2-18]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33
[표 2-19]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주요생산비 변화 추이	34
[표 2-20]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35
[표 2-21]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36
[표 2-22]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7
[표 2-23]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8
[표 2-24]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생산액 변화 추이	39
[표 2-25] 충북 제조업 분야별 지역내총생산(GRDP)	40
[표 2-26]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41
[표 2-27]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42

[표 2-28]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43
[표 2-29] 「전국사업체조사」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44
[표 2-30]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생산액 변화 추이	45
[표 2-31] 충북 제조업 시·군별 GRDP 변화 추이	46
[표 2-32] 충북 투자유치 현황(2011년~2015년)	47
[표 3-1] 충북 산업용지 면적 사용 자료 개요	52
[표 3-2] 충북 산업용지 면적 추이	52
[표 3-3]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추이	53
[표 3-4]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비중 추이	53
[표 3-5] 충북 산업용지 연도별 면적 증가 추이	54
[표 3-6] 충북 산업용지 산업별 통합 분류	55
[표 3-7] 충북 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56
[표 3-8] 충북 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57
[표 3-9]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58
[표 3-10]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59
[표 3-11]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추이	60
[표 3-12] 충북 각 시·군별 산업용지의 계획입지 면적 비중 추이	61
[표 3-13] 충북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 추이	63
[표 3-14]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5년)	64
[표 3-15] 충북 국가산업단지(2개) 지정 현황(2015년)	65
[표 3-16] 충북 일반산업단지(62개) 지정 현황(2015년)	65
[표 3-16 계속] 충북 일반산업단지(62개) 지정 현황(2015년)	66
[표 3-17] 충북 도시첨단산업단지(2개) 지정 현황(2015년)	66
[표 3-18] 충북 농공단지(43개) 지정 현황(2015년)	67
[표 3-19] 충북 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2015년)	68
[표 3-20] 충북 산업단지 가동 현황(2016년 1분기)	69
[표 3-21] 충북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추이	70
[표 3-22]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1
[표 3-23] 충주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2
[표 3-24] 제천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3
[표 3-25] 보은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4
[표 3-26] 옥천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4

[표 3-27] 영동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5
[표 3-28] 증평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5
[표 3-29] 진천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6
[표 3-30] 괴산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7
[표 3-31] 단양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7
[표 3-32] 음성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78
[표 3-33]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79
[표 3-34]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면적 시·군별 비중 추이	81
[표 3-35] 충북 산업단지 전체 지정면적 대비 산업시설용지 비중 추이	82
[표 3-3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82
[표 3-3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누계) 추이	84
[표 3-3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85
[표 3-39]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86
[표 3-40]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	87
[표 3-41]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누계) 추이	88
[표 3-42]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89
[표 3-43]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면적 추이	90
[표 3-44]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률 추이	91
[표 3-45]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 추이	92
[표 3-4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률 추이	93
[표 3-4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 추이	94
[표 3-4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률 추이	96
[표 4-1] 기존 계획(2008년)의 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100
[표 4-2] 기존 계획(2008년)의 생산액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102
[표 4-3] 기존 계획(2008년)의 고용인구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103
[표 4-4]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용지 수요추정 결과	104
[표 4-5]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용지 예측 결과와 실측치 비교	104
[표 4-6]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2009~2018년 기준)	105
[표 4-7]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계획입지 공급계획(순수요)과 실측치 비교	106
[표 4-8]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시·군별 계획면적과 실측치 비교	106
[표 4-9] 충북 산업입지 수요 추정의 기준 및 기간	107
[표 4-10] 과거 추세치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 예측방법	108

[표 4-11] 원단위(부지면적/생산액)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 예측방법	109
[표 4-12] 시계열 통계 예측모형별 특징	112
[표 4-13]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	113
[표 4-14] FEMIS의 산업입지 계획입지 면적과 산업단지 분양 면적 비교	114
[표 4-15]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의 전제	115
[표 4-16] 모형별 2014~2016년 관측값과 예측값의 MAPE 비교	116
[표 4-17]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117
[표 4-18]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예측 면적의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	117
[표 4-19] 생산액/면적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시계열자료	118
[표 4-20] 충북 제조업 생산액 추이	119
[표 4-21]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	119
[표 4-22] 2006년~2014년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120
[표 4-23]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의 전제	121
[표 4-24]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예측	122
[표 4-25] 충북 제조업 생산액 예측	123
[표 4-26]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123
[표 4-27]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의 문제점	124
[표 4-28]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수요) 추정 결과	124
[표 5-1] 산업입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128
[표 5-1 계속] 산업입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129
[표 5-2] 특수 목적 단지의 종류와 근거법률	131
[표 5-3] 산업단지의 유형	133
[표 5-4] 산업단지의 개발방식	135
[표 5-5] 산업단지 지정·개발제도 현황	135
[표 5-6]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136
[표 5-7]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136
[표 5-8]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138
[표 5-9] 지역별 계획입지(산업단지) 개발 방향	139
[표 5-10]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목표, 정책수단, 특징	142
[표 5-1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충북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입지공급 방향	142
[표 5-12] 시·도별 연간수요대비 개발 중 및 미분양 현황	160

[표 6-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방법 변경내용	164
[표 6-2] 충북 공장부지 면적 중 계획입지 면적 추이	165
[표 6-3] 충북 산업입지 누적 면적과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의 계획입지비중 추이	166
[표 6-4]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167
[표 6-5] 충북 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현황	168
[표 6-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미개발용지 면적(2015년)	168
[표 6-7] 충북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부지 면적(2015년)	169
[표 6-8] 2016~2025년 충북 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170
[표 6-9] 시·도별 공장용지의 계획입지비율	171
[표 6-10]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비교	174
[표 6-11]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의 전제	176
[표 6-12] 청주시 산업단지 추이	177
[표 6-13] 충주시 산업단지 추이	178
[표 6-14] 제천시 산업단지 추이	179
[표 6-15] 보은군 산업단지 추이	180
[표 6-16] 옥천군 산업단지 추이	181
[표 6-17] 영동군 산업단지 추이	182
[표 6-18] 증평군 산업단지 추이	183
[표 6-19] 진천군 산업단지 추이	184
[표 6-20] 괴산군 산업단지 추이	185
[표 6-21] 음성군 산업단지 추이	186
[표 6-22] 단양군 산업단지 추이	187
[표 6-23] 충북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2015년 현재)	188
[표 6-24] 도시기본계획의 청주시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189
[표 6-25] 도시기본계획의 청주시 공업용지 소요면적	189
[표 6-26] 도시기본계획의 충주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189
[표 6-27] 도시기본계획의 충주시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190
[표 6-28] 도시기본계획의 제천시 개발가능지 분석	190
[표 6-29] 도시기본계획의 제천시 공업용지 면적 산정	190
[표 6-30] 도시기본계획의 보은군 개발가능지 분석	191
[표 6-31] 도시기본계획의 보은군 시가화예정용지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 계획	191
[표 6-32] 도시기본계획의 옥천군 개발가능지 분석	191
[표 6-33] 도시기본계획의 옥천군 공업용지 수요추정	192

[표 6-34] 도시기본계획의 영동군 개발가능지 분석	192
[표 6-35] 도시기본계획의 영동군 공업용지 수요추정	192
[표 6-36] 도시기본계획의 증평군 개발가능지 분석	193
[표 6-37] 도시기본계획의 증평군 공업용지 소요면적 추정결과	193
[표 6-38] 도시기본계획의 진천군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193
[표 6-39] 도시기본계획의 진천군 단계별·생활권별 공업용지 배분계획	194
[표 6-40] 도시기본계획의 괴산군 개발가능지 분석	194
[표 6-41] 도시기본계획의 괴산군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195
[표 6-42] 도시기본계획의 음성군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195
[표 6-43] 도시기본계획의 음성군 공업용지 수요면적 산정결과	195
[표 6-44]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개발가능지 분석표	196
[표 6-45]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196
[표 6-46]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토지이용계획	196
[표 6-47]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및 비중	197
[표 6-48]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및 비중	198
[표 6-49] 시·군 및 권역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산업시설용지) 비중	199
[표 6-50] 시·군 및 권역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	201
[표 6-51]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산업용지 유형별 공급규모	202
[표 7-1] 충북 시·군(권역별) 및 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와 산업단지 조성규모	208
[표 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제도	209
[표 7-3] 충북 시·군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2015년 현재)	210
[표 7-4]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211
[표 7-5]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211
[표 7-6] 2016~2025년 충북 계획입지 공급면적	212
[표 7-7] 충북 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사업 현황	213
[표 7-8] 충북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현재)	213

목 차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2-1] 충북의 산업구조	12
[그림 2-2] 충북의 4대 전략산업(2002~2015년)	13
[그림 2-3] 3·3·7 바이오밸리 프로젝트	15
[그림 2-4] 오송 바이오밸리 구상도	16
[그림 2-5] 충북의 태양광산업	17
[그림 2-6]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위치도	17
[그림 2-7] 청주에어로폴리스	18
[그림 2-8] 충북의 화장품뷰티산업	18
[그림 2-9] Organic 충북 2020	19
[그림 2-10] 충북의 ICT 기업	20
[그림 2-11]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23
[그림 2-12] 충북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생산액 추이	32
[그림 2-13] 충북 제조업 분야별 지역내총생산액 비중(2015년)	40
[그림 2-14]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비중(2014년)	41
[그림 2-15]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비중(2014년)	43
[그림 2-16] 「전국사업체조사」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비중(2014년)	44
[그림 2-17]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생산액 비중(2014년)	45
[그림 3-1] 충북 산업용지(FEMIS) 면적 추이	52
[그림 3-2]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비중 추이	53
[그림 3-3]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 연도별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	54
[그림 3-4] 충북 연도별·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56
[그림 3-5] 충북 연도별·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57
[그림 3-6]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58
[그림 3-7]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2015년)	59
[그림 3-8] 충북 각 시·군별 산업용지의 계획입지 면적 비중(2015년)	61
[그림 3-9] 충북 사업단지 현황도	62

[그림 3-10] 충북 산업단지 유형별 면적 비중(2015년)	63
[그림 3-11]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면적 비중(2015년)	64
[그림 3-12] 충북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유형별 미분양률 추이	70
[그림 3-13]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80
[그림 3-14]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80
[그림 3-15] 충북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83
[그림 3-16] 충북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및 개발면적 추이(누계)	84
[그림 3-1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86
[그림 3-1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및 분양면적 추이(누계)	88
[그림 3-19] 충북 산업시설용지 및 미분양면적(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90
[그림 3-20]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91
[그림 3-21] 충북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 및 미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92
[그림 3-22] 충북 산업시설용지 기준별(분양대상·분양공고) 미분양면적 비교	93
[그림 3-23]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률	94
[그림 3-24] 충북 산업시설용지 개발용지의 분양공고면적 및 미분양면적 추이(누계)	95
[그림 3-25] 충북 산업시설용지 기준별(분양대상과 개발용지·분양공고) 미분양면적 비교 ·	95
[그림 3-26]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률	96
[그림 4-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 13개 모형의 결과(8개 업종 합계)	116
[그림 4-2] 2006년~2014년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120
[그림 5-1]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130
[그림 5-2] 산업법 및 산집법의 목적	130
[그림 5-3] 산업입지 공급 관련 계획 체계	132
[그림 5-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140
[그림 5-5]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지역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143
[그림 5-6]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지역별 주력산업 배치도	144
[그림 5-7]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충북 비전과 목표	145
[그림 5-8]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의 비전 및 추진전략	146
[그림 5-9] 충청북도 공간발전구상	147
[그림 5-1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이념	148
[그림 5-11] 미래지향적 발전축 및 권역설정(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149
[그림 5-12] 충북경제 4%시대 구현계획의 비전과 발전목표	150

[그림 5-13] 충북경제 4%시대 구현계획의 목표 달성 시나리오	150
[그림 5-14] 클러스터사업 확대 개념도	155
[그림 5-15] 산업단지 수급관리 기본방향(국토연구원)	159
[그림 6-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163
[그림 6-2] 누적 면적 기준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165
[그림 6-3] 충북 산업입지 전년 대비 증가(신규) 면적의 계획입지비중 추이	166
[그림 6-4] 충북 지역산업 균형발전사업	172
[그림 6-5] 청주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77
[그림 6-6] 충주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78
[그림 6-7] 제천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79
[그림 6-8] 보은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0
[그림 6-9] 옥천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1
[그림 6-10]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2
[그림 6-11] 증평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3
[그림 6-12] 진천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4
[그림 6-13] 괴산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5
[그림 6-14] 음성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6
[그림 6-15] 단양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87
[그림 6-16]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및 비중(최근 10년)	197
[그림 6-17]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과 분양면적 비교(최근 10년)	198
[그림 6-18] 충북 시·군별 계획입지면적 추이	200

I .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명칭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2) 연구의 배경

- 충북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업들의 입지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업들의 입지수요는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산업용지의 수급분석,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방향 등을 검토한 토대에서 충북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필요함.

3) 연구의 목적

- 충북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연구의 범위

- 시간범위 : 충청북도 전역
- 공간범위 : 계획기간 2016년 ~ 2025년(10개년)
(자료의 기준연도 : 2015년)

5) 연구의 내용

I. 지역경제 현황분석

1. 산업구조 및 전략산업
2. 지역경제규모
3. 제조업 생산현황
4. 기업유치 현황

II. 산업입지 실태분석

1. 공장용지 현황(용도별, 규모별, 입지유형별)
2. 산업단지 현황(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3. 제조업 개별 입지 현황
4. 제조업 입지관련 법·제도분석

III.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분석

1. 수요예측 방법
2. 수요예측 모형 설정
3. 산업용지 수요전망
4. 법제검토
5. 관련정책 검토
6. 공급가능규모 분석

IV. 산업단지 중·장기 공급방안

1. 권역별 계획
2. 특화전략 산업별 계획
3. 업종별 계획

V. 충북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2. 연구의 준거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안)

(2017~2026)

2016. 4

국 토 교 통 부

제1장.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성격

제1절.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목적

- 1-1-1.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시·도에서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법적 근거

- 1-2-1. 본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를 둔다.

제3절.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

- 1-3-1. 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4절.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효력

- 1-4-1.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4-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부합되게 산업입지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향후 수급계획을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3.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⑤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한 산업입지수급계획이 본 지침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산업입지 수급계획 총괄

제1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목적

- 2-1-1.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성격

- 2-2-1.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 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 2-2-2.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 2-2-3.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의 산업여건 및 수요,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다.

제3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 2-3-1.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를 둔다.

제4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립권자

- 2-4-1.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제5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계획기간과 목표년도

- 2-5-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와 단계별 개발방안 등을 감안하여 목표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2-5-2.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감현황, 사유 등을 첨부하여 수정된 수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계획 수립의 대상 지역

- 2-6-1. 수급계획의 계획권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 2-6-2.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미리 인접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2-6-3. 시·도지사는 수급계획 수립 시 시·군·구별 또는 권역별로 수급을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내용

- 3-1-1. 산업입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②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③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④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 ⑦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3-2-1.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반영하되, 향후 산업단지 확대 계획 등 자체적인 발전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3-2-2. 시·도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을 고려하고 수급계획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 3-2-3. 산업입지 구조재편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수급계획의 실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3-2-4.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입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2-5. 물리적인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포괄하여 수립한다.
- 3-2-6.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일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될 수 있다.

- 3-2-7.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휴·폐업 면적,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활용 등 기존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우선 공급한다.
- 3-2-8.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하여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수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정·보완한다.

제3절. 계획수립의 유의사항

- 3-3-1.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수립 되어야 하며, 수급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 3-3-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부합되게 입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향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3-3-3. 수급계획 정비시에는 종전의 계획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3-3-4. 수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수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주) 이하 생략

Ⅱ. 지역경제 현황 분석

제2장 지역경제 현황 분석

1. 산업구조 및 전략산업

1) 충북의 산업구조

(1) 지역내총부가가치

- 지역내총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충북의 산업별 비중(2014년)은 2차 산업이 50.7%로 가장 높고 3차 산업이 45.4%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충북 지역내총부가가치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전국 대비 비중
총부가가치	36,393	39,154	40,163	43,937	45,809	3.4
1차 산업	1,652 (4.5)	1,848 (4.7)	1,920 (4.8)	1,835 (4.2)	1,803 (3.9)	5.7
2차 산업	18,264 (50.2)	19,665 (50.2)	19,730 (49.1)	22,452 (51.1)	23,225 (50.7)	4.6
3차 산업	16,478 (45.3)	17,641 (45.1)	18,512 (46.1)	19,651 (44.7)	20,781 (45.4)	2.5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당해년가격)

주2) ()는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산업별 취업자

- 충북의 산업별 취업자 수의 비중은 2014년 현재, 1차 산업이 11.7%, 2차 산업이 19.8%, 3차 산업이 68.5%를 차지하고 있음.
- 3차 산업의 취업자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 충북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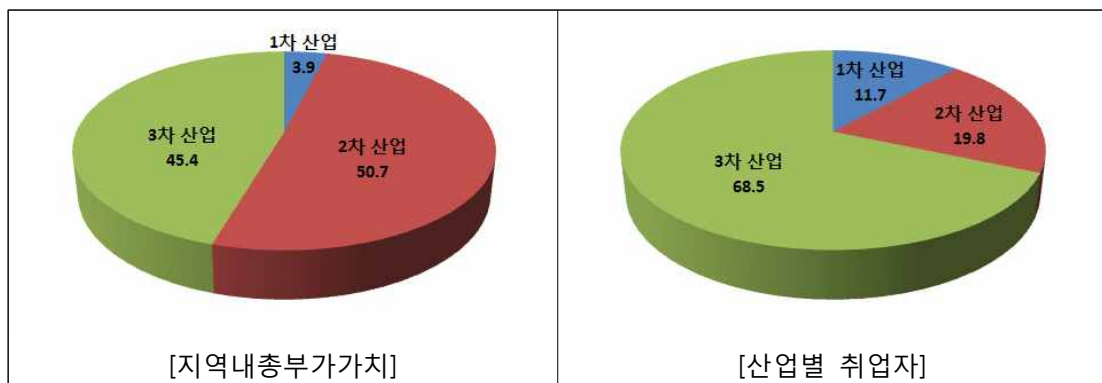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1차 산업	취업자 수	98	98	96	96	95	
	비 중	13.3	13.1	12.8	12.4	11.7	
2차 산업	취업자 수	150	149	150	157	160	
	비 중	20.4	20.0	20.0	20.2	19.8	
3차 산업	취업자 수	489	498	505	522	555	
	비 중	66.4	66.8	67.2	67.3	68.5	

주)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3) 지역산업구조

- 지역내총부가가치와 산업별 취업자로 충북의 산업구조를 유추해보면 취업자는 3차 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의 규모면에서는 2차 산업이 3차 산업에 비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임.

[그림 2-1] 충북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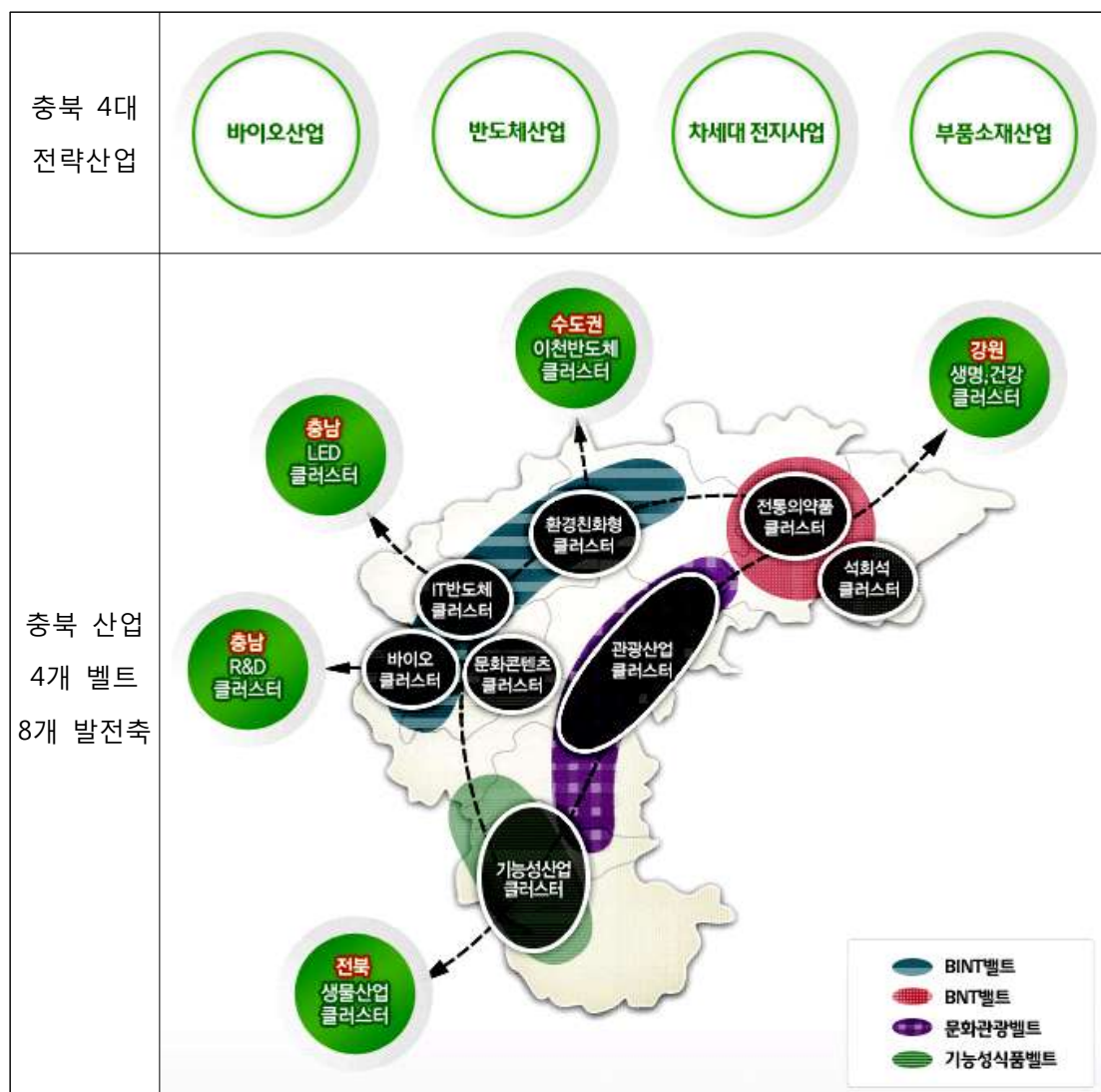


2) 충북의 전략산업

(1) 4대 전략산업(2002년~2015년)

- 충북은 2002년부터 4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전지, 부품소재를 선정하고 지역의 산업, 자원, 기능,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충북 전역을 4개 벨트와 8개 발전축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2-2] 충북의 4대 전략산업(2002~2015년)



- 한국은행의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요인 및 산업간 연관구조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에 따른 충북 전략산업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3] 충북 전략산업 산업분류표

전략산업	산업연관표(168 부문)	전국 사업체조사 보고서(3단위)
바이오	기타식료품 기타 유기화학기초제품 비료 및 농약 의약품, 화장품 비누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업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제조업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차세대전지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기타 전기장치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부품소재 (전기·전자융합)	전기표시장치 기타 전자 부품품 영상음향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주) 출처: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요인 및 산업간 연관구조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한국은행, 2011

(2) 6대 신성장동력산업(2015년 이후)

- 충북은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아 바이오, 태양광, 항공정비(MRO),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ICT)을 충북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음.

□ 바이오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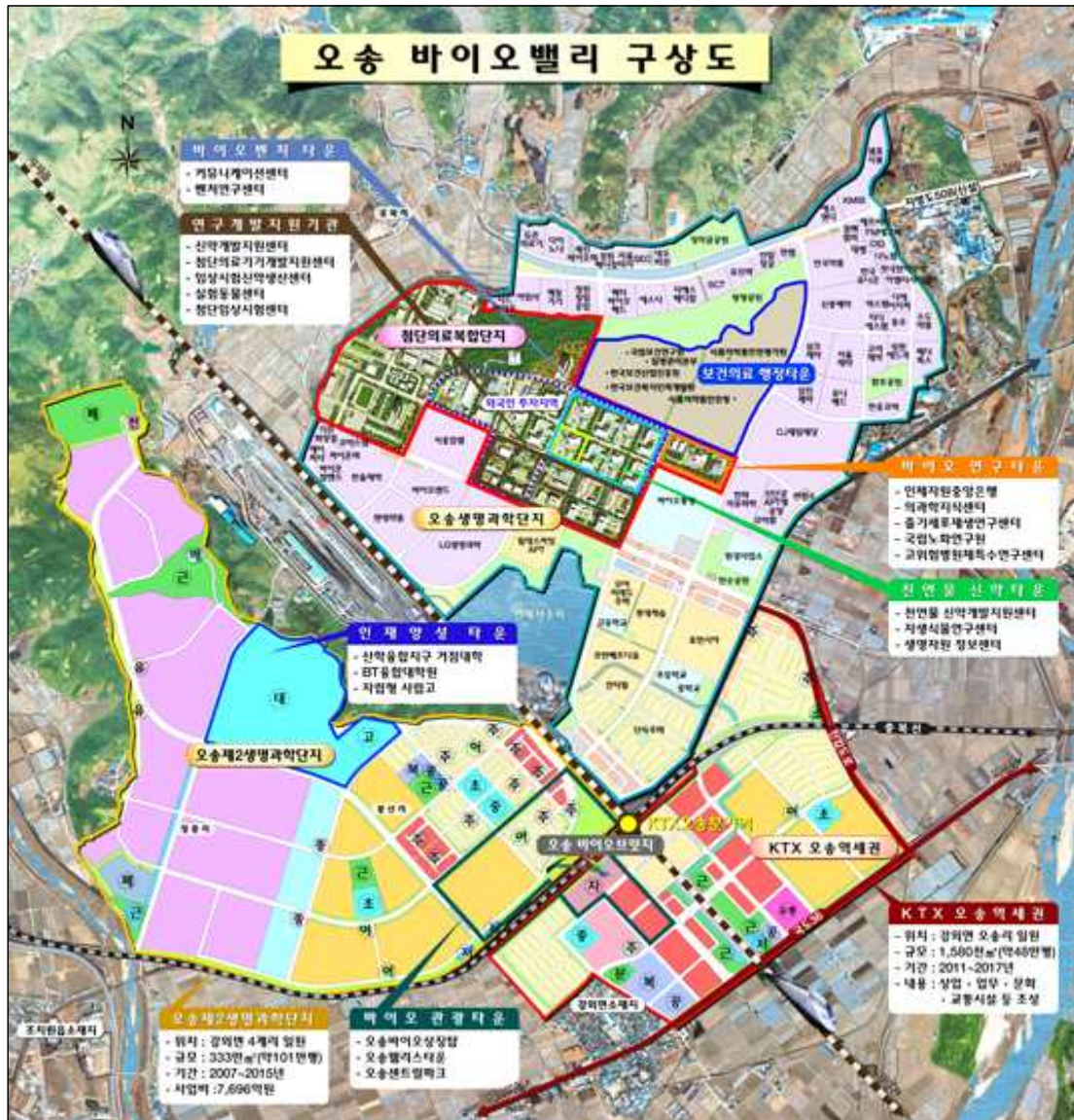
- 충북은 2013년부터 세계 3대 바이오밸리(Bio Valley)로의 도약을 위해 3대 발전축, 7대 거점지구를 적극 육성하는 '3·3·7 바이오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3대 발전축은 Medi Bio, Healing Bio, Eco Bio이며 청주는 바이오, 의료서비스, 옥천은 의료기기, 보은과 영동은 휴양·기능성식품, 괴산은 유기농·발효식품, 제천과 단양은 한방, 치료, 충주와 증평은 첨단소재, 바이오에너지, 진천과 음성은 화장품, 화학의 거점으로 선정하였음.

[그림 2-3] 3·3·7 바이오밸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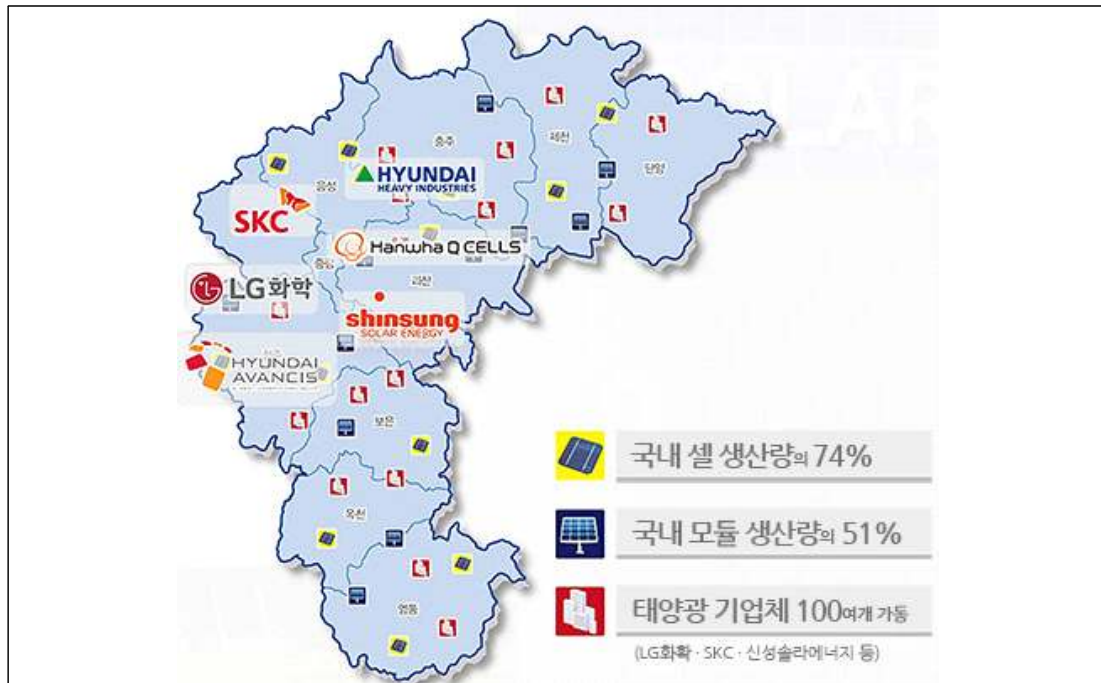
- 오송 바이오밸리는 세계적 연구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인 오송첨단복합단지와 2개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등으로 구성됨.
- 바이오밸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국책기관이 입주한 오송행정타운과 국립중앙 인체자원은행, 국립의과학센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와 같은 연구지원시설 및 대학, 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2-4] 오송 바이오밸리 구상도

☐ 태양광산업

- 충북은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청주,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셀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Invest Korea 충청북도 발췌).
- 또한 현대중공업, 신성솔라에너지,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 등 160여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음.

[그림 2-5] 충북의 태양광산업



○ 충북은 청주·오창권, 음성·증평권, 충주권의 3개 단지 조성하여 태양광산업의 생산·보급·연계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솔라밸리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2-6]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위치도



□ 항공정비산업(MOR;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수리·정비(MOR)단지 조성사업인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주에어로폴리스는 항공기 기체 중정비, 항공교육센터, 연구시설 등의 1지구(항공정비단지)와 항공부품 생산·조립, 항공물류시설의 2지구(항공산업단지)로 계획됨.

[그림 2-7] 청주에어로폴리스



□ 화장품뷰티산업

- 충북에는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663개의 주요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함(Invest Korea 충청북도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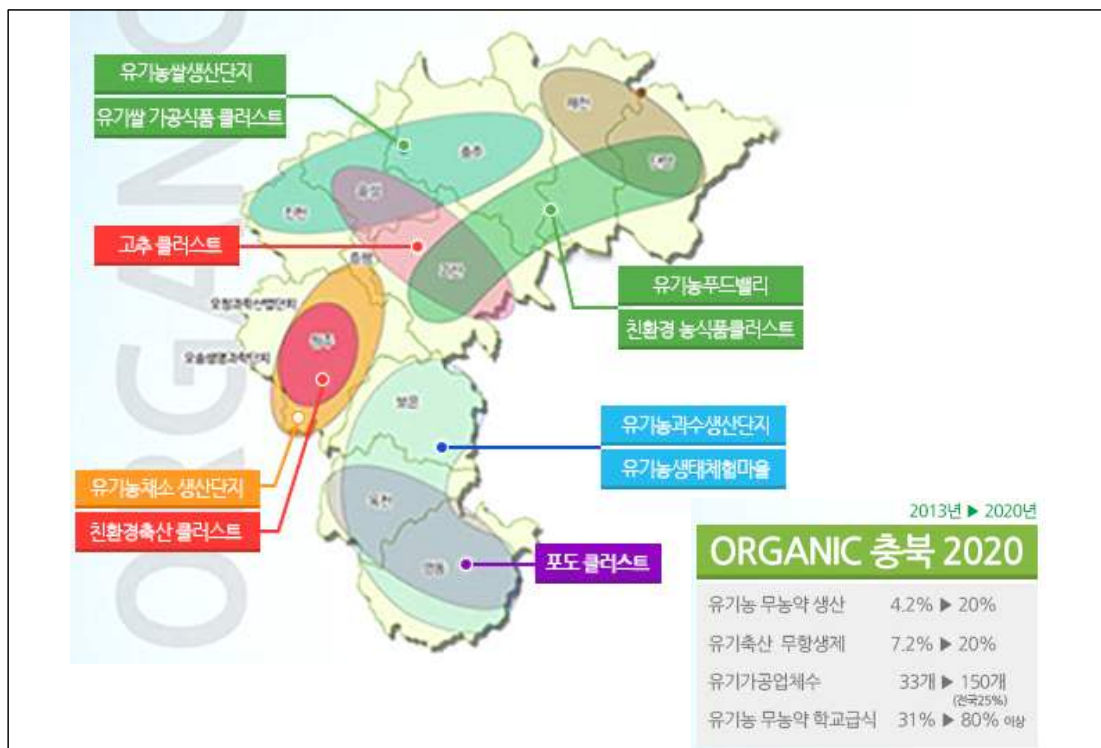
[그림 2-8] 충북의 화장품뷰티산업



□ 유기농산업

- 충북은 유기농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선언하고, 오가닉(Organic) 충북 2020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기반 조성 등 약 57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음.
- Organic 충북 2020은 유기농·무농약 생산비율을 2013년 4.2%에서 2020년 20%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비율을 7.2%에서 20%로, 유기가공업체 수를 33개에서 150개(전국 25%)로, 유기농·무농약 학교급식비율을 31%에서 80% 이상으로 향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림 2-9] Organic 충북 2020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

- 충북에는 SK하이닉스, 동부 하이텍 등 120개의 ICT 반도체 기업과 ICT산업과 연계한 2차전지 분야에 LG화학, W-SCOPE 등 20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그림 2-10] 충북의 ICT 기업



(3)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2016년)

- 충북은 기존의 6대 신성장산업을 확대·재편하고 4대 미래유망산업을 새로이 선정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표 2-4] 충북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

구 분	산 업 명	비 고
신성장 산업	①바이오산업 ②태양광·신에너지산업(기존 태양광산업 산업) ③화장품·뷰티산업 ④유기농산업 ⑤신교통·항공산업(기존 항공정비산업) ⑥ICT융합산업	
미래유망 산업	①고령친화산업 ②기후·환경산업 ③관광·스포츠산업 ④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뿌리산업 신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참조)	

주) 자료: 충청북도(2016년 3월)

(4) 대표 산업 현황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충북 대표 산업의 종사자 수, 기업체 수 및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5] 충북 대표 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연평균증가율	
								충북	전국
합 계	사업체 수	1,328	1,483	1,608	1,828	2,079	18.0	11.9	9.7
	종사자 수	56,587	64,656	65,014	70,567	74,728	41.9	7.2	5.4
	생산액	29,316,429	31,418,639	31,070,144	32,233,850	33,840,888	53.7	3.7	2.7
반도체	사업체 수	102	117	137	146	159	1.4	11.7	9.4
	종사자 수	11,667	12,282	12,333	14,307	14,389	8.1	5.4	2.7
	생산액	5,223,934	5,713,226	6,271,600	7,463,747	7,962,010	12.6	11.1	4.3
바이오 의학	사업체 수	89	88	88	93	96	0.8	1.9	3.1
	종사자 수	4,435	4,573	4,959	5,247	5,250	2.9	4.3	4.1
	생산액	2,593,394	2,285,226	2,515,028	2,680,528	2,781,669	4.4	1.8	1.3
전기전자 부품	사업체 수	171	190	210	224	233	2.0	8.0	13.1
	종사자 수	14,657	17,346	16,961	17,177	17,696	9.9	4.8	5.6
	생산액	10,041,954	9,838,471	8,830,452	7,883,573	8,395,427	13.3	-4.4	-1.9
태양광	사업체 수	142	160	171	201	235	2.0	13.4	8.4
	종사자 수	4,925	5,415	2,697	2,881	3,799	2.1	-6.3	4.0
	생산액	1,815,076	2,013,178	632,946	639,984	962,465	1.5	-14.7	-1.5
동력기반 기계부품	사업체 수	282	337	346	445	544	4.7	17.9	9.3
	종사자 수	8,180	9,596	9,901	11,446	12,526	7.0	11.2	6.9
	생산액	3,189,981	3,681,837	3,838,853	4,190,886	4,425,098	7.0	8.5	8.8
화장품 뷰티	사업체 수	268	282	289	316	343	3.0	6.4	7.3
	종사자 수	6,070	6,458	6,954	7,754	8,222	4.6	7.9	7.0
	생산액	3,625,709	3,755,289	3,796,743	4,196,355	3,976,548	6.3	2.3	7.5
이차전지	사업체 수	161	171	200	226	267	2.3	13.5	6.2
	종사자 수	4,979	6,331	7,977	8,499	9,668	5.4	18.0	4.9
	생산액	2,630,066	3,658,139	4,594,674	4,676,639	4,878,394	7.7	16.7	2.0
의료기기	사업체 수	113	138	167	177	202	1.7	15.6	10.4
	종사자 수	1,674	2,655	3,232	3,256	3,178	1.8	17.4	6.7
	생산액	196,315	473,273	589,848	502,138	459,274	0.7	23.7	5.7

주1) 출처: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 충청북도, 2015

주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종사자 수, 기업체 수), 광업·제조업조사(생산액)

주3) 비중은 2013년 충북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4) 연평균증가율은 충북 및 전국 대표 산업의 2009년~2013년 간 연평균증가율

- 전기전자부품 및 태양광산업의 일부 지표를 제외한 충북 대표 산업의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임.
- 전기전자부품은 시장 불황, 수요 부진, 경기 침체로 인한 소극적 투자 등으로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산업은 2010년~2014년 동안의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충북 대표 산업의 종사자 수는 제조업 전체에서 41.9%를 차지하고 생산액은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과 비교 시 연평균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에 따르면, 충북 대표산업은 태양광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특화도가 1 이상으로 특화정도가 높음.
- 특히 바이오의약품산업의 특화도가 3.3으로 가장 높고 태양광산업도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2-6] 충북 대표 산업별 특화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합 계	1.5	1.5	1.5	1.5	1.5	
반도체	2.0	2.0	2.1	2.2	2.1	
바이오의약	3.5	3.3	3.6	3.4	3.3	
전기전자부품	1.3	1.4	1.4	1.2	1.2	
태양광	1.5	1.4	0.7	0.7	0.9	
동력기반기계부품	1.0	1.0	1.0	1.1	1.1	
화장품뷰티	2.2	2.2	2.3	2.3	2.1	
이차전지	1.8	2.1	2.5	2.5	2.6	
의료기기	0.7	1.0	1.1	1.1	1.0	

주1) 출처: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 충청북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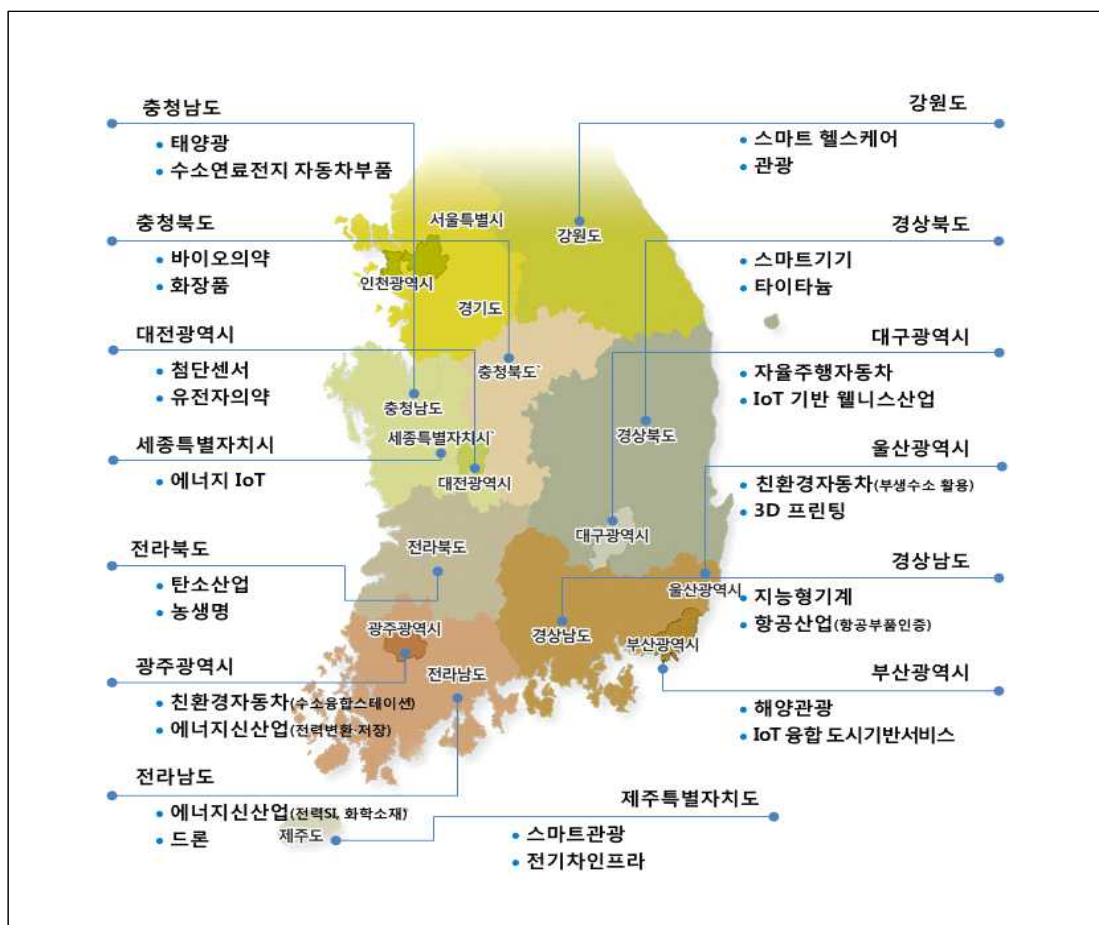
주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주3) 특화도_{ij} = (i시도j산업종사자/i시도 종사자)/(전국 j산업종사자/전국 종사자)

(5)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나타난 주력산업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뿌리산업 육성, 임베디드SW 등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 성장동력산업은 13대 미래 성장동력과 IT 기반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임.
-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목표는 전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임.
- 추진과제는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 지정, 맞춤형 정부지원,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등이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임.
- 충북의 전략산업으로는 앞서서도 언급된 바 있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 선정되었음.

[그림 2-11]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주) 자료: 기획재정부, 2015.12

2. 경제규모

1) 인구

- 충북의 인구는 2016년 12월 현재 1,627,124명(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지속적인 소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적 의미가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도 2000년 1,150천명에서 2016년 1,341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현재 63.6%, 실업률은 2.6%를 타나내고 있음.

[표 2-7] 충북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 구	1,501	1,502	1,574	1,589	1,590	1,600	1,610	1,617	1,627
15세 이상 인구	1,150	1,175	1,236	1,250	1,279	1,298	1,311	1,331	1,341
경제활동참가율	60.0	59.4	61.0	61.1	59.9	61.0	63.7	63.9	63.6
실업자 수	25	16	16	18	15	16	25	22	23
실업률	3.6	2.2	2.2	2.4	2.0	2.1	3.0	2.6	2.6

주) 자료: 인구는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포함), 그 외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역내총생산(GRDP)

(1) 지역내총생산액 및 비중

-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015년 현재, 약 52.4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2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2015년 현재, 5.2%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전국 대비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15년 3.3%로 다소 증가하였음.

[표 2-8]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내총부가가치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충북 GRDP	금 액	20,342	27,576	39,470	42,489	43,628	47,402	49,791	52,364
	증가율								
	충북	5.9	-0.7	13.3	7.6	2.7	8.7	5.0	5.2
	전국	10.0	4.7	9.9	5.2	3.5	3.9	3.9	5.3
전국 대비 비중		3.2	3.0	3.1	3.2	3.2	3.3	3.4	3.3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당해년가격, 2015년은 잠정치)

주2) GRDP 증가율은 전년도 기준

○ 전국 시·도 중에서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은 2000년 12위에서 2015년 10위로 높아졌으나 경기도의 1/7, 충남의 1/2 수준에 불과함.

[표 2-9] 시·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단위: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서울	1	25.0	1	23.9	1	22.9	2	22.1
부산	5	5.6	6	5.5	6	5.0	6	5.0
대구	10	3.5	10	3.3	11	3.0	11	3.1
인천	9	4.6	7	4.8	8	4.8	7	4.9
광주	15	2.1	15	2.1	15	2.1	15	2.1
대전	14	2.3	14	2.2	14	2.2	14	2.2
울산	7	4.9	8	4.7	7	5.0	8	4.5
경기	2	18.8	2	20.2	2	21.1	1	22.4
강원	13	2.7	13	2.6	13	2.4	13	2.5
충북	12	3.2	11	3.0	10	3.1	10	3.3
충남	6	5.0	5	5.6	4	6.6	3	7.1
전북	11	3.2	12	2.9	12	2.9	12	2.9
전남	8	4.8	9	4.7	9	4.7	9	4.2
경북	4	6.7	4	6.7	5	6.4	5	6.1
경남	3	6.7	3	6.9	3	6.9	4	6.6
제주	16	0.9	16	0.9	16	0.9	16	1.0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당해년가격, 2015년은 잠정치 기준)

주2) 세종시는 기존 지역(충남·북) 포함

(2) 1인당 생산액, 소득 및 소비

○ 충북의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2015년 현재 33,395천원(잠정치)으로 전국(30,892천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은 5.5%임.

- 인구 1인당 지역총소득액은 2015년 현재 28,162천원(잠정치)으로 전국(31,035천원)보다 낮고 개인소득액도 15,745천원으로, 전국(17,168천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민간소비액 역시 전국(15,274천원)보다 낮은 13,623천원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증가율은, 지역소득과 민간소비는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소득은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은 6위, 지역총소득은 8위, 개인소득은 13위, 민간소비는 11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충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소득 및 소비

(단위: 천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순위 (2015년)
지역내 총생산	전 국	25,605 (9.4)	26,736 (4.4)	27,538 (3.0)	28,480 (3.4)	29,460 (3.4)	30,892 (4.9)	3.8	6
	충 북	25,939 (12.8)	27,619 (6.5)	28,146 (1.9)	30,406 (8.0)	31,807 (4.6)	33,395 (5.0)		
지역 총소득	전 국	25,631 (9.7)	26,893 (4.9)	27,821 (3.4)	28,683 (3.1)	29,553 (3.0)	31,035 (5.0)	3.9	8
	충 북	22,285 (7.5)	23,371 (4.9)	24,173 (3.4)	26,238 (8.5)	26,709 (1.8)	28,162 (5.4)		
개인 소득	전 국	14,109 (6.8)	14,752 (4.6)	15,316 (3.8)	15,865 (3.6)	16,499 (4.0)	17,168 (4.1)	4.0	13
	충 북	13,145 (6.8)	13,400 (1.9)	14,149 (5.6)	14,573 (3.0)	14,945 (2.6)	15,745 (5.4)		
민간 소비	전 국	12,910 (6.7)	13,641 (5.7)	14,185 (4.0)	14,531 (2.4)	14,875 (2.4)	15,274 (2.7)	3.4	11
	충 북	11,183 (7.7)	11,800 (5.5)	12,358 (4.7)	12,775 (3.4)	13,176 (3.1)	13,623 (3.4)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5년은 잠정치)

주2)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주3) 전국순위는 2015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중 순위임. 세종시는 기존 지역(충남·북)에 포함

3) 수출

- 충북의 수출금액은 2016년 현재 약 145억 달러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5.8% 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비중측면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약 3.2%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표 2-11] 충북의 수출금액

(단위: USD 1,000,000,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 금액	전 국	466,139 (28.3)	554,951 (19.1)	547,491 (-1.3)	559,242 (2.1)	572,214 (2.3)	526,319 (-8.0)	449,877 (-14.5)	-0.6
	충 북	10,329 (27.9)	12,165 (17.8)	12,041 (-1.0)	13,698 (13.8)	14,166 (3.4)	15,127 (6.8)	14,450 (-4.5)	5.8
전국 비중		2.2	2.2	2.2	2.4	2.5	2.9	3.2	

주1) 자료: 관세청, 지역별무역통계

주2)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충북의 성질별 수출금액을 보면 2015년 현재, 중화학공업품의 비중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기계류와 정밀기기(12.7%), 화공품(12.3%)이 뒤를 잇고 있으며 중화학공업품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2] 충북의 성질별 수출금액 비중

(단위: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식료 및 직접소비재		1.7	2.0	2.3	2.3
원료 및 연료		2.3	1.3	0.8	0.7
경공업품	섬유원료	0.1	0.1	0.1	0.0
	섬유사	0.2	0.4	0.2	0.2
	직물	1.8	0.8	0.3	0.2
	기타 섬유제품	0.6	0.8	0.4	0.4
	의류	0.4	0.1	0.0	0.0
	목제품	0.1	0.1	0.0	0.1
	가죽, 고무 및 신발류	0.2	0.3	0.4	0.3
	귀금속 및 보석류	0.0	0.0	0.1	0.2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0.2	0.2	0.5	0.5
	완구, 운동용구 및 악기	0.2	0.1	0.2	0.1
	기타	4.6	5.9	3.8	3.1
	소계	8.5	8.7	6.1	5.2
중화학 공업품	화공품	4.8	7.3	10.0	12.3
	철강제품	2.2	4.2	4.8	4.7
	기계류와 정밀기기	3.4	12.2	17.4	12.7
	전기·전자제품	75.9	59.1	53.0	57.6
	수송장비	0.9	4.1	4.8	3.4
	기타	0.4	1.0	0.9	1.0
	소계	87.6	87.9	90.8	91.8

주) 자료: 관세청, 지역별무역통계

3. 제조업 생산 현황

1) 전체 현황 및 전국 비중

(1) 제조업 사업체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05년 1,939개에서 2014년 2,809개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2005년 3.4%에서 4.1%로 증가하였음.

[표 2-13]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전 국	57,198	100.0	61,785	100.0	57,996	100.0	63,047	100.0	65,389	100.0	68,640	100.0	2.0
서 울	5,656	9.9	5,936	9.6	5,093	8.8	4,825	7.7	4,269	6.5	4,589	6.7	-2.3
부 산	3,942	6.9	3,995	6.5	3,825	6.6	3,984	6.3	4,064	6.2	4,185	6.1	0.7
대 구	2,936	5.1	3,086	5.0	2,869	4.9	3,238	5.1	3,273	5.0	3,308	4.8	1.3
인 천	4,754	8.3	4,976	8.1	4,281	7.4	4,525	7.2	4,645	7.1	4,870	7.1	0.3
광 주	980	1.7	1,027	1.7	1,066	1.8	1,114	1.8	1,086	1.7	1,146	1.7	1.8
대 전	647	1.1	718	1.2	728	1.3	833	1.3	841	1.3	847	1.2	3.0
울 산	1,148	2.0	1,225	2.0	1,244	2.1	1,443	2.3	1,615	2.5	1,752	2.6	4.8
세 종	-	-	-	-	-	-	-	-	255	0.4	266	0.4	9.7
경 기	19,849	34.7	21,481	34.8	20,050	34.6	21,838	34.6	22,792	34.9	23,955	34.9	2.1
강 원	729	1.3	759	1.2	762	1.3	802	1.3	861	1.3	915	1.3	2.6
충 북	1,939	3.4	2,254	3.6	2,050	3.5	2,331	3.7	2,590	4.0	2,807	4.1	4.2
충 남	2,530	4.4	2,879	4.7	2,901	5.0	3,296	5.2	3,568	5.5	3,740	5.4	4.4
전 북	1,271	2.2	1,379	2.2	1,593	2.7	1,720	2.7	1,824	2.8	1,835	2.7	4.2
전 남	1,190	2.1	1,276	2.1	1,331	2.3	1,466	2.3	1,511	2.3	1,641	2.4	3.6
경 북	3,768	6.6	4,132	6.7	3,972	6.8	4,614	7.3	4,924	7.5	5,183	7.6	3.6
경 남	5,717	10.0	6,500	10.5	6,075	10.5	6,843	10.9	7,078	10.8	7,396	10.8	2.9
제 주	142	0.2	162	0.3	156	0.3	175	0.3	193	0.3	205	0.3	4.2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거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제조업 체 수는 2006년에 8,801개에서 2014년 11,564개로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2.7%에서 2.9%로 증가하였음.

[표 2-14]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시·도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전 국	331,519	100.0	332,617	100.0	320,374	100.0	340,909	100.0	370,616	100.0	397,171	100.0	2.3
서 울	63,829	19.3	61,718	18.6	54,947	17.2	56,026	16.4	58,551	15.8	61,218	15.4	-0.5
부 산	27,280	8.2	27,184	8.2	25,805	8.1	26,519	7.8	27,751	7.5	28,926	7.3	0.7
대 구	23,291	7.0	23,086	6.9	22,557	7.0	23,962	7.0	25,426	6.9	26,036	6.6	1.4
인 천	20,879	6.3	21,006	6.3	19,560	6.1	20,922	6.1	22,175	6.0	23,276	5.9	1.4
광 주	7,328	2.2	7,491	2.3	7,333	2.3	7,478	2.2	7,816	2.1	8,278	2.1	1.5
대 전	6,382	1.9	6,422	1.9	6,295	2.0	6,592	1.9	7,085	1.9	7,438	1.9	1.9
울 산	5,027	1.5	4,984	1.5	4,875	1.5	5,322	1.6	6,096	1.6	6,489	1.6	3.2
세 종	-	-	-	-	-	-	-	-	761	0.2	892	0.2	14.8
경 기	86,289	26.0	87,765	26.4	86,420	27.0	96,204	28.2	106,817	28.8	116,630	29.4	3.8
강 원	6,341	1.9	6,353	1.9	6,181	1.9	6,236	1.8	6,804	1.8	7,463	1.9	2.1
충 북	8,801	2.7	8,965	2.7	9,009	2.8	9,479	2.8	10,599	2.9	11,564	2.9	3.5
충 남	11,679	3.5	11,833	3.6	11,780	3.7	12,637	3.7	13,452	3.6	14,937	3.8	3.1
전 북	9,259	2.8	9,449	2.8	9,417	2.9	9,682	2.8	10,471	2.8	11,552	2.9	2.8
전 남	10,307	3.1	10,262	3.1	10,006	3.1	10,254	3.0	10,995	3.0	11,885	3.0	1.8
경 북	18,099	5.5	18,496	5.6	18,670	5.8	19,944	5.9	22,842	6.2	25,120	6.3	4.2
경 남	24,808	7.5	25,663	7.7	25,597	8.0	27,772	8.1	30,922	8.3	33,313	8.4	3.8
제 주	1,920	0.6	1,940	0.6	1,922	0.6	1,880	0.6	2,053	0.6	2,154	0.5	1.4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2) 제조업 종사자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2005년 106,192명에서 2014년 149,636명으로, 연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도 2005년 4.3%에서 2014년 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전 국	2,443,197	100.0	2,507,598	100.0	2,452,880	100.0	2,694,782	100.0	2,813,575	100.0	2,904,914	100.0	1.9
서 울	148,194	6.1	147,950	5.9	131,797	5.4	121,635	4.5	110,725	3.9	115,094	4.0	-2.8
부 산	134,928	5.5	132,417	5.3	125,567	5.1	132,804	4.9	139,332	5.0	141,460	4.9	0.5
대 구	96,293	3.9	97,269	3.9	95,272	3.9	103,417	3.8	111,435	4.0	112,258	3.9	1.7
인 천	168,086	6.9	168,850	6.7	155,996	6.4	165,308	6.1	168,865	6.0	172,992	6.0	0.3
광 주	52,688	2.2	55,107	2.2	56,909	2.3	60,399	2.2	62,744	2.2	62,972	2.2	2.0
대 전	30,463	1.2	32,365	1.3	32,925	1.3	38,739	1.4	37,471	1.3	40,789	1.4	3.3
울 산	138,025	5.6	141,025	5.6	138,377	5.6	145,580	5.4	157,503	5.6	166,114	5.7	2.1
세 종	-	-	-	-	-	-	-	-	14,819	0.5	16,195	0.6	5.2
경 기	764,318	31.3	751,733	30.0	724,730	29.5	809,745	30.0	844,866	30.0	870,000	29.9	1.4
강 원	26,858	1.1	27,916	1.1	28,023	1.1	31,244	1.2	32,149	1.1	33,822	1.2	2.6
충 북	106,192	4.3	115,791	4.6	116,892	4.8	130,927	4.9	138,541	4.9	149,636	5.2	3.9
충 남	157,358	6.4	174,778	7.0	182,757	7.5	218,617	8.1	225,629	8.0	233,785	8.0	4.5
전 북	63,824	2.6	65,565	2.6	73,721	3.0	83,142	3.1	91,471	3.3	92,598	3.2	4.2
전 남	60,515	2.5	65,396	2.6	66,805	2.7	74,826	2.8	80,268	2.9	86,572	3.0	4.1
경 북	208,418	8.5	216,820	8.6	210,827	8.6	238,547	8.9	251,175	8.9	254,246	8.8	2.2
경 남	283,953	11.6	311,262	12.4	308,557	12.6	335,943	12.5	342,259	12.2	351,801	12.1	2.4
제 주	3,084	0.1	3,354	0.1	3,725	0.2	3,909	0.1	4,323	0.2	4,580	0.2	4.5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거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2006년에 126,828명에서 2014년 178,424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음.

○ 전국 대비 충북의 제조업체 종사자 비중도 2006년 3.8%에서 2014년 4.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시·도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전 국	3,341,278	100.0	3,334,889	100.0	3,269,339	100.0	3,587,482	100.0	3,802,218	100.0	3,957,394	100.0	2.1
서 울	391,086	11.7	346,667	10.4	282,583	8.6	274,809	7.7	272,972	7.2	283,523	7.2	-3.9
부 산	197,261	5.9	197,821	5.9	188,207	5.8	199,034	5.5	209,159	5.5	215,743	5.5	1.1
대 구	151,998	4.5	150,476	4.5	147,847	4.5	161,709	4.5	173,214	4.6	175,869	4.4	1.8
인 천	225,572	6.8	222,740	6.7	208,176	6.4	223,240	6.2	229,736	6.0	235,135	5.9	0.5
광 주	68,200	2.0	69,710	2.1	71,489	2.2	76,270	2.1	78,579	2.1	81,847	2.1	2.3
대 전	45,536	1.4	45,436	1.4	47,818	1.5	54,271	1.5	56,458	1.5	58,590	1.5	3.2
울 산	142,654	4.3	147,532	4.4	149,423	4.6	158,295	4.4	178,722	4.7	185,223	4.7	3.3
세 종	-	-	-	-	-	-	-	-	17,809	0.5	18,004	0.5	3.6
경 기	981,276	29.4	979,661	29.4	970,254	29.7	1,087,312	30.3	1,151,475	30.3	1,208,904	30.5	2.6
강 원	40,658	1.2	41,754	1.3	42,029	1.3	45,965	1.3	48,426	1.3	52,104	1.3	3.1
충 북	126,828	3.8	130,848	3.9	138,942	4.2	153,870	4.3	166,728	4.4	178,424	4.5	4.4
충 남	188,417	5.6	192,861	5.8	204,053	6.2	248,058	6.9	257,231	6.8	265,732	6.7	4.4
전 북	82,998	2.5	85,777	2.6	93,115	2.8	104,949	2.9	115,579	3.0	119,955	3.0	4.7
전 남	88,858	2.7	89,137	2.7	91,158	2.8	100,239	2.8	104,818	2.8	112,180	2.8	3.0
경 북	255,998	7.7	254,310	7.6	252,196	7.7	286,249	8.0	311,858	8.2	321,114	8.1	2.9
경 남	346,105	10.4	372,165	11.2	373,509	11.4	404,778	11.3	419,985	11.0	434,980	11.0	2.9
제 주	7,833	0.2	7,994	0.2	8,540	0.3	8,434	0.2	9,469	0.2	10,067	0.3	3.2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3) 제조업 생산액

○ 충북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의 생산액은 2005년 약 30조원에서 2014년 약 6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3.8%에서 4.4%로 증가하였음.

○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17개 시·도 중 충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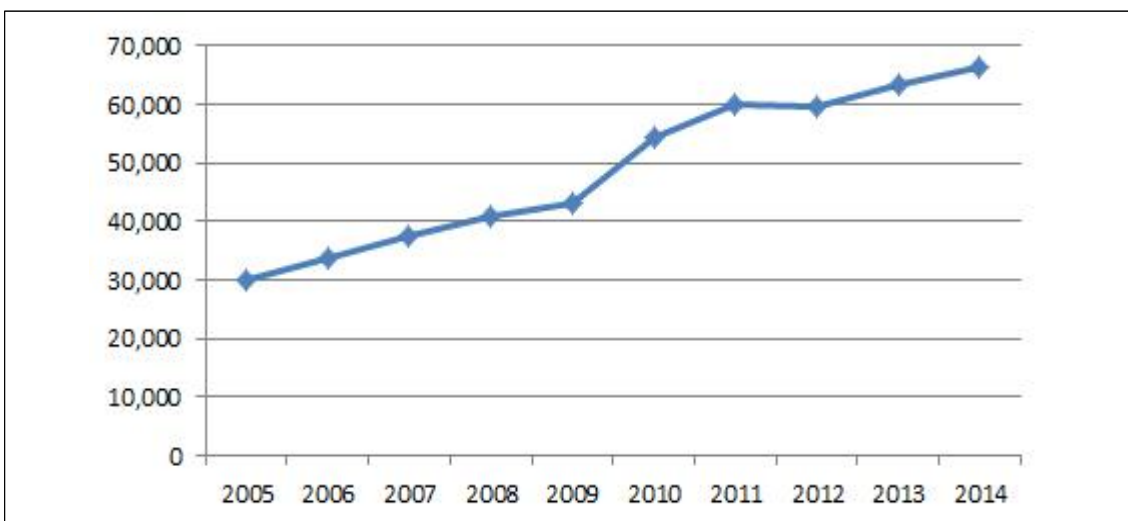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전 국	801,683	100.0	948,644	100.0	1,121,973	100.0	1,502,353	100.0	1,495,730	100.0	1,489,213	100.0	7.1
서 울	26,059	3.3	27,735	2.9	30,995	2.8	33,427	2.2	31,931	2.1	31,968	2.1	2.3
부 산	25,546	3.2	29,880	3.1	36,045	3.2	43,658	2.9	40,414	2.7	41,452	2.8	5.5
대 구	17,650	2.2	19,691	2.1	20,092	1.8	27,198	1.8	28,327	1.9	28,411	1.9	5.4
인 천	43,167	5.4	53,607	5.7	51,573	4.6	65,862	4.4	64,143	4.3	66,263	4.4	4.9
광 주	15,938	2.0	18,713	2.0	20,752	1.8	30,199	2.0	29,422	2.0	31,202	2.1	7.7
대 전	8,654	1.1	9,511	1.0	11,629	1.0	15,162	1.0	16,248	1.1	17,367	1.2	8.0
울 산	106,935	13.3	129,936	13.7	152,259	13.6	228,208	15.2	216,641	14.5	209,000	14.0	7.7
세 종	-	-	-	-	-	-	-	-	7,028	0.5	7,453	0.5	6.3
경 기	186,167	23.2	211,764	22.3	235,326	21.0	311,057	20.7	333,396	22.3	339,974	22.8	6.9
강 원	7,298	0.9	8,122	0.9	9,127	0.8	10,959	0.7	11,190	0.7	12,098	0.8	5.8
충 북	30,159	3.8	37,585	4.0	43,113	3.8	60,075	4.0	63,296	4.2	66,236	4.4	9.1
충 남	73,233	9.1	93,674	9.9	128,181	11.4	188,518	12.5	177,896	11.9	177,045	11.9	10.3
전 북	21,072	2.6	25,238	2.7	30,166	2.7	43,652	2.9	43,723	2.9	44,011	3.0	8.5
전 남	57,683	7.2	69,229	7.3	83,135	7.4	123,495	8.2	126,018	8.4	116,764	7.8	8.2
경 북	99,302	12.4	108,376	11.4	133,542	11.9	165,356	11.0	159,884	10.7	155,967	10.5	5.1
경 남	82,131	10.2	104,883	11.1	135,057	12.0	154,293	10.3	144,988	9.7	142,673	9.6	6.3
제 주	688	0.1	700	0.1	979	0.1	1,233	0.1	1,184	0.1	1,329	0.1	7.6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그림 2-12] 충북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생산액 추이



주)단위: 십억원

(4) 제조업 부가가치

- 충북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은 2005년 약 13조원에서 2014년 약 26조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4.5%에서 5.3%로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액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17개 시·도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8]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액	비율	부가가치액	비율	부가가치액	비율	부가가치액	비율	부가가치액	비율	부가가치액	비율	
전국	291,153	100.0	329,011	100.0	374,501	100.0	480,203	100.0	479,281	100.0	484,485	100.0	5.8
서울	11,234	3.9	12,122	3.7	13,170	3.5	14,681	3.1	13,622	2.8	13,869	2.9	2.4
부산	9,331	3.2	10,394	3.2	12,555	3.4	13,842	2.9	13,097	2.7	14,157	2.9	4.7
대구	6,476	2.2	7,069	2.1	7,140	1.9	8,925	1.9	9,652	2.0	9,688	2.0	4.6
인천	13,657	4.7	16,585	5.0	16,318	4.4	19,934	4.2	19,017	4.0	19,871	4.1	4.3
광주	5,825	2.0	6,625	2.0	6,232	1.7	9,410	2.0	9,262	1.9	9,944	2.1	6.1
대전	4,134	1.4	4,222	1.3	4,806	1.3	5,999	1.2	7,037	1.5	7,441	1.5	6.7
울산	28,954	9.9	33,280	10.1	35,614	9.5	50,939	10.6	45,133	9.4	42,605	8.8	4.4
세종	-	-	-	-	-	-	-	-	2,475	0.5	2,763	0.6	7.7
경기	79,767	27.4	88,430	26.9	95,895	25.6	122,185	25.4	133,581	27.9	136,602	28.2	6.2
강원	3,344	1.1	3,319	1.0	3,628	1.0	3,676	0.8	4,098	0.9	4,700	1.0	3.9
충북	13,135	4.5	15,789	4.8	16,202	4.3	21,730	4.5	23,660	4.9	25,549	5.3	7.7
충남	24,810	8.5	31,780	9.7	42,717	11.4	61,836	12.9	58,476	12.2	56,531	11.7	9.6
전북	7,376	2.5	8,396	2.6	10,173	2.7	12,842	2.7	12,234	2.6	14,031	2.9	7.4
전남	15,611	5.4	17,795	5.4	19,071	5.1	29,242	6.1	28,808	6.0	27,576	5.7	6.5
경북	40,441	13.9	37,839	11.5	47,296	12.6	53,492	11.1	51,545	10.8	50,846	10.5	2.6
경남	26,792	9.2	35,031	10.6	43,286	11.6	51,038	10.6	47,082	9.8	47,789	9.9	6.6
제주	266	0.1	337	0.1	400	0.1	432	0.1	503	0.1	523	0.1	7.8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5) 주요생산비

- 충북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의 주요생산비는 2005년 약 17조원에서 2014년 약 41조원으로 약 2.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3.3%에서 4%로 증가하였음.
- 주요생산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였으며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중 충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시·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주요생산비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비	비율	생산비	비율	생산비	비율	생산비	비율	생산비	비율	생산비	비율	
전 국	510,530	100.0	619,633	100.0	747,472	100.0	1,022,149	100.0	1,016,449	100.0	1,004,728	100.0	7.8
서 울	14,825	2.9	15,612	2.5	17,825	2.4	18,746	1.8	18,310	1.8	18,099	1.8	2.2
부 산	16,215	3.2	19,487	3.1	23,490	3.1	29,816	2.9	27,317	2.7	27,295	2.7	6.0
대 구	11,175	2.2	12,622	2.0	12,952	1.7	18,273	1.8	18,675	1.8	18,723	1.9	5.9
인 천	29,510	5.8	37,022	6.0	35,256	4.7	45,928	4.5	45,126	4.4	46,392	4.6	5.2
광 주	10,113	2.0	12,088	2.0	14,520	1.9	20,789	2.0	20,160	2.0	21,258	2.1	8.6
대 전	4,520	0.9	5,289	0.9	6,822	0.9	9,163	0.9	9,211	0.9	9,927	1.0	9.1
울 산	77,981	15.3	96,656	15.6	116,645	15.6	177,269	17.3	171,508	16.9	166,395	16.6	8.8
세 종	-	-	-	-	-	-	-	-	4,553	0.4	4,690	0.5	5.5
경 기	106,400	20.8	123,334	19.9	139,432	18.7	188,872	18.5	199,815	19.7	203,372	20.2	7.5
강 원	3,954	0.8	4,802	0.8	5,499	0.7	7,284	0.7	7,093	0.7	7,397	0.7	7.2
충 북	17,024	3.3	21,796	3.5	26,911	3.6	38,345	3.8	39,637	3.9	40,687	4.0	10.2
충 남	48,423	9.5	61,895	10.0	85,464	11.4	126,682	12.4	119,420	11.7	120,513	12.0	10.7
전 북	13,696	2.7	16,842	2.7	19,994	2.7	30,811	3.0	31,490	3.1	29,980	3.0	9.1
전 남	42,072	8.2	51,434	8.3	64,064	8.6	94,254	9.2	97,210	9.6	89,188	8.9	8.7
경 북	58,861	11.5	70,538	11.4	86,246	11.5	111,863	10.9	108,339	10.7	105,121	10.5	6.7
경 남	55,340	10.8	69,852	11.3	91,771	12.3	103,255	10.1	97,906	9.6	94,884	9.4	6.2
제 주	422	0.1	363	0.1	580	0.1	801	0.1	681	0.1	807	0.1	7.5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차 개정

주2) 비율은 전체(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시·도의 비중

주3)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단, 세종시는 2012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2) 충북 제조업 중분류별 현황

(1) 중분류별 사업체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는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산업 중분류 제조업 (10~33)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제조업 (10~33)	1,939	100.0	2,254	100.0	2,050	100.0	2,331	100.0	2,590	100.0	2,807	100.0	4.2
10	257	13.3	303	13.4	298	14.5	335	14.4	367	14.2	404	14.4	5.2
11	29	1.5	27	1.2	24	1.2	24	1.0	23	0.9	31	1.1	0.7
12	1	0.1	1	0.0	0	0.0	0	0.0	0	0.0	0	0.0	-100.0
13	89	4.6	83	3.7	74	3.6	79	3.4	81	3.1	76	2.7	-1.7
14	8	0.4	7	0.3	8	0.4	9	0.4	4	0.2	7	0.2	-1.5
15	3	0.2	11	0.5	7	0.3	13	0.6	14	0.5	11	0.4	15.5
16	18	0.9	24	1.1	14	0.7	21	0.9	30	1.2	33	1.2	7.0
17	64	3.3	75	3.3	76	3.7	84	3.6	98	3.8	109	3.9	6.1
18	19	1.0	17	0.8	14	0.7	17	0.7	20	0.8	16	0.6	-1.9
19	7	0.4	6	0.3	7	0.3	8	0.3	8	0.3	9	0.3	2.8
20	146	7.5	186	8.3	159	7.8	183	7.9	196	7.6	224	8.0	4.9
21	42	2.2	50	2.2	52	2.5	60	2.6	59	2.3	66	2.4	5.2
22	239	12.3	282	12.5	255	12.4	287	12.3	345	13.3	359	12.8	4.6
23	163	8.4	176	7.8	169	8.2	178	7.6	201	7.8	206	7.3	2.6
24	65	3.4	73	3.2	63	3.1	74	3.2	92	3.6	99	3.5	4.8
25	192	9.9	248	11.0	207	10.1	228	9.8	271	10.5	306	10.9	5.3
26	161	8.3	160	7.1	154	7.5	164	7.0	153	5.9	156	5.6	-0.3
27	37	1.9	46	2.0	44	2.1	49	2.1	50	1.9	54	1.9	4.3
28	125	6.4	140	6.2	132	6.4	152	6.5	170	6.6	191	6.8	4.8
29	150	7.7	195	8.7	156	7.6	187	8.0	196	7.6	205	7.3	3.5
30	73	3.8	86	3.8	81	4.0	114	4.9	149	5.8	175	6.2	10.2
31	7	0.4	5	0.2	5	0.2	6	0.3	7	0.3	10	0.4	4.0
32	31	1.6	35	1.6	30	1.5	37	1.6	32	1.2	36	1.3	1.7
33	13	0.7	18	0.8	21	1.0	22	0.9	24	0.9	24	0.9	7.0

-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9차 개정
 주2) 제조업 중분류: 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 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품,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 제품
 주3) 비율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 중분류 산업의 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거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는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음.

[표 2-21]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산업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중분류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증가율
제조업 (10~33)	8,801	100.0	8,965	100.0	9,009	100.0	9,479	100.0	10,599	100.0	11,564	100.0	3.5
10	2,567	29.2	2,620	29.2	2,591	28.8	2,559	27.0	2,656	25.1	2,796	24.2	1.1
11	103	1.2	104	1.2	108	1.2	112	1.2	117	1.1	123	1.1	2.2
12	1	0.0	1	0.0	1	0.0	0	0.0	1	0.0	1	0.0	0.0
13	358	4.1	337	3.8	313	3.5	347	3.7	356	3.4	353	3.1	-0.2
14	240	2.7	220	2.5	180	2.0	168	1.8	161	1.5	158	1.4	-5.1
15	23	0.3	28	0.3	22	0.2	35	0.4	44	0.4	51	0.4	10.5
16	205	2.3	207	2.3	213	2.4	206	2.2	215	2.0	235	2.0	1.7
17	157	1.8	172	1.9	174	1.9	190	2.0	231	2.2	276	2.4	7.3
18	338	3.8	343	3.8	337	3.7	315	3.3	314	3.0	309	2.7	-1.1
19	12	0.1	13	0.1	21	0.2	19	0.2	21	0.2	27	0.2	10.7
20	359	4.1	382	4.3	409	4.5	462	4.9	525	5.0	572	4.9	6.0
21	62	0.7	65	0.7	77	0.9	88	0.9	93	0.9	96	0.8	5.6
22	475	5.4	497	5.5	535	5.9	597	6.3	721	6.8	842	7.3	7.4
23	516	5.9	518	5.8	540	6.0	573	6.0	628	5.9	673	5.8	3.4
24	124	1.4	135	1.5	135	1.5	169	1.8	226	2.1	252	2.2	9.3
25	1,102	12.5	1,108	12.4	1,118	12.4	1,219	12.9	1,438	13.6	1,594	13.8	4.7
26	248	2.8	253	2.8	260	2.9	258	2.7	305	2.9	335	2.9	3.8
27	106	1.2	119	1.3	129	1.4	169	1.8	211	2.0	245	2.1	11.0
28	433	4.9	416	4.6	421	4.7	445	4.7	566	5.3	623	5.4	4.7
29	586	6.7	603	6.7	572	6.3	634	6.7	765	7.2	877	7.6	5.2
30	121	1.4	138	1.5	142	1.6	194	2.0	263	2.5	322	2.8	13.0
31	16	0.2	15	0.2	23	0.3	31	0.3	30	0.3	36	0.3	10.7
32	229	2.6	233	2.6	247	2.7	264	2.8	286	2.7	313	2.7	4.0
33	420	4.8	438	4.9	441	4.9	425	4.5	426	4.0	455	3.9	1.0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제조업 중분류: 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 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 제품

주3) 비율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 중분류 산업의 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2) 중분류별 종사자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표 2-22]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산업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증가율
제조업 (10~33)	106,192	100.0	115,791	100.0	116,892	100.0	130,927	100.0	138,541	100.0	149,636	100.0	3.9
10	11,270	10.6	13,561	11.7	14,993	12.8	16,791	12.8	17,093	12.3	19,938	13.3	6.5
11	1,970	1.9	2,200	1.9	1,854	1.6	2,033	1.6	2,058	1.5	2,192	1.5	1.2
12					0	0.0	0	0.0	0	0.0	0	0.0	
13	4,634	4.4	3,732	3.2	3,698	3.2	3,766	2.9	3,469	2.5	3,175	2.1	-4.1
14	441	0.4	134	0.1	144	0.1	271	0.2	167	0.1	217	0.1	-7.6
15	655	0.6	567	0.5	359	0.3	475	0.4	436	0.3	365	0.2	-6.3
16	392	0.4	479	0.4	296	0.3	364	0.3	508	0.4	576	0.4	4.4
17	3,545	3.3	3,417	3.0	3,338	2.9	3,904	3.0	4,081	2.9	4,412	2.9	2.5
18	405	0.4	362	0.3	335	0.3	451	0.3	549	0.4	388	0.3	-0.5
19	106	0.1	100	0.1	118	0.1	118	0.1	140	0.1	152	0.1	4.1
20	6,316	5.9	7,114	6.1	7,253	6.2	8,305	6.3	9,530	6.9	10,464	7.0	5.8
21	2,574	2.4	3,409	2.9	4,547	3.9	4,356	3.3	4,528	3.3	5,038	3.4	7.7
22	10,288	9.7	10,867	9.4	9,300	8.0	11,591	8.9	13,604	9.8	14,499	9.7	3.9
23	6,971	6.6	7,259	6.3	7,636	6.5	7,359	5.6	8,055	5.8	7,766	5.2	1.2
24	2,402	2.3	2,660	2.3	3,055	2.6	2,748	2.1	3,204	2.3	3,290	2.2	3.6
25	6,626	6.2	7,584	6.5	6,983	6.0	7,507	5.7	8,825	6.4	9,426	6.3	4.0
26	23,513	22.1	25,304	21.9	27,933	23.9	28,967	22.1	29,100	21.0	30,947	20.7	3.1
27	3,541	3.3	4,739	4.1	3,083	2.6	3,614	2.8	3,310	2.4	3,156	2.1	-1.3
28	7,523	7.1	7,978	6.9	7,903	6.8	9,618	7.3	10,204	7.4	11,865	7.9	5.2
29	5,298	5.0	6,067	5.2	5,562	4.8	7,626	5.8	7,473	5.4	7,938	5.3	4.6
30	5,513	5.2	5,882	5.1	6,376	5.5	8,347	6.4	9,713	7.0	11,028	7.4	8.0
31	292	0.3	280	0.2	204	0.2	310	0.2	413	0.3	452	0.3	5.0
32	1,290	1.2	1,264	1.1	1,051	0.9	1,339	1.0	1,011	0.7	1,229	0.8	-0.5
33	616	0.6	817	0.7	871	0.7	1,067	0.8	1,070	0.8	1,123	0.8	6.9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9차 개정

주2) 제조업 중분류: 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 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 제품

주3) 비율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 중분류 산업의 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주4) 공란은 '미상자료' 임

주5)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9.4%) 등이었음.

[표 2-23]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산업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증가율
제조업 (10~33)	126,828	100.0	130,848	100.0	138,942	100.0	153,870	100.0	166,728	100.0	178,424	100.0	4.4
10	16,977	13.4	17,391	13.3	19,623	14.1	21,948	14.3	23,315	14.0	25,377	14.2	5.2
11	2,341	1.8	2,202	1.7	2,018	1.5	2,296	1.5	2,316	1.4	2,458	1.4	0.6
12	16	0.0	16	0.0	2	0.0			7	0.0	9	0.0	-6.9
13	4,247	3.3	4,362	3.3	4,387	3.2	4,645	3.0	4,375	2.6	4,046	2.3	-0.6
14	714	0.6	571	0.4	495	0.4	714	0.5	682	0.4	661	0.4	-1.0
15	671	0.5	476	0.4	418	0.3	557	0.4	555	0.3	485	0.3	-4.0
16	1,041	0.8	976	0.7	958	0.7	960	0.6	1,075	0.6	1,245	0.7	2.3
17	3,524	2.8	3,575	2.7	3,853	2.8	4,630	3.0	4,614	2.8	5,164	2.9	4.9
18	1,084	0.9	1,076	0.8	1,220	0.9	1,083	0.7	1,246	0.7	1,108	0.6	0.3
19	136	0.1	137	0.1	207	0.1	245	0.2	221	0.1	241	0.1	7.4
20	6,780	5.3	7,731	5.9	8,542	6.1	9,489	6.2	10,913	6.5	12,160	6.8	7.6
21	2,567	2.0	2,676	2.0	4,676	3.4	4,573	3.0	5,247	3.1	5,250	2.9	9.4
22	11,509	9.1	11,593	8.9	11,040	7.9	13,113	8.5	15,666	9.4	16,761	9.4	4.8
23	8,325	6.6	8,462	6.5	9,321	6.7	9,166	6.0	9,584	5.7	9,683	5.4	1.9
24	2,459	1.9	2,903	2.2	3,408	2.5	2,997	1.9	3,843	2.3	3,959	2.2	6.1
25	10,300	8.1	10,229	7.8	9,984	7.2	11,140	7.2	13,201	7.9	13,982	7.8	3.9
26	23,764	18.7	24,841	19.0	28,972	20.9	28,718	18.7	30,721	18.4	31,486	17.6	3.6
27	3,926	3.1	5,234	4.0	3,419	2.5	3,999	2.6	3,880	2.3	3,869	2.2	-0.2
28	9,985	7.9	8,767	6.7	8,642	6.2	11,016	7.2	10,932	6.6	12,863	7.2	3.2
29	7,803	6.2	7,786	6.0	7,285	5.2	9,598	6.2	9,828	5.9	11,377	6.4	4.8
30	5,241	4.1	6,233	4.8	6,837	4.9	8,799	5.7	10,198	6.1	11,683	6.5	10.5
31	364	0.3	326	0.2	287	0.2	490	0.3	547	0.3	567	0.3	5.7
32	1,724	1.4	1,723	1.3	1,673	1.2	1,766	1.1	1,719	1.0	1,960	1.1	1.6
33	1,330	1.0	1,562	1.2	1,675	1.2	1,928	1.3	2,043	1.2	2,030	1.1	5.4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제조업 중분류: 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 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품,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 제품

주3) 비율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 중분류 산업의 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주5) 공란은 자료가 없는 것임

(3) 중분류별 생산액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의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중분류별 생산액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12.5%)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8.2%), 기타 제품 제조업(17.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7.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표 2-24]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산업별 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산업 중분류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제조업 (10~33)	30,159	100.0	37,585	100.0	43,113	100.0	60,075	100.0	63,296	100.0	66,236	100.0	9.1
10	3,200	10.6	3,862	10.3	5,367	12.4	7,138	11.9	8,028	12.7	8,302	12.5	11.2
11	956	3.2	1,127	3.0	1,031	2.4	1,413	2.4	1,853	2.9	1,917	2.9	8.0
12													
13	746	2.5	712	1.9	837	1.9	1,033	1.7	1,004	1.6	912	1.4	2.3
14	10	0.0	4	0.0	7	0.0	10	0.0	3	0.0	10	0.0	-0.7
15	165	0.5	178	0.5	132	0.3	220	0.4	212	0.3	233	0.4	3.9
16	55	0.2	88	0.2	61	0.1	102	0.2	128	0.2	185	0.3	14.3
17	1,194	4.0	1,330	3.5	1,425	3.3	2,223	3.7	2,117	3.3	2,162	3.3	6.8
18	38	0.1	34	0.1	38	0.1	38	0.1	59	0.1	43	0.1	1.2
19	31	0.1	22	0.1	32	0.1	39	0.1	44	0.1	53	0.1	6.2
20	2,430	8.1	2,731	7.3	4,043	9.4	5,173	8.6	5,733	9.1	5,759	8.7	10.1
21	616	2.0	1,196	3.2	1,592	3.7	2,365	3.9	2,688	4.2	2,782	4.2	18.2
22	3,098	10.3	3,771	10.0	2,586	6.0	4,300	7.2	4,558	7.2	4,790	7.2	5.0
23	1,836	6.1	2,140	5.7	2,552	5.9	2,965	4.9	3,348	5.3	3,412	5.2	7.1
24	1,082	3.6	1,646	4.4	1,371	3.2	2,198	3.7	2,391	3.8	2,286	3.5	8.7
25	1,510	5.0	1,717	4.6	1,748	4.1	2,681	4.5	2,852	4.5	2,891	4.4	7.5
26	6,376	21.1	7,608	20.2	11,595	26.9	13,536	22.5	14,678	23.2	15,348	23.2	10.3
27	1,372	4.5	2,237	6.0	604	1.4	1,210	2.0	655	1.0	627	0.9	-8.3
28	2,533	8.4	3,290	8.8	3,313	7.7	5,503	9.2	5,107	8.1	5,780	8.7	9.6
29	1,295	4.3	1,579	4.2	1,570	3.6	2,202	3.7	2,432	3.8	2,469	3.7	7.4
30	1,297	4.3	1,939	5.2	2,629	6.1	4,955	8.2	4,713	7.4	5,461	8.2	17.3
31	58	0.2	33	0.1	103	0.2	99	0.2	112	0.2	141	0.2	10.5
32	190	0.6	222	0.6	280	0.6	428	0.7	324	0.5	370	0.6	7.6
33	70	0.2	118	0.3	199	0.5	243	0.4	258	0.4	303	0.5	17.8

-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9차 개정
- 주2) 제조업 중분류: 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 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 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 제품
- 주3) 비율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 중분류 산업의 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
-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 주5) 공란은 '미상자료' 또는 자료가 없는 것임

(4) 제조업 분야별 GRDP

- 충북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액은 2000년 약 7조원에서 2015년 약 21조원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로는 2015년 현재,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가 제조업 전체의 34.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9.6%)과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9.55)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5] 충북 제조업 분야별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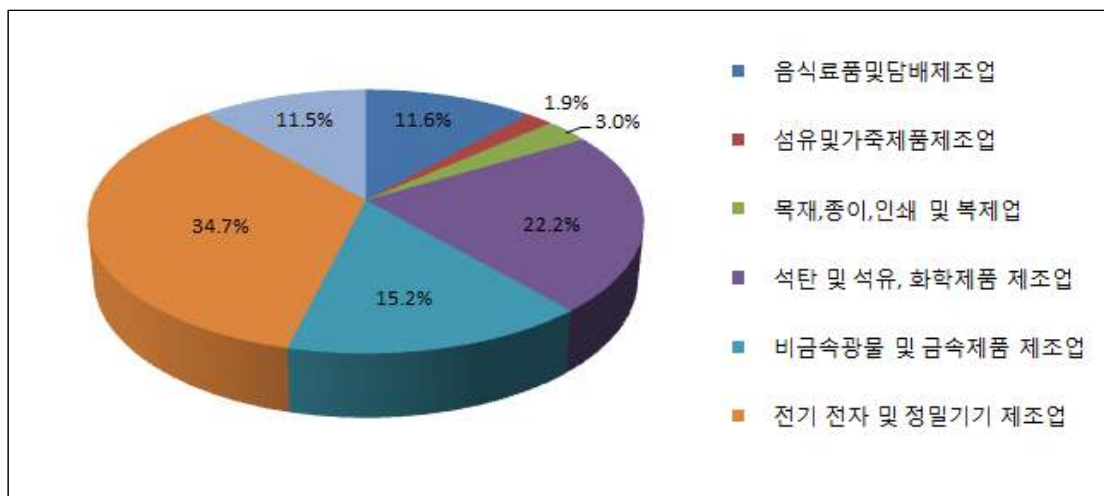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제조업 전체	7,247	100.0	9,556	100.0	15,408	100.0	20,686	100.0	7.2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917	12.7	1,130	11.8	1,604	10.4	2,397	11.6	6.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576	7.9	350	3.7	369	2.4	383	1.9	-2.7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469	6.5	396	4.1	522	3.4	625	3.0	1.9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1,166	16.1	1,880	19.7	3,085	20.0	4,588	22.2	9.6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159	16.0	1,472	15.4	2,214	14.4	3,148	15.2	6.9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2,350	32.4	3,534	37.0	5,839	37.9	7,171	34.7	7.7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10	8.4	794	8.3	1,774	11.5	2,374	11.5	9.5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당해년가격, 2015년은 잠정치 기준)

주2) 연평균증가율은 2000년~2015년의 증가율

[그림 2-13] 충북 제조업 분야별 지역내총생산액 비중(2015년)



3) 충북 제조업 시·군별 현황

(1) 시·군별 사업체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 시·군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청주시가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이 24.9%, 진천군이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6]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시군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충 북	1,939	100.0	2,254	100.0	2,050	100.0	2,331	100.0	2,590	100.0	2,807	100.0	4.2
청주시	661	34.1	777	34.5	711	34.7	792	34.0	845	32.6	893	31.8	3.4
충주시	160	8.3	188	8.3	191	9.3	234	10.0	271	10.5	288	10.3	6.7
제천시	71	3.7	72	3.2	80	3.9	109	4.7	116	4.5	133	4.7	7.2
보은군	35	1.8	39	1.7	36	1.8	37	1.6	37	1.4	39	1.4	1.2
옥천군	114	5.9	125	5.5	111	5.4	119	5.1	126	4.9	130	4.6	1.5
영동군	43	2.2	46	2.0	43	2.1	48	2.1	41	1.6	40	1.4	-0.8
진천군	310	16.0	357	15.8	313	15.3	357	15.3	392	15.1	444	15.8	4.1
괴산군	55	2.8	53	2.4	59	2.9	70	3.0	79	3.1	75	2.7	3.5
음성군	438	22.6	539	23.9	451	22.0	500	21.5	620	23.9	700	24.9	5.3
단양군	20	1.0	22	1.0	23	1.1	26	1.1	22	0.8	23	0.8	1.6
증평군	32	1.7	36	1.6	32	1.6	39	1.7	41	1.6	42	1.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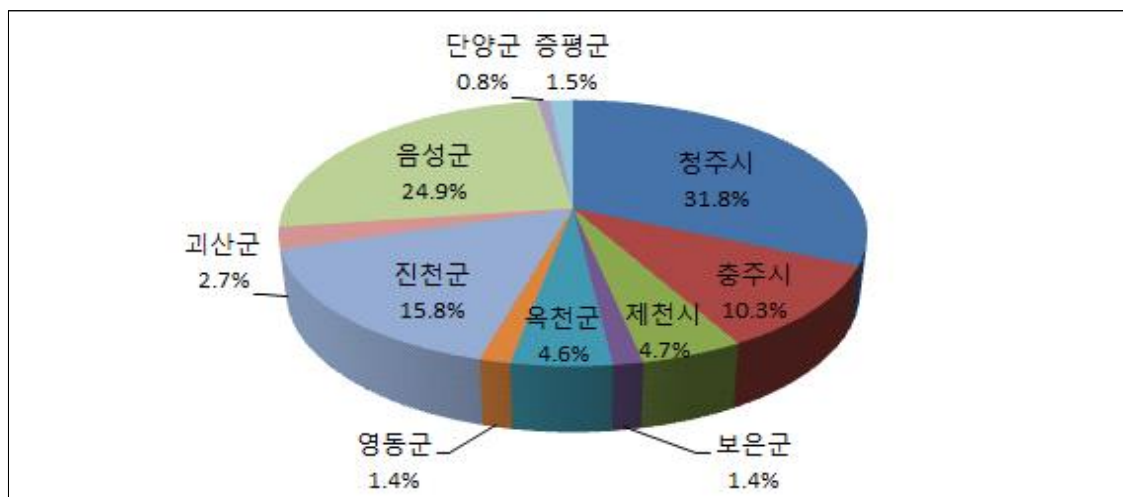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비율은 전체(충북)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비중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그림 2-14]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비중(2014년)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의 시·군별 제조업체 수는 청주시가 4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15.1%), 충주시(11.1%)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각각 8.9%, 6.8%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었음.

[표 2-27]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시군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충 북	8,801	100.0	9,073	100.0	9,479	100.0	9,813	100.0	10,599	100.0	11,564	100.0	4.7
청주시	3,780	42.9	3,869	42.6	4,058	42.8	4,156	42.4	4,369	41.2	4,713	40.8	3.7
충주시	1,010	11.5	1,029	11.3	1,074	11.3	1,102	11.2	1,205	11.4	1,281	11.1	4.0
제천시	669	7.6	694	7.6	716	7.6	715	7.3	740	7.0	812	7.0	3.3
보은군	239	2.7	237	2.6	233	2.5	235	2.4	250	2.4	271	2.3	2.1
옥천군	474	5.4	499	5.5	489	5.2	502	5.1	543	5.1	589	5.1	3.7
영동군	265	3.0	270	3.0	277	2.9	280	2.9	305	2.9	306	2.6	2.4
진천군	739	8.4	768	8.5	844	8.9	899	9.2	970	9.2	1,099	9.5	6.8
괴산군	247	2.8	258	2.8	264	2.8	280	2.9	296	2.8	316	2.7	4.2
음성군	1,046	11.9	1,104	12.2	1,168	12.3	1,276	13.0	1,535	14.5	1,749	15.1	8.9
단양군	165	1.9	171	1.9	177	1.9	179	1.8	186	1.8	209	1.8	4.0
증평군	167	1.9	174	1.9	179	1.9	189	1.9	200	1.9	219	1.9	4.6

주1) 자료 : 충북통계정보시스템(<http://stat.chungbuk.go.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비율은 전체(충북)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비중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2) 시·군별 종사자 수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 시·군별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청주시가 4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이 19.1%, 진천군이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증평군(9.1%)과 제천시(7.4%), 충주시(7.1%)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단양군(-2.6%)과 영동군(-1.6%)의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8]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충북	106,192	100.0	115,791	100.0	116,892	100.0	130,927	100.0	138,541	100.0	149,636	100.0	3.9
청주시	47,028	44.3	52,023	44.9	51,239	43.8	58,947	45.0	59,824	43.2	64,005	42.8	3.5
충주시	7,239	6.8	7,835	6.8	8,944	7.7	9,996	7.6	12,007	8.7	13,417	9.0	7.1
제천시	2,637	2.5	2,789	2.4	2,790	2.4	3,857	2.9	4,123	3.0	5,016	3.4	7.4
보은군	1,522	1.4	1,774	1.5	1,702	1.5	1,795	1.4	1,836	1.3	2,133	1.4	3.8
옥천군	3,906	3.7	4,039	3.5	4,027	3.4	4,160	3.2	4,229	3.1	4,225	2.8	0.9
영동군	2,172	2.0	2,189	1.9	1,946	1.7	2,025	1.5	1,871	1.4	1,873	1.3	-1.6
진천군	18,108	17.1	18,209	15.7	18,497	15.8	20,661	15.8	21,041	15.2	22,031	14.7	2.2
괴산군	2,175	2.0	1,953	1.7	2,195	1.9	2,473	1.9	2,555	1.8	2,434	1.6	1.3
음성군	17,449	16.4	20,943	18.1	21,531	18.4	22,273	17.0	25,781	18.6	28,616	19.1	5.7
단양군	1,979	1.9	1,762	1.5	1,635	1.4	1,662	1.3	1,521	1.1	1,561	1.0	-2.6
증평군	1,977	1.9	2,275	2.0	2,386	2.0	3,078	2.4	3,753	2.7	4,325	2.9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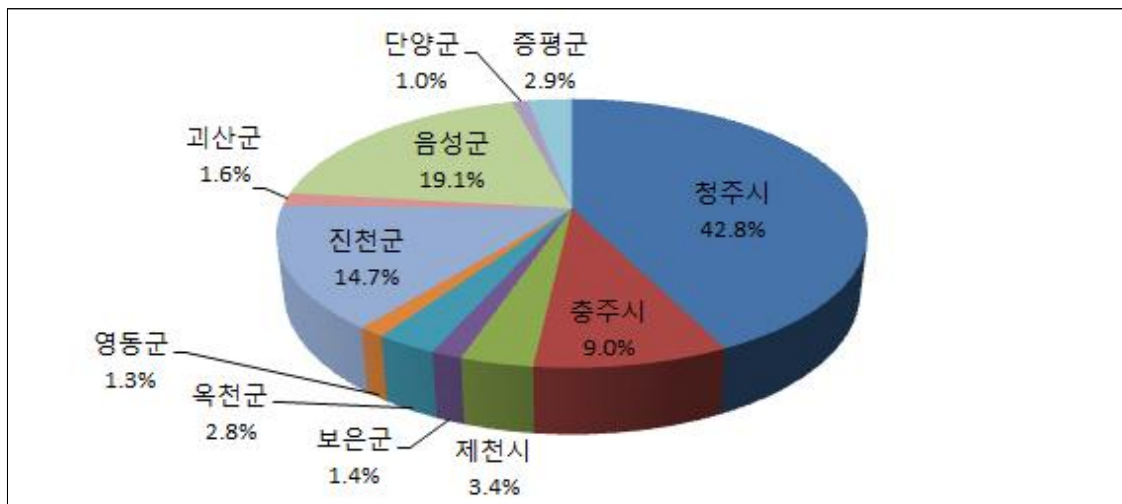
주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은 경제총조사 수치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비율은 전체(충북)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비중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그림 2-15]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비중(2014년)



□ 전국사업체조사(모든 사업체)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북의 시·군별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청주시가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18.2%), 진천군(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증평군(9.7%)과 제천시(8.6%), 보은군(7.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동군과 단양군의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9]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시군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충 북	137,105	100.0	143,580	100.0	153,870	100.0	155,553	100.0	166,728	100.0	178,424	100.0	4.5
청주시	60,997	44.5	63,149	44.0	68,613	44.6	68,671	44.1	72,234	43.3	76,980	43.1	4.0
충주시	10,917	8.0	11,578	8.1	12,454	8.1	12,925	8.3	14,909	8.9	15,896	8.9	6.5
제천시	4,215	3.1	5,066	3.5	5,454	3.5	5,673	3.6	5,964	3.6	6,932	3.9	8.6
보은군	2,088	1.5	2,231	1.6	2,361	1.5	2,415	1.6	2,433	1.5	3,278	1.8	7.8
옥천군	5,238	3.8	5,464	3.8	5,434	3.5	5,339	3.4	5,669	3.4	5,913	3.3	2.0
영동군	2,585	1.9	2,457	1.7	2,584	1.7	2,493	1.6	2,580	1.5	2,586	1.4	0.0
진천군	21,566	15.7	20,714	14.4	22,775	14.8	22,773	14.6	23,923	14.3	25,047	14.0	2.5
괴산군	2,634	1.9	2,801	2.0	3,214	2.1	3,121	2.0	3,316	2.0	3,206	1.8	3.3
음성군	22,552	16.4	24,913	17.4	25,492	16.6	26,047	16.7	30,101	18.1	32,459	18.2	6.3
단양군	1,989	1.5	1,953	1.4	2,047	1.3	2,053	1.3	1,985	1.2	2,078	1.2	0.7
증평군	2,324	1.7	3,254	2.3	3,442	2.2	4,043	2.6	3,614	2.2	4,049	2.3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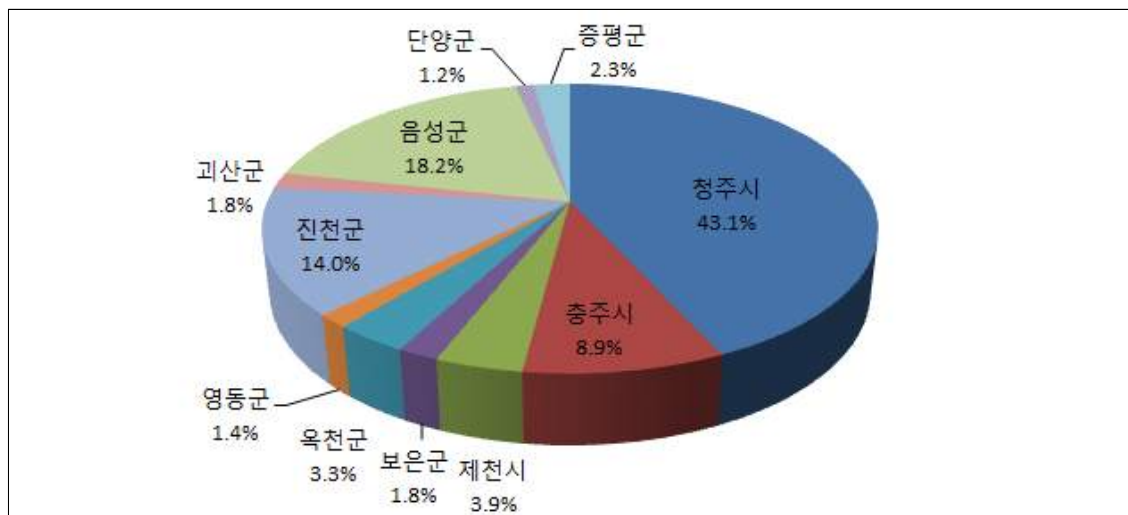
주1) 자료 : 충북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chungbuk.go.kr>), 전국사업체조사, 9차 개정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비율은 전체(충북)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비중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그림 2-16]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종사자 수 비중(2014년)



(3) 시·군별 생산액

○ 「광업·제조업조사」에서 나타난 충북 시·군별 제조업 생산액을 보면 2014년 현재, 청주시가 충북 제조업 생산액의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음성군(18.3%)과 진천군(15.2%)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청주시의 비중은 2007년 50%에서 2014년 46%로 감소한 반면 음성군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주시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30]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시도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생산액	비율	
충 북	37,585	100.0	54,545	100.0	60,075	100.0	59,599	100.0	63,296	100.0	66,236	100.0	8.4
청주시	18,780	50.0	26,764	49.1	28,438	47.3	28,064	47.1	29,864	47.2	30,485	46.0	7.2
충주시	2,190	5.8	3,672	6.7	4,722	7.9	4,837	8.1	5,216	8.2	5,592	8.4	14.3
제천시	682	1.8	1,062	1.9	1,359	2.3	1,437	2.4	1,476	2.3	1,941	2.9	16.1
보은군	353	0.9	508	0.9	515	0.9	527	0.9	566	0.9	710	1.1	10.5
옥천군	911	2.4	1,174	2.2	1,302	2.2	1,205	2.0	1,498	2.4	1,278	1.9	5.0
영동군	361	1.0	505	0.9	556	0.9	532	0.9	546	0.9	556	0.8	6.4
진천군	5,805	15.4	9,463	17.3	10,001	16.6	9,322	15.6	9,530	15.1	10,092	15.2	8.2
괴산군	397	1.1	629	1.2	765	1.3	824	1.4	797	1.3	816	1.2	10.8
음성군	6,670	17.7	8,755	16.1	9,930	16.5	10,482	17.6	11,376	18.0	12,110	18.3	8.9
단양군	851	2.3	842	1.5	948	1.6	1,124	1.9	1,267	2.0	1,345	2.0	6.8
증평균	586	1.6	1,171	2.1	1,538	2.6	1,245	2.1	1,162	1.8	1,310	2.0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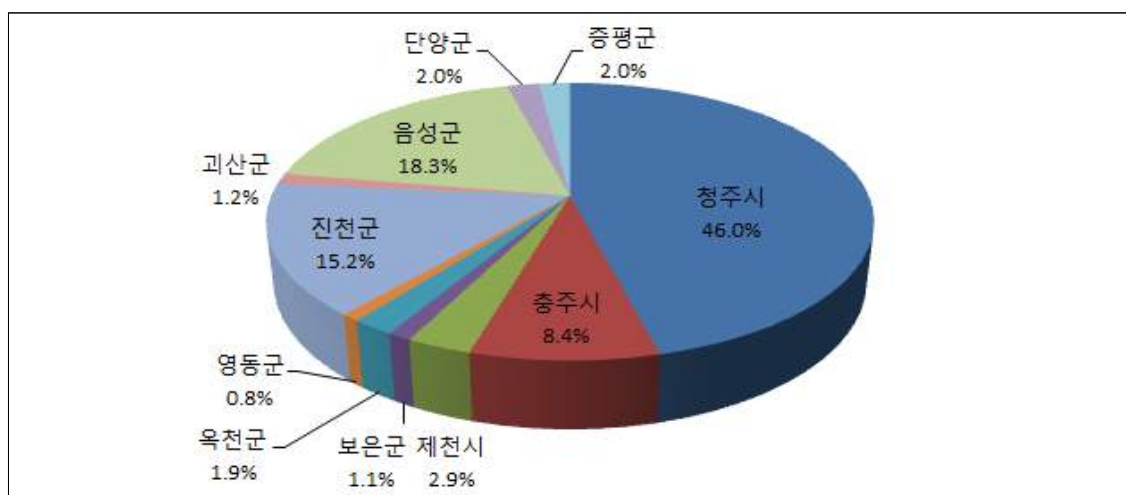
주1) 자료 : 충북통계정보시스템(<http://stat.chungbuk.go.kr>), 광업/제조업조사, 9차 개정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비율은 전체(충북)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의 비중

주4)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그림 2-17]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충북 제조업 시·군별 생산액 비중(2014년)



(4) 시·군별 GRDP

- 충북 시·군별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액은 2014년 현재, 청주시가 충북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 15.6%, 진천군 15.2% 등의 순이었음.
- 제조업 지역내총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제천시(20.9%), 충주시(14.5%), 증평군(11.95)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1] 충북 제조업 시·군별 GRDP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시도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충 북	8,769	100.0	10,394	100.0	11,251	100.0	16,918	100.0	19,543	100.0	20,169	100.0	9.7
청주시	4,408	50.3	5,788	55.7	6,422	57.1	8,898	52.6	10,527	53.9	10,079	50.0	9.6
충주시	384	4.4	453	4.4	619	5.5	1,253	7.4	1,820	9.3	1,300	6.4	14.5
제천시	132	1.5	151	1.4	318	2.8	479	2.8	485	2.5	727	3.6	20.9
보은군	81	0.9	109	1.0	80	0.7	188	1.1	242	1.2	54	0.3	-4.4
옥천군	260	3.0	196	1.9	248	2.2	363	2.1	331	1.7	522	2.6	8.0
영동군	108	1.2	124	1.2	152	1.3	169	1.0	219	1.1	151	0.7	3.8
진천군	1,347	15.4	1,247	12.0	1,710	15.2	1,953	11.5	2,654	13.6	3,056	15.2	9.5
괴산군	90	1.0	79	0.8	103	0.9	141	0.8	227	1.2	116	0.6	2.8
음성군	1,434	16.3	1,759	16.9	1,190	10.6	2,817	16.7	2,063	10.6	3,145	15.6	9.1
단양군	345	3.9	365	3.5	259	2.3	339	2.0	549	2.8	522	2.6	4.7
증평군	181	2.1	124	1.2	150	1.3	317	1.9	426	2.2	498	2.5	11.9

주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당해년가격)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2011년까지 현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 포함

주4) 연평균증가율은 2000년~2014년의 증가율

4. 기업 투자유치 현황

[표 2-32] 충북 투자유치 현황(2011년~2015년)

구 분		투자유치 현황				수도권 이전 기업		
연도	분기	합 계		업체수	투자금액	분기합계	업체수	투자금액
		분기별	반기별					
2011	1/4	744개 업체 39,514억원	297개 업체 21,532억원	108	9,862	9개 업체 4,051억원	5	2,908
	2/4			189	11,670		2	780
	3/4		447개 업체 17,982억원	135	4,942		2	363
	4/4			312	13,040		-	-
2012	1/4	633개 업체 72,045억원	201개 업체 27,849억원	170	15,630	8개 업체 4,239억원	1	124
	2/4			31	12,219		5	571
	3/4		432개 업체 44,196억원	221	13,026		-	-
	4/4			211	31,170		2	3,544
2013	1/4	540개 업체 51,806억원	294개 업체 15,702억원	13	6,075	36개 업체 14,842억원	4	486
	2/4			281	9,627		15	2,337
	3/4		246개 업체 36,106억원	150	10,641		4	1,372
	4/4			96	25,463		13	10,647
2014	1/4	517개 업체 54,620억원	134개 업체 19,812억원	122	17,363	19개 업체 3,385억원	10	2,191
	2/4			12	2,449		-	-
	3/4		383개 업체 34,808억원	184	19,032		5	868
	4/4			199	15,776		4	326
2015	1/4	817개 업체 61,530억원	412개 업체 32,194억원	192	13,661	21개 업체 4,002억원	6	843
	2/4			220	18,533		8	2,024
	3/4		405개 업체 29,336억원	160	7,039		4	801
	4/4			245	22,297		3	334

주) 자료: 충청북도

Ⅲ. 산업입지 실태 분석

제3장 산업입지 실태 분석

1. 산업용지 현황

1) 충북 전체 산업용지의 면적

(1) 면적자료의 개요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른 산업입지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상의 공신력 있는 산업용지 면적자료가 필요함.
- 산업용지 면적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는 기존 계획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와 최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FEMIS)’이 있음.
- 가장 공신력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산업용지의 부지면적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FEMIS의 ‘공장 등록’ 관련 자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근거하여 제외될 수 있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공장까지 포함된 FEMIS의 「입주업체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최근 자료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옛 청원군)의 공장을 검색하여 이전 연도(2006년~2011년)에서도 모두 제외하였음.
- 또한, 2014년에 통합된 청주시와 청원군을 현재 행정구역명인 ‘청주시’로 통일하기 위해 통합 이전 연도(2006년~2011년)의 청원군지역 공장의 자료를 청주시로 통합하여 표기하였음.
- 공장의 산업별 분류는 2006년, 2007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을 따르고, 2008년부터는 9차 개정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분석을 위해 8차 개정에 따라 분류된 공장을 9차 개정의 기준에 준하도록 재분류하였음.

[표 3-1] 충북 산업용지 면적 사용 자료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자료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자료 기간	2006년 ~ 2015년(10개년, 각 연도 말)	
자료 내용	공장입주업체 현황(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포함) - 구분: 지역(주소), 개별·계획입지, 업종, 용지 면적 등	제조업(9차) 이외 업종 일부 포함
특이사항	·세종시 편입(2012년)지역 공장 제외(2006년~2011년) ·청주시 통합 전(2006년~2013년)의 청원군지역 공장을 청주시에 포함	

(2) 연도별 산업용지 면적

○ FEMIS의 「입주업체 현황」자료에서 충북의 연도별 산업용지 즉, 입주한 공장의 부지(용지) 면적을 살펴보면, 2006년에 약 52,602천㎡, 2010년 약 63,973천㎡, 2015년 약 74,933천㎡로, 10년간 약 22,331천㎡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 수준이었음.

[표 3-2] 충북 산업용지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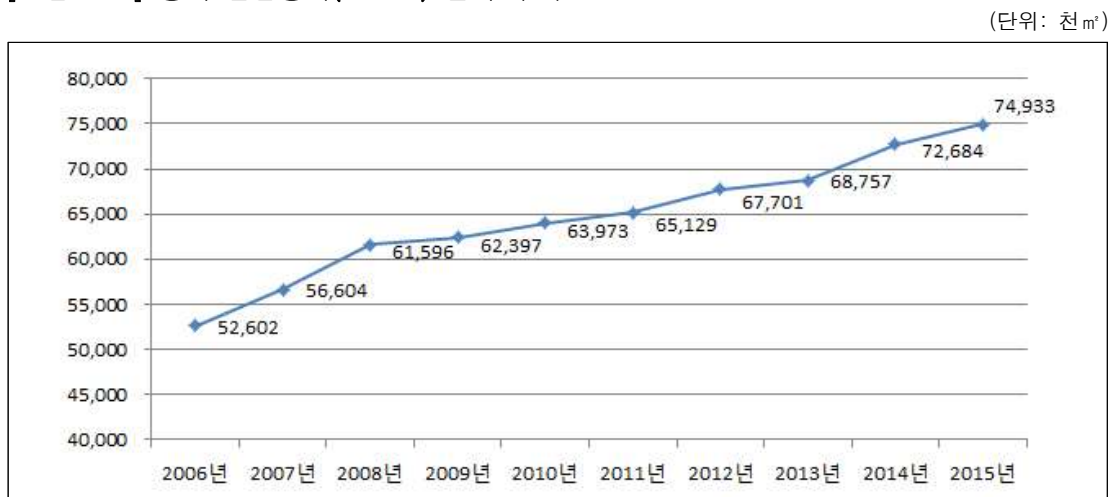
(단위: 천㎡, %)

구 분	연도별 면적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면 적	52,602	56,604	61,596	62,397	63,973	65,129	67,701	68,757	72,684	74,933	22,331	4.0

주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www.femis.go.kr)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1] 충북 산업용지(FEMIS) 면적 추이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 충북의 산업용지를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입지는 2006년 약 16,790천㎡에서 2015년 약 27,142천㎡로, 약 10,352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5.5%인 반면, 개별입지는 동일 기간, 연평균 3.3% 증가 추세를 나타냈었음.

[표 3-3]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추이

(단위: 천㎡, %)

구 분	연도별 면적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52,602	56,604	61,596	62,397	63,973	65,129	67,701	68,757	72,684	74,933	22,331	4.0
계 획 입 지	16,790	18,252	19,633	19,289	19,932	20,800	21,836	22,335	25,211	27,142	10,352	5.5
개 별 입 지	35,812	38,352	41,964	43,108	44,041	44,328	45,865	46,422	47,473	47,791	11,979	3.3

주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www.femis.go.kr)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중을 보면, 계획입지의 비중은 2006년 31.9%에서 2015년 36.2%로, 10년간 4.3%p 증가하였음.

[표 3-4]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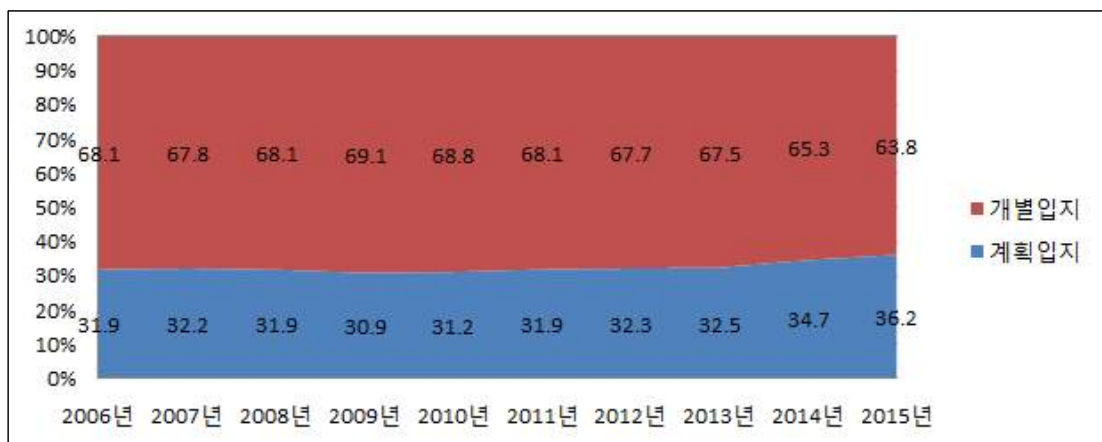
(단위: %, %p)

구 분	연도별 비중										증가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획 입 지	31.9	32.2	31.9	30.9	31.2	31.9	32.3	32.5	34.7	36.2	4.3	1.4
개 별 입 지	68.1	67.8	68.1	69.1	68.8	68.1	67.7	67.5	65.3	63.8	-4.3	-0.7

주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www.femis.go.kr)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 기준

[그림 3-2]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비중 추이



(4) 연도별 산업용지 증가량

- 충북 산업용지의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을 보면, 2008년에 4,993천㎡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2009년은 800천㎡로 가장 작았으며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2,249천㎡가 증가하였음.

[표 3-5] 충북 산업용지 연도별 면적 증가 추이

(단위: 천㎡, %)

구 분	연도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전 체		4,001	4,993	800	1,577	1,155	2,572	1,057	3,927	2,249	22,331	4.0
계 획 입 지		1,461	1,381	-344	644	868	1,035	500	2,876	1,931	10,352	5.5
개 별 입 지		2,540	3,612	1,144	933	288	1,536	557	1,051	318	11,979	3.3

주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www.fe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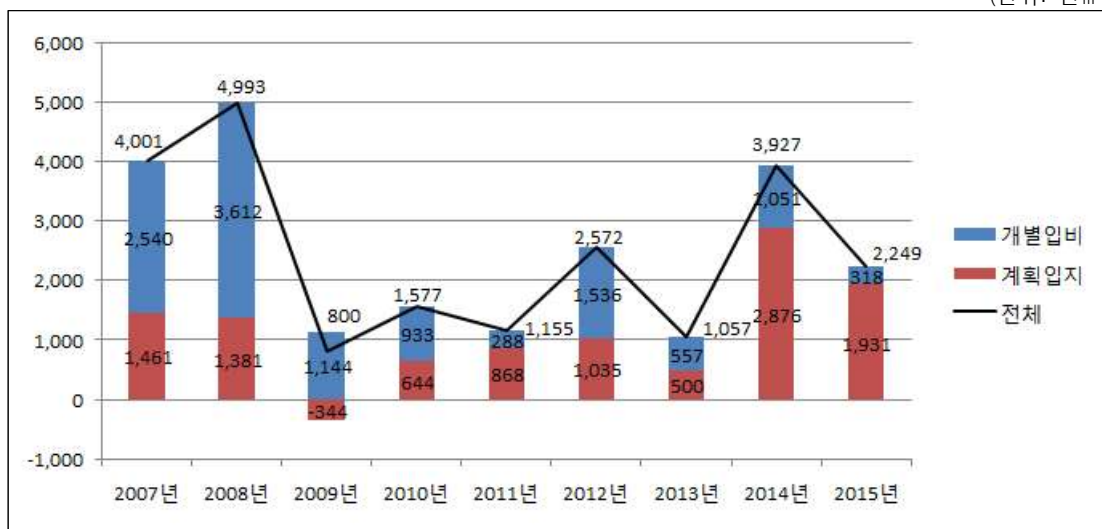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 계획입지는 2009년에 344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에, 전년 대비 2,876천㎡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나타냈었음.

- 개별입지는 2008년에, 전년 대비 3,612천㎡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2011년에 288천㎡로 가장 작게 증가하였음.

[그림 3-3] 충북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 연도별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

(단위: 천㎡)



2) 충북 산업별 산업용지의 면적

(1) 산업 분류

- FEMIS의 「공장입주업체 현황」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산업별 분류가 가능하지만 2006년과 2007년은 8차 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9차 개정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의 가지 수가 8차 개정이 23개, 9차 개정이 24개로 많아 분석에 애로점이 있음. 예를 들어, 9차 개정에 따른 ‘담배 제조업(12)’은 최근(2014년)의 면적이 ‘0’이 됨으로써 시계열 분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 2008년에 수립된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은 산업용지를 10개 업종(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08.5)을 따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지침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16.4)」은 ‘자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종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8차 개정에 따른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를 9차 개정에 맞도록 재분류 한 후 다시, 9차 개정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GRDP의 제조업 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을 7개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제조업 외’로 구분하였음.

[표 3-6] 충북 산업용지 산업별 통합 분류

산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통합 부문	비 고
G R D P 제 조 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식료품(10), 음료(11), 담배(12)	3개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섬유제품(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4), 가죽, 가방 및 신발(15)	3개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목재 및 나무제품(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3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4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23), 1차 금속(24), 금속가공제품(25)	3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3개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 운송장비(31), 가구(32), 기타 제품(33)	5개
제조업 외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모든 업종	

(2) 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 충북 산업용지의 산업별 면적을 보면,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이 2006년 5,075천㎡에서 2015년 8,580천㎡로 가장 크게 증가(6%)하였고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5%)’과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4.9%)’ 등도 비교적 큰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은 감소(-2.7%)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3-7] 충북 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단위: 천㎡, %)

구 분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06년	6,679	2,980	3,118	11,729	15,442	6,781	5,075	799	52,602
2007년	7,149	3,002	3,129	13,173	16,379	7,306	5,425	1,041	56,604
2008년	7,511	2,776	3,312	13,920	17,911	7,186	7,390	1,590	61,596
2009년	8,094	2,493	3,640	14,102	18,405	8,252	6,078	1,332	62,397
2010년	8,392	2,415	3,923	14,658	18,587	8,268	6,457	1,272	63,973
2011년	8,656	2,275	3,832	15,352	18,783	8,350	6,740	1,141	65,129
2012년	9,218	2,297	4,002	16,076	19,508	8,335	7,118	1,146	67,701
2013년	9,309	2,253	3,957	15,915	19,872	8,613	7,578	1,260	68,757
2014년	10,286	2,246	4,517	17,062	20,181	9,172	8,009	1,210	72,684
2015년	10,392	2,337	4,651	18,107	20,376	9,330	8,580	1,160	74,933
증가 면적	3,713	-643	1,533	6,378	4,934	2,549	3,505	362	22,331
증가 율	5.0	-2.7	4.5	4.9	3.1	3.6	6.0	4.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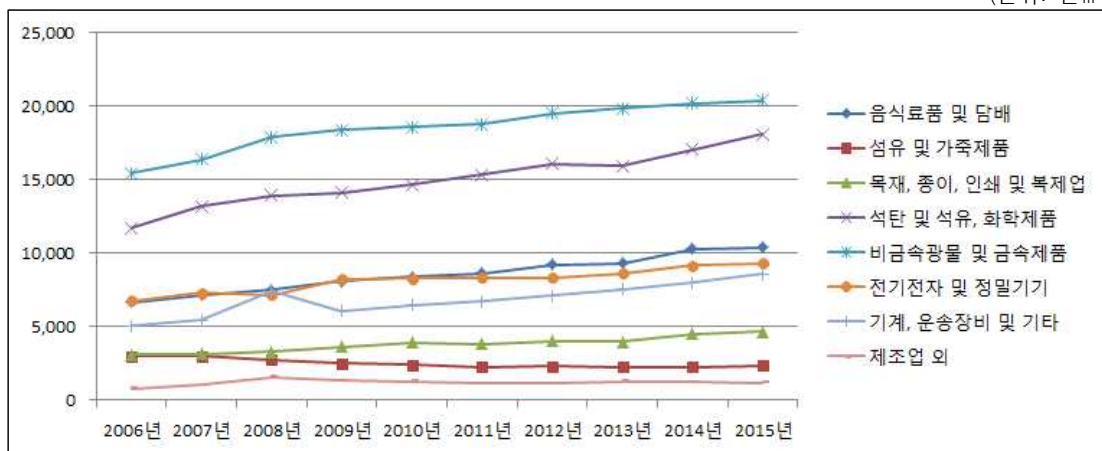
주1) 제조업 중분류: 음식료 및 담배-10,11,12 섬유 및 가죽제품-13,14,1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16,17,1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19,20,21,22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23,24,25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26,27,2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29,30,31,32,33 제조업 외-그 밖의 업종

주2) 2006년, 2007년은 8차 개정의 해당 업종으로 분류

주3)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4] 충북 연도별·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단위: 천㎡)



- 충북 산업용지의 산업별 면적의 비중을 보면, 2015년 현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전체의 27.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24.2%)',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13.9%)'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1.9%p)'과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1.8%p)',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1.2%p)'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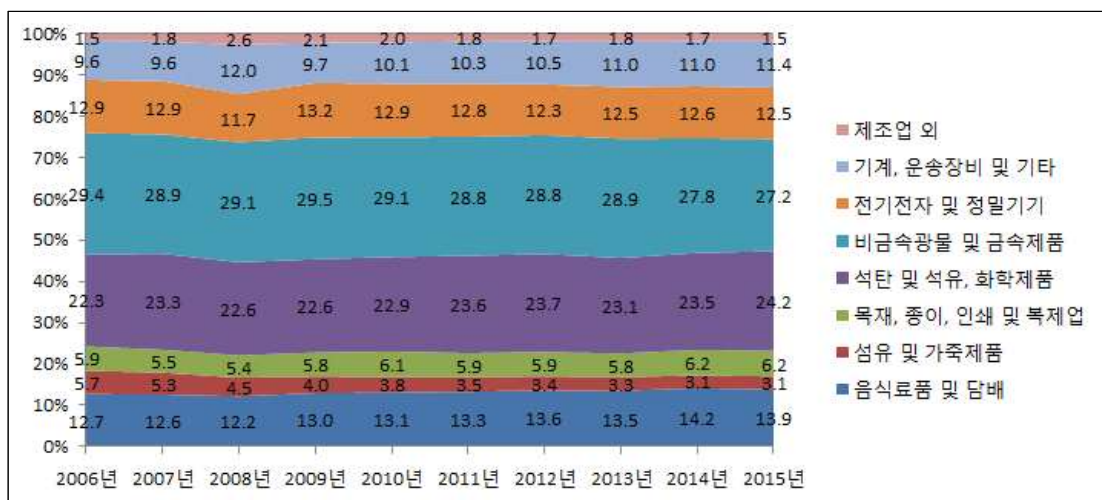
[표 3-8] 충북 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단위: %, %p)

구 분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06년	12.7	5.7	5.9	22.3	29.4	12.9	9.6	1.5	100.0
2007년	12.6	5.3	5.5	23.3	28.9	12.9	9.6	1.8	100.0
2008년	12.2	4.5	5.4	22.6	29.1	11.7	12.0	2.6	100.0
2009년	13.0	4.0	5.8	22.6	29.5	13.2	9.7	2.1	100.0
2010년	13.1	3.8	6.1	22.9	29.1	12.9	10.1	2.0	100.0
2011년	13.3	3.5	5.9	23.6	28.8	12.8	10.3	1.8	100.0
2012년	13.6	3.4	5.9	23.7	28.8	12.3	10.5	1.7	100.0
2013년	13.5	3.3	5.8	23.1	28.9	12.5	11.0	1.8	100.0
2014년	14.2	3.1	6.2	23.5	27.8	12.6	11.0	1.7	100.0
2015년	13.9	3.1	6.2	24.2	27.2	12.5	11.4	1.5	100.0
증가 비중	1.2	-2.5	0.3	1.9	-2.2	-0.4	1.8	0.0	

- 주1) 제조업 중분류: 음식료 및 담배-10,11,12 섬유 및 가죽제품-13,14,1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16,17,1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19,20,21,22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23,24,25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26,27,2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29,30,31,32,33 제조업 외-그 밖의 업종
- 주2) 2006년, 2007년은 8차 개정의 해당 업종으로 분류
- 주3)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5] 충북 연도별·산업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3)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의 면적

(1)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 충북 산업용지의 지역별 면적을 보면, 2015년 현재, 청주시가 약 19,950천㎡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이 약 18,229천㎡, 진천군이 약 11,884천㎡ 등의 순임.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은 음성군으로 5,399천㎡가 증가하였으며 청주시(4,924천㎡), 충주시(4,109천㎡), 진천군(4,018천㎡)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표 3-9]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단위: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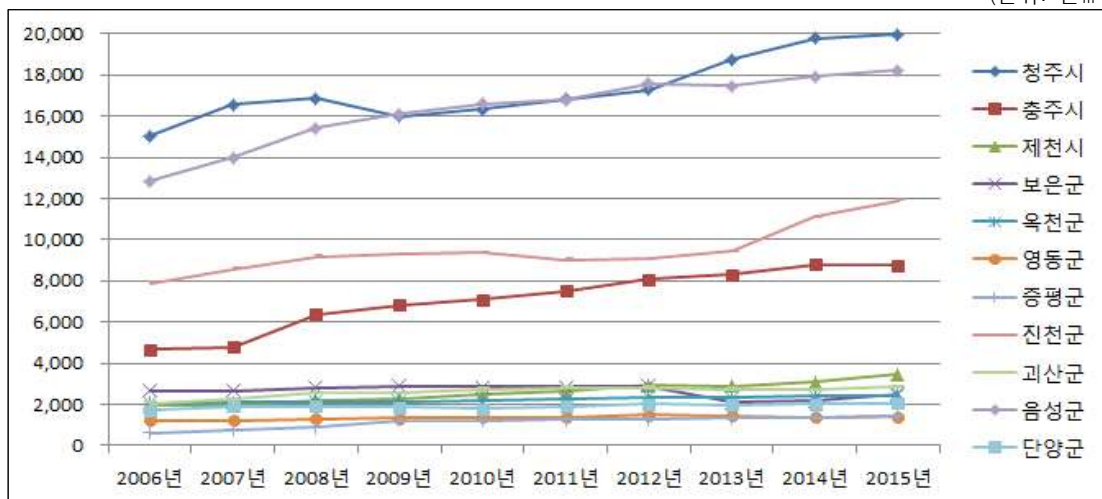
구 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계
2006년	15,026	4,655	1,925	2,642	2,049	1,219	616	7,866	2,056	12,831	1,718	52,602
2007년	16,544	4,777	1,930	2,666	2,071	1,212	747	8,558	2,238	13,971	1,888	56,604
2008년	16,853	6,380	2,213	2,826	2,121	1,284	877	9,164	2,560	15,414	1,903	61,596
2009년	15,998	6,807	2,290	2,883	2,111	1,338	1,205	9,272	2,539	16,100	1,854	62,397
2010년	16,328	7,106	2,455	2,863	2,176	1,358	1,225	9,344	2,741	16,604	1,773	63,973
2011년	16,823	7,495	2,616	2,838	2,256	1,387	1,238	9,002	2,799	16,776	1,899	65,129
2012년	17,273	8,065	2,927	2,875	2,361	1,493	1,243	9,053	2,808	17,595	2,007	67,701
2013년	18,763	8,311	2,884	2,081	2,315	1,430	1,319	9,443	2,737	17,481	1,993	68,757
2014년	19,778	8,809	3,087	2,152	2,385	1,370	1,384	11,095	2,696	17,909	2,019	72,684
2015년	19,950	8,763	3,444	2,498	2,412	1,398	1,460	11,884	2,831	18,229	2,063	74,933
증가액	4,924	4,109	1,519	-144	364	179	844	4,018	775	5,399	345	22,331
연평균증가율	3.2	7.3	6.7	-0.6	1.8	1.5	10.1	4.7	3.6	4.0	2.1	4.0

주1)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6]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추이

(단위: 천㎡)



- 충북 산업용지의 시·군별 면적의 비중을 보면, 2015년 현재 청주시가 전체의 26.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24.3%), 진천군(15.9%), 충주시(11.7%)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주시(2.8%p), 제천시(0.9%p), 진천군(0.9%p), 증평군(0.8%p)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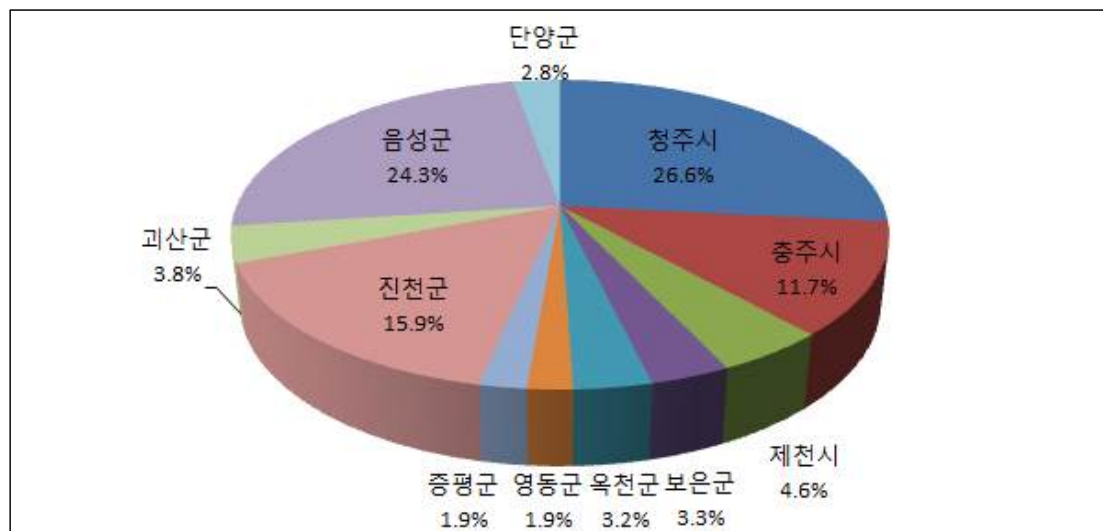
(단위: %, %p)

구 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계
2006년	28.6	8.8	3.7	5.0	3.9	2.3	1.2	15.0	3.9	24.4	3.3	100.0
2007년	29.2	8.4	3.4	4.7	3.7	2.1	1.3	15.1	4.0	24.7	3.3	100.0
2008년	27.4	10.4	3.6	4.6	3.4	2.1	1.4	14.9	4.2	25.0	3.1	100.0
2009년	25.6	10.9	3.7	4.6	3.4	2.1	1.9	14.9	4.1	25.8	3.0	100.0
2010년	25.5	11.1	3.8	4.5	3.4	2.1	1.9	14.6	4.3	26.0	2.8	100.0
2011년	25.8	11.5	4.0	4.4	3.5	2.1	1.9	13.8	4.3	25.8	2.9	100.0
2012년	25.5	11.9	4.3	4.2	3.5	2.2	1.8	13.4	4.1	26.0	3.0	100.0
2013년	27.3	12.1	4.2	3.0	3.4	2.1	1.9	13.7	4.0	25.4	2.9	100.0
2014년	27.2	12.1	4.2	3.0	3.3	1.9	1.9	15.3	3.7	24.6	2.8	100.0
2015년	26.6	11.7	4.6	3.3	3.2	1.9	1.9	15.9	3.8	24.3	2.8	100.0
증비	-1.9	2.8	0.9	-1.7	-0.7	-0.5	0.8	0.9	-0.1	-0.1	-0.5	

주1)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7]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면적 비중(2015년)



(2) 시·군별 및 계획·개별입지별 산업용지 면적

○ 충북 각 시·군의 산업용지 중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면적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11] 충북 시·군별 산업용지 계획·개별입지별 면적 추이

(단위: 천㎡, %)

구 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계
2006년	계획	7,055	1,647	899	2,194	660	396	142	1,124	153	2,366	155	16,790
	개별	7,971	3,007	1,026	448	1,389	824	474	6,742	1,904	10,465	1,563	35,812
	계	15,026	4,655	1,925	2,642	2,049	1,219	616	7,866	2,056	12,831	1,718	52,602
2007년	계획	8,179	1,695	917	2,207	673	396	210	1,295	156	2,380	142	18,252
	개별	8,365	3,082	1,013	459	1,398	816	537	7,263	2,082	11,591	1,745	38,352
	계	16,544	4,777	1,930	2,666	2,071	1,212	747	8,558	2,238	13,971	1,888	56,604
2008년	계획	8,340	2,549	1,068	2,230	690	396	313	1,234	170	2,499	142	19,633
	개별	8,512	3,831	1,146	596	1,431	889	564	7,929	2,389	12,915	1,761	41,964
	계	16,853	6,380	2,213	2,826	2,121	1,284	877	9,164	2,560	15,414	1,903	61,596
2009년	계획	7,061	2,990	1,170	2,211	698	392	606	1,285	155	2,580	139	19,289
	개별	8,936	3,817	1,120	672	1,413	945	600	7,987	2,384	13,520	1,715	43,108
	계	15,998	6,807	2,290	2,883	2,111	1,338	1,205	9,272	2,539	16,100	1,854	62,397
2010년	계획	7,192	3,233	1,301	2,208	700	395	606	1,417	155	2,594	133	19,932
	개별	9,137	3,873	1,154	655	1,476	963	619	7,927	2,586	14,010	1,639	44,041
	계	16,328	7,106	2,455	2,863	2,176	1,358	1,225	9,344	2,741	16,604	1,773	63,973
2011년	계획	7,497	3,278	1,407	2,194	741	395	574	1,398	155	2,935	226	20,800
	개별	9,326	4,217	1,209	644	1,515	992	665	7,605	2,643	13,841	1,672	44,328
	계	16,823	7,495	2,616	2,838	2,256	1,387	1,238	9,002	2,799	16,776	1,899	65,129
2012년	계획	7,492	3,454	1,693	2,169	819	450	574	1,464	132	3,276	314	21,836
	개별	9,781	4,611	1,234	706	1,542	1,043	669	7,589	2,677	14,319	1,693	45,865
	계	17,273	8,065	2,927	2,875	2,361	1,493	1,243	9,053	2,808	17,595	2,007	67,701
2013년	계획	8,569	3,609	1,593	1,379	871	395	616	1,547	137	3,313	306	22,335
	개별	10,194	4,701	1,291	702	1,444	1,035	703	7,896	2,600	14,168	1,687	46,422
	계	18,763	8,311	2,884	2,081	2,315	1,430	1,319	9,443	2,737	17,481	1,993	68,757
2014년	계획	9,399	4,020	1,712	1,499	960	395	648	2,638	173	3,435	332	25,211
	개별	10,379	4,789	1,375	653	1,424	975	736	8,458	2,524	14,474	1,687	47,473
	계	19,778	8,809	3,087	2,152	2,385	1,370	1,384	11,095	2,696	17,909	2,019	72,684
2015년	계획	9,307	4,010	2,049	1,861	963	392	710	3,379	239	3,848	384	27,142
	개별	10,643	4,753	1,395	637	1,450	1,006	750	8,505	2,592	14,382	1,679	47,791
	계	19,950	8,763	3,444	2,498	2,412	1,398	1,460	11,884	2,831	18,229	2,063	74,933
증 면 적	계획	2,253	2,363	1,150	-333	303	-4	568	2,255	86	1,482	229	10,352
	개별	2,672	1,746	369	189	61	182	276	1,763	689	3,917	116	11,979
	계	4,924	4,109	1,519	-144	364	179	844	4,018	775	5,399	345	22,331
연평균 증가율	계획	3.1	10.4	9.6	-1.8	4.3	-0.1	19.6	13.0	5.1	5.6	10.6	5.5
	개별	3.3	5.2	3.5	4.0	0.5	2.2	5.2	2.6	3.5	3.6	0.8	3.3
	계	3.2	7.3	6.7	-0.6	1.8	1.5	10.1	4.7	3.6	4.0	2.1	4.0

주1)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 각 시·군별 산업용지의 계획입지비율을 보면, 2015년 현재 보은군이 7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천시가 59.5%, 증평군이 48.6%, 청주시가 46.7%, 충주시가 45.8%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획입지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지역은 증평군(25.6%), 진천군(14.1%), 제천시(12.8%), 충주시(10.4%) 등임.

[표 3-12] 충북 각 시·군별 산업용지의 계획입지 면적 비중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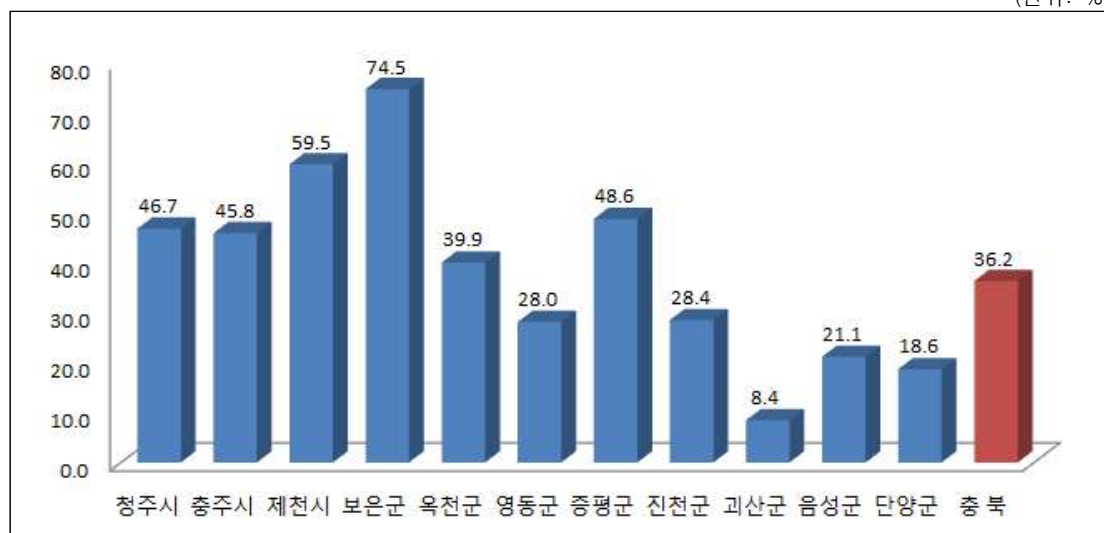
구 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북
2006년	47.0	35.4	46.7	83.0	32.2	32.4	23.0	14.3	7.4	18.4	9.0	31.9
2007년	49.4	35.5	47.5	82.8	32.5	32.6	28.1	15.1	7.0	17.0	7.5	32.2
2008년	49.5	40.0	48.2	78.9	32.5	30.8	35.7	13.5	6.7	16.2	7.5	31.9
2009년	44.1	43.9	51.1	76.7	33.1	29.3	50.3	13.9	6.1	16.0	7.5	30.9
2010년	44.0	45.5	53.0	77.1	32.2	29.1	49.4	15.2	5.7	15.6	7.5	31.2
2011년	44.6	43.7	53.8	77.3	32.8	28.5	46.3	15.5	5.5	17.5	11.9	31.9
2012년	43.4	42.8	57.8	75.4	34.7	30.1	46.2	16.2	4.7	18.6	15.7	32.3
2013년	45.7	43.4	55.2	66.3	37.6	27.6	46.7	16.4	5.0	19.0	15.4	32.5
2014년	47.5	45.6	55.5	69.7	40.3	28.8	46.8	23.8	6.4	19.2	16.5	34.7
2015년	46.7	45.8	59.5	74.5	39.9	28.0	48.6	28.4	8.4	21.1	18.6	36.2
증 가 비 중	-0.3	10.4	12.8	-8.5	7.7	-4.4	25.6	14.1	1.0	2.7	9.6	4.3

주1)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2)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

[그림 3-8] 충북 각 시·군별 산업용지의 계획입지 면적 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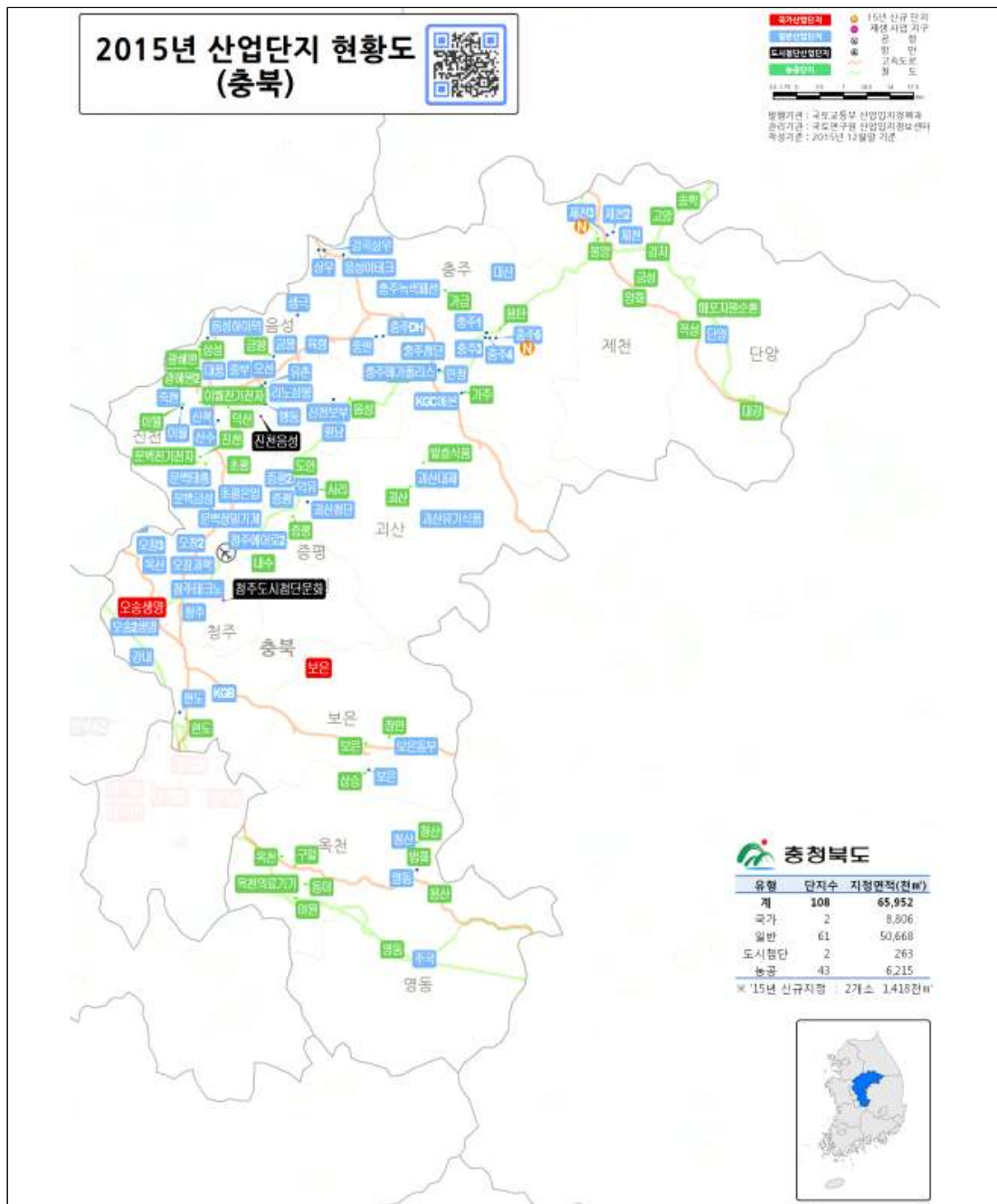


2. 산업단지 현황

1) 충북 전체

(1) 산업단지 종괄 현황

[그림 3-9] 충북 사업단지 현황도



- 충북의 산업단지는 2001년 52개에서 2015년 109개로 57개 증가하였으며 지정면적은 32,806천㎡에서 66,028천㎡로 33,222천㎡ 늘어났음.
- 유형별로는 2015년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2개, 일반산업단지가 62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개, 농공단지가 43개이며 면적의 비중은 일반산업단지가 76.9%, 국가산업단지가 13.3%, 농공단지가 9.4%, 도시첨단산업단지가 0.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3] 충북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 추이

(단위: 개, 천㎡, %)

구 분	계		국 가		일 반		도시첨단		농 공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단지 수	지정면적
2001년	52	32,806	2	8,606	13	19,538	0	0	37	4,662
2002년	54	33,360	3	9,076	14	19,622	0	0	37	4,662
2003년	55	35,371	3	9,072	15	21,638	0	0	37	4,662
2004년	55	35,202	2	8,576	15	21,636	0	0	38	4,990
2005년	59	37,437	2	8,576	18	23,720	0	0	39	5,141
2006년	59	37,575	2	8,575	18	23,858	0	0	39	5,142
2007년	62	40,157	2	8,810	19	26,012	1	51	40	5,284
2008년	73	51,189	2	8,812	30	37,024	1	51	40	5,303
2009년	88	56,743	2	8,812	43	42,066	1	51	42	5,815
2010년	93	61,892	2	8,806	48	47,132	1	51	42	5,904
2011년	98	62,976	2	8,806	53	48,214	1	51	42	5,906
2012년	98	61,160	2	8,806	53	46,417	1	51	42	5,886
2013년	100	62,611	2	8,806	55	47,869	1	51	42	5,885
2014년	106	64,527	2	8,806	59	49,229	2	274	43	6,217
2015년	109	66,028	2	8,806	62	50,744	2	263	43	6,215
	(100.0)	(100.0)	(1.8)	(13.3)	(56.9)	(76.9)	(1.8)	(0.4)	(39.4)	(9.4)
2001년 대비 증가량	57	33,222	0	200	49	31,206	2	263	6	1,553
연평균 증가율	5.4	5.1	0.0	0.2	11.8	7.1	9.1	22.8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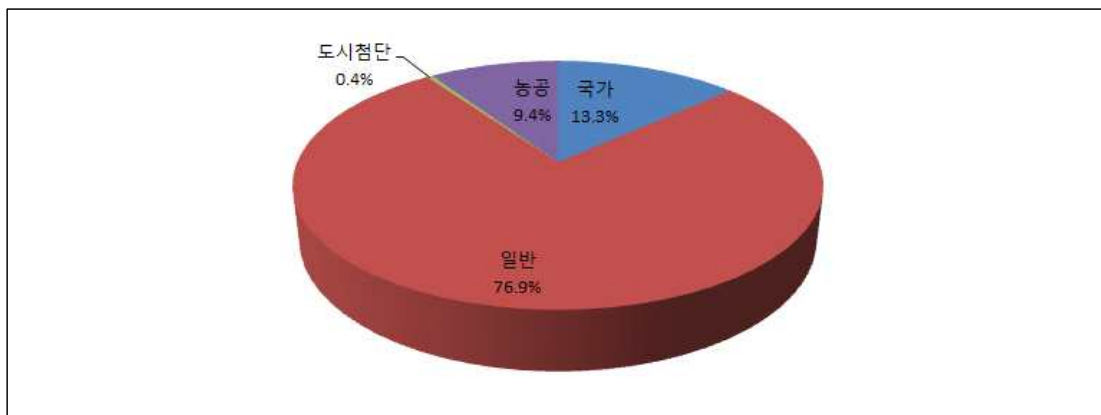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부용일반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제외(2001~2011년)

주3) 2015년의 ()는 비중임

주4) 도시첨단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7년~2015년 기준

[그림 3-10] 충북 산업단지 유형별 면적 비중(2015년)



(2) 시·군별 산업단지 총괄 현황

- 2015년 현재,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수는 음성군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와 진천군이 각 16개, 청주시가 15개 등의 순임.
- 산업단지 면적의 비중은 청주시가 42.5%로 가장 크고 충주시가 11%, 보은군이 10.1%로 뒤를 잇고 있음.

[표 3-14]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

구분	합 계				국 가		일 반		도시첨단		농 공	
	단지 수		면적		단지 수	면적	단지 수	면적	단지 수	면적	단지 수	면적
	단지 수	비중	면적	비중								
충 북	109	100.0	66,028	100.0	2	8,806	62	50,744	2	263	43	6,215
청주시	15	13.8	28,062	42.5	1	4,628	11	23,222	1	39	2	173
충주시	16	14.7	7,235	11.0			12	6,529			4	707
제천시	9	8.3	4,392	6.7			3	3,625			6	768
보은군	6	5.5	6,647	10.1	1	4,178	2	1,968			3	501
옥천군	7	6.4	1,281	1.9			1	353			6	928
영동군	5	4.6	1,603	2.4			2	1,147			3	456
증평군	5	4.6	1,629	2.5			3	1,446			2	183
진천군	16	14.7	5,723	8.7			8	4,437			8	1,286
괴산군	7	6.4	2,501	3.8			4	2,013			3	489
음성군	19	17.4	6,247	9.5			15	5,654	1	224	3	370
단양군	4	3.7	707	1.1			1	351			3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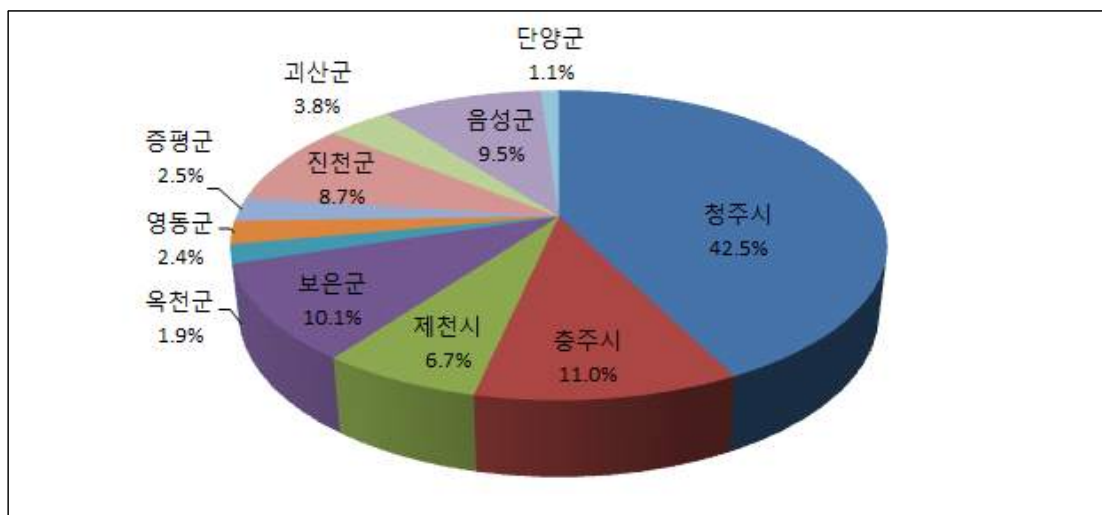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지정면적은 산업단지 지정면적

주4) 각 시·군 합계와 충북 전체 수치 중 일부가 소수점으로 인해 불일치

[그림 3-11]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면적 비중(2015년)



(3) 유형별 산업단지 명칭 및 면적

□ 국가산업단지

- 2015년 현재, 충북의 국가산업단지는 2개로, 청주시의 오송생명과학단지(1997년 지정)와 보은군의 보은국가산업단지(1987년 지정)이며 면적은 각각 4,628천㎡와 4,178천㎡임.

[표 3-15] 충북 국가산업단지(2개)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청주시 (1)	오송생명과학단지	4,628	보은군 (1)	보은국가산업단지	4,178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는 산업단지 수

□ 일반산업단지

- 2015년 현재, 충북의 일반산업단지는 62개로, 단지 수로는 음성군(15개)이 가장 많고, 면적으로는 청주시(23,222천㎡)가 가장 큼.

[표 3-16] 충북 일반산업단지(62개)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청주시 (11)	오창과학산업단지	9,450	충주시 (12)	종원일반산업단지	375
	-오창과학(산업단지)	8,644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1,286
	-오창과학(오창외국인)	806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	1,992
	현도일반산업단지	719		충주제4산업단지	176
	청주일반산업단지	4,099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02
	오창제2산업단지	1,390		충주제3산업단지	129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1,528		충주DH산업단지	77
	옥산산업단지	1,364		만정일반산업단지	5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3,284		대신일반산업단지	47
	오창제3산업단지	576		KGC예본일반산업단지	87
	KGB복합산업단지	306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1,811
	강내산업단지	185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295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321			
제천시 (3)	제천일반산업단지	1,195	보은군 (2)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688
	제천제2산업단지	1,307		보은산업단지	1,280
	제천제3산업단지	1,122			
옥천군 (1)	청산산업단지	353	영동군 (2)	영동산업단지	998
				주곡산업단지	149

[표 3-16 계속] 충북 일반산업단지(62개)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옥천군 (1)	청산산업단지	353	진천군 (8)	이월일반산업단지	300
증평군 (3)	증평일반산업단지	682		신척산업단지	1,514
	증평2일반산업단지	704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36
	덕유산업단지	60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118
음성군 (15)	금왕일반산업단지	571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611
	대풍일반산업단지	439		산수일반산업단지	1,305
	맹동일반산업단지	419		-산수(산업단지)	1,196
	음성하이텍산업단지	397		-산수(산수중소협력외국인)	108
	음성이테크일반산업단지	135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409
	상우산업단지	679		죽현일반산업단지	145
	원남산업단지	1,113	괴산군 (4)	괴산첨단산업단지	459
	중부산업단지	148		괴산대제산업단지	850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75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628
	육령일반산업단지	63		충청북도수산식품산업단지	76
	신천보부산업단지	145	단양군 (1)	단양산업단지	351
	리노삼봉산업단지	165			
	생극산업단지	458			
	오선산업단지	44			
	유촌산업단지	405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는 산업단지 수

□ 도시첨단산업단지

- 2015년 현재, 충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개로, 청주시의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2002년 지정)와 음성군의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2014년 지정)임.

[표 3-17] 충북 도시첨단산업단지(2개)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지 역	단지명	지정면적
청주시 (1)	청주도시첨단문화 산업단지	39	음성군 (1)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224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는 산업단지 수

□ 농공단지

- 2015년 현재, 충북의 농공단지는 43개로, 진천군이 8개(1,286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옥천군이 6개(928천㎡), 제천시가 6개(768천㎡) 등의 순임.

[표 3-18] 충북 농공단지(43개) 지정 현황(2015년)

(단위: 개, 천㎡)

지 역	단지명(※면적)	총 지정면적	지 역	단지명(※면적)	총 지정면적
청주시 (2)	내수(105), 현도(68)	173	충주시 (4)	가금(225), 가주(131), 용탄(192), 주덕(159)	707
제천시 (6)	강저(142), 고암(168), 금성(86), 봉양(133), 송학(90), 양화(149)	768	보은군 (3)	보은(70), 삼승(150), 장안(281)	501
옥천군 (6)	동이(161), 옥천(282), 구일(132), 이원(142), 청산(65), 옥천의료기기(145)	928	영동군 (3)	영동(71), 법화(123), 용산(262)	456
증평군 (2)	도안(93), 증평(90)	183	진천군 (8)	덕산(91), 광혜원(82), 진천(58), 이월(127), 초평(136), 문백전기·전자(124) 이월전기·전자(329), 광혜원제2(339)	1,286
괴산군 (3)	괴산(55), 사리(112), 괴산발효식품(321)	489			
단양군 (3)	대강(82), 적성(124), 매포자원순환(150)	356	음성군 (3)	금왕(139), 삼성(163), 음성(68)	370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단지명에 '농공단지' 생략

주3) 지역의 ()는 산업단지 수, 단지명의 ()는 지정면적

(4) 조성 미완료 산업단지 현황

- 2015년 12월 말 현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38개로,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3개임.
- 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음성군으로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 또는 보상 중이거나 준비 중이며 그 다음으로 청주시가 7개, 진천군이 6개로 나타남.
- 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상태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일반산업단지는 32개 중 12개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각각 2개, 3개 중 1개씩 분양이 완료되었음.

[표 3-19] 충북 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2015년)

(단위: 천㎡, 년, %)

시군	유형	단지명	지정면적	사업기간	조성상태	공정률	분양상태
청주시 (7개)	일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1,528	2007~2017	조성 중	31	분양 중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3,284	2007~2018	조성 중	0	분양 중
		오창제3산업단지	576	2012~2016	조성 중	62	분양 중
		KGB복합산업단지	306	2013~2016	보상 중	0	완료
		강내산업단지	185	2013~2016	보상 중	0	완료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321	2013~2020	준비 중	0	분양계획
	도시 첨단	청주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39	2002~2016	조성 중	100	완료
충주시 (4개)	일반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02	2009~2017	조성 중	75	분양계획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1,811	2011~2017	조성 중	92	분양 중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295	2014~2017	준비 중	0	분양계획
	농공	가금농공단지	225	1988~2016	조성 중	69	완료
제천시	일반	제천제3산업단지	1,122	2012~2018	준비 중	0	분양계획
보은군 (2개)	국가	보은국가산업단지	4,178	1987~2016	조성 중	100	완료
	일반	보은산업단지	1,280	2007~2017	조성 중	58	분양 중
영동군 (2개)	일반	영동산업단지	998	2007~2016	조성 중	50	분양 중
		주곡산업단지	149	2009~2016	조성 중	70	분양계획
증평군 (2개)	일반	증평2일반산업단지	704	2009~2016	조성 중	41	분양 중
		덕유산업단지	60	2012~2017	조성 중	0	완료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36	2008~2015	조성 중	100	분양계획
진천군 (6개)	일반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118	2008~2016	조성 중	95	완료
		조평은암일반산업단지	611	2009~2016	조성 중	27	분양계획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409	2010~2016	조성 중	90	완료
		죽현일반산업단지	145	2013~2016	조성 중	93	완료
		광혜원제2농공단지	339	2014~2016	조성 중	38	분양 중
	농공	괴산대제산업단지	850	2007~2015	조성 중	100	분양 중
괴산군 (4개)	일반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628	2009~2017	조성 중	46	분양 중
		괴산첨단산업단지	459	2006~2017	보상 중	0	분양계획
	농공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321	2008~2015	조성 중	100	분양 중
음성군 (10개)	일반	상우산업단지	679	2005~2016	조성 중	5	분양 중
		원남산업단지	1,113	2007~2016	조성 중	99	완료
		육령일반산업단지	63	2009~2016	조성 중	54	완료
		리노삼봉산업단지	165	2012~2016	조성 중	70	완료
		생극산업단지	458	2011~2016	조성 중	92	분양 중
		오선산업단지	442	2013~2017	조성 중	7	완료
		신천보부산업단지	145	2009~2017	보상 중	0	완료
		유촌산업단지	405	2014~2017	보상 중	0	완료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75	2008~2016	준비 중	0	분양계획
	도시 첨단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224	2014~2015	조성 중	100	분양 중
유형별 (38개)	국가	1개	4,178	조성 중 1		분양 완료 1	
	일반	32개	19,622	조성 중 23, 기타 9		분양 완료 12	
	도시첨단	2개	263	조성 중 2		분양 완료 1	
	농공	3개	885	조성 중 3		분양 완료 1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2015년 12월 현재

주2) 유형 및 조성상태 순

(5) 산업단지 가동 현황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보고서」의 2016년 1분기 조사결과를 보면 (2015년 4분기 조사결과는 일반산업단지 1개가 수정되지 않아 본 자료 사용), 전체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업체는 1,565개이며 그 중 1,337개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이 가동업체 비율은 85.4%이고 고용인원은 약 79천명, 누계 생산액은 약 9조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동업체 1개당 고용인원은 국가산업단지가 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6.1명으로 가장 적었음.

[표 3-20] 충북 산업단지 가동 현황(2016년 1분기)

(단위: 개, %, 명, 십억원)

유형	단지 수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가동/입주업체 비율	고용인원	누계 생산액
전체	109	1,565	1,337	85.4	79,397 (59.4명/개)	9,287
국가	2	61	45	73.8	3,427 (76.2명/개)	309
일반	62	1,046	867	82.9	60,898 (70.2명/개)	7,335
도시첨단	2	77	76	98.7	463 (6.1명/개)	19
농공	43	381	349	91.6	14,609 (41.9명/개)	1,624

주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6년 1분기)

주2) 고용인원의 ()는 가동업체 1개당 평균 고용인원

(6)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미분양 현황

- 충북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추이를 보면, 2001년에 미분양률이 18.1%로 가장 높았다가 2007년에 1.9%로 최저로 낮아졌으며 2016년 현재 4.8%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단지의 유형별로, 국가산업단지는 2016년 현재 44천㎡가 미분양 상태이며 미분양률은 1.3%임. 일반산업단지는 1,333천㎡가 미분양 상태이고 미분양률은 5.5%임. 농공단지는 201천㎡가 미분양 상태고 미분양률은 4%임.
- 전체 미분양 면적 중 일반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4.5%, 농공단지가 1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없음.

[표 3-21] 충북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추이

(단위: 천 m², %)

구 분	계		국 가		일 반		도시첨단		농 공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2001년	2,677	18.1	-	0.0	2,654	27.4	-	0.0	23	0.6
2002년	2,078	13.7	351	22.0	1,713	18.1	-	0.0	14	0.3
2003년	1,645	10.3	351	22.0	1,294	12.6	-	0.0	-	0.0
2004년	1,072	7.0	-	0.0	1,072	10.6	-	0.0	-	0.0
2005년	764	4.9	-	0.0	764	7.4	-	0.0	-	0.0
2006년	359	2.3	-	0.0	359	3.4	-	0.0	-	0.0
2007년	340	1.9	-	0.0	340	3.1	-	0.0	-	0.0
2008년	403	2.1	101	3.1	302	2.7	-	0.0	-	0.0
2009년	1,170	5.7	358	9.8	682	5.6	-	0.0	130	2.8
2010년	1,078	5.2	340	9.3	611	5.1	-	0.0	94	2.0
2011년	676	3.0	129	3.9	488	3.3	-	0.0	60	1.3
2012년	945	4.0	63	1.9	836	5.3	-	0.0	46	1.0
2013년	807	3.3	63	1.9	645	4.0	-	0.0	98	2.1
2014년	1,395	5.3	69	2.1	1,260	6.9	-	0.0	66	1.4
2015년	2,795	9.2	44	1.3	2,504	11.3	-	0.0	247	5.0
2016년	1,578 (100.0)	4.8	44 (2.8)	1.3	1,333 (84.5)	5.5	- (0.0)	0.0	201 (12.7)	4.0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시설용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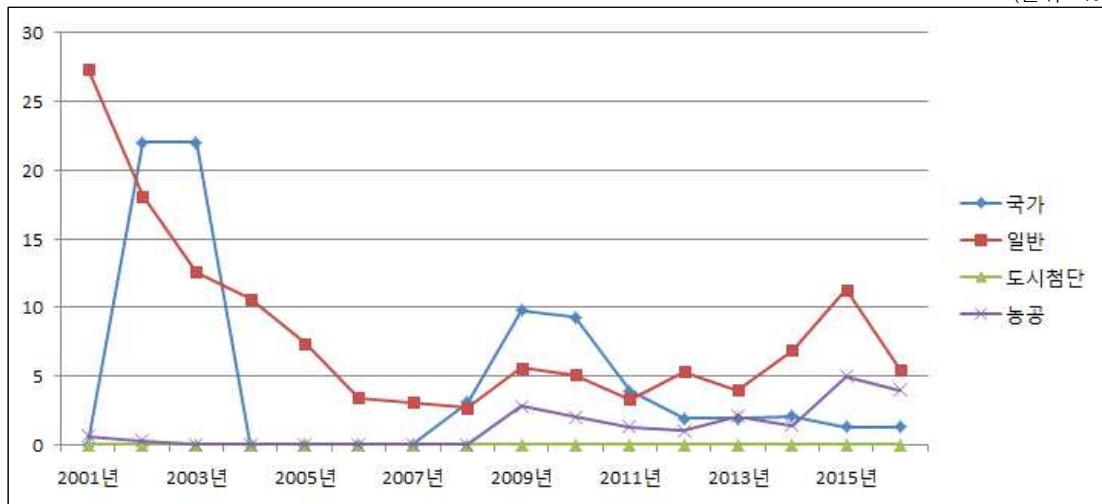
주2)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부용일반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포함(2001~2011년)

주3)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임

주4) 2016년의 ()는 각 유형별 미분양면적 비중임

[그림 3-12] 충북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유형별 미분양률 추이

(단위: %)



2)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1) 청주시

- 2015년 현재, 청주시는 총 15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 산업단지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2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28,062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12,887천㎡ (45.9%)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2.7%(2016년 0.8%)임.
-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민간(민/관 합작 포함)인 산업단지는 6개임.

[표 3-22]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15개				28,062	12,887	2.7	
국가	오송생명과학단지	1997	완료	4,628	2,217	2.0	공사
일반	일반 전체 (11개)			23,222	10,478		
	오창과학산업단지	1992	완료	9,450	3,255	0.0	공사
	-오창과학(산업단지)	1992	완료	8,644	2,449	0.0	공사
	-오창과학(오창외국인)	2002	완료	806	806	0.0	공사
	현도일반산업단지	1991	완료	719	415	0.0	민간
	청주일반산업단지	1969	완료	4,099	3,025	0.0	시군구
	오창제2산업단지	2008	완료	1,390	511	0.0	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2008	조성 중	1,528	518	21.4	민/관합작
	옥산산업단지	2009	완료	1,364	737	6.1	민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2010	조성 중	3,284	1,120		공사
	오창제3산업단지[구:성재]	2012	조성 중	576	368	44.2	민간
	KGB복합산업단지	2014	보상 중	306	176		민간
	강내산업단지	2014	보상 중	185	137		민간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충북경제자유구역)	2013	준비 중	321	217		시도
도시 첨단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2002	조성 중	39	30	0.0	시군구
농공	농공 전체 (2개)			173	162	0.0	
	내수농공단지	1987	완료	105	101	0.0	시군구
	현도농공단지	1987	완료	68	60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2) 충주시

- 2015년 현재, 충주시는 총 16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4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7,235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4,623천㎡ (63.9%)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16.5%임(2016년 미분양률은 6.8%).
- 사업주체가 민간(민/관 합작 포함)인 산업단지는 7개이고 나머지 9개 산업단지의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임.

[표 3-23] 충주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16개				7,235	4,623	16.5	
일반	일반 전체 (12개)			6,529	4,024	18.9	
	중원일반산업단지	1997	완료	375	204	0.0	민간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1979	완료	1,286	847	0.0	시군구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	2003	완료	1,992	989	0.0	공사
	충주제4산업단지	2009	완료	176	156	0.0	시군구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009	조성 중	202	68		민간
	충주제3산업단지	2008	완료	129	103	0.0	시군구
	충주DH산업단지	2009	완료	77	73	0.0	민간
	만정일반산업단지	2010	완료	50	46	0.0	민간
	대신일반산업단지	2011	완료	47	28	0.0	민간
	KGC예본일반산업단지 [구:KT&G]	2012	완료	87	60	0.0	민간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2013	조성 중	1,811	1,233	60.8	민/관합작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2015	준비 중	295	219		시군구
농공	농공 전체 (4개)			707	598	0.0	
	가금농공단지	1988	조성 중	225	201	0.0	시군구
	가주농공단지	1987	완료	131	100	0.0	시군구
	용탄농공단지	1989	완료	192	157	0.0	시군구
	주덕농공단지	1986	완료	159	140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3) 제천시

- 2015년 현재, 제천시는 총 9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6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4,392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2,954천㎡(67.3%)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4.2%(2016년 미분양률은 3.2%).

[표 3-24] 제천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9개				4,392	2,954	4.2	
일반	일반 전체 (3개)			3,625	2,333	2.2	
	제천일반산업단지	1994	완료	1,195	731	0.0	공사
	제천제2산업단지	2007	완료	1,307	811	4.1	공사
	제천제3산업단지	2015	준비 중	1,122	792		시군구
농공	농공 전체 (6개)			768	621	9.1	
	강저농공단지	1987	완료	142	108	0.0	시군구
	고암농공단지	1989	완료	168	152	0.0	시군구
	금성농공단지	1988	완료	86	73	0.0	시군구
	봉양농공단지	1990	완료	133	115	0.0	시군구
	송학농공단지	1989	완료	90	74	0.0	시군구
	양화농공단지	2009	완료	149	98	57.9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4) 보은군

- 2015년 현재, 보은군은 총 6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1개, 일반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3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6,647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2,763천㎡(41.6%)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15.2%(2016년 미분양률은 6.2%).
- 사업주체가 민간(민/관 합작 포함)인 산업단지는 2개이고 나머지 4개 산업단지의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임.

[표 3-25] 보은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m²,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천제)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6개				6,647	2,763	15.2	
국가	보은국가산업단지	1987	조성 중	4,178	1,123	0.0	민간
일반	일반 전체 (2개)			4,178	1,123	0.0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2008	완료	1,968	1,242	41.6	공사
	보은산업단지	2009	조성중	688	358	0.0	공/관합작
농공	농공 전체 (3개)			1,280	885	70.6	
	보은농공단지	1988	완료	501	398	0.0	시군구
	삼승농공단지	1994	완료	70	53	0.0	시군구
	장안농공단지	1990	완료	150	104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5) 옥천군

- 2015년 현재, 옥천군은 총 7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6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1,281천m²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1,058천m²(82.6%)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6.7%임(2016년 미분양률은 6.0%).

[표 3-26] 옥천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m²,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천제)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7개				1,281	1,058	6.7	
일반	청산산업단지	2008	완료	353	256	20.4	시군구
농공	농공 전체 (6개)			928	802	2.4	
	동이농공단지	1987	완료	161	144	0.0	시군구
	옥천농공단지	1989	완료	282	267	0.0	시군구
	구일농공단지	1997	완료	132	99	0.0	시군구
	이원농공단지	1991	완료	142	129	0.0	시군구
	청산농공단지	1988	완료	65	56	0.0	시군구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2007	완료	145	107	17.7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6) 영동군

- 2015년 현재, 영동군은 총 5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3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1,603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1,085천㎡(67.7%)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43.3%임(2016년 미분양률은 28.6%).

[표 3-27] 영동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5개				1,603	1,085	43.3	
일반	일반 전체 (2개)			1,147	693	97.1	
	영동산업단지	2008	조성 중	998	612	100.0	시군구
	주곡산업단지	2009	조성 중	149	81	0.0	민간
	농공 전체 (3개)			456	392	0.0	
농공	영동농공단지	1986	완료	71	58	0.0	시군구
	법화농공단지	1996	완료	123	92	0.0	시군구
	용산농공단지	1987	완료	262	243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7) 증평군

- 2015년 현재, 증평군은 총 5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2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1,629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1,229천㎡(75.4%)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0%임.

[표 3-28] 증평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5개				1,629	1,229	0.0	
일반	일반 전체 (3개)			1,446	1,060	0.0	
	증평일반산업단지	2005	완료	682	507	0.0	민간
	증평2일반산업단지	2009	조성 중	704	514	0.0	민/관합작
	덕유산업단지	2013	조성 중	60	40		민간
농공	농공 전체 (2개)			183	169	0.0	
	도안농공단지	1986	완료	93	83	0.0	시군구
	증평농공단지	1987	완료	90	86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8) 진천군

- 2015년 현재, 진천군은 총 16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8개, 농공단지 8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5,723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3,850천㎡ (67.3%)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0%임.
- 사업주체가 민간(민/관 합작 포함)인 산업단지는 7개이고 나머지 9개 산업단지의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임.

[표 3-29] 진천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16개				5,723	3,850	0.0	
일반	일반 전체 (8개)			4,437	2,851	0.0	
	이월일반산업단지	2000	완료	300	212	0.0	민간
	신척산업단지[구:진천]	2008	완료	1,514	1,026	0.0	공사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구:태락협동화]	2008	조성 중	36	23		민간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2009	조성 중	118	70	0.0	민간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2009	조성 중	611	366		민간
	산수일반산업단지	2010	완료	1,305	869	0.0	민간
	-산수(산업단지)	2010	완료	1,196	760	0.0	민간
	-산수(산수중소협력외국인)	2014	완료	108	108	0.0	민간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2011	조성 중	409	167	0.0	민간
	죽현일반산업단지	2013	조성 중	145	119	0.0	민간
농공	농공 전체 (8개)			1,286	999	0.0	
	덕산농공단지	1987	완료	91	81	0.0	시군구
	광혜원농공단지	1987	완료	82	75	0.0	시군구
	진천농공단지	1984	완료	58	48	0.0	시군구
	이월농공단지	1995	완료	127	109	0.0	시군구
	초평농공단지	1987	완료	136	120	0.0	시군구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2001	완료	124	111	0.0	시군구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2004	완료	329	214	0.0	시군구
	광혜원제2농공단지	2014	조성 중	339	241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9) 괴산군

- 2015년 현재, 괴산군은 총 7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3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2,501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1,466천㎡(58.6%)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57.4%임(2016년 미분양률은 44.1%).

[표 3-30] 괴산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7개				2,501	1,466	57.4	
일반	일반 전체 (4개)			2,013	1,105	63.0	
	괴산첨단산업단지	2007	보상 중	459	297		시군구
	괴산대체산업단지	2008	조성 중	850	556	88.4	민/관합작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2011	조성 중	628	222	0.0	민간
	충청북도수산물식품산업단지	2015	준비 중	76	30		시도
농공	농공 전체 (3개)			489	362	45.5	
	괴산농공단지	1988	완료	55	43	0.0	시군구
	사리농공단지	1987	완료	112	95	0.0	시군구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2009	조성 중	321	224	73.6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10) 단양군

- 2015년 현재, 단양군은 총 4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3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707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448천㎡(63.4%)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24.3%임(2016년 미분양률은 22.1%).

[표 3-31] 단양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4개				707	448	24.3	
일반	단양산업단지[구:단양신소재]	2005	완료	351	190	54.0	시군구
농공	농공 전체 (3개)			356	258	2.5	
	대강농공단지	1989	완료	82	67	9.5	시군구
	적성농공단지	1991	완료	124	98	0.0	시군구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2005	완료	150	94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11) 음성군

- 2015년 현재, 음성군은 충북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인 총 19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1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3개임.
- 산업단지의 전체 지정면적은 6,247천㎡이고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4,314천㎡ (69.1%)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개발용지 기준)은 6.9%(2016년 미분양률은 3.0%).
- 사업주체가 민간(민/관 합작 포함)인 산업단지는 12개이고 나머지 7개 산업단지의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임.

[표 3-32] 음성군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단위: 년, 천㎡, %)

구 분		지정연도	조성상태	지정면적 (전체)	산업시설용지		사업주체
					면적	미분양률	
총 19개				6,247	4,314	6.9	
일반	일반 전체 (15개)			5,654	3,844	7.7	
	금왕일반산업단지	1994	완료	571	417	0.0	시군구
	대풍일반산업단지	1992	완료	439	328	0.0	시군구
	맹동일반산업단지	1996	완료	419	274	0.0	시군구
	음성하이텍산업단지	1992	완료	397	313	0.0	민/관합작
	음성이테크일반산업단지	1993	완료	135	81	0.0	민간
	상우산업단지[구:감곡]	2005	조성 중	679	317	0.0	민간
	원남산업단지	2008	조성 중	1,113	749	0.0	민간
	중부산업단지	2008	완료	148	124	0.0	민간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2009	준비 중	75	50		민간
	육령일반산업단지	2009	조성 중	63	40	0.0	민간
	신천보부산업단지[구:음성임대]	2010	보상 중	145	109		민간
	리노삼봉산업단지	2011	조성 중	165	122	0.0	민간
	생극산업단지	2013	조성 중	458	318	68.4	민간
	오선산업단지	2014	조성 중	442	333	0.0	민간
	유촌산업단지	2014	보상 중	405	270		민간
도시 첨단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2014	조성 중	224	158	0.0	공사
농공	농공 전체 (3개)			370	313	0.0	
	금왕농공단지	1988	완료	139	116	0.0	시군구
	삼성농공단지	1986	완료	163	140	0.0	시군구
	음성농공단지	1986	완료	68	56	0.0	시군구

주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미분양률은 개발면적 기준

3)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제2절 산업입지 수요 작성)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함.

(1) 산업시설용지 면적 추이

- 충북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2001년 17,257천㎡에서 2015년 36,678천㎡로, 19,421천㎡ 증가하여 약 2.1배 확대되었음.
- 산업시설용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2015년은 5.5%이었으며 2005년~2015년은 6.6%, 2010년~2015년은 1.8%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2001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청주시가 3,944천㎡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3,152천㎡), 충주시(3,066천㎡), 음성군(2,703천㎡) 등도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음.

[표 3-33]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단위: 천㎡,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면적(년)									변화 추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2015	2001~2015년		2005~2015년		2010~2015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충 북	17,257	18,930	19,421	21,033	30,918	33,506	33,529	34,104	36,678	19,421	5.5	17,257	6.6	3,172	1.8
청주시	8,943	9,574	8,612	8,713	11,971	13,237	12,740	12,568	12,887	3,944	2.6	4,275	4.1	-350	-0.5
충주시	1,557	2,554	2,517	2,525	2,956	3,237	3,278	4,398	4,623	3,066	8.1	2,106	6.3	1,386	7.4
제천시	1,277	1,277	1,254	2,084	2,156	2,190	2,188	2,115	2,954	1,677	6.2	1,700	8.9	764	6.2
보은군	1,437	1,484	1,484	1,484	2,783	2,774	2,774	2,714	2,763	1,326	4.8	1,279	6.4	-11	-0.1
옥천군	691	691	691	796	1,055	1,055	1,056	1,054	1,058	367	3.1	367	4.4	3	0.1
영동군	392	392	392	392	1,085	1,085	1,085	1,085	1,085	693	7.5	693	10.7	0	0.0
증평군	145	145	642	642	1,212	1,212	1,185	1,224	1,229	1,084	16.5	587	6.7	17	0.3
진천군	698	698	942	935	1,973	2,896	3,053	3,342	3,850	3,152	13.0	2,908	15.1	954	5.9
괴산군	357	357	357	849	1,710	1,710	1,932	1,637	1,466	1,109	10.6	1,109	15.2	-244	-3.0
음성군	1,611	1,611	2,085	2,169	3,559	3,660	3,593	3,519	4,314	2,703	7.3	2,229	7.5	654	3.3
단양군	148	148	447	444	458	449	646	448	448	300	8.2	1	0.0	-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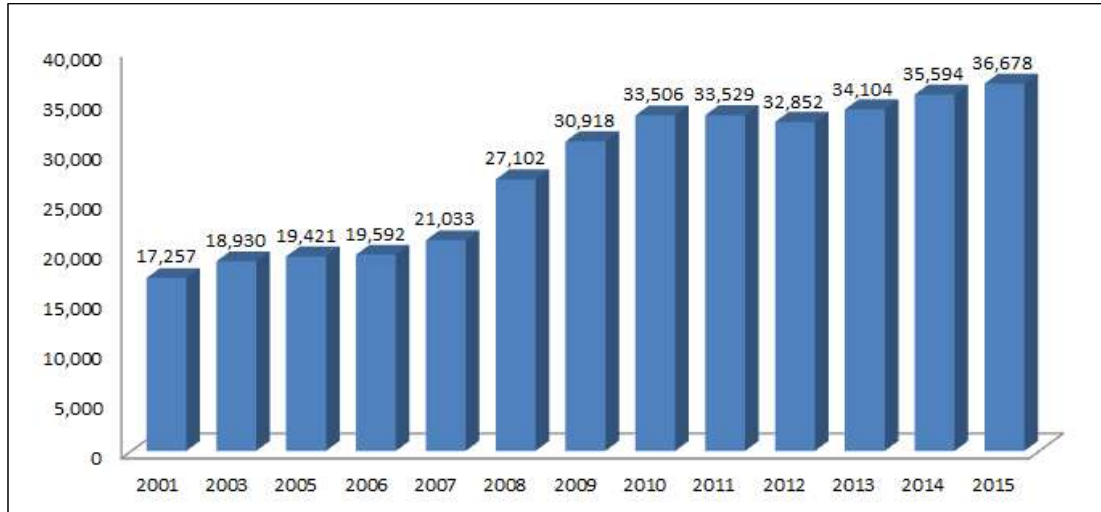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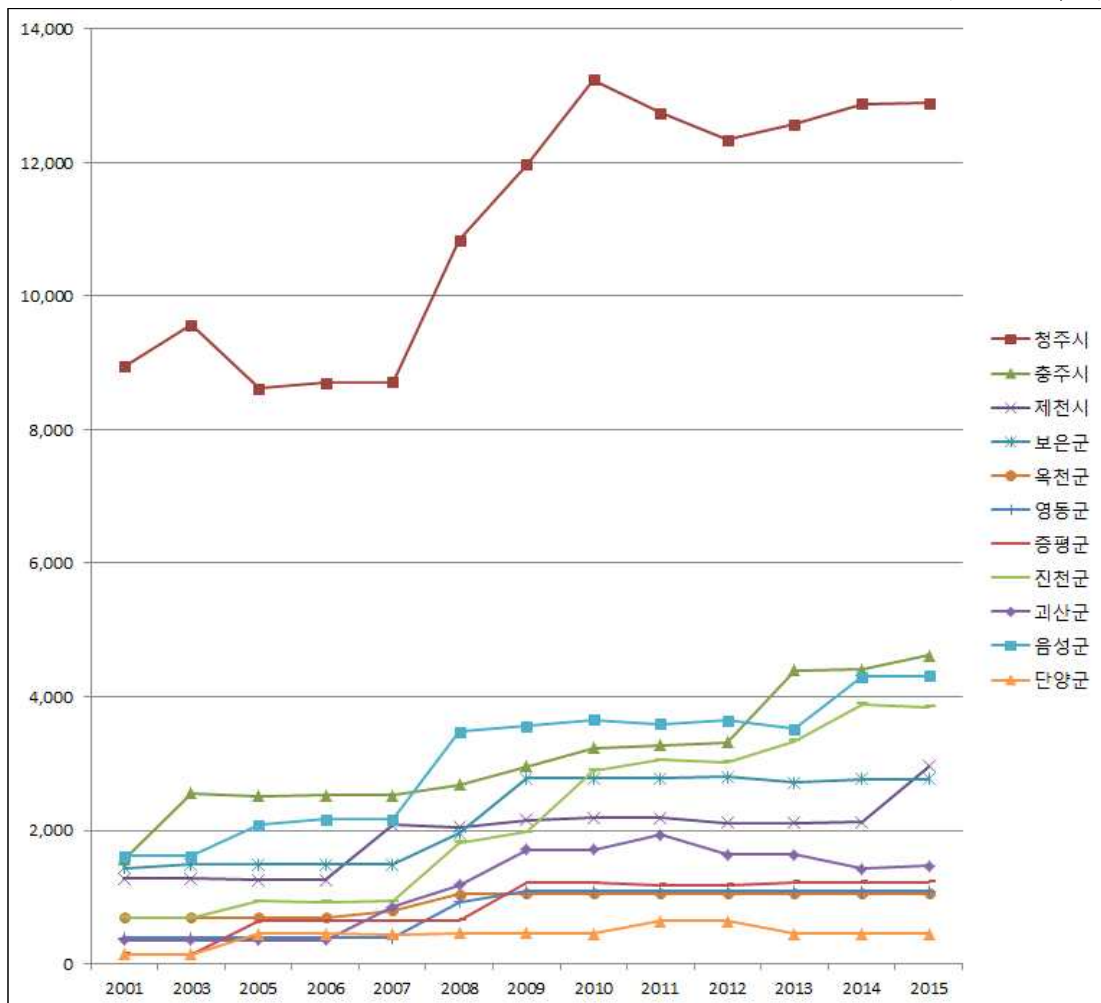
[그림 3-13]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단위: 천 m², 년)



[그림 3-14] 충북 시·군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단위: 천 m², 년)



□ 충북에서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 시·군별 비중

- 충북 산업단지의 전체 산업시설용지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을 보면, 2015년 현재 청주시가 35.1%로 가장 많고 충주시가 12.6%, 음성군이 11.8%, 진천군이 10.5%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청주시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2001년 51.8%에 비해 2015년에는 16.7%p나 감소한 반면 2001년 4%에 불과하였던 진천군은 2015년에 10.5%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3-34]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면적 시·군별 비중 추이

(단위: %, %p)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면적 비중(년)										변화 추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2015	2001~2015년 비중 증가량	2001~2015년		2005~2015년		2010~2015년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충 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주시	51.8	50.6	44.3	41.4	38.7	39.5	38.0	36.9	35.1	-16.7	-2.7	-9.2	-2.3	-4.3	-2.3	
충주시	9.0	13.5	13.0	12.0	9.6	9.7	9.8	12.9	12.6	3.6	2.4	-0.4	-0.3	2.9	5.4	
제천시	7.4	6.7	6.5	9.9	7.0	6.5	6.5	6.2	8.1	0.7	0.6	1.6	2.2	1.6	4.5	
보은군	8.3	7.8	7.6	7.1	9.0	8.3	8.3	8.0	7.5	-0.8	-0.7	-0.1	-0.1	-0.8	-2.0	
옥천군	4.0	3.7	3.6	3.8	3.4	3.1	3.1	3.1	2.9	-1.1	-2.3	-0.7	-2.1	-0.2	-1.3	
영동군	2.3	2.1	2.0	1.9	3.5	3.2	3.2	3.2	3.0	0.7	1.9	1.0	4.1	-0.2	-1.3	
증평균	0.8	0.8	3.3	3.1	3.9	3.6	3.5	3.6	3.4	2.6	10.9	0.1	0.3	-0.2	-1.1	
진천군	4.0	3.7	4.9	4.4	6.4	8.6	9.1	9.8	10.5	6.5	7.1	5.6	7.9	1.9	4.1	
괴산군	2.1	1.9	1.8	4.0	5.5	5.1	5.8	4.8	4.0	1.9	4.7	2.2	8.3	-1.1	-4.7	
음성군	9.3	8.5	10.7	10.3	11.5	10.9	10.7	10.3	11.8	2.5	1.7	1.1	1.0	0.9	1.6	
단양군	0.9	0.8	2.3	2.1	1.5	1.3	1.9	1.3	1.2	0.3	2.1	-1.1	-6.3	-0.1	-1.6	

주1)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2)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비중

- 산업단지 전체 지정면적에서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을 보면, 년충북 전체의 비중은 2001년 52.6%에서 2015년 55.5%로 증가하였음.
- 시·군별로는 2015년 현재, 옥천군이 82.6%, 증평군이 75.4%, 음성군이 69.1%로 비교적 높고 보은군이 41.6%, 청주시가 45.9%괴산군이 58.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5] 충북 산업단지 전체 지정면적 대비 산업시설용지 비중 추이

(단위: 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충 북	52.6	53.8	53.5	51.6	51.9	52.1	52.4	52.9	54.5	54.1	53.2	53.7	54.5	55.2	55.5	53.4
청주시	47.1	49.0	49.0	45.2	45.2	45.4	45.6	45.6	47.8	46.7	44.8	45.4	45.6	45.9	45.9	46.3
충주시	69.2	69.2	59.9	59.9	59.1	58.8	58.8	60.5	59.4	60.4	61.7	61.7	63.4	63.5	63.9	62.0
제천시	70.9	70.9	70.9	69.7	69.1	69.1	67.0	66.0	66.1	67.1	66.9	64.8	64.7	64.8	67.3	67.7
보은군	32.3	33.4	33.4	33.4	33.4	33.4	31.7	36.5	40.6	40.5	40.5	42.0	40.8	41.6	41.6	37.0
옥천군	88.3	88.3	88.3	88.3	88.3	88.4	85.7	82.1	82.6	82.6	82.6	82.4	82.3	82.3	82.6	85.0
영동군	86.9	86.9	86.9	86.9	86.9	86.9	86.9	64.5	67.7	67.7	67.7	67.7	67.7	67.7	67.7	76.4
증평군	91.2	91.2	91.2	91.2	76.6	76.6	76.6	77.6	75.8	75.8	75.4	75.4	75.0	75.0	75.4	80.0
진천군	77.1	77.1	77.1	75.8	75.9	74.9	75.6	66.2	65.4	66.9	64.5	64.4	68.1	68.0	67.3	71.0
괴산군	71.7	71.7	71.7	71.7	71.7	71.7	59.2	60.2	62.7	62.9	57.7	56.3	56.3	58.7	58.6	64.2
음성군	69.2	69.2	69.2	69.2	61.8	64.3	64.3	62.9	62.7	63.0	64.9	65.5	68.2	69.0	69.1	66.2
단양군	77.5	77.5	77.5	77.5	65.3	65.5	64.1	64.5	64.8	63.4	62.4	62.4	63.4	63.4	63.4	67.5

주1) 산업단지 전체 지정면적 대비 산업시설용지면적의 비율임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2) 전년도 대비 산업시설용지 증가 추이

○ 충북의 전년도 대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면적 증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3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단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전연도 대비 증가 면적(년)															연평균(면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06~15)	5년 (11~15)	
충 북	676	997	-749	1,240	171	1,441	6,069	3,816	2,588	23	-677	1,252	1,490	1,084	1,726	634	
청주시	630	1	-962	0	87	14	2,130	1,128	1,266	-497	-397	225	309	10	428	-70	
충주시	0	997	0	-37	8	0	163	268	281	41	39	1,081	6	219	211	277	
제천시	0	0	-23	0	0	830	-30	102	34	-2	-71	-2	3	836	170	153	
보은군	47	0	0	0	0	0	472	827	-9	0	21	-81	53	-4	128	-2	
옥천군	0	0	0	0	1	104	251	8	0	1	-2	0	0	4	37	1	
영동군	0	0	0	0	0	0	539	154	0	0	0	0	0	0	69	0	
증평군	0	0	0	497	0	0	11	559	0	-27	0	39	0	5	59	3	
진천군	0	0	236	8	-12	5	879	159	923	157	-28	317	545	-37	291	191	
괴산군	0	0	0	0	0	492	332	529	0	222	-295	0	-208	37	111	-49	
음성군	0	0	-1	475	84	0	1,309	81	101	-67	58	-132	782	13	223	131	
단양군	0	0	0	299	2	-5	14	0	-9	197	0	-198	0	0	0	0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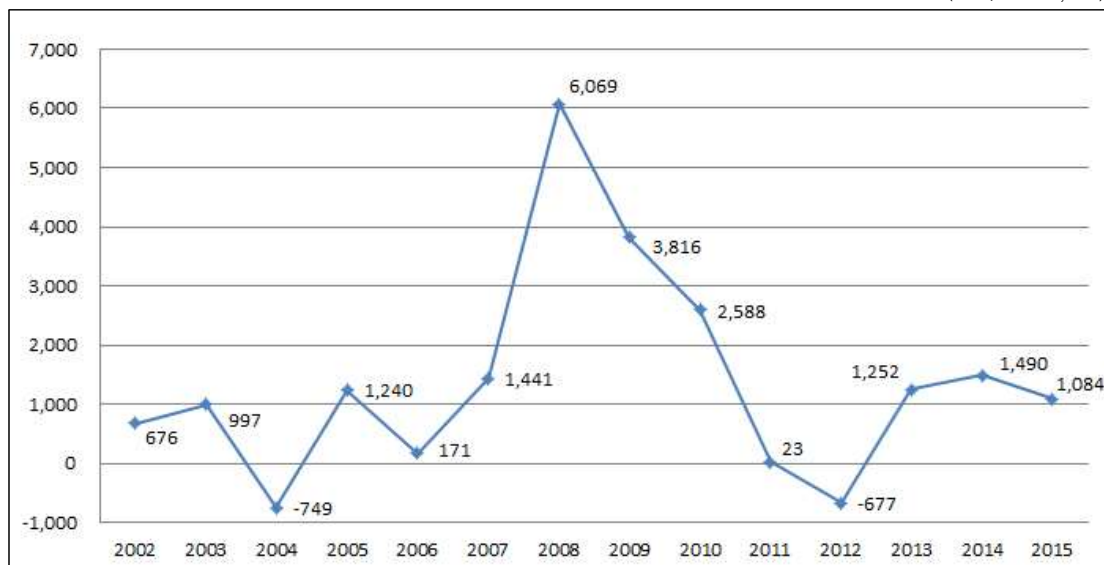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은 2008년에 6,069천㎡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2009년(3,816천㎡), 2010년(2,588천㎡) 등의 순이었음.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연평균 증가 면적은 1,726천㎡이고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은 634천㎡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청주시가 연평균 428천㎡ 증가하여 가장 큰 면적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진천군(291천㎡), 음성군(223천㎡), 충주시(211천㎡) 등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3-15] 충북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단위: 천㎡, 년)



(3)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추이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개발면적은 2001년 14,162천㎡에서 2015년 30,865천㎡로, 16,703천㎡ 증가하여 약 2.2배 확대되었음.
-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2015년은 5.7%이었으며 2005년~2015년은 7.5%, 2010년~2015년은 8.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로는 2001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청주시가 3,695천㎡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3,026천㎡), 충주시(2,865㎡), 음성군(1,840천㎡), 제천시(1,639천㎡) 등도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음.

[표 3-3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누계) 추이

(단위: 천 m²,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년)									변화 추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2015	2001~2015년		2005~2015년		2010~2015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충 북	14,162	15,765	14,997	17,019	20,013	20,389	23,066	25,282	30,865	16,703	5.7	15,868	7.5	10,476	8.6
청주시	7,380	7,876	6,915	8,452	9,620	9,620	10,231	10,370	11,075	3,695	2.9	4,160	4.8	1,455	2.9
충주시	1,372	1,372	1,372	1,580	2,687	2,687	2,916	3,077	4,237	2,865	8.4	2,865	11.9	1,550	9.5
제천시	523	1,216	1,254	1,254	1,336	1,529	2,168	2,115	2,162	1,639	10.7	908	5.6	633	7.2
보은군	1,437	1,484	1,484	1,484	1,497	1,497	1,497	2,111	2,392	955	3.7	908	4.9	895	9.8
옥천군	691	691	691	692	798	798	1,004	1,054	1,058	367	3.1	367	4.4	260	5.8
영동군	392	392	392	392	392	392	441	441	755	363	4.8	363	6.8	363	14.0
증평군	145	145	145	244	652	652	652	652	896	751	13.9	751	20.0	244	6.6
진천군	416	663	706	720	934	934	1,279	1,672	3,442	3,026	16.3	2,736	17.2	2,508	29.8
괴산군	237	357	357	357	138	138	138	635	1,140	903	11.9	783	12.3	1,002	52.5
음성군	1,421	1,421	1,534	1,694	1,694	1,694	2,302	2,707	3,261	1,840	6.1	1,727	7.8	1,567	14.0
단양군	148	148	148	151	266	449	438	448	448	300	8.2	300	11.7	-1	0.0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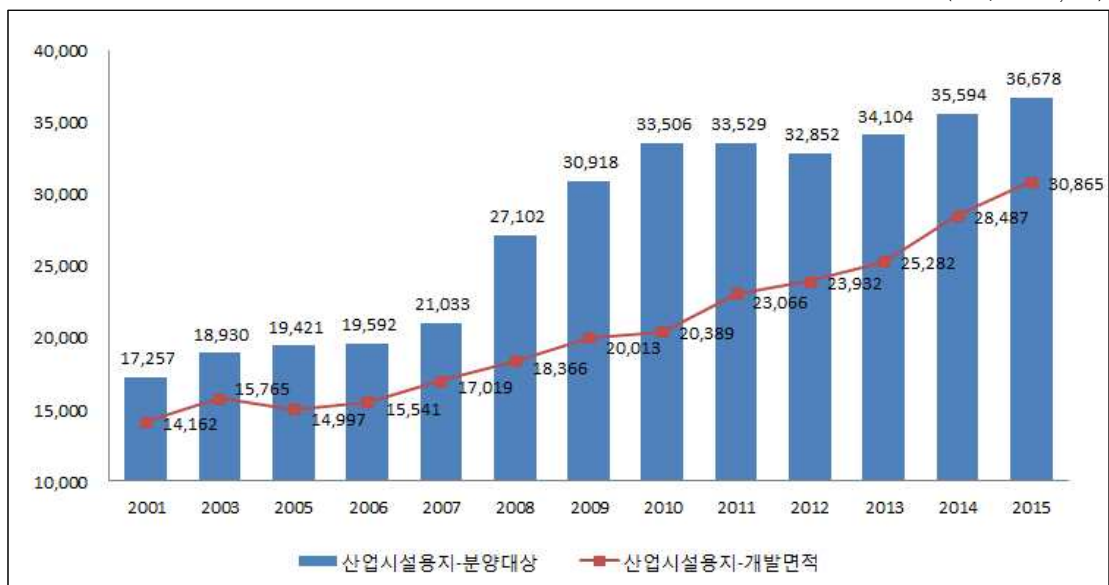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지정면적 개발면적을 비교하면, 개발면적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과 달리 비교적 큰 폭의 변화 없이 꾸준한 확대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6] 충북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및 개발면적 추이(누계)

(단위: 천 m², 년)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은 2014년에 3,205천㎡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2,677천㎡), 2015년(2,378천㎡) 등의 순이었음.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연평균 1,587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 2,095천㎡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청주시가 연평균 416천㎡ 증가하여 가장 큰 면적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충주시(287천㎡), 진천군(274천㎡), 음성군(173천㎡) 등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표 3-3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단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전연도 대비 증가 면적(년)															연평균(면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06~15)	5년 (11~15)	
충 북	708	895	-925	157	544	1,478	1,347	1,647	376	2,677	866	1,350	3,205	2,378	1,587	2,095	
청주시	496	0	-961	0	120	1,417	750	418	0	611	131	8	160	545	416	291	
충주시	0	0	0	0	200	8	120	987	0	229	176	-15	1,116	44	287	310	
제천시	0	693	38	0	0	0	0	82	193	639	-51	-2	3	44	91	127	
보은군	47	0	0	0	0	0	0	13	0	0	233	381	123	158	91	179	
옥천군	0	0	0	0	1	0	0	106	0	206	45	5	0	4	37	52	
영동군	0	0	0	0	0	0	0	0	0	49	0	0	0	314	36	73	
증평군	0	0	0	0	49	50	409	-1	0	0	0	0	24	220	75	49	
진천군	166	81	0	43	11	3	214	0	0	345	24	369	1,248	522	274	502	
괴산군	0	120	0	0	0	0	-219	0	0	0	27	470	245	260	78	200	
음성군	0	0	-2	115	159	1	0	0	0	608	273	132	287	267	173	313	
단양군	0	0	0	0	3	0	74	41	183	-11	10	0	0	0	30	0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4) 산업시설용지 분양 추이

□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전체(미개발 포함)

-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 개발면적의 분양면적은 2001년 11,975천㎡에서 2015년 28,962천㎡로, 16,987천㎡ 증가하여 약 2.4배 확대되었음.
- 분양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2015년은 6.5%이었으며 2005년~2015년은 7.2%, 2010년~2015년은 8.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로는 2001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청주시가 6,358천㎡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2,866천㎡), 충주시(2,176㎡), 음성군(2,010천㎡), 제천시(1,549천㎡), 등도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음.

[표 3-39]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단위: 천㎡,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년)									변화 추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2015	2001~2015년 증가 면적	2001~2015년 연평균 증가율	2005~2015년 증가 면적	2005~2015년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증가 면적	2010~2015년 연평균 증가율
충 북	11,975	14,153	14,393	17,340	18,745	19,613	21,909	24,619	28,962	16,987	6.5	14,569	7.2	9,349	8.1
청주시	4,727	6,392	6,729	8,253	9,080	9,455	10,102	10,198	11,085	6,358	6.3	4,356	5.1	1,630	3.2
충주시	1,372	1,372	1,372	1,540	2,064	2,337	2,956	2,997	3,548	2,176	7.0	2,176	10.0	1,211	8.7
제천시	523	864	950	1,202	1,336	1,529	1,527	1,747	2,072	1,549	10.3	1,122	8.1	543	6.3
보은군	1,423	1,484	1,484	1,484	1,497	1,497	1,497	1,879	2,030	607	2.6	546	3.2	533	6.3
옥천군	691	691	691	692	712	742	811	969	987	296	2.6	296	3.6	245	5.9
영동군	392	392	392	392	392	392	401	401	401	9	0.2	9	0.2	9	0.5
증평군	145	145	145	642	676	676	676	715	935	790	14.2	790	20.5	259	6.7
진천군	595	698	706	935	934	934	1,229	1,819	3,461	2,866	13.4	2,755	17.2	2,527	29.9
괴산군	357	357	357	357	138	138	138	596	482	125	2.2	125	3.0	344	28.4
음성군	1,611	1,611	1,419	1,694	1,694	1,694	2,267	2,987	3,621	2,010	6.0	2,202	9.8	1,927	16.4
단양군	139	148	148	151	222	220	304	310	339	200	6.6	191	8.6	119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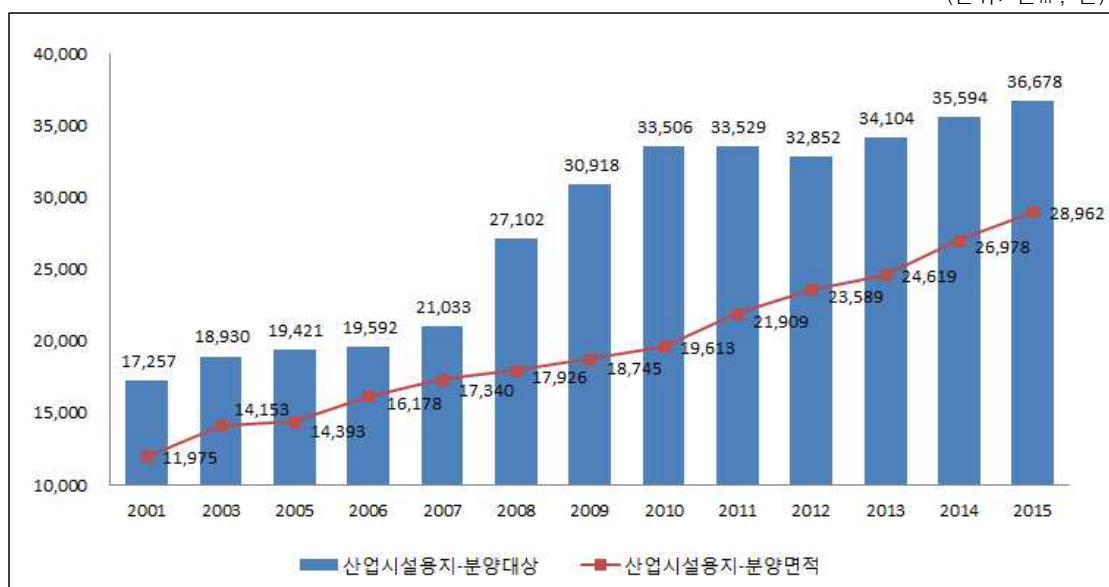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그림 3-1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단위: 천㎡, 년)



-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의 전년도 대비 분양 증가 면적은 2014년에 2,359천㎡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2,296천㎡), 2015년(1,984천㎡) 등의 순이었음.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연평균 1,457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 1,870천㎡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청주시가 연평균 436천㎡ 증가하여 가장 큰 면적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진천군(276천㎡), 음성군(220천㎡), 충주시(218천㎡)등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표 3-40]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단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전연도 대비 증가 면적(년)															연평균(면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06~15)	5년 (‘11~15)	
충 북	1,206	972	-319	559	1,785	1,162	586	819	868	2,296	1,680	1,030	2,359	1,984	1,457	1,870	
청주시	815	850	-181	518	734	790	600	227	375	647	144	-48	666	221	436	326	
충주시	0	0	0	0	0	168	164	360	273	619	-4	45	90	461	218	242	
제천시	231	110	53	33	232	20	16	118	193	-2	83	137	156	169	112	109	
보은군	47	14	0	0	0	0	0	13	0	0	463	-81	0	151	55	107	
옥천군	0	0	0	0	1	0	0	20	30	69	87	71	0	18	30	49	
영동군	0	0	0	0	0	0	0	0	0	9	0	0	0	0	1	2	
증평군	0	0	0	0	497	0	11	23	0	0	0	39	0	220	79	52	
진천군	103	0	0	8	44	185	-1	0	0	295	116	474	676	966	276	505	
괴산군	0	0	0	0	0	0	-219	0	0	0	222	236	-12	-102	13	69	
음성군	0	0	-192	0	274	1	0	0	0	573	569	151	773	-139	220	385	
단양군	9	0	0	0	3	0	13	58	-2	84	0	6	11	18	19	24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개발용지의 분양면적

- 미개발을 제외한,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면적은 2001년 11,485천㎡에서 2015년 27,700천㎡로, 16,215천㎡ 증가하여 약 2.4배 확대되었음.
- 분양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2015년은 6.5%이었으며 2005년~2015년은 6.9%, 2010년~2015년은 7.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로는 2001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청주시가 6,045천㎡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2,904천㎡), 충주시(2,124㎡), 제천시(1,549천㎡), 음성군(1,484천㎡) 등도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음.

[표 3-41]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누계) 추이

(단위: 천㎡,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년)									변화 추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2015	2001~2015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2005~2015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2010~2015년 증가 면적	연평균 증가율
충 북	11,485	13,768	14,233	16,679	18,720	19,232	21,452	23,593	27,700	16,215	6.5	13,467	6.9	8,468	7.6
청주시	4,727	6,231	6,569	8,204	9,080	9,098	10,102	10,198	10,772	6,045	6.1	4,203	5.1	1,674	3.4
충주시	1,372	1,372	1,372	1,540	2,064	2,337	2,812	2,931	3,496	2,124	6.9	2,124	9.8	1,159	8.4
제천시	523	864	950	1,202	1,336	1,529	1,527	1,747	2,072	1,549	10.3	1,122	8.1	543	6.3
보은군	1,423	1,484	1,484	1,484	1,497	1,497	1,497	1,861	2,030	607	2.6	546	3.2	533	6.3
옥천군	691	691	691	692	712	742	811	969	987	296	2.6	296	3.6	245	5.9
영동군	392	392	392	392	392	392	401	401	401	9	0.2	9	0.2	9	0.5
증평군	145	145	145	244	652	652	652	652	896	751	13.9	751	20.0	244	6.6
진천군	416	663	706	720	934	934	1,011	1,602	3,320	2,904	16.0	2,614	16.7	2,386	28.9
괴산군	237	357	357	357	138	138	138	385	482	245	5.2	125	3.0	344	28.4
음성군	1,421	1,421	1,419	1,694	1,694	1,694	2,197	2,537	2,905	1,484	5.2	1,486	7.4	1,211	11.4
단양군	139	148	148	151	222	220	304	310	339	200	6.6	191	8.6	119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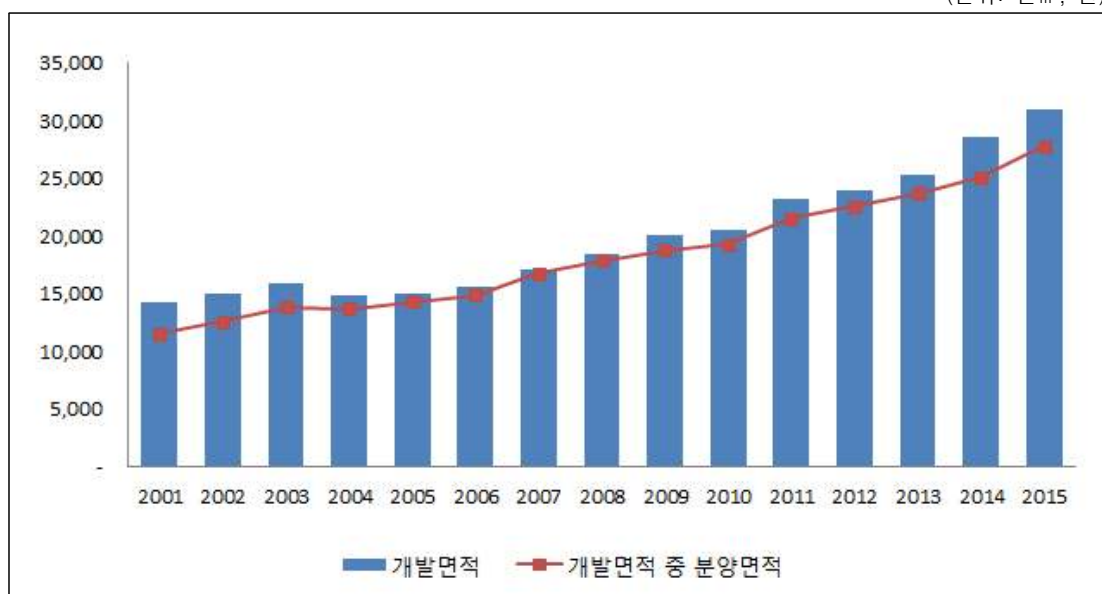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그림 3-1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 및 분양면적 추이(누계)

(단위: 천㎡, 년)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의 전년도 대비 분양 증가 면적은 2015년에 2,626천㎡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2,220천㎡), 2007년(1,877천㎡) 등의 순이었음.
- 충북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연평균 1,347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 1,694천㎡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청주시가 연평균 420천㎡ 증가하여 가장 큰 면적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진천군(261천㎡), 충주시(212천㎡), 음성군(149천㎡) 등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표 3-42]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 증가(전 연도 대비) 추이

(단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분양면적 전연도 대비 증가 면적(년)														연평균(면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06~15)	5년 (11~15)
충 북	1,037	1,246	-129	594	569	1,877	1,100	941	512	2,220	1,049	1,092	1,481	2,626	1,347	1,694
청주시	815	689	-180	518	178	1,457	649	227	18	1,004	144	-48	179	395	420	335
충주시	0	0	0	0	0	168	18	506	273	475	73	46	104	461	212	232
제천시	0	341	53	33	232	20	16	118	193	-2	83	137	156	169	112	109
보은군	47	14	0	0	0	0	0	13	0	0	233	131	18	151	55	107
옥천군	0	0	0	0	1	0	0	20	30	69	87	71	0	18	30	49
영동군	0	0	0	0	0	0	0	0	0	9	0	0	0	0	1	2
증평군	0	0	0	0	49	50	409	-1	0	0	0	0	24	220	75	49
진천군	166	81	0	43	-169	183	214	0	0	77	161	430	826	892	261	477
괴산군	0	120	0	0	0	0	-219	0	0	0	27	220	5	92	13	69
음성군	0	0	-2	0	274	1	0	0	0	503	241	99	159	209	149	242
단양군	9	0	0	0	3	0	13	58	-2	84	0	6	11	18	19	24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5)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추이

□ 분양대상면적 기준 미분양(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 분양 미공고면적,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면적은 산업단지 지정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가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분양면적이 가장 큰 연도는 2010년으로, 13,893천㎡이었으며 가장 작은 연도는 2006년(3,414천㎡)이었음. 2015년 현재는 7,716천㎡임.

- 2015년 현재, 미분양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청주시(1,802천㎡)이고 충주시(1,075천㎡)와 괴산군(984천㎡), 제천시(882천㎡), 보은군(733천㎡) 등도 비교적 많은 양의 미분양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3]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면적 추이

(단위: 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면적(누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5,282	4,752	4,777	4,347	5,028	3,414	3,693	9,176	12,173	13,893	11,620	9,263	9,485	8,616	7,716
청주시	4,216	4,031	3,182	2,401	1,883	1,236	460	1,990	2,891	3,782	2,638	2,097	2,370	2,013	1,802
충주시	185	185	1,182	1,182	1,145	1,153	985	984	892	900	322	365	1,401	1,317	1,075
제천시	754	523	413	337	304	72	882	836	820	661	661	507	368	215	882
보은군	14	14	0	0	0	0	0	472	1,286	1,277	1,277	835	835	888	733
옥천군	0	0	0	0	0	0	104	355	343	313	245	156	85	85	71
영동군	0	0	0	0	0	0	0	539	693	693	684	684	684	684	684
증평군	0	0	0	0	497	0	0	0	536	536	509	509	509	509	294
진천군	103	0	0	236	236	180	0	880	1,039	1,962	1,824	1,680	1,523	1,392	389
괴산군	0	0	0	0	0	0	492	1,043	1,572	1,572	1,794	1,277	1,041	845	984
음성군	0	0	0	191	666	476	475	1,784	1,865	1,966	1,326	815	532	541	693
단양군	9	0	0	0	299	298	293	294	236	229	342	342	138	12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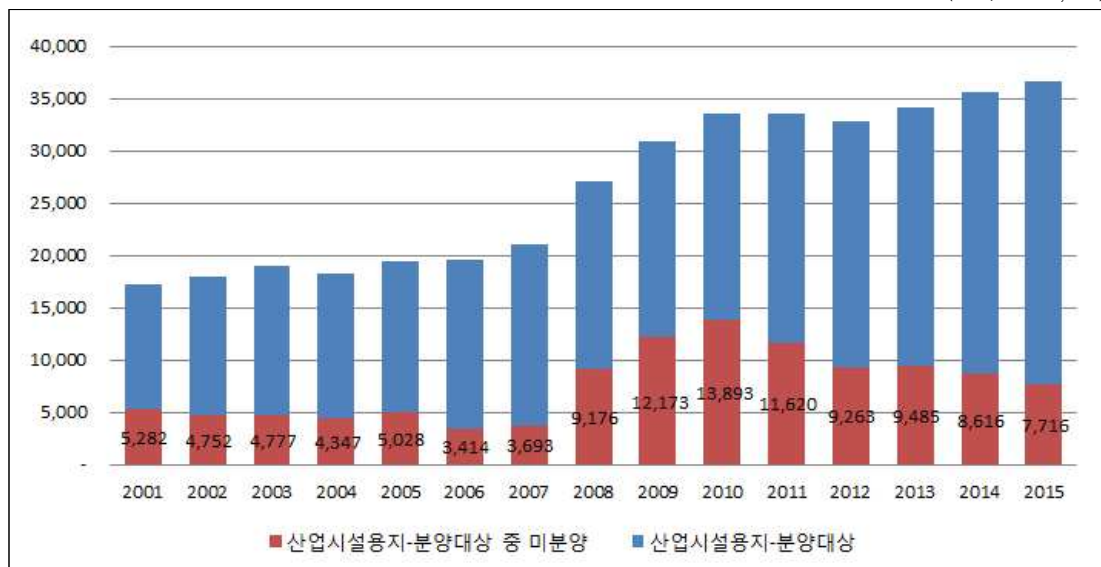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그림 3-19] 충북 산업시설용지 및 미분양면적(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단위: 천㎡, 년)



- 분양 미공고,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10년에 41.5%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 17.4%로 가장 낮았음.
- 2015년 현재 미분양률은 21%이고 시·군별로는 괴산군이 67.1%, 영동군이 63%로, 상당히 높은 편임.

[표 3-44]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률 추이

(단위: 년,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미분양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30.6	26.5	25.2	23.9	25.9	17.4	17.6	33.9	39.4	41.5	34.7	28.2	27.8	24.2	21.0
청주시	47.1	42.1	33.2	27.9	21.9	14.2	5.3	18.4	24.2	28.6	20.7	17.0	18.9	15.6	14.0
충주시	11.9	11.9	46.3	46.3	45.5	45.7	39.0	36.6	30.2	27.8	9.8	11.0	31.9	29.9	23.3
제천시	59.0	41.0	32.3	26.9	24.2	5.7	42.3	40.7	38.0	30.2	30.2	23.9	17.4	10.2	29.9
보은군	1.0	0.9	0.0	0.0	0.0	0.0	0.0	24.1	46.2	46.0	46.0	29.9	30.8	32.1	26.5
옥천군	0.0	0.0	0.0	0.0	0.0	0.0	13.1	33.9	32.5	29.7	23.2	14.8	8.1	8.1	6.7
영동군	0.0	0.0	0.0	0.0	0.0	0.0	0.0	57.9	63.9	63.9	63.0	63.0	63.0	63.0	63.0
증평군	0.0	0.0	0.0	0.0	77.4	0.0	0.0	0.0	44.2	44.2	43.0	43.0	41.6	41.6	23.9
진천군	14.8	0.0	0.0	25.3	25.1	19.4	0.0	48.5	52.7	67.7	59.7	55.5	45.6	35.8	10.1
괴산군	0.0	0.0	0.0	0.0	0.0	0.0	58.0	88.3	91.9	91.9	92.9	78.0	63.6	59.1	67.1
음성군	0.0	0.0	0.0	11.9	31.9	21.9	21.9	51.3	52.4	53.7	36.9	22.3	15.1	12.6	16.1
단양군	6.1	0.0	0.0	0.0	66.9	66.4	66.0	64.2	51.5	51.0	52.9	52.9	30.8	28.3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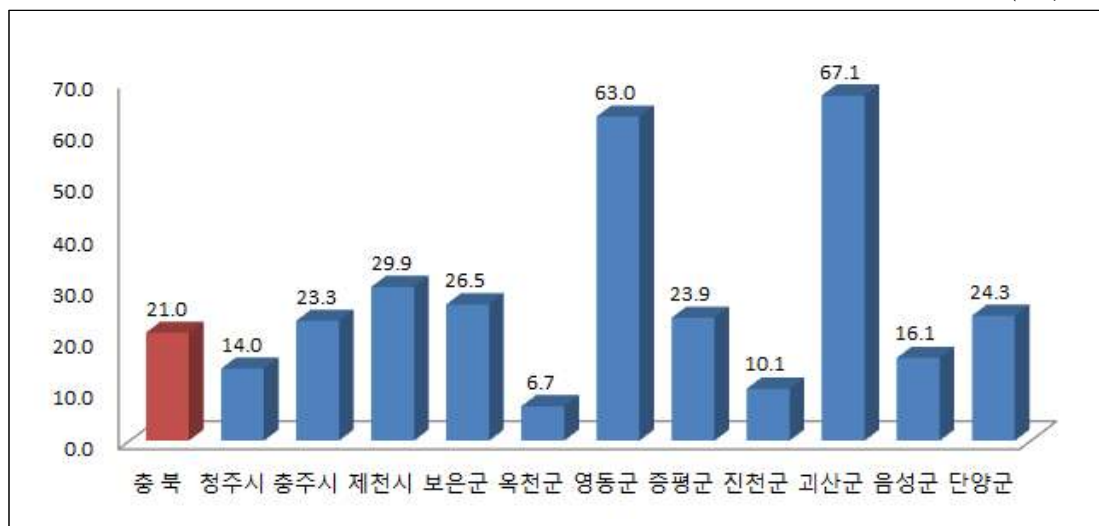
주1) 미분양률 = [분양공고(개발+미개발)면적의 미분양면적+분양미공고(개발+미개발)면적] ÷ 분양대상면적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그림 3-20]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분양 미공고, 미개발 포함)

(단위: %)



□ 분양공고면적 기준 미분양(미개발 포함)

-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 중 미분양면적의 추이를 보면, 2015년에 3,622천㎡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 404천㎡로 가장 적었음.
- 2015년 현재,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788천㎡, 괴산군이 650천㎡, 영동군이 612천㎡로 비교적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5]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 추이

(단위: 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미개발 포함) 미분양면적(누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2,677	2,078	1,645	1,262	840	1,292	522	404	1,171	1,240	752	981	807	2,496	3,622
청주시	2,654	2,063	1,645	864	346	1,220	430	350	541	606	130	115	172	652	432
충주시	0	0	0	0	0	0	40	18	500	271	108	151	105	16	788
제천시	0	0	0	207	303	72	51	35	0	78	264	247	238	215	90
보은군	14	14	0	0	0	0	0	0	0	0	0	0	0	29	363
옥천군	0	0	0	0	0	0	0	0	86	57	244	157	86	86	71
영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12
증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09	294
진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괴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548	650
음성군	0	0	0	191	191	0	0	0	0	0	0	167	68	314	215
단양군	9	0	0	0	0	0	0	0	44	229	6	144	137	12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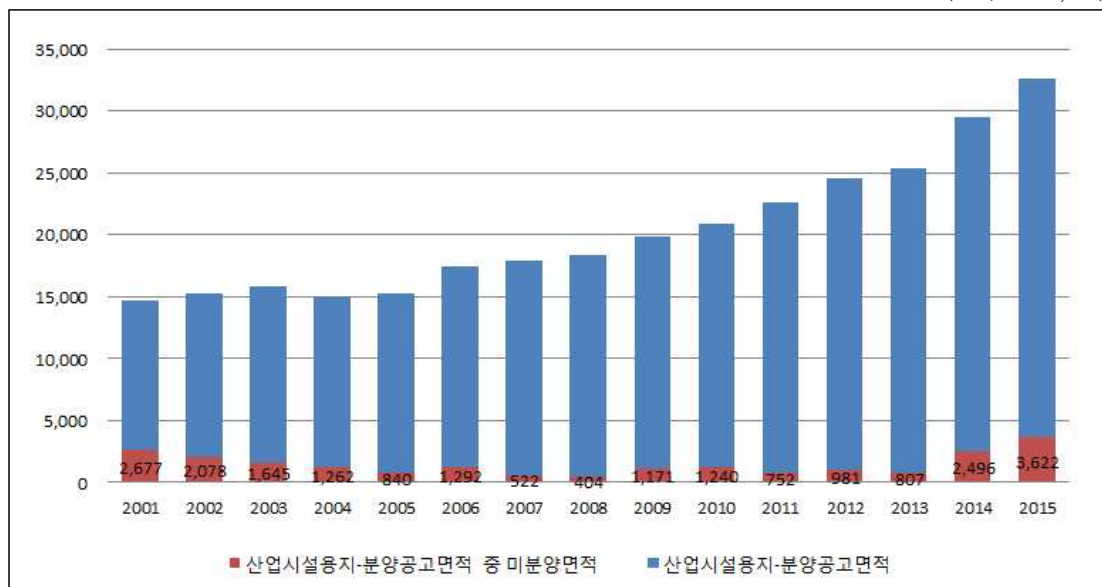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그림 3-21] 충북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 및 미분양면적(미개발 포함) 추이(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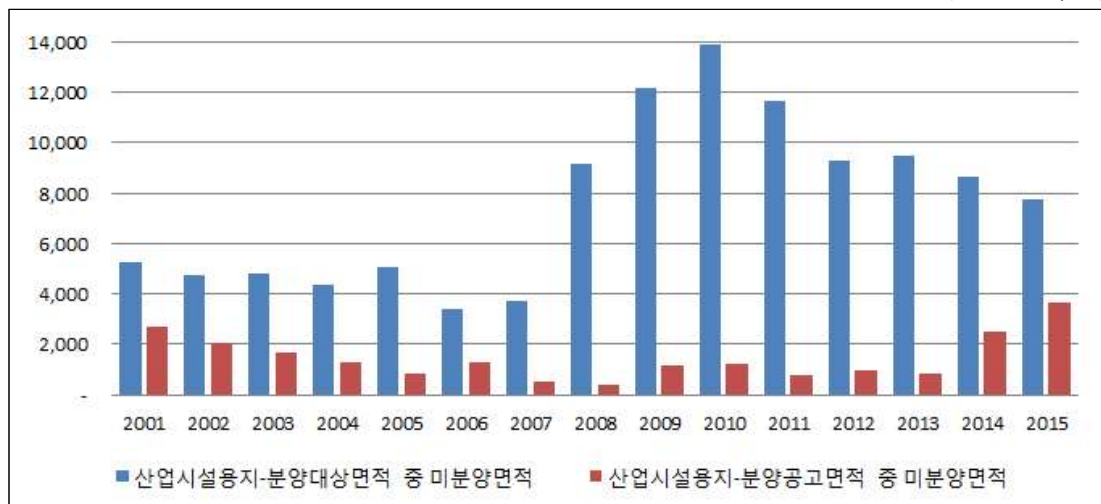
(단위: 천㎡, 년)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대상면적 중 미분양면적과 분양공고면적 중 미분양면적을 비교한 결과, 산업단지 지정이 크게 증가한 2008년부터 분양대상면적의 미분양(미개발면적 포함)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분양 공고된 부지의 미분양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충북 산업시설용지 기준별(분양대상·분양공고) 미분양면적 비교

(단위: 천 m², 년)



-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의 미분양률은 2001년에 18.3%로 가장 높았고 2008년에 2.2%로 가장 낮았음.

[표 3-4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률 추이

(단위: 년,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미개발 포함) 미분양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18.3	13.6	10.4	8.4	5.5	7.4	2.9	2.2	5.9	5.9	3.3	4.0	3.2	8.5	11.1
청주시	36.0	27.1	20.5	12.2	4.9	14.0	5.0	3.8	5.6	6.0	1.3	1.1	1.7	5.7	3.8
충주시	0.0	0.0	0.0	0.0	0.0	0.0	2.5	1.0	19.5	10.4	3.5	4.9	3.4	0.5	18.2
제천시	0.0	0.0	0.0	18.4	24.2	5.7	4.1	2.8	0.0	4.9	14.7	13.3	12.0	10.2	4.2
보은군	1.0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15.2
옥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0.8	7.1	23.1	14.9	8.2	8.2	6.7
영동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4
증평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1.6	23.9
진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괴산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8.4	57.4
음성군	0.0	0.0	0.0	11.9	11.9	0.0	0.0	0.0	0.0	0.0	0.0	5.6	2.2	7.7	5.6
단양군	6.1	0.0	0.0	0.0	0.0	0.0	0.0	0.0	16.5	51.0	1.9	32.1	30.6	28.3	24.3

주1) 미분양률 = [분양공고(개발+미개발)면적의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개발+미개발)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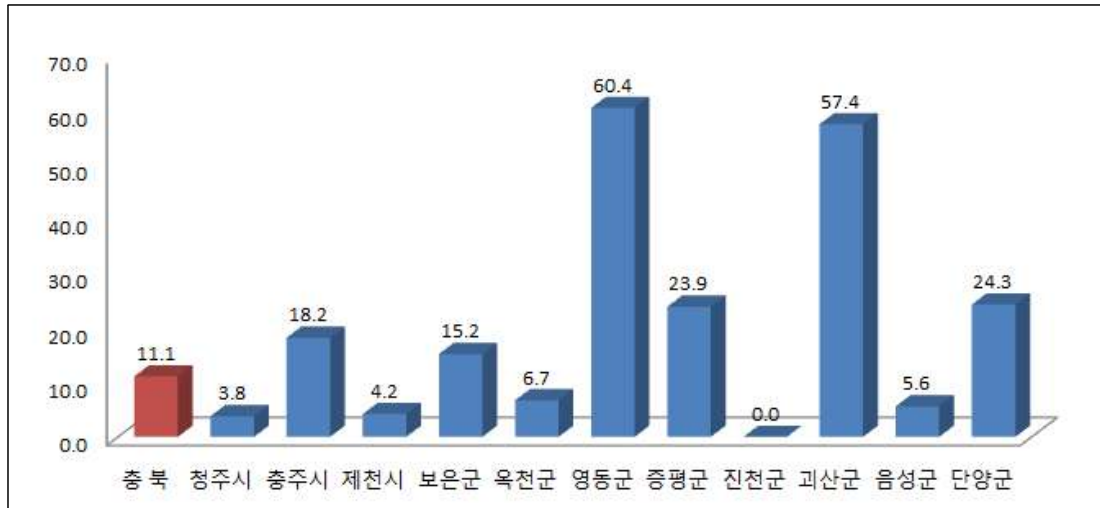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2015년 현재 미분양률은 11.1%이고 시·군별로는 영동군이 60.4%, 괴산군이 57.4%로, 상당히 높은 편임.

[그림 3-23]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미개발 포함)면적 미분양률

(단위: %)



□ 개발·분양공고면적 기준 미분양(미개발·미분양 제외)

- 산업시설용지 개발용지의 분양공고면적 중 미분양면적의 추이를 보면, 2015년에 2,795천㎡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에 340천㎡로 가장 적었음.

[표 3-47]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 추이

(단위: 년, 천㎡)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미개발 제외) 미분양면적(누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북	2,677	2,078	1,645	1,072	764	359	340	403	1,170	1,078	676	945	807	1,395	2,795
청주시	2,654	2,063	1,645	864	346	287	248	349	540	522	129	115	172	153	303
충주시	0	0	0	0	0	0	40	18	500	271	85	151	105	16	689
제천시	0	0	0	207	303	72	51	35	0	0	264	247	238	215	90
보은군	14	14	0	0	0	0	0	0	0	0	0	0	0	29	363
옥천군	0	0	0	0	0	0	0	0	86	57	193	151	86	86	71
영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6
증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괴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490	650
음성군	0	0	0	0	114	0	0	0	0	0	0	137	68	279	215
단양군	9	0	0	0	0	0	0	0	44	229	6	144	137	127	109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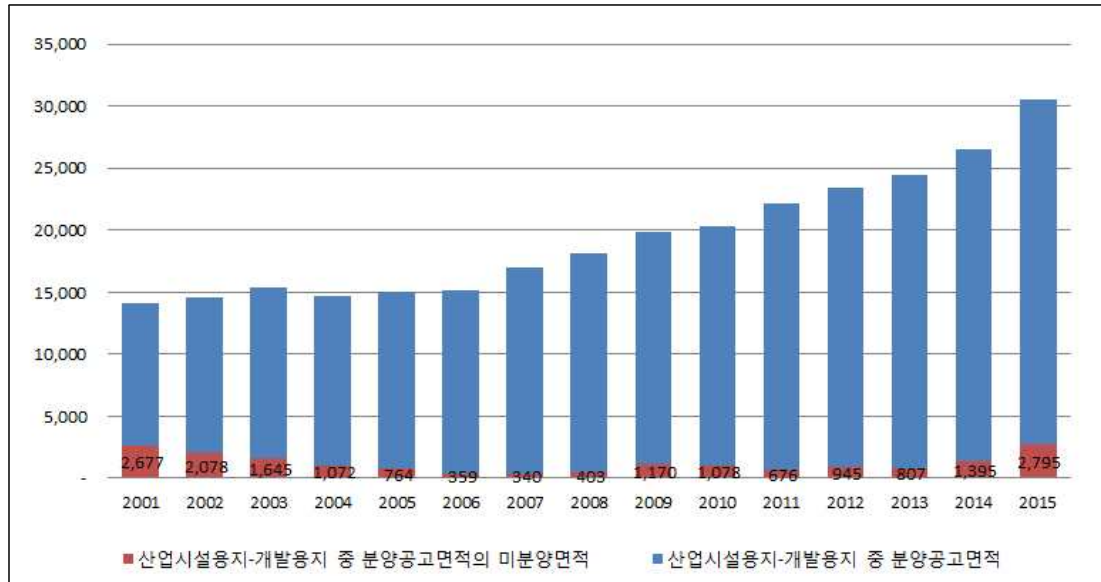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2015년 현재,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689천㎡, 괴산군이 650천㎡로 비교적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충북 산업시설용지 개발용지의 분양공고면적 및 미분양면적 추이(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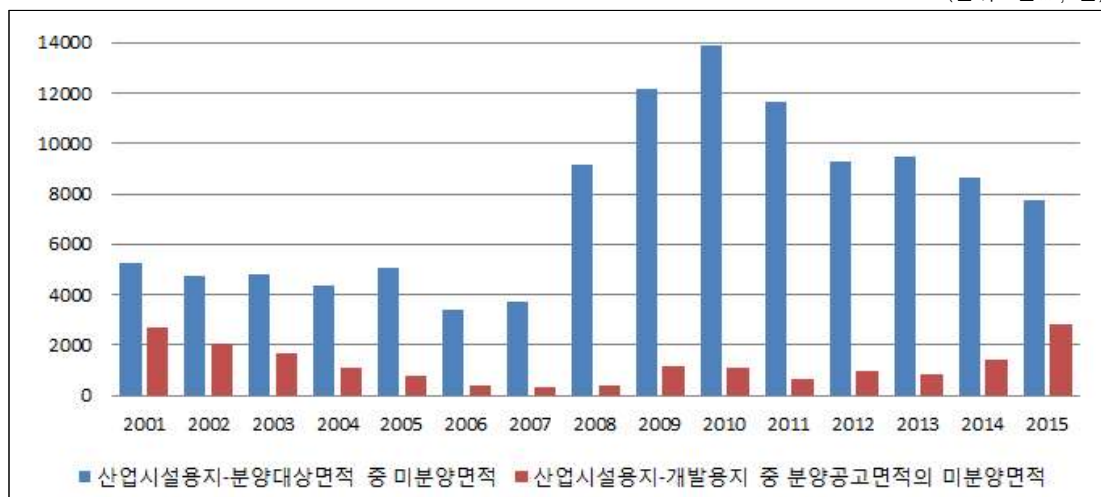
(단위: 천㎡, 년)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대상면적 중 미분양면적과 개발용지 분양공고면적 중 미분양면적을 비교한 결과, 산업단지 지정이 크게 증가한 2008년부터 분양대상면적의 미분양(미개발면적 포함)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개발용지 중 분양 공고된 부지의 미분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5] 충북 산업시설용지 기준별(분양대상과 개발용지·분양공고) 미분양면적 비교

(단위: 천㎡, 년)



- 미개발면적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의 미분양률은 2001년에 18.9%로 가장 높았고 2007년에 2%로 가장 낮았음.

[표 3-48]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률 추이

(단위: 년,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미개발 제외) 미분양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18.9	14.2	10.7	7.3	5.1	2.4	2.0	2.2	5.9	5.3	3.1	4.0	3.3	5.3	9.2
청주시	36.0	27.1	20.9	12.5	5.0	4.1	2.9	3.8	5.6	5.4	1.3	1.1	1.7	1.5	2.7
충주시	0.0	0.0	0.0	0.0	0.0	0.0	2.5	1.1	19.5	10.4	2.9	5.0	3.5	0.5	16.5
제천시	0.0	0.0	0.0	18.4	24.2	5.7	4.1	2.8	0.0	0.0	14.7	13.3	12.0	10.2	4.2
보은군	1.0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15.2
옥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0.8	7.1	19.2	14.4	8.2	8.2	6.7
영동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3.3
증평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진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괴산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5.7	57.4
음성군	0.0	0.0	0.0	0.0	7.4	0.0	0.0	0.0	0.0	0.0	0.0	5.3	2.6	9.4	6.9
단양군	6.1	0.0	0.0	0.0	0.0	0.0	0.0	0.0	16.5	51.0	1.9	32.1	30.6	28.3	24.3

주1) 미분양률 = 분양공고(개발)면적의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개발)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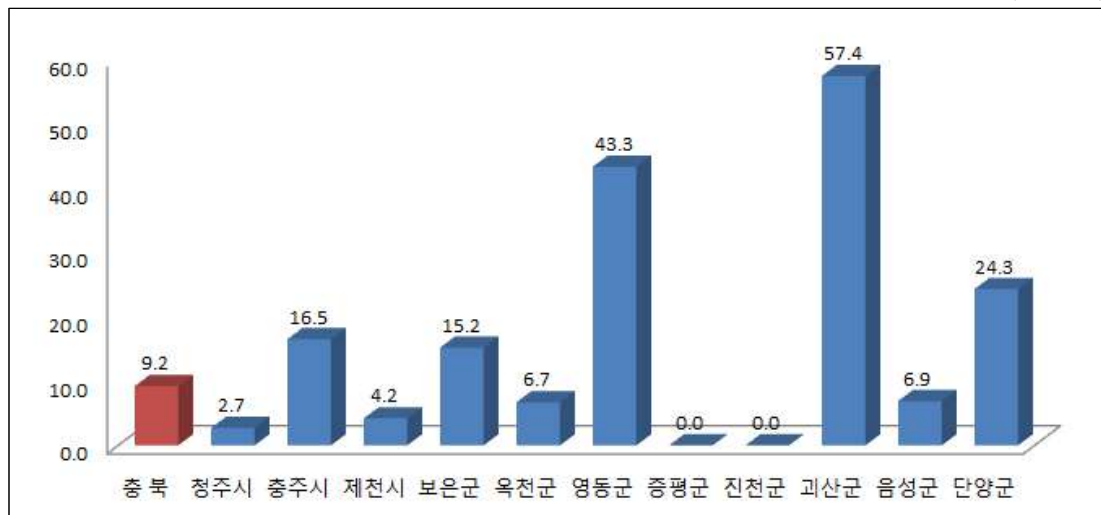
주2) 청원군(2013년까지)은 청주시에 포함

주3) 세종시로 편입된 (구)청원군의 2개 산업단지(부용일반, 부용농공) 제외(2001년~2011년)

- 2015년 현재 미분양률은 9.2%이고 시·군별로는 괴산군이 57.4%, 영동군이 43.3%, 단양군이 24.3%로 비교적 높은 편임.

[그림 3-26] 2015년 충북 산업시설용지 개발면적의 분양공고면적 미분양률

(단위: %)



IV. 산업입지 수요 전망

제4장 산업입지 수요 전망

1. 기존 계획(2008년) 평가

1) 기존 계획의 개요 및 연구방법

(1) 계획의 개요

○ 기존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 16일에 제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09~2018)」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음.

- 기준연도: 2009년
- 목표연도: 2018년

○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7년 2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16일까지(제출문 기준)임.

(2) 주요 연구방법

○ 기존 계획의 'I. 과업개요'에 명시된 연구 수행방법은 아래와 같음

- 전국 시·도별, 충북 시·군별 제조업 현황 분석, 충북의 기업유치 및 산업용지 면적변화 현황을 통해 산업입지 실태를 분석
-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현황, 제조업 입지유형 변화추이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충북의 산업입지 전망
- 추세연장, 생산액 원단위, 고용인구 원단위 등의 3가지 추정방식에 의해 장래 2018년까지의 충북의 지역별·업종별 산업단지 소요면적 예측
- 충북의 각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검토를 통해 향후 잠재공급가능지 규모 추정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소요면적의 공급가능성 검토
- 산업입지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고 충북의 산업입지 공급원칙을 정하여 지역별,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
-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

2) 기존 계획의 산업입지 수요예측

(1) 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추정

□ 산업용지 면적자료

- 추세연장분석에 필요한 시계열데이터는 「충북통계연보」의 ‘토지지목별현황’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였음. 이는 당시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면적자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침 및 다른 지역의 사례를 따르지 않은 것임.
-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공장부지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요 추정방법

- 1995년~2007년(13개년)의 공장용지(지목) 면적자료를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장래수요를 예측하였음.
- 충북 전체에 대해 먼저 추정한 후 각 시·군별로 면적을 추정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각 시·군별 추정결과와 합계를 사용하였음. 2018년 기준, 충북 전체는 75.46km², 각 시·군의 합계는 76.55km²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시계열데이터가 많지 않은 점, 선형추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회귀분석 외에 다양한 예측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예측력이 우수한 모델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임.

[표 4-1] 기존 계획(2008년)의 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적 데이터	• 토지지목 중 ‘공장용지’의 면적(충북통계연보 각 연도)	1995~2007년(13개년)
수요 추정방법	• 단순회귀분석	
수요 추정결과	• 충북 전체 기준: 2018년 75.46km ² • 충북 각 시·군의 합계 기준: 2018년 76.55km ² ⇒ 적용	2007년 48.91km ² (실제) 2009년 55.99km ² (추정)
검토 의견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 • 보다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음	

(2)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 사용한 자료

-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추정에 필요한 생산액은 통계청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을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08년)에서 제시한 10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음.
- 기존 산업용지의 면적은 추세연장에 의한 추정에서 사용한 공장용지(토지 지목)의 면적을 사용하였으며 업종별 원단위를 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2006년)의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한 업종별 비율을 적용하였음.

□ 수요 추정방법

-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방법은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워 서술된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방법을 짐작함.
- 장래 충북 제조업의 생산액은 1999년~2006년의 업종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것인지 통계청의 추계를 준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추정방법을 기술하지 않음).
- 생산액원단위 추정은 먼저, 1999년~2006년의 공장용지 면적과 제조업 생산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액원단위의 추이를 분석한 후 2009년부터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원단위를 추정한 것으로 보임.
- 그 다음, 추정한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원단위에 국토교통부(2006년)의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한 업종별 원단위 비율을 적용하여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원단위를 계산한 것으로 짐작됨.
- 최종적으로, 업종별 생산액원단위와 생산액 예측치를 적용하여 업종별 수요를 추정한 후 합계하여 생산액원단위에 의한 산업용지의 수요로 채택하였음.
- 과거 추이를 통해 추정한 생산액원단위는 10개 업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 평균은 2009년 129.4㎡/억원에서 2018년 106.6㎡/억원이었음.
- 추정한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과 생산액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출한 산업용지 수요는 2009년 49.9㎢에서 목표연도인 2018년 100.4㎢로, 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추정 결과(2018년 76.55㎢)와 큰 차이를 보였음.

[표 4-2] 기존 계획(2008년)의 생산액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적 데이터	- 토지지목 중 '공장용지'의 면적(충북통계연보 각 연도) - 제조업 업종별 구분 없음	1999~2006년(8개년)
생산액 데이터	- 통계청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 제조업 10개 업종으로 재분류	1999~2006년(8개년)
수요 추정방법	공장용지 면적과 생산액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원단위 추정 후 기존 국토교통부 보고서의 업종별 비율을 적용하여 업종별로 추정한 것으로 짐작	통계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음
수요 추정결과	- 생산액원단위: 2009년 129.4m²/억원~2018년 106.6m²/억원 - 산업용지수요: 2009년 49.9km² ~ 2018년 100.4km²	2006년 135m ² /억원(실제) 2007년 48.91km ² (실제)
검토 의견	- 제조업 생산액, 생산액원단위 추정 등 모든 부분의 통계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거의 불가능 -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원단위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	추세연장에 의한 추정결과와 큰 차이

(3) 고용인구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 사용한 자료

- 고용인구 원단위에 의한 추정에 필요한 고용인구는 기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7년)」의 '충북 취업인구 전망'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은 국토교통부(2006년)의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차용하였고 공공용지율은 최근에 계획이 수립된 산업단지의 공공용지율(30~40%)을 적용하였음.

□ 수요 추정방법

$$I_a = \frac{P_o \times a}{(1 - e)}$$

I_a : 산업용지 면적, P_o : 공업용지내 종사자
 a : 1인당 부지 면적, e : 공공용지율

- 2차 산업 종사자 수(고용인구)에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과 산업단지 공공용지율을 위 식

과 같이 적용하여 고용인구 원단위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하였음.

- 고용인구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충북 전체 산업용지의 수요는 2009년에 52.12km²에서 2018년 79.09km²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수요 추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종사자 수를 여러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기존 계획의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한 점과 공공용지율의 비율을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 기존 계획(2008년)의 고용인구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고용인구 데이터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7년, 충북 - 2018년까지 예측한 경제활동인구 중 2차 산업의 비중 - 충북 전체 기준(산업별, 지역별로 적용하지 않음)	2009년 180,000명 2018년 207,000명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2006, 국토연구원 - 2009년, 2015년 추정치를 활용하여 2018년까지 추정	2009년 202.7m ² /명 2018년 236.9m ² /명
공공용지율	- 최근 수립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공공용지율(30~40%) -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2009년 30% 2018년 38%
수요 추정방법	$I_a = \frac{P_o \times a}{(1 - e)}$ ※P _o : 공업용지내 종사자, a: 1인당 부지 면적, e: 공공용지율	
수요 추정결과	산업용지수요: 2009년 52.12km² ~ 2018년 79.09km²	2007년 48.91km ² (실제)
검토 의견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여러 추정치를 가지고 재추정한 결과임 - 추정치: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산업별비중 - 공공용지율의 적용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2009년 30% → 2018년 38% 적용	추세연장에 의한 추정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4) 기존 계획의 산업입지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검토

□ 최종 수요예측 결과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세연장, 입지원단위, 고용인구를 이용하여 추정한 각 산용용지 수요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적으로, 2009년 52.7km²에서 2018년 85.4km²의 산업용지 면적을 예상하였음.

[표 4-4]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용지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²)

구 분	추세연장	입지원단위	고용인구	순수요 평균
2009년	56.0	49.9	52.1	52.7
2010년	58.3	52.3	57.0	55.9
2011년	60.6	55.6	59.3	58.5
2012년	62.9	59.0	61.7	61.2
2013년	65.1	62.9	64.3	64.1
2014년	67.4	67.5	66.9	67.3
2015년	69.7	70.7	69.7	70.0
2016년	72.0	79.4	72.7	74.7
2017년	74.3	89.5	75.8	79.9
2018년	76.6	100.4	79.1	85.4
증 가	20.6	50.5	27.0	32.7

주)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충청북도, 2008년의 <표 III-14>에 ‘증가’를 추가한 것임

□ 최종 수요예측 결과의 검증

- 최종 수요예측 결과와 실제 산업용지의 면적을 비교한 결과, 기존 계획이 추세연장법에
서 기준으로 삼은 토지대장상의 공장용지(지목) 면적과 예측치(2015년 기준)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음.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로 증가한 공장용지(지목)의 면적은 21.77km²이고 예측한 면
적은 21.09km²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FEMIS의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장부지 면적
은 18.33km² 증가하는데 그쳐, 예측치가 다소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5]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용지 예측 결과와 실측치 비교

(단위: km²)

구 분	최종 수요 예측 면적	실제 면적				비 고
		토지대장 면적	지목 - 공장용지 차이	FEMIS - 공장부지 면적	차이	
2007년	48.91(실제)	49.42		56.60		
2008년		53.28		61.60		
2009년	52.7	55.52	2.82	62.40	9.70	
2010년	55.9	58.61	2.71	63.97	8.07	
2011년	58.5	60.55	2.05	65.13	6.63	
2012년	61.2	63.36	2.16	67.70	6.50	
2013년	64.1	65.95	1.85	68.76	4.66	
2014년	67.3	69.53	2.23	72.68	5.38	
2015년	70.0	71.19	1.19	74.93	4.93	
증 가 (2015-2007)	21.09	21.77	0.68	18.33	-2.76	

주1) 2007년 최종 수요예측 면적과 토지대장 공장용지의 면적 차이는 통계연보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주2) 실제 면적의 차이는 각 면적에서 최종 수요예측 면적을 뺀 값임

3) 기존 계획의 계획입지 공급계획

(1) 기존 계획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 기존 계획의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당시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지침(2008년)'을 일부 변경,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음.

[표 4-6]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2009~2018년 기준)

(단위: km²)

구 분	내 용	산출과정	면적	계산
순수요면적 ①	추세치,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한 순수요면적	추세연장법 : 20.6 입지원단위법 : 50.5 고용인구원단위법 : 27.0 산술평균값 : 32.7	32.7	①+②= 40.1
선공급면적 ②	향후계획기간(10년)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의 산업용지면적	2011년 순수요면적 : 7.4	7.4	
미분양면적 ③	미분양면적은 계획수립 직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2008년 6월 말 현재 충북 내 미분양면적 : 0.89	0.89	③+④= 0.89
해외이전면적 ④	해외이전면적은 해외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집약적인 업종	충북 해당사항 매우 미약 : 0.00	0.00	
산업입지 공급면적 (①+②) - (③+④)				39.21

주)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충청북도, 2008년의 <표 V-31>임

- 위 공급규모에서 시·군별 공급면적을 산정하면서, 지역별 가중치($\pm 0.1\% \sim \pm 0.4\%$)를 적용하여 39.11km²~40.91km²의 범위로 최종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순수요를 2018년 예측치에서 2009년 예측치를 뺀 값으로 함으로써 9개년의 수요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면적의 적용 연도가 계획시작연도와 상이한 점, 휴폐업면적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2) 기존 계획의 계획입지 공급규모 검토

-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면적은 최종 산업입지 공급면적으로 계획한 면적(39.11km²~40.91km²)에 계획입지비율 70%를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7.38km²~28.64km²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의 실제 증가한 계획입지 면적을 기존 계획에서 계획한 면적과 비교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실제 면적은 8.8㎢ 증가한데 반해 공급계획상의 순수요 계획면적은 15.2㎢~16.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표 4-7]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계획입지 공급계획(순수요)과 실측치 비교

(단위: ㎢)

구 분	기존 계획(2008년)의 순수요 면적			실제 면적		비 고
				FEMIS - 공장부지		
	산업입지 전체	계획입지비율	계획입지면적	계획입지면적	차이	
2007년	48.9	70%	34.2	18.3		
2009년	51.5~52.7		36.1~36.9	19.3		
2010년	55.7~56.9		39.0~39.8	19.9		
2015년	70.6~72.9		49.4~51.0	27.1		
증 가 (2015-2007)	21.7~24.0		15.2~16.8	8.8	-6.4~-8.0	

주1)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충청북도, 2008년의 <표 V-32>의 값을 기준으로 함

주2) 실제 면적의 차이는 실제 면적에서 기존 계획 최종 공급계획 면적을 뺀 값임

-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각 지역의 순수요면적, 산업입지 잠재공급면적, 각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다고 함.
- 시·군별 순수요 면적의 비중은 실측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단지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대한 안배(계획)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낳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8] 기존 계획(2008년)의 충북 시·군별 계획면적과 실측치 비교

(단위: ㎢, %)

구 분	2010년 ~ 2015년				비 고
	기존 계획(2008년)의 순수요 면적		실제 면적(FEMIS-공장부지)		
	증가 면적	비 중	증가 면적	비 중	
청주시	4.3~4.5	28.5	3.6	33.3	
충주시	1.2~1.3	8.1	1.7	15.7	
제천시	0.6~0.7	4.2	1.0	9.3	
보은군	0.2~0.3	1.6	-0.4	-3.7	
옥천군	0.4~0.5	2.9	0.2	1.9	
영동군	0.3~0.4	2.3	0	0.0	
증평군	0.1~0.1	0.6	0.2	1.9	
진천군	1.6~1.6	10.4	2.5	23.1	
괴산군	0.3~0.3	1.9	0.1	0.9	
음성군	5.7~6.0	37.9	1.6	14.8	
단양군	0.2~0.3	1.6	0.3	2.8	
계	14.9~16.0	100.0	11.0	100.0	

주1) 기존 계획(2008년)의 비교 가능 대상이 2010년~2015년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기간만 비교

주2)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모든 연도에서 청주시에 포함

주3) 기존 계획이 비중은 증가 면적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함

주4) 증가면적 = 2015년 면적 - 2010년 면적

2.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의 개요

(1) 수요 추정의 기준 및 기간

- 본 계획의 충북 산업입지 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하였음.
- 다만,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은 시·군·구별 행정구역 및 업종을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업종별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고 각 수치가 매우 작거나 연도별 차이가 심하여 통계분석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으로 업종별로만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하였음.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은 원칙적으로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과 ‘원단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원단위에 의한 방법’은 ‘지역의 산업입지 통계자료 축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단위를 사용한 부지수요 추정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으나 원단위에 의한 방법은 원단위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고 예측 가능한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요에서 제외하였음. 단, 참고적으로 원단위에 의한 추정결과는 기술하였음.
-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지침에 따라 목표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맞추기 위해 2016년~2025년으로 하고 수요 추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하였음.

[표 4-9] 충북 산업입지 수요 추정의 기준 및 기간

구 분		내 용	비 고
수요 추정 기준	기준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	
	특이 사항	• 업종별 수요 추정 - 제조업 7개 업종(GRDP), 제조업 외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의 결과를 최종 수요로 채택 - 원단위에 의한 방법도 수행하였으나 제외함	데이터의 양, 질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수요 추정기간		• 2016년~2025년(본 계획의 계획기간)	

(2) 수요 추정의 방법

- 충북 산업입지의 수요 예측은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라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과 ‘원단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원단위에 의한 추정은 분석데이터의 양과 질 및 결과의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요에서 제외하였음.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

- 과거추세치에 의한 추정은 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수평활법, 곡선추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최적 모형의 값을 최종 수요로 채택하였음.

[표 4-10] 과거 추세치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 예측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과거 추세 치에 의한 추정	사 용 데이터	팩토리온(femis) 등록공장부지면적 - 2006~2016년(11개년) - 지역별, 업종별, 개별·계획입지별 등 - 세종시 편입지역 제외(2006년~2011년)	공장등록신청서 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도 포함
	데이터 분 류	제조업(7) 및 기타(1)의 8개로 재분류 - 제조업 7개 업종(GRDP 분류기준) - 기타: 제조업 외 업종 '제조업 외'로 구분	예측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데이터 보 정	·과거와 최근의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 → 최근 데이터 사용 ·이상점(outlier) → 전·후년도 평균값 적용	
	통 계 기 법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 단순, Holt선형, Brown선형, 진폭감소	비계절 모형, 선형추세
		곡선추정 회귀분석(Regression) - 선형, 2차, 3차, 복합, 성장, 대수, S, 지수, 역, 제곱값	비선형 회귀분석
	예측치 채 택	각 통계기법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 중 최적 값 선택 - 유의확률, 설명력(R^2), MAPE - 2006~2013년 데이터로 예측한 2014~2016년 추정치와 실측치의 오차	최적 모형으로 판단한 지수모형의 값 채택

□ 원단위에 의한 추정

- 원단위에 의한 추정은 ‘부지면적/생산액’ 입지 원단위를 추정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통계모형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의 결과를 채택하였음.

[표 4-11] 원단위(부지면적/생산액)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 예측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원단 위에 의한 추정	제조업 생산액 추 정	사 용 데이터	통계청 제조업 생산액 - 1999년~2014년(16개년) - 세종시 편입지역 제외	9차(10인 이상) 기준 세종시부문 추정
		데이터 분 류	제조업 중분류를 7개로 재분류 - GRDP 분류기준	이상점(outlier) 조정
		통 계 기 법	지수평활법 - 단순, Holt선형, Brown선형, 진폭감소	가장 적합한 모형인 Holt선형 채택
			박스젠킨스법(Box-Jenkins) - AR, MA, ARIMA(1,1,1)	
			곡선추정 회귀분석(Regression) - 선형, 2차, 3차, 복합, 성장, 대수, S, 지수, 역, 제곱값	
	원단위 추 정	사 용 데이터	·면적: 팩토리온(femis) 등록공장부지 ·생산액: 통계청 제조업 생산액 - 2006년~2014년(9개년)	공장등록신청서 기준 생산액데이터 부재로 2015년 제외
		데이터 분 류	제조업 중분류를 7개로 재분류 - GRDP 분류기준	이상점(outlier) 조정
		통 계 기 법	지수평활법 - 단순, Holt선형, Brown선형, 진폭감소	
			박스젠킨스법(Box-Jenkins) - AR, MA, ARIMA(2,0,1)	가장 적합한 모형인 AR 채택
			곡선추정 회귀분석(Regression) - 선형, 2차, 3차, 복합, 성장, 대수, S, 지수, 역, 제곱값	
	수 요 예 측	·추정방법: (생산액 × 원단위) + 제조업 외 ·제조업 외: 과거추세치에 의한 추정 비율 적용		공장부지에 ‘제조업 외’도 포함 되어있으므로 적용

- ‘부지면적/생산액’ 입지 원단위에 의한 추정은 원단위데이터의 부족 및 통계모형 예측치의 불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 산업입지 수요로 채택하지 않았음.

2)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을 위한 통계모형의 검토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년)」에 따르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모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크게 평활 및 분해법에 의한 예측과 확률적 시계열 모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평활 및 분해법에 의한 예측 중, 평활법은 추세의 유무에 따라 수평적 시계열 모형과 선형·비선형 추세 시계열 모형으로 구분됨.
 - 수평적 시계열이란 관측된 시계열의 평균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시계열로서 단순이동평균법의 단점을 보완시킨 단순지수평활법이 대표적인 예임.
 - 단순지수평활법은 과거의 관측값을 토대로 미래의 값을 예측할 때 최근의 자료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하는 방법임.
 - 이동평균법에서는 이동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최근 m 개의 관측값이 필요했으며, 최근의 m 개의 관측값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시점들의 관측값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무시했었음.
 - 그러나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최근의 자료들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 예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시킨 것이 단순지수평활법임.
 - 선형추세 시계열 모형은 시계열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선형추세모형, Brown 선형지수평활법,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 등이 있음.
 - 선형추세모형(추세분석법)은 단순회귀분석의 특수한 형태로서 설명변수가 일반 관측치가 아닌 시간임. 이 방법은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관측치들의 중앙을 지나는 평균선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평균선을 추세선 또는 추세 방정식이라 칭함.
 - Brown 선형지수평활법은 단순지수평활법에서 자료가 추세유형을 보이면 예측치와 관측치간의 차이를 갖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관측값과 평활값 간의 차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임. 따라서 선형지수평활법은 단순지수평활치를 한 번 더 평활하여 이중지수평활치를 구하여 이를 이용하여 추세유형을 추정한 후 추정된 추세유형을 미래 시계열의 예측치를 구하는데 이용됨.

- Brown의 선형지수평활법은 예측값과 추세변동비를 구할 때 이중지수평활법을 이용하는데 이때 단순지수평활과 이중지수평활 모두 같은 지수평활 상수를 이용했음. 이에 반해 Holt의 선형지수평활법은 추세변동비를 계산할 때 별개의 평활상수를 이용하여 평활을 시킴으로 두 개의 평활상수를 갖는 평활방법임.
- 비선형추세 시계열 모형은 장기적인 추세변동이 선형이 아닌 2차형 또는 곡선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역선형추세, 지수곡선, 복합성장, S-곡선, 지수성장곡선, 로지스틱곡선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지수성장모형은 시계열이 인구증가와 전염병의 감염자수 등과 같이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비율 증가(혹은 감소)하는 자료를 나타낼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임.
- 복합성장모형은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이 자료가 각 시점마다 일정한 백분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임.
- S-곡선 적합모형은 기술수준이나 제품의 수명주기를 추정하는 장기예측에 적합하며, 이 모형은 초기시점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성장하고 일정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형태임.
- 로지스틱모형은 성장 상한치를 가지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신상품개발의 경우에는 개발초기에 판매량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며 그 후에는 판매량의 성장률이 다시 서서히 증가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판매량을 유지하는 S-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임.
- 확률적 시계열 모형은 관측된 과거의 시계열로부터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패턴이 유지될 것이란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시계열모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확률의 개념을 도입한 것임. 시점마다 얻어진 값을 확률변수의 실현값으로 간주해서 그의 시계열을 만드는 확률적인 구조를 모형화시킴. 이는 정상시계열모형과 비정상시계열모형으로 구분됨.
- 우선, 정상시계열모형에는 자기회귀(AR) 모형, 이동평균(MA)모형, 그리고 자기회귀이동평균(ARMA)모형 등이 있음.
- 다음으로, 비정상시계열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현상을 보이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계열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며, ARIMA모형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년)」에서 정리한 시계열 통계 예측 모형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표 4-12] 시계열 통계 예측모형별 특징

구 분	특 징
지수평활 모형	•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시계열 자료에 포함된 오차들을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해서 이 오차들의 분산을 축소시킴으로써 시계열 자료의 변화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활한 곡선을 구하는 것 • 최근의 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계(미래의 값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최근의 자료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 시계열의 구성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리게 변동할 때 효과적인 모형 • 예측값들은 예측값의 신뢰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님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예측기법들 중에서 가장 경험적인 예측기법으로 평가됨
선형 (추세분석법)	• 단순회귀분석의 특수한 형태로서 설명변수는 일반 관측치가 아닌 시간임 •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관측치들의 중앙을 지나는 평균선을 도출 • 증감분이 거의 일정한 경우에 적합
지수곡선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률이 일정한 자료에 대한 장기예측 시 활용(변동률이 거의 일정한 경우)
복합성장 (지수)곡선	•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이 자료가 각 시점마다 일정한 백분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활용
S-곡선	• 기술수준이나 제품의 수명주기를 추정하는 장기예측에 적합 • 초기시점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성장하고 일정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형태
로지스틱 곡선	• 초기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며 그 후에는 성장률이 다시 서서히 증가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판매량을 유지하는 경우에 활용(성장의 한계가 있는 경우)
ARIMA (누적자귀회귀 이동평균)	• 어떤 형태의 시계열 자료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시계열의 구성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동할 때 유용 • 그러나, 모형의 추정을 위해 최소한 30개 이상의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함 •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예측값들의 신뢰구간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주1) 출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 국토교통부, 2007

주2) 자료 : 이덕기(1999), 「예측방법의 이해 SPSS 아카데미」, 박범조(2005), 「현대통계학 이론과 활용」, 시그마 프레스, 허명화·박유성(1994), 「시계열자료분석」, 자유아카데미, 김윤종 외(1996), 「통계학 개론」, 탐진출판 내용을 토대로 정리

(2) 수요 추정에 사용한 시계열자료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할 시계열데이터는 앞 장에서 기술한 FEMIS(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신청부지 면적을 GRDP의 제조업 업종구분에 맞도록 분류한 것임.
- 해당 자료는 2006년부터 공급되어, 자료의 양이 2015년까지 10개년에 불과함으로 추가적으로 2016년 자료를 확보하여 11개년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표 4-13]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

(단위: 천㎡)

연번	연 도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1	2006년	6,679	2,980	3,118	11,729	15,442	6,781	5,075	799	52,602
2	2007년	7,149	3,002	3,129	13,173	16,379	7,306	5,425	1,041	56,604
3	2008년	7,511	2,776	3,312	13,920	17,911	7,186	7,390	1,590	61,596
4	2009년	8,094	2,493	3,640	14,102	18,405	8,252	6,078	1,332	62,397
5	2010년	8,392	2,415	3,923	14,658	18,587	8,268	6,457	1,272	63,973
6	2011년	8,656	2,275	3,832	15,352	18,783	8,350	6,740	1,141	65,129
7	2012년	9,218	2,297	4,002	16,076	19,508	8,335	7,118	1,146	67,701
8	2013년	9,309	2,253	3,957	15,915	19,872	8,613	7,578	1,260	68,757
9	2014년	10,286	2,246	4,517	17,062	20,181	9,172	8,009	1,210	72,684
10	2015년	10,392	2,337	4,651	18,107	20,376	9,330	8,580	1,160	74,933
11	2016년	10,602	2,217	4,690	18,430	21,263	9,657	8,773	1,179	76,811

주1) 제조업 중분류: 음식료 및 담배-10,11,12 섬유 및 가죽제품-13,14,1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16,17,1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19,20,21,22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23,24,25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26,27,2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29,30,31,32,33 제조업 외-그 밖의 업종

주2) 2006년, 2007년은 8차 개정의 해당 업종으로 분류

주3) 세종시 편입지역을 제외(2006~2011년)한 면적임(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업체 검색 후 제외)

주4) 통계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단위는 ㎡임.

주5) 지역별, 유형별 공장부지 면적은 앞의 표 3-9, 3-11 참조

-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의 분류를 GRDP의 제조업 업종(7개)으로 구분한 것은 업종의 수가 많아질수록 연도별 데이터의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시계열 분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서 ‘필요한 경우 업종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GRDP의 제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류기준이며, FEMIS의 공장부지에는 제조업 이외의 업종도 일부 포함되어있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제조업 외’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업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충북 전체의 산업입지 수요는 각 업종별 예측결과를 합한 값으로 하였음.

□ 수요 추정에 사용한 시계열자료의 검증

- 수요 추정에 사용한 FEMIS의 공장부지 면적이 실제와 합치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비교하였음.
- 비교자료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국토연구원)의 산업단지 분양 면적데이터이며 동일한 부문의 비교를 위해 FEMIS 공장부지 중 '계획입지 면적'과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단지 면적에서 '산업시설용지 중 개발용지의 분양된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
- 실제 산업단지에서 분양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과 팩토리온의 계획입지 면적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FEMIS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표 4-14] FEMIS의 산업입지 계획입지 면적과 산업단지 분양 면적 비교

(단위: 천 m²)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업단지 분양면적 (개발, 산업시설용지)	15,394	17,271	18,371	19,312	19,824	22,044	22,501	23,593	25,074	27,700	31,053
FEMIS 계획입지면적	17,534	18,976	20,352	19,868	20,511	21,384	21,836	22,335	25,211	27,142	28,392
차 이 (분양면적 - 계획입지)	-2,140	-1,705	-1,981	-556	-687	660	665	1,258	-137	558	2,661
오차 퍼센트(%)	-13.9	-9.9	-10.8	-2.9	-3.5	3.0	3.0	5.3	-0.5	2.0	8.6

주1) 산업단지 분양면적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산업시설용지, 개발용지)

주2) 팩토리온 계획입지면적: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emis) 제공

주3) 차이 = 산업단지 분양면적 - FEMIS 계획입지면적

주4) 오차 퍼센트 = 차이/산업단지 분양면적

주5)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 포함

(3) 분석자료의 특성 및 분석의 전제

- 수요 추정에 사용한 FEMIS의 공장부지 면적은 11개년에 불과하여 분석에 필요한 관측값의 양이 부족함으로 다양한 통계모형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또한 업종별로 구분한 공장부지 면적데이터 중에서는 비안정적(Stationary)이거나 추세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가진 시계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최소 30개년 이상의 관측값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ARIMA는 예측모형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상점(outlier) 대체 등 원자료(raw data)를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음.

- 관측값이 충분히 많을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나 가용한 관측값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별도의 시나리오는 적용하지 않음. 다만, 과거와 최근 관측값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에 한해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이는 시기만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표 4-15]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치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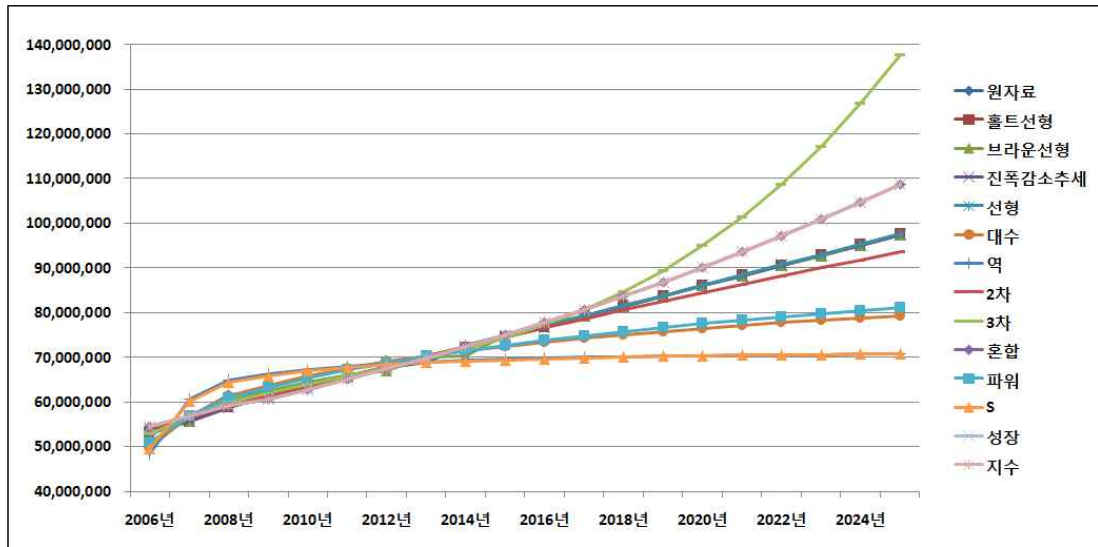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분석데이터 (관측값)	- 출처 : FEMIS 공장부지 - 등록신청 기준 - 기간 : 2006년 ~ 2016년 (11개년) - 구분 : 8개 (제조업 7개, 제조업외 1개)	
예측기간	2017년 ~ 2025년 (9개년)	
데이터 보정	- 이상점(outlier) 대체 - 전·후년도 평균값 - 과거와 최근의 값이 매우 큰 경우 → 안정화된 시기만 선택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제조업외	
분석 수행 통계모형	- 지수평활법 : 단순, 홀트선형, 브라운선형, 진폭감소추세 - 곡선추정 회귀분석: 선형, 2차, 3차, 복합, 성장, 대수, S, 지수, 역, 제곱값	모형 중 최적 모형 채택
충북 전체 수요	각 업종(8개)별 예측결과를 합한 값으로 함	

(4) 통계모형별 예측 결과와 최적 모형

□ 통계모형별 예측 결과 비교

- 지수평활법의 3개 모형과 곡선추정 회귀분석 10개 모형의 예측값(8개 업종의 합계)은 아래 그림과 같음.
- 13개의 모형을 사용하여 공장부지(산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8개 업종에 따라 각각 선형모형, 홀트선형모형, 브라운선형모형, 지수(혼합, 성장)모형의 예측력(R^2 , MAPE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비교적 예측력이 높은 모형의 8개 업종 전반의 예측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관측값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예측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 13개 모형의 결과(8개 업종 합계)



□ 추가적인 예측력(Ability to forecast) 평가

- 위의 예측 결과와 같이 각 업종별로 비슷한 수준의 예측력을 보여준 모형에서 최적의 모형을 채택하기 위해 최근 관측값의 일부를 제거한 후 추정한 값과 제거한 관측값의 오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각 모형의 예측력을 추가 평가하였음.
- 2006년부터 2013년(9개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4년에서 2016년(3개년)의 면적을 각 모형별로 추정한 후 해당 기간의 실제 면적과 비교(MAPE)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검토 결과, 업종 전반적으로 지수(혼합, 성장)모형의 MAPE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의 최종 예측모형으로 지수모형을 채택하였음.

[표 4-16] 모형별 2014~2016년 관측값과 예측값의 MAPE 비교

제조업 업종	선형	대수	역	2차	3차	파워	S	지수	홀트
음식료품	1.92	9.75	15.59	5.55	8.13	8.87	15.54	2.68	1.99
목재종이	4.65	11.26	16.29	13.19	33.58	10.64	16.31	2.63	5.00
석유화학	1.74	8.34	13.34	9.23	3.78	7.48	13.15	1.08	2.02
광물금속	3.60	2.07	6.50	5.20	8.16	1.41	6.35	5.21	2.15
전기전자	1.00	6.48	10.76	10.40	12.15	5.92	10.70	0.86	1.30
기계운송	4.36	11.12	16.32	11.43	34.85	10.03	16.20	1.49	4.86

주1) MAPE는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평균 절대 퍼센트 오차)

주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제조업외는 관측값의 양이 적어 제외하였음

(5)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

○ 과거 추세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충북의 향후 산업입지 면적은 2025년에 108.78㎢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업종별 및 연도별 면적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7]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단위: ㎢)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15년 (실제)	10.39	2.34	4.65	18.11	20.38	9.33	8.58	1.16	74.93
2016년 (실제)	10.60	2.22	4.69	18.43	21.26	9.66	8.77	1.18	76.81
2017년	11.45	2.19	4.99	19.39	22.08	10.02	9.44	1.15	80.71
2018년	12.00	2.16	5.21	20.20	22.70	10.35	9.98	1.13	83.73
2019년	12.57	2.14	5.44	21.04	23.33	10.70	10.55	1.12	86.87
2020년	13.17	2.11	5.68	21.91	23.99	11.05	11.15	1.10	90.15
2021년	13.79	2.08	5.93	22.82	24.66	11.41	11.78	1.09	93.57
2022년	14.45	2.06	6.19	23.77	25.35	11.79	12.46	1.08	97.14
2023년	15.14	2.03	6.46	24.76	26.05	12.18	13.17	1.06	100.86
2024년	15.86	2.01	6.75	25.78	26.78	12.58	13.92	1.05	104.73
2025년	16.62	1.98	7.04	26.86	27.53	13.00	14.71	1.04	108.78

○ 예측면적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과 ‘제조업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33.8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4-18]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예측 면적의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

(단위: 천 ㎡/년)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16년	210	-120	39	323	887	327	193	19	1,878
2017년	848	-28	298	963	819	366	667	-34	3,899
2018년	546	-27	220	806	617	331	538	-14	3,017
2019년	572	-27	229	839	635	342	569	-14	3,145
2020년	599	-26	240	874	652	353	602	-14	3,279
2021년	628	-26	250	910	670	365	636	-14	3,420
2022년	658	-26	261	948	689	377	672	-13	3,566
2023년	689	-25	273	987	708	389	711	-13	3,719
2024년	722	-25	285	1,028	728	402	751	-13	3,878
2025년	756	-25	297	1,071	749	415	794	-13	4,045
계	6,228	-354	2,392	8,749	7,155	3,667	6,133	-124	33,845

3)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에 사용한 시계열자료

-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에서 적용한 원단위는 제조업생산액당 제조업공장부지면적이므로 제조업생산액자료와 제조업공장부지면적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제조업공장부지면적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에서 사용한 FEMIS의 자료와 동일함.
- 제조업생산액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생산액을 사용하였으며 세종시로 편입(2012년)된 지역의 공장부지면적을 활용하여 제조업생산액을 추정한 후 제외하였음.
-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생산액을 1999년부터 2014년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조업공장부지면적도 이에 대응하는 기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의 자료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4-19] 생산액/면적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시계열자료

구 분		내 용
제조업 생산액	자료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 기간 : 1999년~2014년 (16개년)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자료 사용 • GRDP 제조업 업종구분을 기준으로 재분류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과 동일하게 적용 •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 생산액 추정 후 제외 -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 공장부지면적을 활용하여 추정 - 공장부지면적자료가 부재한 1999년~2005년은 2006년 추정치에 연간 생산액 증감비율 적용
	사용목적	• 목표연도(205년)까지 제조업생산액 예측 • 생산액/면적 원단위(관측값) 시계열자료 생산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	자료출처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에서 사용한 자료(FEMIS)와 동일 - 기간 : 2006년 ~ 2014년 (9개년)
	사용목적	• 생산액/면적 원단위(관측값) 시계열자료 생산

□ 제조업 생산액

○ 제조업 생산액은 1999년 약 19.9조에서 2014년 66.2조로, 연평균 8.3%씩 증가하였음.

[표 4-20] 충북 제조업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번	연 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계
1	1999년	3,676,318	1,168,054	986,435	3,816,332	2,759,928	6,061,607	1,465,031	19,933,705
2	2000년	3,144,993	1,234,561	1,209,719	4,027,773	3,212,218	7,006,775	1,728,646	21,564,685
3	2001년	3,357,627	1,232,838	1,231,244	4,296,699	3,205,196	5,237,912	1,796,700	20,358,216
4	2002년	3,701,230	1,195,998	1,298,752	4,984,622	3,387,955	6,853,080	1,983,094	23,404,731
5	2003년	3,851,796	1,114,377	1,335,656	5,090,251	3,746,886	7,512,849	2,154,260	24,806,075
6	2004년	3,807,132	1,053,605	1,164,520	4,260,476	4,123,885	12,588,126	2,385,961	29,383,705
7	2005년	4,148,950	915,455	1,147,015	6,033,736	4,355,249	10,093,466	2,832,408	29,526,279
8	2006년	4,128,546	843,462	1,191,975	6,807,719	4,678,493	12,282,300	3,278,234	33,210,729
9	2007년	4,981,254	887,446	1,293,879	7,558,516	5,423,944	12,910,018	3,779,189	36,834,246
10	2008년	5,884,070	1,025,461	1,413,078	8,360,909	6,075,614	13,474,137	3,954,446	40,187,715
11	2009년	6,390,030	967,886	1,380,794	8,097,353	5,584,582	15,256,608	4,704,324	42,381,577
12	2010년	7,156,913	1,135,586	1,747,744	10,753,423	7,010,353	18,788,274	6,932,544	53,524,837
13	2011년	8,542,693	1,249,487	2,131,541	11,672,519	7,707,545	19,892,939	7,759,813	58,956,537
14	2012년	9,409,211	1,187,759	2,182,696	11,734,450	8,095,495	19,986,546	7,002,794	59,598,951
15	2013년	9,880,786	1,219,434	2,303,602	13,023,339	8,590,518	20,439,789	7,838,742	63,296,210
16	2014년	10,219,459	1,154,336	2,389,772	13,382,959	8,590,078	21,756,036	8,743,483	66,236,123

주)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분류를 재분류함

□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

[표 4-21]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

(단위: 천㎡)

연번	연 도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비 고
1	2006년	6,679	2,980	3,118	11,729	15,442	6,781	5,075	
2	2007년	7,149	3,002	3,129	13,173	16,379	7,306	5,425	
3	2008년	7,511	2,776	3,312	13,920	17,911	7,186	7,390	
4	2009년	8,094	2,493	3,640	14,102	18,405	8,252	6,078	
5	2010년	8,392	2,415	3,923	14,658	18,587	8,268	6,457	
6	2011년	8,656	2,275	3,832	15,352	18,783	8,350	6,740	
7	2012년	9,218	2,297	4,002	16,076	19,508	8,335	7,118	
8	2013년	9,309	2,253	3,957	15,915	19,872	8,613	7,578	
9	2014년	10,286	2,246	4,517	17,062	20,181	9,172	8,009	

주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 추정에 사용한 자료와 동일, 제조업외는 제외

주2) 통계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단위는 ㎡임.

(2) 원단위 산정의 한계점 및 분석의 전제

□ 원단위 산정의 한계점

- 원단위에 의한 추정치는 원단위 예측과 생산액 예측을 먼저 실행한 후 2개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수요 면적을 계산하여야 함.
- 먼저, 생산액/면적 원단위 즉, 제조업 생산액(백만원)당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을 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2006년~2014년) 제조업 생산액과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 시계열자료를 적용하여 원단위 관측값을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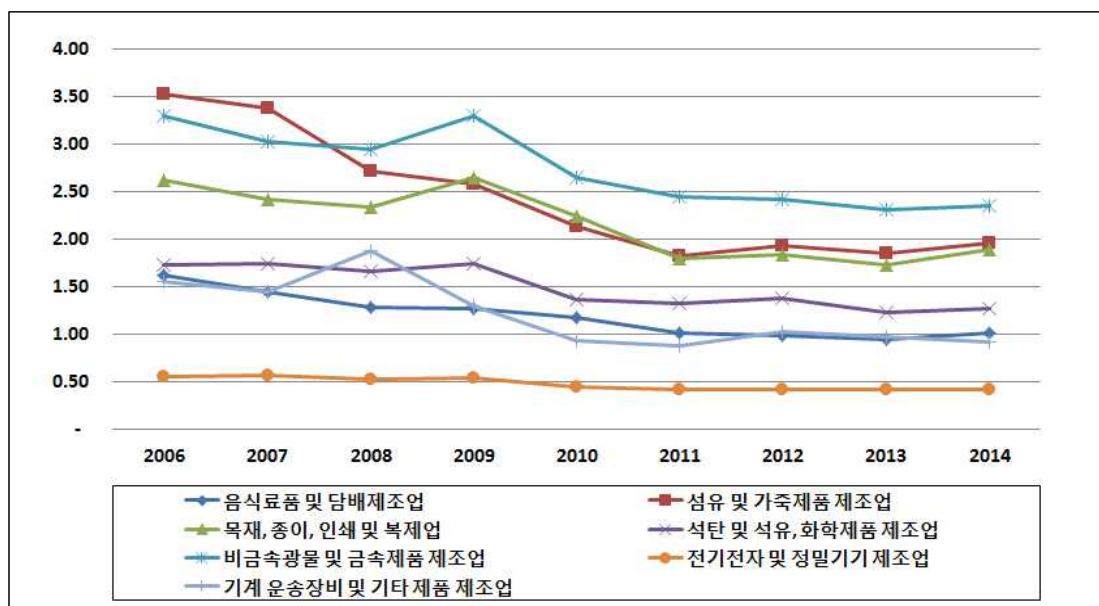
[표 4-22] 2006년~2014년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단위: m²/백만원)

연번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비 고
1	2006년	1.62	3.53	2.62	1.72	3.30	0.55	1.55	
2	2007년	1.44	3.38	2.42	1.74	3.02	0.57	1.44	
3	2008년	1.28	2.71	2.34	1.66	2.95	0.53	1.87	
4	2009년	1.27	2.58	2.64	1.74	3.30	0.54	1.29	
5	2010년	1.17	2.13	2.24	1.36	2.65	0.44	0.93	
6	2011년	1.01	1.82	1.80	1.32	2.44	0.42	0.87	
7	2012년	0.98	1.93	1.83	1.37	2.41	0.42	1.02	
8	2013년	0.94	1.85	1.72	1.22	2.31	0.42	0.97	
9	2014년	1.01	1.95	1.89	1.27	2.35	0.42	0.92	

주)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 ÷ 제조업 생산액

[그림 4-2] 2006년~2014년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 위 그래프와 같이 충북의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크게 변화가 없거나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2025년)의 원단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기계화·자동화에 따른 부지면적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첨단시설의 보급이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부지면적의 축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원단위의 지속적인 감소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예측통계모형 즉, 박스젠킨스법(Box-Jenkins), 지수평활법, 곡선추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형의 결과를 채택하였음.

□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의 전제

-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은 아래와 같은 분석데이터와 통계모형 및 절차로 실시하였음.

[표 4-23]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의 전제

구 분	내 용	비 고
원단위 종류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 제조업 생산액(백만원)당 제조업 공장부지 면적(m²)	
분석데이터 (관측값)	- 제조업 생산액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공장부지 면적 : FEMIS 공장부지 - 등록신청 기준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 생산액과 면적을 사용하여 계산 - 기간 : 2006년~2014년 (9개년) - 업종 구분 : 제조업 7개	
예측기간	2015년 ~ 2025년 (11개년)	
데이터 수정	이상점(outlier) 대체 - 전·후년도 평균값	
분석 수행 통계모형	- 박스젠킨스법(Box-Jenkins) : AR, MA, ARIMA - 지수평활법 : 단순, 홀트선형, 브라운선형, 진폭감소추세 - 곡선추정 회귀분석: 선형, 2차, 3차, 복합, 성장, 대수, S, 지수, 역, 제곱값	모형 중 가장 합리적인 모형 채택
추정 절차 및 산식	- 과거 원단위 계산 → 향후 원단위 추정 → 향후 생산액 추정 → (추정 원단위×추정 생산액)+제조업외 면적 = 수요 면적 - 제조업외의 면적은 추세치에 의한 추정의 해당 면적비율 적용	
충북 전체 수요	각 업종(8개)별 예측결과를 합한 값으로 함	제조업외 포함

(3)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예측 결과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분석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음의 수가 도출되는 등 여러 통계모형의 결과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상당 수준의 지속적인 원단위의 감소를 예측하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를 예측하는 모형의 결과는 현실과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하지 않았음.
-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예측치를 보여준 AR모형(Auto Regressive Model, 자기회귀모형)의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충북 제조업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예측

(단위: m²/백만원)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비 고
2014년	1.01	1.95	1.89	1.27	2.35	0.42	0.92	실제
2015년	1.01	1.94	1.88	1.26	2.30	0.42	0.90	
2016년	1.00	1.93	1.87	1.26	2.30	0.42	0.87	
2017년	1.00	1.91	1.85	1.25	2.30	0.42	0.85	
2018년	1.00	1.90	1.84	1.24	2.30	0.41	0.82	
2019년	0.99	1.89	1.83	1.24	2.30	0.41	0.80	
2020년	0.99	1.88	1.82	1.23	2.30	0.41	0.78	
2021년	0.99	1.87	1.81	1.23	2.30	0.41	0.76	
2022년	0.98	1.85	1.80	1.22	2.30	0.41	0.74	
2023년	0.98	1.84	1.78	1.21	2.20	0.41	0.72	
2024년	0.98	1.83	1.77	1.21	2.20	0.41	0.70	
2025년	0.97	1.82	1.76	1.20	2.20	0.41	0.68	

주)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AR모형의 결과임

□ 제조업 생산액 예측 결과

- 박스젠킨스법, 지수평활법, 곡선추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액을 예측한 결과, 지수평활법의 홀트선형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홀트선형모형의 예측력은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을 제외한 6개 업종에서 R^2 가 0.910 ~ 0.974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모형에 비해 업종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제조업 생산액의 최종 예측모형으로 채택한 홀트선형모형의 추정 결과, 충북 제조업의 생산액은 2014년 약 66조원에서 2025년 10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4-25] 충북 제조업 생산액 예측

(단위: 백만원)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계
2014년 (실제)	10,219,459	1,154,336	2,389,772	13,382,959	8,590,078	21,756,036	8,743,483	66,236,123
2015년	10,744,189	1,153,862	2,475,256	14,686,096	9,155,239	23,026,693	9,252,600	70,493,935
2016년	11,268,918	1,153,385	2,560,741	15,404,819	9,575,941	24,192,393	9,761,718	73,917,915
2017년	11,848,029	1,158,225	2,658,427	16,197,889	10,042,740	25,475,023	10,318,196	77,698,529
2018년	12,431,979	1,163,061	2,756,902	16,997,588	10,513,417	26,768,402	10,879,369	81,510,718
2019년	13,020,768	1,167,892	2,856,165	17,803,914	10,987,975	28,072,533	11,445,237	85,354,484
2020년	13,614,396	1,172,719	2,956,216	18,616,869	11,466,413	29,387,413	12,015,800	89,229,826
2021년	14,212,865	1,177,542	3,057,057	19,436,452	11,948,730	30,713,044	12,591,059	93,136,749
2022년	14,816,171	1,182,360	3,158,685	20,262,664	12,434,928	32,049,425	13,171,013	97,075,246
2023년	15,424,317	1,187,173	3,261,102	21,095,503	12,925,005	33,396,557	13,755,662	101,045,319
2024년	16,037,302	1,191,983	3,364,306	21,934,971	13,418,962	34,754,439	14,345,005	105,046,968
2025년	16,655,126	1,196,788	3,468,299	22,781,067	13,916,799	36,123,071	14,939,045	109,080,195

주) 통계방법 중 가장 적합도가 높은 홀트(Holt)선형모형의 결과 사용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결과

- 앞서 예측한 제조업 생산액에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를 곱하고 '제조업외'의 면적을 더하여 최종 수요를 추정하였음.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수요 예측결과, 2015년(실제) 74.93km²에서 2025년 109.08km²로, 10년간 34.15km²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6]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단위: km²)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15년 (실제)	10.39	2.34	4.65	18.11	20.38	9.33	8.58	1.16	74.93
2016년 (실제)	10.60	2.22	4.69	18.43	21.26	9.66	8.77	1.18	76.81
2017년	11.85	2.21	4.92	20.25	23.10	10.70	8.77	1.31	83.10
2018년	12.43	2.21	5.07	21.08	24.18	10.98	8.92	1.36	86.23
2019년	12.89	2.21	5.23	22.08	25.27	11.51	9.16	1.41	89.75
2020년	13.48	2.20	5.38	22.90	26.37	12.05	9.37	1.47	93.22
2021년	14.07	2.20	5.53	23.91	27.48	12.59	9.57	1.53	96.88
2022년	14.52	2.19	5.69	24.72	28.60	13.14	9.75	1.58	100.18
2023년	15.12	2.18	5.80	25.53	28.44	13.69	9.90	1.61	102.27
2024년	15.72	2.18	5.95	26.54	29.52	14.25	10.04	1.67	105.87
2025년	16.16	2.18	6.10	27.34	30.62	14.81	10.16	1.72	109.08
증가면적	5.76	-0.16	1.45	9.23	10.24	5.48	1.58	0.56	34.15

주1) '제조업외'는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에서 연도별 '제조업외'의 비중(1.6%)을 적용함

주2) 증가면적=2025년 면적-2015년 면적

4)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수요 추정 최종 결과

- 목표기간의 충북 산업입지 면적은 앞의 분석 결과와 같이,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에서 33.85km², 원단위에 의한 방법에서 34.15km²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하지만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예측 결과는 과거 추세치에 의한 예측에 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27]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분석자료(raw date) 부족	•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 예측을 위한 자료가 9개년에 불과 - 예측 결과의 신뢰성 문제 발생
제조업 생산액 일관성 부족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준)	• 통계청의 제조업 생산액은 종사자 수 10인 이상 업체 기준 -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업체 수에 따라 생산액이 변화
부지면적/생산액 원단위의 신뢰성 및 현실성 문제	• 원단위 시계열자료의 추세성이 약함 (연도별 등락 반복) - 제조업 생산액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생산액 변화의 영향 • 일정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여야 하는 점 -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원단위 감소 예상 -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최저 수준은 유지 - 분석자료 부족, 예측통계모형의 한계 (음의 결과 또는 증가하는 예측 결과의 수용 문제)
'제조업외' 예측 결과 부재	• 제조업 생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제조업외'의 반영 문제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 결과(비중) 준용

- 또한 두 가지 방법의 예측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수절약의 원칙 (Principle of Parsimony)과도 부합하고, 두 가지 방법 중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과거 추세치에 의한 예측 결과만을 채택하여 최종 수요 면적 산정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목표기간(2016년~2025년)의 충북 산업입지 면적은 2015년 74.93km²에서 2025년 108.78km²로, 10년 동안 33.85km²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표 4-28]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수요) 추정 결과

(단위: km²)

구 분	현황 (2015년)	면 적					비 고
		누 적		증 가 분			
		2020년	2025년	2016~`20년	2021~`25년	2016~`25년	
산업입지 면적	74.93	90.15	108.78	15.22	18.63	33.85	

주) 2016~2020년 증가분=2020년-2015년, 2021~2025년 증가분=2025년-2020년

V. 산업입지제도 및 정책 검토

제5장 산업입지제도 및 정책 검토

1. 제도 및 정책 개요

1) 산업입지 유형

- 산업입지(産業立地, location of industry)란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며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를 크게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입지)로 구분하고 있음.

□ 계획입지

-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의미함.
- 계획입지는 기업이 산업용지를 쉽고 간편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의 협동화·계열화 촉진 등을 위해 유용한 입지로 이러한 계획입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한정된 국토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역간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에 기여함.
 - 유사업종 또는 관련 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의 협동화와 계열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제조시설과 관련된 연구·교육·유통·복지시설 등을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도로·항만·용수·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녹지공간과 각종 지원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입지와 관련된 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및 용지의 수용이 가능하며 국·공유지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음.
- 지역별 계획입지 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함.

□ 개별입지

- 개별입지는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함.
- 개별입지 제도는 산업단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개별입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별입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교

- 입지유형에 따라 설립절차, 입지여건, 토지이용의 용이성, 기반시설의 정비,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있어서 상대적인 강·약점을 지니고 있음.

[표 5-1] 산업입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구 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목적	국가, 지방의 계획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허토지의 적기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Strength (강점)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적용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공동방주시설 설치로 공해배출업종의 입주 용이 - 집단화로 기업상호간 정보·기술교환 용이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 제약 약함 - 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탄력적인 입지확보) - 공장용지의 처분, 확장 용이 - 첨단기술업종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로 선택이 용이

[표 5-1 계속] 산업입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구 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Weakness (약점)	-장기간 단지개발로 적기·적소에 확보곤란 -개별입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격 -입주 후 공장 등 시설확장 곤란 -입주업종 제한 -공장부지의 매각 등 처분 제한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공장부지의 용도전용이 어려움 -기업간 정보교환에 제약 -계획입지에 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 -산업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및 교육·문화 등 지원시설 미비 -입지주변의 환경요소 통제 곤란
Opportunity (기회)	-클러스터 활성화 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강화, 네트워킹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산업집적으로 인한 상권 형성, 경제적·문화적 혜택 -신개념 산업단지(복합산업단지 등) 등장시분양률 및 고용증가 기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공장시설의 집단적 배치로 사회적 비용·환경문제의 최소화	-기업규제완화 등 공장설립규제의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지자체별 지원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지원책강화 -입지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추세 -구직인력의 증가
Threat (위협)	-주변 공장과의 임금수준 및 후생시설 등의 차이로 종업원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음 -인근 기업의 노사분규 파급 우려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산업단지 분양률 저하 우려 -분양률 저하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증대 -산업단지가 다양화됨에 따라 입주업무의 일관성 저해	-부동산경기 불안정에 따른 지가변동 -공장설립 반대 민원의 소지(마찰시 장기간 소요) -해외이전 등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화 등 사기 저하 -환경관련 법규의 강화와 오염원의 개별 처리비용 증가

주) 자료: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2) 산업입지 관련 법률

○ 산업입지와 관련된 법률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개별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 및 관련 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각 부처에서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그림 5-1]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주) 자료: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 이 중에서 산업입지 관련 제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주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관리와 개별입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림 5-2] 산업법 및 산집법의 목적



주1) 자료: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주2) 산업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집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외에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진흥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경우 산업단지 형태의 입지시설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규정을 따르며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양 법이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지로서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를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별 법률에 따라 특수 목적의 단지를 지정하고 있음.
- 특수 목적 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중복적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지정되더라도 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5-2] 특수 목적 단지의 종류와 근거법률

구 분	지정목적	근거법률
과학연구단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 유치하거나 육성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추진하며,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 창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문화산업단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수 있도록 토지·건물·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진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다른 지역보다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 영업활동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연구개발업 등의 지식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집적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	첨단의료복합단지의지정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6조)

주) 자료: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3) 산업입지 관련 계획 체계

- 우리나라 산업입지 공급은 국토가 지향해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크게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기본 골자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

[그림 5-3] 산업입지 공급 관련 계획 체계



주) 자료: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 국토종합계획은 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입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및 주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입지공급계획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산업입지공급계획은 향후 산업입지의 개발방향과 개발기준, 규모를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

획이며, 매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 강화를 통해 산업집적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임.

4) 산업단지 유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유형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음.

[표 5-3] 산업단지의 유형

구 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대상지역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촉진 필요한 후지역, 기간산업 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시·도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문화·정보 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 내에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공업지역	공장의 집단 설치를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추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도지사	중소기업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 협동화사업을 위한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시·도지사	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화물처리 능력, 사회간접자본시설, 통제시설 등이 충분하거나 예정된 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국인유치 및 정주환경,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지역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지정하여 개발함.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절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여 개발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여 개발함.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개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조성되는 산업지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단의 공업지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음.

5) 산업단지 지정 · 개발제도

-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독 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는 공영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 절충방식, 위탁시행방식 등이 있음.
- 공영개발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식, 대부분의 산업단지개발이 공영개발방식임.
- 민간개발방식은 실수요자(민간)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방식임.
- 절충방식은 제3섹터방식, 공동개발방식, 합동개발방식이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여러 형태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임.
- 위탁시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표 5-4] 산업단지의 개발방식

개발 방식	협 력 내 용
공영개발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식, 대부분의 산업단지개발이 공영개발방식임 · 국가산업단지개발 :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에 의뢰하여 개발 · 일반, 농공단지개발 지자체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뢰하여 개발
민간개발방식	- 실수요자(민간)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방식
절충방식 ·제3섹타방식 ·공동개발방식 ·합동개발방식	- 공공과 민간이 여러 형태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 공공개발에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
위탁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 항만, 공업용수도,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 · 용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등을 시·도지사에 위탁시행

○ 산업단지 유형별 개별단지 제한규모와 지역별 지정 총면적 제한, 미분양률에 의한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표 5-5] 산업단지 지정·개발제도 현황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 * 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도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1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도 지정 가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승인)
개별단지 규모제한	제한없음	3만㎡ 이상	1만㎡ 이상	3만㎡ 이상 33만㎡ 이하
지역별 지정 총면적 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도별 330만㎡ 이내	시·군·구별 100만㎡~200만㎡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 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미분양률에 의한 제한	시·도별로 미분양률 15%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률 30%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률 30% 이상	시·도별로 미분양률 30%이상
지정지역	제한 없음	좌동	도시계획구역 안 * 서울 제외	농어촌 지역에 지정

6)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 사업시행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지원 제도는 개발비용 부담, 자금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금융지원,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지원 등이 있음.

[표 5-6]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구 분	관련 법률 및 조항	주 요 내 용
비용부담	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일률적으로 50%이나,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 낙후지발개발에 특히 필요의 경우는 100%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산업입지법 제29조, 영 제27조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등의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조세 및 자금 지원	산업입지법 제45조,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조성의 육성을 위해 (지특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 할 수 있음.
토지개발지원	산업입지법 제22조 내지 제27조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이 용이하도록 토지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가 마련되어져있다.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의제처리 및 일부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정부는 의제 처리 및 타 법률의 적용 특례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확보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농공단지 지원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9조	농공단지내의 도로,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폐수처리시설 제외) 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전문단지 등에 우선 지원 할 수 있음.

[표 5-7]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세제지원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 시키고 단지입지 유도에 기여하고 있음 - 주로, 조특법 및 지특법에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금융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기술산업, 중소기업관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자금을 관리·운영함

2.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1) 시대별 산업입지정책

-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임.
- 1960년대는 수출산업의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시기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2),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1964)을 제정하여 공장입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계획입지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
-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지 조성시기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됨.
 - 지방공업개발법(1970)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에 의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
 - 주요 지방공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들이 상기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 1980년대는 산업단지 내실화 및 농공단지 개발의 시기로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추진함.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300여개 농공단지가 개발되었음.
 - 1980년대 후반기에는 농공단지 개발과 함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국토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됨.
- 1990년대는 신산업지대 개발과 구조조정의 추진시기로, 분산되어 있던 산업입지 관련 각종 법률이 통합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인 산업입지법과 공업배치법(산업집적화법)이 제정됨.
 - 1990년 이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기술기반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문화산업단지의 바탕인 『문화산업진흥법』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음.
- 2000년대는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지시책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됨.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산업단지 개발과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였음.
- 2010년대는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및 확대를 위해 각 부처별로 사업 진행 및 부처간 협력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과학과 ICT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융복합·신성장동력·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공급자 위주의 개발, 물적 기반 중심의 개발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표 5-8]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 시도	-수도권 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 수요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육성 및 확대
정책 기초	-수출위주 경공업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 다양화 -입지규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지구 -지식기반경제 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	-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융복합·신성장 동력·미래산업 육성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수출산업공업 단지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화촉진법	-산업입지법(개정) -산업집적법(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
산업 구조	-경공업 우선 정책 -섬유, 합판, 전기 제품, 신발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 산업화 -반도체, 전자, 공업, 자동차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반도체, 정밀 화학, 자동차 프로그램 개발	-지식집약적 산업, 미래산업의 성장 -정보통신, 게임,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첨단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조산업
비고	-울산공업센터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 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 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클러스터 시범 단지	-복합용도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구조고도화&노후산업단지 재생 -혁신단지 -재생단지

주)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 지역별 계획입지(산업단지) 개발방향

-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의미함.
- 충청남·북도 및 대전광역시의 산업단지 개발 방향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임.

[표 5-9] 지역별 계획입지(산업단지) 개발 방향

지 역	개 발 방 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
강 원 도	동해안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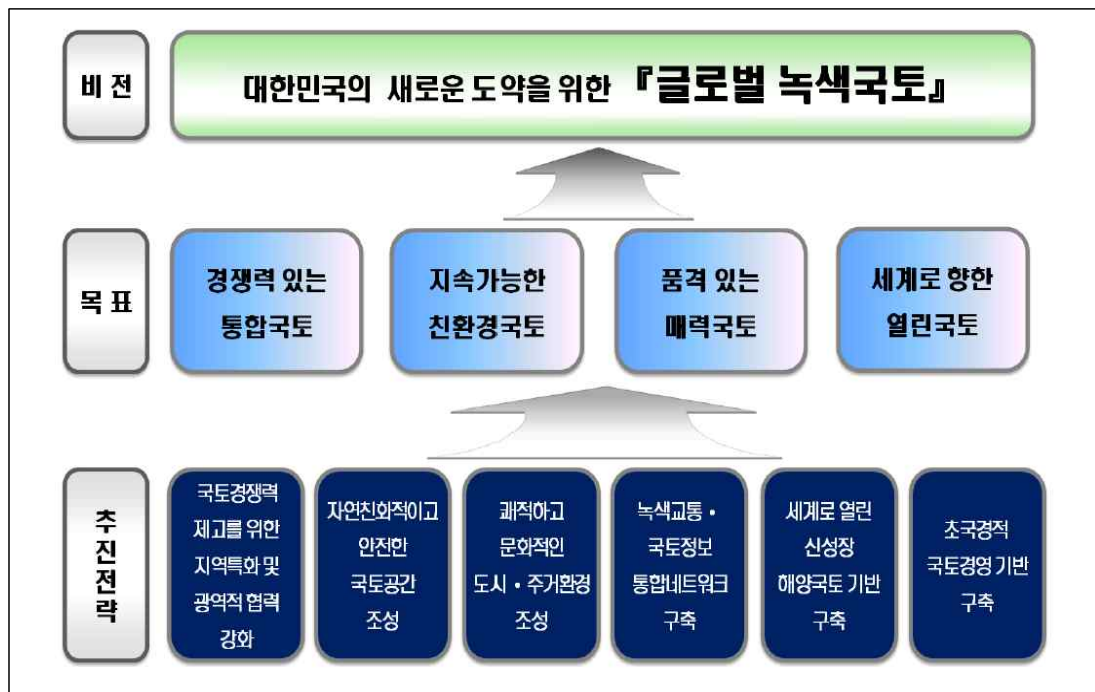
3. 관련 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과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음.

[그림 5-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충청권 계획

- 비전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시대

• 기본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 산업의 중심
-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 허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 발전방향

- 충청권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미래형 첨단사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중점 육성
 - 선도산업(의약바이오, New IT) 및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 글로벌 바이오 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산업간 융복합(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태양광산업, 국방과학산업, 신소재산업) 선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기반(자동차, IT, 철강, 석유화학, 항공산업) 확충
 - IT·BT·GT 융합산업의 광역적 혁신거점 창출과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 New IT 부품소재 및 차세대소자 제조장비의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측정의 세계표준화 선도 등 IT 경쟁력 강화와 클러스터 기반 확장
 - 첨단바이오 거점 및 거점연계형 충청권 초광역바이오클러스터, BIT 융합기술 기반 U-health 산업클러스터, 농수축산 바이오 R&D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2)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14~20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수립, 성장유망산업 현황,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 시 주요지침으로 활용됨.

[표 5-10]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목표, 정책수단, 특징

구 분	내 용
목표	•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특화 • 산업의 집적 및 산업간 지역간 연계 촉진 •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제고
정책수단	• 시도별 성장유망산업 육성 •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 인프라 개선
특징	• 지역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 • 중기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충북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입지공급 방향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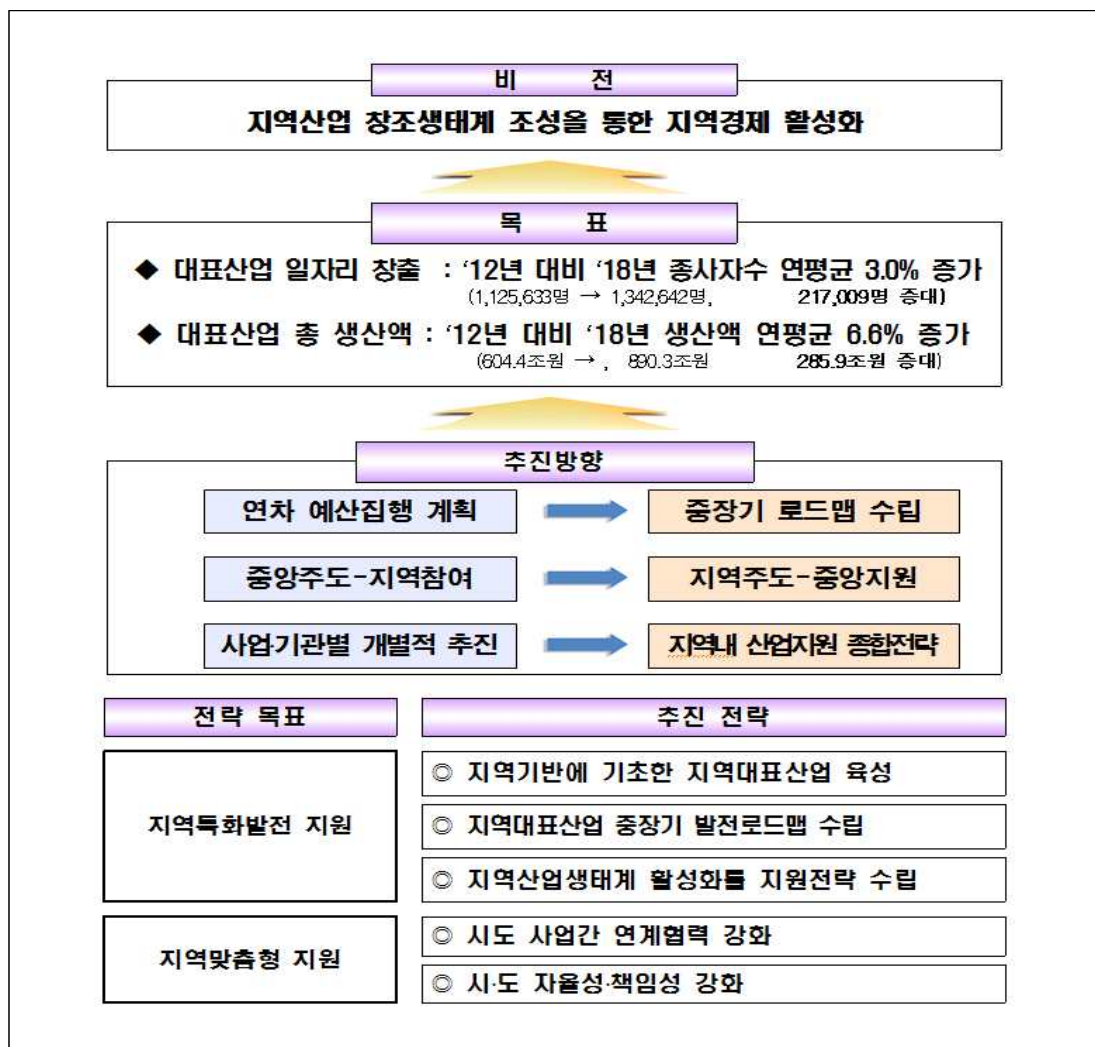
[표 5-1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충북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입지공급 방향

구 분	내 용
주력산업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발전전략	지역특화 기반 대표산업 기술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 • 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충북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친환경 그린네트워크 실현 • 바이오의약 : 바이오기술 기반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중심의 바이오의약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외 거점지역으로 성장 • 태양광 : 고효율 및 고기능 융합 제품 개발 중심의 충북 글로벌 태양광시장 선도 및 태양광 산업의 신중심지 구현 • 전기전자부품 :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융복합 ICT 기반 충북 전기전자 부품산업의 선도 중심 지역 실현 • 동력기반기계부품 : 동력기반기계부품 중심의 금속가공 기술력 확보로 국내 동력기반기계부품 거점지역으로 성장
입지공급 방향	•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은 청주, 증평, 진천을 중심으로 집적 유도 • 바이오의약은 진천, 음성, 증평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기존 집적지인 청원지역과 연계 • 동력기계부품은 진천, 음성, 청주에 집적하고 괴산, 충주, 제천과 연계

3)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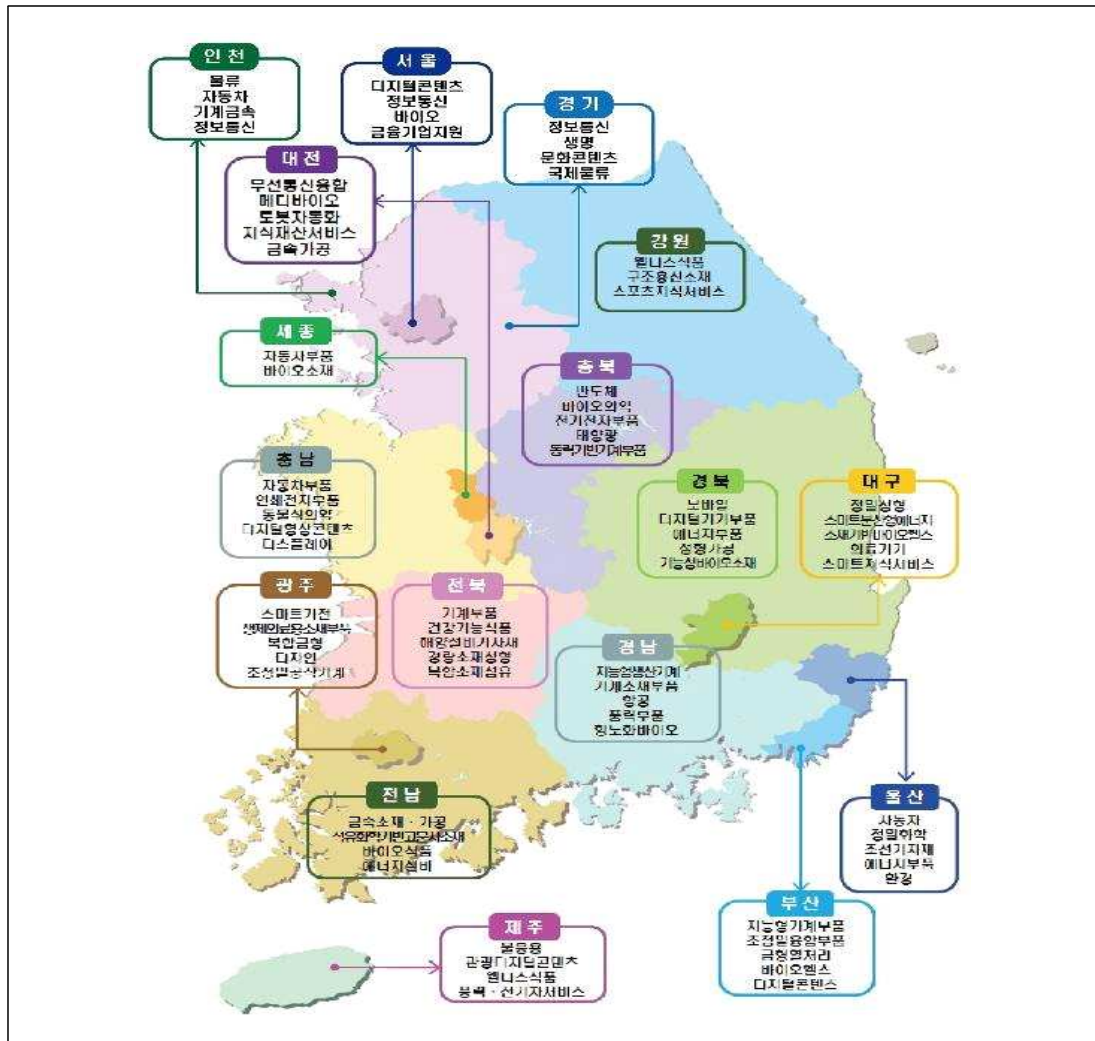
-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역산업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창조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표산업 일자리 창출 및 생산액의 증가를 꾀하고 있음.
- 대표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12년 대비 2018년 종사자 수 연평균 3% 증가, 대표산업 총 생산액 연평균 6.6% 증가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림 5-5]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지역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 시·도별 대표산업 선정 결과, 시·도 중추산업 육성을 위한 63개 주력산업, 시·도간 연계를 위한 16개 협력산업,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39개 연고(전통)산업이 선정됨.

[그림 5-6]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지역별 주력산업 배치도



- 충북의 주력산업은 5개로,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이 선정되었음.

□ 충북 지역산업발전계획

- 충북의 발전비전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이고 1단계(2014년~2016년) 목표는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및 대표산업 생태계 조성’이며 2단계(2017년~2018년) 목표는 ‘미래 핵심성장동력형 대표산업 육성’임.
- 생산액은 2012년 31.1조원/년에서 2018년 38.1조원/년, 종사자 수는 65,014명에서 79,015명, 사업체 수는 695개에서 808개로 증가를 목표로 하였음.

[그림 5-7]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충북 비전과 목표



4)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발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위, 18개 부·청 및 17개 시·도가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계획임.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정책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별로 수립된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되었으며, 지역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원조달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음.

[그림 5-8]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의 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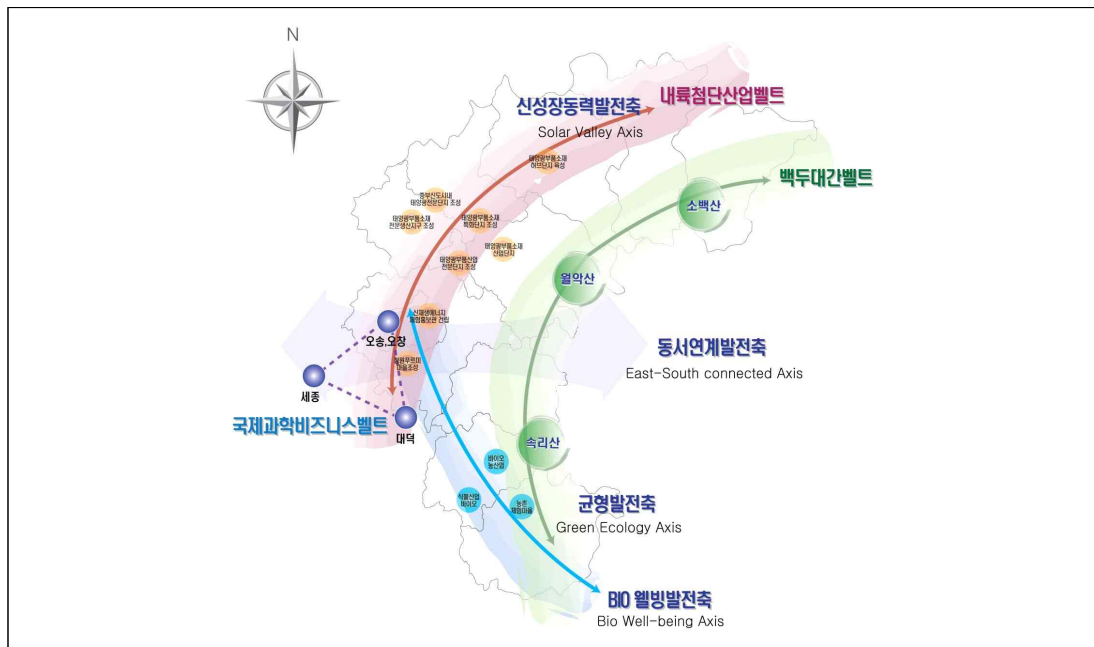
□ 충청북도 발전계획

- 비전 :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 특화발전 프로젝트 :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 전략 : 보건의료 국책기관 및 연구시설 집적화를 바탕으로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 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을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
 - 국제바이오 엑스포,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등 행사개최
 - 오송 제2생명 과학단지 조성
 - 줄기세포 재생센터 운영지원

• 공간발전구상

-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벨트를 통해 지역 연계협력 강화
- 신성장동력발전축, BIO웰빙발전축 등 4개 발전축 구축

[그림 5-9] 충청북도 공간발전구상



5)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지역적 구체화와 창의적 수용으로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상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을 계획이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간, 산업, 문화·관광 등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군별,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5-1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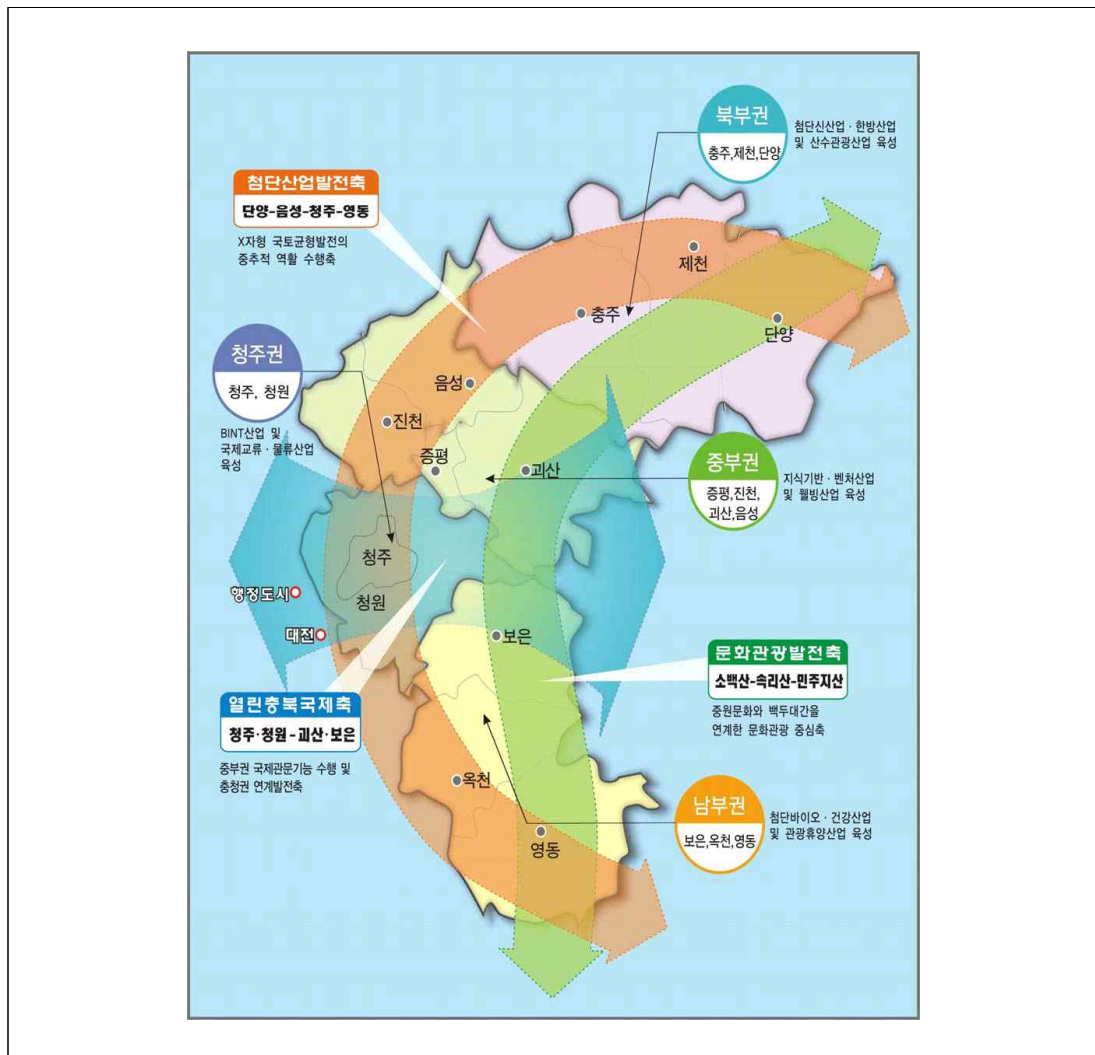


□ 권역별 발전방향

-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은 첨단산업단지, 한방산업단지, 석회석 신소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품격 산수관광산업 육성

- 중부권(진천, 은성, 증평, 괴산)은 혁신도시, 벤처빌리지, 증평산업단지, 괴산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산업, 지역특화작물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웰빙산업 육성
- 청주권(청주, 청원)은 오창·오송단지를 중심으로 한 IT·BT산업 및 청주공항과 중부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물류산업 육성
-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은 바이오농산업단지, 청산지방산업단지, 용산지방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향토, 묘목, 옷, 과일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고품질의 친환경 생산물을 연계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그림 5-11] 미래지향적 발전축 및 권역설정(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



6) 충북경제 4%시대 구현계획

- 충북은 민선 6기 들어 40조원 투자 유치를 통하여 2020년까지 GRDP 67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전국 생산액 대비 4%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림 5-12] 충북경제 4%시대 구현계획의 비전과 발전목표



[그림 5-13] 충북경제 4%시대 구현계획의 목표 달성 시나리오



4. 기존 산업입지 수급계획 검토

1)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2009~2018)

○ 앞에서 기존 계획의 산업입지 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에 대해 평가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책방향만 살펴봄.

□ 정책방향

■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지속적 보완을 통한 연속성 확보

-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 수정·보완을 통해 계획의 연속성 유지
- 기 수립된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투자효율성 및 권역 간 형평성 제고

-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 권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공급체계 구축

- 첨단산업 중심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갖춘 산업용지 공급
- 전략산업 입지에 대한 위치, 공급시기, 자금조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 산업입지의 계획적 관리 유도

- 기업의 입지실수요 및 각 시·군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고려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
-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및 기반시설 등 관련 지원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입지 비율과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산업용지 관리방안 마련

■ 개별입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 개별입지의 지속적 증가는 사회 부담으로 작용
- 산업입지의 계획적 토지이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개별입지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한 준공업단지의 지정에 대한 예비적 검토

■ 산업용지 공급계획에 근거한 유연한 공급체계 구축

2) 타 지역 산업입지 수급계획 검토

(1) 부산시

□ 부산 산업입지 현황

- 2005년부터 전국의 공장용지는 연평균 3%씩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 전국의 공장요지는 652㎢로 국토면적의 1%도 되지 않음.
- 2010년 부산의 전체 공장용지는 계획입지 9.2㎢와 개별입지 11㎢로 총 20.3㎢이므로, 여전히 개별입지 비중(54.5%)이 높음.
- 부산의 전국대비 공장비중은 3.1%로 인천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대비 계획입지 면적 비중은 공장용지 면적 비중보다 적은 2.9%에 불과함.

□ 부산 산업입지 수요분석

- 단일모수 이중 지수평활법, 쌍모수 이중 지수평활법 등 지수평활법과 원단위법을 사용하여 산업용지를 예측함.
- 통계적 방법으로 부지면적 수요 예측 결과, 2015년 22.3~22.9㎢, 2020년 25.1~26.7㎢, 2025년 27.6~31.6㎢의 산업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부산 산업입지 공급계획

- 2020년 부산지역 산업입지 공급규모(공장용지)는 2015년 5.1㎢~6.2㎢, 2020년 9.1㎢~11.2㎢, 2025년 13.5㎢~18.7㎢임.
- 부산지역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존 산업집적지 활용, 계획입지 위주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환경 조성, 산업정책과 연계성 강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임.
- 2020년까지 계획입지로 공급되는 신규 산업용지는 7.3~9.0㎢이며, 나머지 1.8~2.2㎢는 개별입지로 공급함.
- 2025년까지 계획입지 신규공급 산업용지는 10.8~15㎢이고, 개별입지 산업용지는 2.7~3.7㎢로 공급할 계획임.

- 2020년까지 부산시에서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규모는 10.64㎢이므로,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는 이 시점까지 일부 조성하고, 단계별 총량제를 실시하여 2025년까지 최대 4.36㎢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함.

(2) 경상남도

□ 경남 현황

- 2008년 경남의 산업단지는 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4개의 일반산업단지, 65개의 농공단지로 조성
- 산업단지에서 약 164,500명의 고용과 약 207,500억원의 생산액, 약 13,433백만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경남의 산업용지가 총 112.2㎢로 파악되어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1년 경남의 산업입지 수요 68.6㎢에 이미 육박하고 있음.
- 개별입지 증가의 억제와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계획입지의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계획단지의 공급확대는 개별입지와 같은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계획단지의 집적화 방안이 필요함.

□ 수요추정

- 수요추정 방법론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추정 면적치는 2009년 추정면적의 경우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법과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법이 약 5.38㎢ 더 높게 산출됨.
-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 및 2009~2020년의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2009년 결정값의 평균값을 두고 2020년의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값과의 차이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정하였음.
- 추정결과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은 70.53㎢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 수요추정면적은 81.13~81.43㎢, 순수요 면적은 10.6~10.9㎢로 추정됨.

□ 공급

- 2009~2020년 산업용지 순수요는 10.6~10.9㎢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공급규모는 14.69~15.04㎢가 예상되어, 2020년 산업용지 공급규모는 85.22~85.57㎢가 예상되어짐.



(3) 충청남도

□ 충남 현황

■ 산업단지 지정현황

- 2011년 4/4분기 충청남도 내에 총 145개소, 110,481천㎡면적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 분양현황

- 전체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79.436km²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8.175km²이며, 미분양율은 6.7%임.
- 개발완료된 분양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은 44,966천㎡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6.7%임.
- 미분양면적 3,208천㎡중 국가산업단지는 814천㎡, 일반산업단지는 2,167천㎡, 농공단지 227천㎡로 나타남.

□ 수요

-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의 수요에 대한 추정은 과거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질 생산액의 추정과 원단위 부지면적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함.
- 충남 전체의 연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수요예측의 결과
 - 분석기간을 20년(1990~2009)으로 하는 경우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개별 입지+계획 입지)의 연간 수요는 2.72km²~3.13km²로 나타나며, 전체 부지에서 70%를 계획입지로 가정하면 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1.91km²~2.19km²로 추정(평균적으로는 2.06km²)됨.
 - 예측기법별 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단순 추세법에 의한 경우 2.189km², 이동평균법에 의한 경우 2.085km², 지수평활법에 의한 경우 1.906km²로 예측됨.

□ 공급

- 권역별 공급계획은 기 공급가능 규모와 최근 권역의 여건변화, 상위계획,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기 공급가능 규모는 2011년 5분기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완료를 가정할 때, 분양대상면적 중 미분양된 면적을 의미하며, 충남 전체 규모는 17.926km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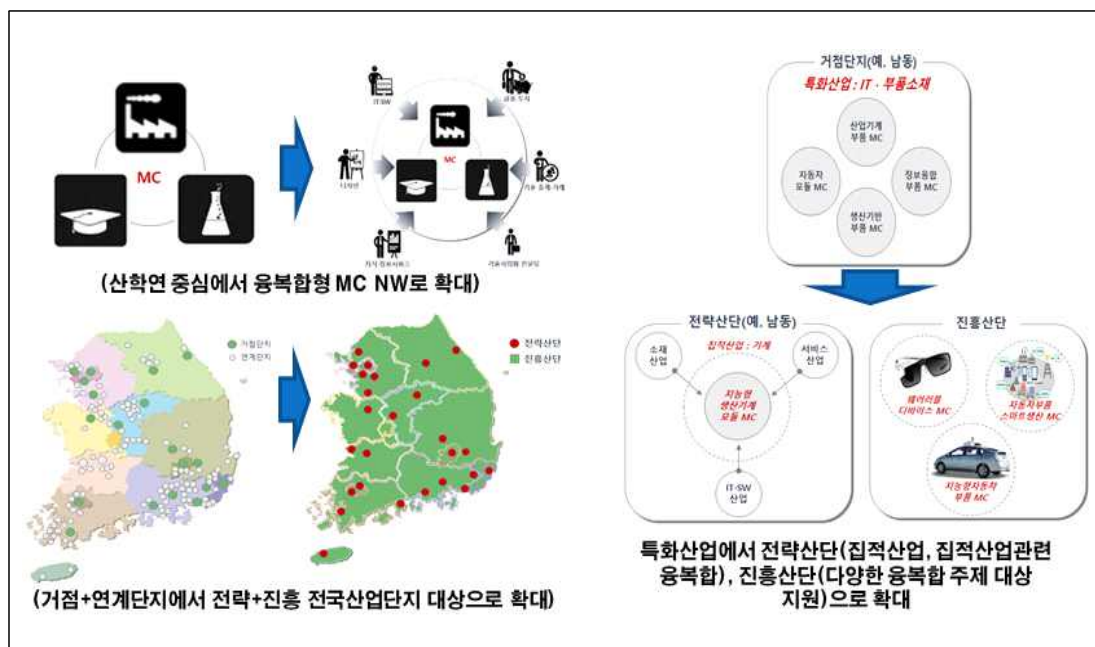
5. 현재 산업입지 수급정책 검토

1) 산업입지 트렌드 검토

□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추진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혁신역량 제고, 성장잠재력 보유 입주기업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산업단지가 클러스터 형태의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전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흥산업단지가 참여하는 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형 연구·혁신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협력·학습·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크형 혁신 활동을 수행
- 기존 산학연 중심에서 융복합형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로, 25개 거점 및 168개 연계단지 중심에서 전략산업단지 및 진흥산업단지를 포함하는 전국산업단지로, 특화산업 대상 지원에서 전략 산업단지(집적산업, 집적산업관련 융복합) 및 진흥산업단지(다양한 융복합 주제 대상 지원) 지원으로 확대

[그림 5-14] 클러스터사업 확대 개념도





- 기업성장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술·경영·금융 분야에서 기업진단, 역량강화, 애로해결 등 기업의 종합성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컨설팅회사 상주
- 세계 각국과 산업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15년 대구에서 제18차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개최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 2000년대 이후에 대도시 외곽에 산업입지가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내 공업지역의 산업입지 면적,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음
 - 대도시 내 계획입지 제조업의 면적이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대도시 내 계획입지의 고도화를 통한 기여도 제고 필요
- 2014년 말 기준 노후단지는 전국산업단지 대비 기업수 82.7%, 생산액 83.1% 차지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지속 추진
 - 2013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3터(일터, 배움터, 즐길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인「QWL(근로생활의 질, 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계획」 발표
 - 2013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방안 보고에 따라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범 부처가 지원하는 혁신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향을 보면 비전은“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융복합 창조공간으로 재창조”, 추진 전략은 창조공간 조성, 혁신역량 강화,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기반 조성으로 제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2014)에서는 2014년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해 창조 경제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 구현을 전방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 스마트·친환경 기반 구축, ② 입주기업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④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의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
- 산업단지 내 스마트·친환경 기반 구축 사업
 -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용 인터넷 등을 활용, 스마트공장 1만개를 혁신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산,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 24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기반 정보기술(IT)서비스를 도입, 중소기업들의 공통 플랫폼을 통해 정보기술 활용 비용 절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을 통해 10개 산업단지에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적용, 에너지효율 개선
- 폐열, 부산물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를 확대,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절감

○ 입주기업의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 사업

- 17개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으로 구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공급 확대
- 10개 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업 경영, 시장개척 지원
- 산업단지 기업 인근 테크노파크, 출연연 분원 간 공동 연구개발(R&D) 강화

○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 민관 공동 투자 촉진

- 17개 혁신단지 2016년까지 선정 완료, 1.2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단지혁신펀드 투입,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1.1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

□ 고용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2014)에서는 2014년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 전환 전략 중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추진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고, 어린이집과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등을 확대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
- 산업단지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 권역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2014)에서는 강화되는 환경기준 및 전력 등 에너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 추진

- QWL밸리사업과 연계된 단지와 혁신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상승(시너지)효과 기대



- 환경시설, 에너지 시설 등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시설 지원
-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품질혁신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등 범정부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공정 혁신, 근무환경 개선 등 작업환경 고도화 지원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이 뿌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낡은 산업단지를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2015)에서는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고용환경 개선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와 산학융합지구 조성, 국토부의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노선버스 지원, 미래부의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등 4개 사업 합동으로 추진
 - 산업단지 관련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 산업통상자원부(2015)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혁신을 위하여 입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용도규제 완화 조치 등과 함께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
 -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1/4 이상을 납부 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공공시설 보강에 재투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 시화, 구미, 남동 등 3개 노후 산업단지에서 PCB·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16개 민간 자체 주도 사업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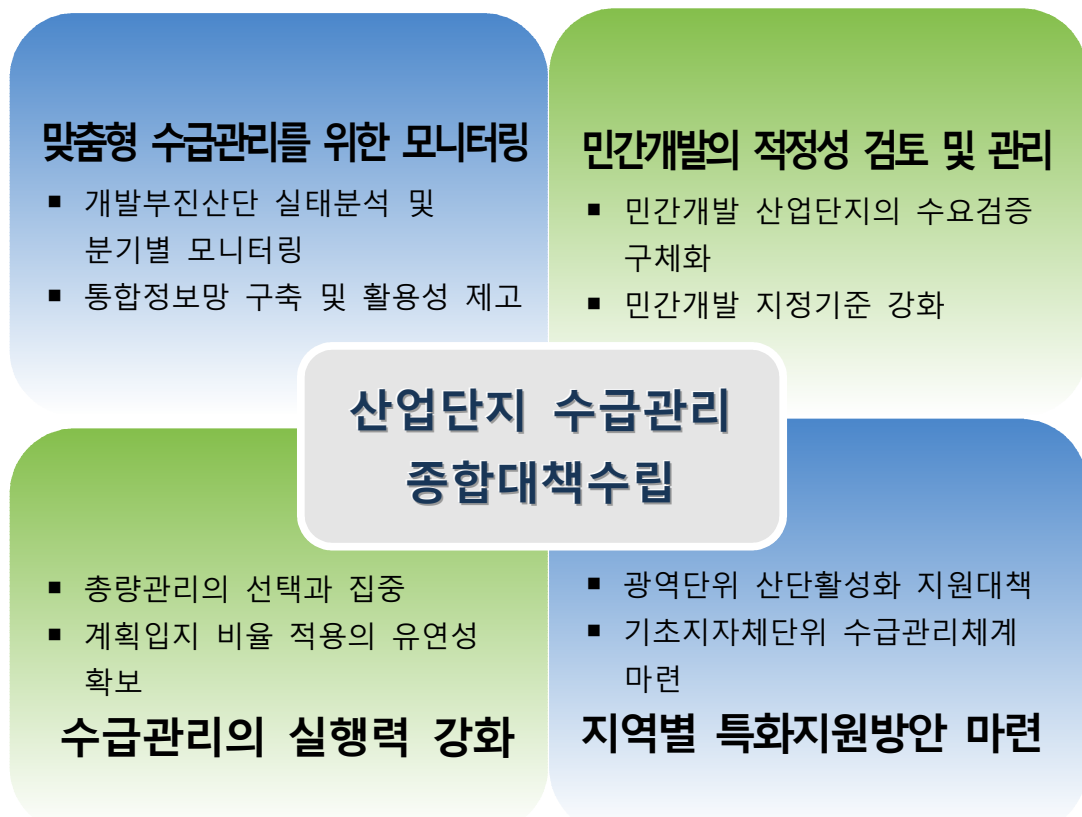
□ 산업입지 수요 형태 변화

- 창업, 개별입지 감소 등으로 계획입지 내 소규모 공장입지, 임대 공장 수요가 증가하고, 공장용지 가격 급등으로 공장 용지 분할, 입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래된 도심 산업용지의 경우에 더욱 뚜렷함
- 산업단지 융·복합화로 인한 산업단지 내 순수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감소하고, 계획입지 공급 확대, 도시화로 개별입지 비중은 감소
-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산업, 지역대표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

2) 산업단지 수급관리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은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수시 15-17)」에서 산업단지 수급관리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그림 5-15] 산업단지 수급관리 기본방향(국토연구원)



- 2008년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이후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여 미개발, 미분양 산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산업단지 적정 수요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수급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단지 개발을 관리하고 있음.
- 정부의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향은 신규 지정 시 수요 검증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정하고, 개발부진산단에 대해서는 업종 완화, 복합용지 등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미개발 산단의 지정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산업단지 수급관리에서는 개발부진산단의 미개발 해소를 위한 수급관리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요추정 강화, 시·도에서 시·군·구 산업단지 수요 조정 및 관리, 민간실수요자 산업시설용지 사용비율 조절 등이 필요함.
- 장기 미개발산단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와 미개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단 개발의 경우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 또는 산지 등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토지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신규 지정은 한계가 있음.
- 미개발·부진산단은 토지소유주의 재산 손실,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지정 해제보다는 기 지정산단의 활용측면을 강화해야함.

○ 2015년 9월 기준으로 신규 산단 지정에 제한을 받는 시·도는 전남 1곳이며, 경북의 경우도 산업시설용지 연간 수요 대비 미분양면적이 10년 치에 육박함.

○ 아래 표에서 충북의 산업시설용지 연간 수요 대비 미분양면적은 5.4로 나타나 있음.

[표 5-12] 시·도별 연간수요대비 개발 중 및 미분양 현황

(단위: 천㎡)

구분	고시수요면적(a)	개발 중 및 미분양면적(b)	대비(b/a)
전국	16,568	108,840	6.6
서울	0	293	-
부산	941	4,415	4.7
대구	454	4,008	8.8
인천	272	1,173	4.3
광주	252	1,420	5.6
대전	674	2,807	4.2
울산	1,104	1,426	1.3
세종	276	935	3.4
경기	2,100	9,627	4.6
강원	735	4,310	5.9
충북	1,315	7,102	5.4
충남	1,916	13,239	6.9
전북	1,671	10,882	6.5
전남	1,140	22,245	19.5
경북	1,746	17,289	9.9
경남	1,916	7,636	4.0
제주	56	32	0.6

주)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현황, 2015년 9월 기준

Ⅵ. 산업입지 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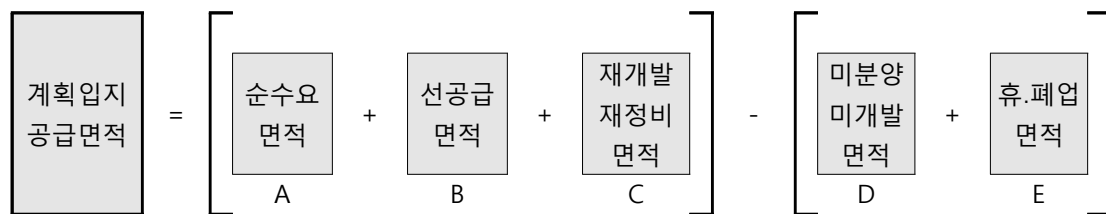
제6장 산업입지 공급계획

1.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

1)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방법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르면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 면적’ 및 ‘재개발·재정비 면적’의 합에 ‘미분양·미개발 면적’과 휴·폐업 면적을 뺀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그림 6-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르면

-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A)은 추세치,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해 추정된 산업용지면적에 계획입지 비율을 적용한 면적으로 함.
- 산업입지의 목표 계획입지 비율은 최근 5년간 시·도별로 실제 공급된 계획입지 비율에 10%p를 더한 값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선공급 면적(B)은 향후 계획기간 동안(10년) 계획입지 순수요 중 3년 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함.
- 재개발·재정비 면적(C)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된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함.
- 미분양·미개발 면적(D)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미개발 면적으로 함. 다만, 미개발·미분양 면적 중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단, 시행령 15조에 의한 산업단지 유형별 해제기준기간을 경과한 산업단지는 제외)되는 면적은 제외함.
- 휴·폐업 면적(E)은 시·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휴·폐업 면적으로 한정함.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변경내용 검토

- 기존 계획(2008년)과의 비교에 참고하기 위해 2009년~2018년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비교해보면, 순수요 산정 방법, 계획입지비율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략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6-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방법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2008.5)	변경 후(2016.4)
순수요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range)로 제시	삭제
	정책적 수요, 외국인투자 유치수요 등 별도 관리	통계분석에 의하지 않은 정책적 수요는 산입할 수 없음
	산업입지(개별+계획) 수요 산정	계획입지만 산정
계획입지 비율	도지역 70% 적용	최근 5년간 실제 비율에 10%포인트를 더한 비율 적용
재개발 재정비 면적	산업용지율(60%), 재정비시 기업이 희망하는 확장규모(150~160%) 고려	지정된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면적 적용
미분양 미개발 면적	미분양면적만 반영	미분양 및 미개발면적 반영
해외이전 면적	해외이전면적 추정 후 반영 (이전 충북계획에서 '0' 적용)	삭제
개정 전 산업입지 산정과정	$\boxed{\text{산업입지 공급면적}} = \left[\boxed{\text{순수요 면적}} + \boxed{\text{선공급 면적}} + \boxed{\text{재개발 재정비 면적}} \right] - \left[\boxed{\text{미분양 면적}} + \boxed{\text{해외이전 면적}} + \boxed{\text{휴·폐업면적}} \right]$ A B C D E F	

주) 각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과정

(1) 계획입지비율

□ 누적 면적 기준

- 산업입지의 누적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충북의 전체 산업입지에서 계획입지는 2006년 31.9%에서 2015년 36.2%로 4.3%p 증가하였음.

[표 6-2] 충북 공장부지 면적 중 계획입지 면적 추이

(단위: km², %, %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	증가율
면적	계획입지	16.79	18.25	19.63	19.29	19.93	20.80	21.84	22.34	25.21	27.14	10.36	5.5
	전년 대비 증가 면적		1.46	1.38	-0.34	0.64	0.87	1.04	0.50	2.88	1.93		
	전년 대비 증가율		8.7	7.6	-1.8	3.3	4.4	5.0	2.3	12.9	7.7		
비중	계획입지	31.9	32.2	31.9	30.9	31.2	31.9	32.3	32.5	34.7	36.2	4.3	1.4
	전년 대비 증가 비중		0.3	-0.3	-1.0	0.3	0.7	0.4	0.2	2.2	1.5		

주1) 증가는 2015년에서 2006년을 뺀 값임

주2)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 전년 대비 면적의 증가율은 2014년에 12.9%로 가장 높았고 2009년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2] 누적 면적 기준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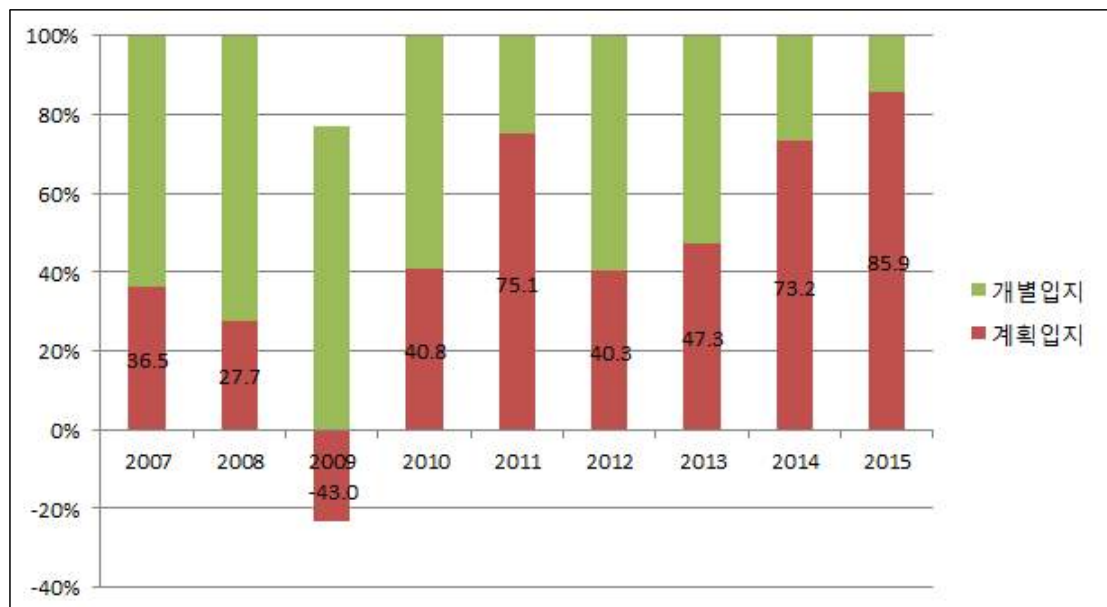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 기준

○ 충북 산업입지의 입지별 2015년까지 누적 면적과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증가 면적의 최근(2011년~2015년 평균) 계획입지비중은 64.4%임.

[표 6-3] 충북 산업입지 누적 면적과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의 계획입지비중 추이

구 분	누적 공장부지 면적			공장부지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				
	전체 면적(km ²)	계획입지		증가면적(km ²)			증가면적 비중(%)	
		면적(km ²)	비중(%)	개별입지	계획입지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2006년	52.60	16.79	31.9					
2007년	56.60	18.25	32.2	2.54	1.46	4.00	63.5	36.5
2008년	61.60	19.63	31.9	3.61	1.38	4.99	72.3	27.7
2009년	62.40	19.29	30.9	1.14	-0.34	0.80	143.0	-43.0
2010년	63.97	19.93	31.2	0.93	0.64	1.58	59.2	40.8
2011년	65.13	20.80	31.9	0.29	0.87	1.16	24.9	75.1
2012년	67.70	21.84	32.3	1.54	1.04	2.57	59.7	40.3
2013년	68.76	22.34	32.5	0.56	0.50	1.06	52.7	47.3
2014년	72.68	25.21	34.7	1.05	2.88	3.93	26.8	73.2
2015년	74.93	27.14	36.2	0.32	1.93	2.25	14.1	85.9
5년 평균 2011~2015			33.5					64.4

[그림 6-3] 충북 산업입지 전년도 대비 증가(신규) 면적의 계획입지비중 추이



□ 계획입지비율 적용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6.4)」에 따르면(9페이지 4-3-2) ‘목표 계획입지비율은 최근 5년간 시·도별로 실제 공급된 계획입지비율에 10%p를 더한 값’으로 설정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실제 신규 공급된 산업입지에서 차지하는 계획입지의 비율인 64.4%를 적용하되, 지침과 같이 10%p를 더할 경우 비율이 과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용하지 않았음.
- 참고적으로, 계획입지비율을 신규 공급된 산업입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공급계획의 면적 또한 신규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호 모순 없이 부합되기 때문임.

충북 산업입지 목표 계획입지비율 : 64.4%

(2) 순수요 면적

- 순수요 면적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결과에 계획입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2016년~2025년의 충북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순수요 면적은 21.8km²로 산정되었으며 계획입지가 순수요 면적만큼 증가할 경우 계획입지의 비중은 2015년 36.2%에서 2025년 45%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표 6-4]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단위: km²)

구 분	현황 (2015년)	면 적					비 고
		누 적		증 가 분			
		2020년	2025년	2016~'20년	2021~'25년	2016~'25년	
산업입지 면적	74.93	90.15	108.78	15.22	18.63	33.85	
계획입지 면적	27.14	36.94	48.94	9.80	12.00	21.80	
계획입지 비중	36.2%	41.0%	45.0%	64.4% 적용			

주1) 2016~2020년 증가분=2020년-2015년, 2021~2025년 증가분=2025년-2020년

주2) 면적-누적의 계획입지 비중은 계획입지 증가분을 현황에 합하여 계산한 것임

(3) 재개발 · 재정비 면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된 충북 내 산업단지는 청주일반산업단지로 재생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본 계획의 계획연도 내임.
- 청주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3,025천㎡이며 재생사업 후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된 면적 826,089㎡를 제외한 2,199천㎡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됨.

[표 6-5] 충북 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현황

단지명	지정일자	준공일	지정 면적	산업시설 용지 면적	타용도 전환 면적	재생사업 기간	재생사업지구 추진상황
청주일반 산업단지	1969.03.29	1989.12.30	4,099천㎡	3,025천㎡	2,199천㎡	2015~2024년	지정 승인 (2016.10)

주1) 자료: 충청북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주2) 타용도 전환 면적: 산업시설용지 면적(3,025천㎡)에서 재생사업 후 산업시설용지 면적(826,089㎡)을 뺀 값

(4) 미분양 · 미개발 면적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 중 분양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2015년 현재, 7,716천㎡임.

[표 6-6] 충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미개발용지 면적(2015년)

(단위: 천㎡)

구분	개발용지			미개발용지			합 계
	미분양	분양미공고	소계	미분양	분양미공고	소계	
충 북	2,796	369	3,165	827	3,724	4,551	7,716
청주시	303	-	303	129	1,370	1,499	1,802
충주시	689	51	740	99	236	335	1,075
제천시	90	-	90	-	792	792	882
보은군	363	-	363	-	371	371	734
옥천군	71	-	71	-	-	-	71
영동군	306	47	353	306	24	330	683
증평군	-	-	-	294	-	294	294
진천군	-	121	121	-	267	267	388
괴산군	650	8	658	-	326	326	984
음성군	215	142	357	-	337	337	694
단양군	109	-	109	-	-	-	109

주)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국토연구원의 「개발 중 및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현황(2015년 말 기준)」과 동일

- 추가적인 미분양·미개발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 개별입지의 미개발 면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5) 휴 · 폐업 면적

○ 각 시·군의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의 휴업 및 폐업 공장의 부지면적은 2015년 현재 707,387㎡로 조사됨.

[표 6-7] 충북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부지 면적(2015년)

(단위: ㎡)

구분	휴업	폐업	합계	비고
충북	473,608.3	233,778.7	707,387.0	
청주시	98,801.5	-	98,801.5	
충주시	8,305.0	214,936.7	223,241.7	
제천시	4,737.0	-	4,737.0	
보은군	9,228.0	18,842.0	28,070	
옥천군	-	-	-	
영동군	171,880.0	-	171,880.0	
증평군	132,567.8	-	132,567.8	
진천군	-	-	-	
괴산군	-	-	-	
음성군	6,344.5	-	6,344.5	
단양군	41,744.5	-	41,744.5	

주) 자료: 각 시·군

3)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결과

○ 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과정에 따라 산정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충북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공급면적은 22.11km²임.

[표 6-8] 2016~2025년 충북 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산정 · 적용방법	산정 결과
가 (plus)	A. 순수요 면적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의 예측치 (2015년 74.93km ² → 2025년 108.78km ²)	33.85km ²
		• 계획입지비율 : 2011년~2015년 평균 (연도별 산업입지 증가 면적 기준)	64.4%
		• 산업용지면적 × 계획입지 비율	21.80km ²
	B. 선공급 면적	• A 중 3년치에 해당하는 면적 (순수요 면적 A ÷ 10 × 3)	6.54km ²
	C. 재개발 재정비 면적	• 법에 의해 지정된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중 타용도 전환 면적	2.20km ²
소 계		• A + B + C	30.54km ²
감 (minus)	D. 미분양 미개발 면적	• 2015년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의 미분양·미개발 면적	7.72km ²
	E. 휴·폐업 면적	•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의 휴업 및 폐업 공장 부지 면적	0.71km ²
	소 계	• D + E	8.43km ²
계획입지 공급 면적		• (A + B + C) - (D + E)	22.11km²

2. 충북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1) 이주 기업 등 기업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산업입지 공급

- 수도권 규제, 기업경영여건 악화, 산업단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으며 공장 이전의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충북지역의 산업입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도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향후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이전 기업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서 산업입지의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낮은 수준의 계획입지비중 제고를 위한 계획입지 공급 확대

- 충북의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6% 수준으로, 전국 50.42%보다 낮고 전북 대비 -34.06%p, 전남 대비 -40.3%p 수준에 불과함.

[표 6-9] 시·도별 공장용지의 계획입지비율

(단위: %)

지 역	계획입지비율		비 고
	2015년	2014년	
전 국	50.42	50.48	
서 울	21.49	22.78	
부 산	50.54	44.86	
대 구	74.55	69.23	
인 천	42.79	42.43	
광 주	73.58	73.99	
대 전	73.61	73.93	
울 산	89.34	89.54	
세 종	45.28		
경 기	25.84	25.47	
강 원	31.08	31.27	
충 북	36.02	35.11	
충 남	40.36	40.20	
전 북	70.08	70.33	
전 남	76.32	76.00	
경 북	54.56	55.16	
경 남	54.05	53.37	
제 주	8.09	8.65	

주) 자료: 2015년은 팩토리온(femis) 등록공장기준, 2014년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장은교 외, 2015)」 <표 3-12>

- ### (3)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산업입지 강화

- [그림 6-4] 충북 지역산업 균형발전사업



- 또한 충북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바이오의학연구센터 등 국가 및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공급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4대 국책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전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역량이 산업단지의 기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업체의 신규 유치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4) 친환경·저비용 산업입지로 개선 및 개발

- 에너지 과다소비 사업장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이행의무대상으로 환경문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등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입지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 충북의 주요 산업이기도 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정하고 저렴한 전기와 증기, 공업용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입지로 만들어 나감과 더불어 산업입지의 매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국가의 환경정책, 지역의 생태환경 등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개선 및 개발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업활동여건과 종사자·지역민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5) 산업입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충북 지역별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청주, 진천, 음성 등)에 산업입지가 집중되어 있음.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투자유치활동 지원, 성장촉진지역 투자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정부(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이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가 시행될 경우, 충북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적용함.
- 그 밖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임대공장의 공급, 지역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수요 확대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6)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활성화

- 관내 노후산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구조도도화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함.

[표 6-10]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비교

구 분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목 적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 등에 기존산업 공간구조 계획적 정비	성장유망산업 유치, 입주업종 첨단·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제고
근 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 3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필요성 조건	·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	· 착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선정가능) · 산업단지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기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재생이 필요한 경우
추진체계	· 재생계획 수립 :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 산업부 장관, 관계 부처의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의 요청 · 재생사업지구 지정 : 지정권자 · 재생 시행계획 수립 : 지정권자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 구조고도화 시행계획 :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 지자체)
시행절차	시·도지사, 입주기업 및 관계부처와 협의·시행 ※ 신규 산업 개발절차와 유사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에서 계획 수립·시행
재원조달	· 공공·민간사업시행자 직접 조달 * 선분양수입금, 자체자금(용자차입) * 기반시설 대규모 국고지원 필요	· 사업시행자 직접 조달 * 산업단지 자체 재원 마련(채권발행 등) *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설치
지 원	재생계획을 수립한 산업단지에 대해 서는 기반시설 지원 가능	· 법적인 지원은 없음 · 특별예산으로 일부 사업지원 (복지센터 사업 등)

주) 자료: 「2016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 관내 농공단지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에 편익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외국인투자기업 확대를 위한 효과적 산업입지 공급

- 저성장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창출은 물론 연관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또한 국내에 부족한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해주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 됨.
-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산업입지를 공급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공급방안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의 효율적 유치 추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효과 극대화 외에도 역차별의 효과적 방지, 규제 극소화와 환경규제 운용 등이 있음.

(8)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 및 적정 수급 관리

- 지역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한 규모의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단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산업단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산업단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의 수요검증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평가 등에 유의하고자 함.

3.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계획

1)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의 전제

-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규모는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산정한 충북 전체 계획입지 공급규모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음.
- 시·군별 적정 공급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검토하였음.
 - 실적 : 최근 10년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 면적 및 분양 면적 비중
 - 계획 : 계획기간 내 산업단지 조성 계획 면적 및 과거 추세치에 의한 지역별 예측 면적 비중
 - 기타 : 지역 내 계획입지 면적 비중 및 미분양 면적 비중, 개발가능지 면적 등
- 과거 추세치를 사용하여 예측한 지역별 계획입지의 규모는 원자료의 불명확한 추세성과 추정결과의 현실성 부족(급격한 증가, 음의 결과, 조성계획과의 괴리) 등으로 예측결과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규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음.
- 검토 결과, 지역 내 계획입지 면적의 비중과 미분양 면적 비중도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규모 산정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분석한 개발가능지, 시가화예정용지 등도 공급규모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크게 없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역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고로만 활용하였음.

[표 6-11]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의 전제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별 공급규모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및 반영 여부	• 각 시·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이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영
	• 각 시·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이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영
	• 본 계획기간 내 각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이 충북 전체 조성계획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영
	• 과거 추세치에 사용하여 예측한 각 시·군의 계획입지면적이 충북 전체 계획입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참고
	• 각 시·군의 지역 내 계획입지면적 비중	참고
	• 각 시·군의 지역 내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비중	참고
	• 각 시·군의 개발가능지,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참고
세부 구분	• 산업입지 유형별 : 계획입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지정규모 (산업시설용지 면적비중 적용)	
기준 범위	• 2016년~2025년 충북 계획입지 공급면적 : 22.22km ² 이내	

2) 시·군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 및 분양 추이

(1) 청주시

[표 6-12] 청주시 산업단지 추이

(단위: 년, 개소, 천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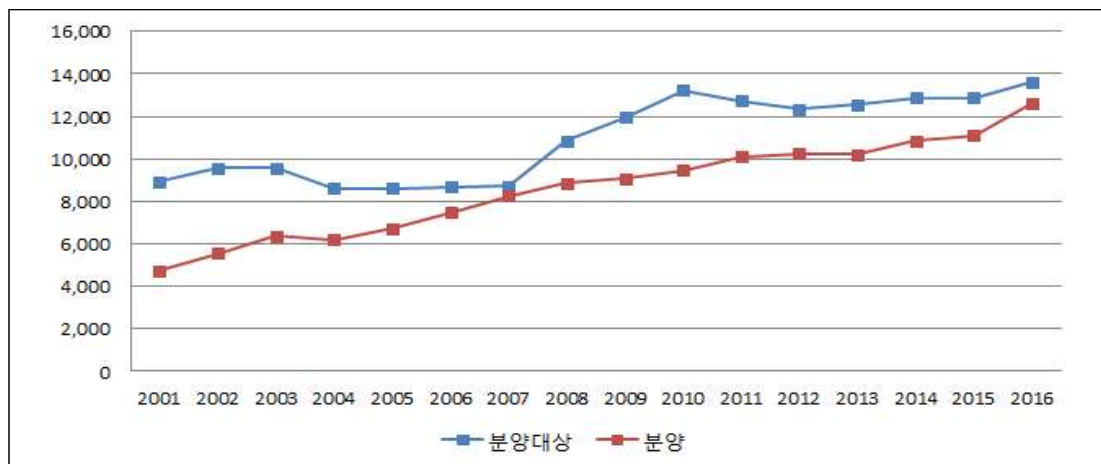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 계	증 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 계	증 가		누 계	증 가		누 계	증 가
2001	6	-	8,943	-	7,380	4,727	-	64.1	4,216	-
2002	8	2	9,573	630	7,606	5,542	815	72.9	4,030	-186
2003	8	-	9,574	1	8,036	6,392	850	79.5	3,181	-849
2004	7	-1	8,612	-962	7,075	6,211	-181	87.8	2,400	-781
2005	7	-	8,612	-	7,075	6,729	518	95.1	1,883	-517
2006	7	-	8,699	87	8,684	7,463	734	85.9	1,234	-649
2007	7	-	8,713	14	8,683	8,253	790	95.0	460	-774
2008	9	2	10,843	2,130	9,203	8,853	600	96.2	1,990	1,530
2009	10	1	11,971	1,128	9,621	9,080	227	94.4	2,891	901
2010	11	1	13,237	1,266	10,061	9,455	375	94.0	3,782	891
2011	11	-	12,740	-497	10,232	10,102	647	98.7	2,638	-1,144
2012	12	1	12,343	-397	10,362	10,246	144	98.9	2,096	-542
2013	13	1	12,568	225	10,370	10,198	-48	98.3	2,370	274
2014	15	2	12,877	309	11,516	10,864	666	94.3	2,013	-357
2015	15	-	12,887	10	11,517	11,085	221	96.2	1,802	-211
2016	15	-	13,619	732	13,390	12,643	1,558	94.4	977	-825
연평균		0.6		292.3			494.8	90.4		-202.4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2001년~2011년 세종시에 편입된 부용일발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를 제외함

주3)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5] 청주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2) 충주시

[표 6-13] 충주시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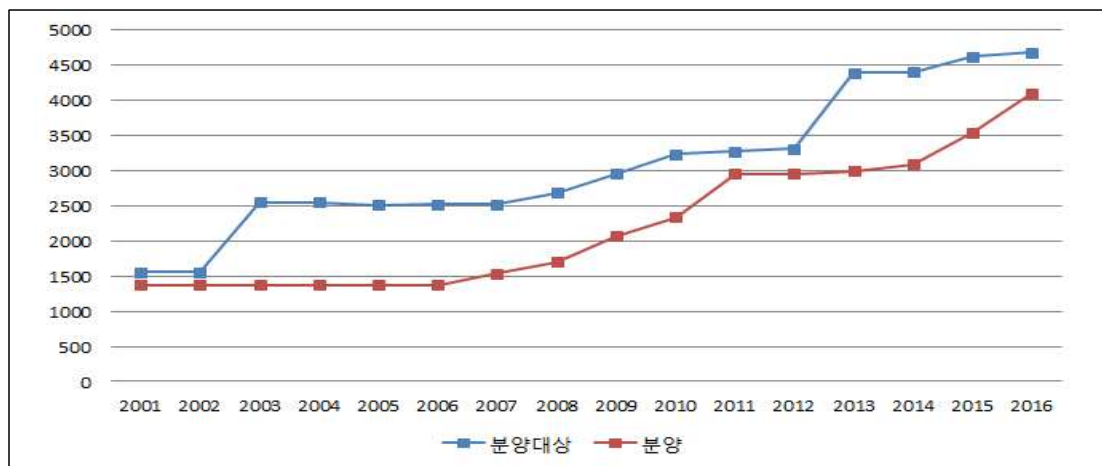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	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6	-	1,557	-	1,372	1,372	-	100.0	186	-
2002	6	-	1,557	-	1,372	1,372	-	100.0	186	-
2003	7	1	2,554	997	1,372	1,372	-	100.0	1,182	996
2004	7	-	2,554	-	1,372	1,372	-	100.0	1,182	-
2005	7	-	2,517	-37	1,372	1,372	-	100.0	1,145	-37
2006	7	-	2,525	8	1,372	1,372	-	100.0	1,154	9
2007	7	-	2,525	-	1,580	1,540	168	97.5	985	-169
2008	8	1	2,688	163	1,723	1,704	164	98.9	983	-2
2009	11	3	2,956	268	2,564	2,064	360	80.5	891	-92
2010	13	2	3,237	281	2,608	2,337	273	89.6	900	9
2011	14	1	3,278	41	3,064	2,956	619	96.5	322	-578
2012	15	1	3,317	39	3,103	2,952	-4	95.1	365	43
2013	15	-	4,398	1,081	3,103	2,997	45	96.6	1,400	1,035
2014	15	-	4,404	6	3,104	3,087	90	99.5	1,316	-84
2015	16	1	4,623	219	4,336	3,548	461	81.8	1,075	-241
2016	17	1	4,684	61	4,397	4,101	553	93.3	584	-491
연평균		0.7		195.4			170.6	95.6		24.9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6] 충주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3) 제천시

[표 6-14] 제천시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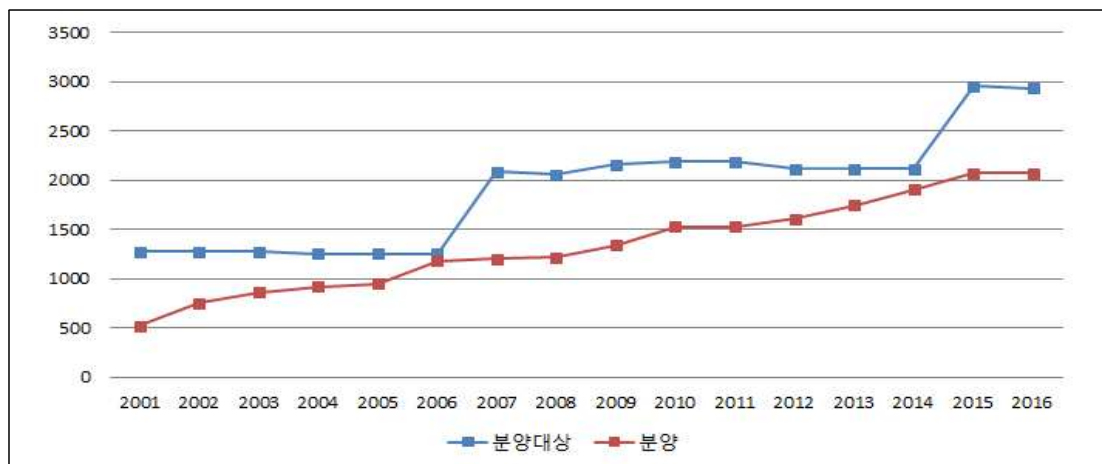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6	-	1,277	-	523	523	-	100.0	754	-
2002	6	-	1,277	-	754	754	231	100.0	522	-232
2003	6	-	1,277	-	864	864	110	100.0	413	-109
2004	6	-	1,254	-23	1,125	917	53	81.5	337	-76
2005	6	-	1,254	-	1,254	950	33	75.8	303	-34
2006	6	-	1,254	-	1,254	1,182	232	94.3	72	-231
2007	7	1	2,084	830	1,254	1,202	20	95.9	882	810
2008	7	-	2,054	-30	1,254	1,218	16	97.1	835	-47
2009	8	1	2,156	102	1,336	1,336	118	100.0	820	-15
2010	8	-	2,190	34	1,607	1,529	193	95.1	661	-159
2011	8	-	2,188	-2	1,791	1,527	-2	85.3	661	-
2012	8	-	2,117	-71	1,858	1,610	83	86.7	506	-155
2013	8	-	2,115	-2	1,985	1,747	137	88.0	367	-139
2014	8	-	2,118	3	2,118	1,903	156	89.8	215	-152
2015	9	1	2,954	836	2,162	2,072	169	95.8	882	667
2016	9	-	2,932	-22	2,139	2,072	-	96.9	860	-22
연평균		0.2		103.4			96.8	92.6		6.6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7] 제천시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4) 보은군

[표 6-15] 보은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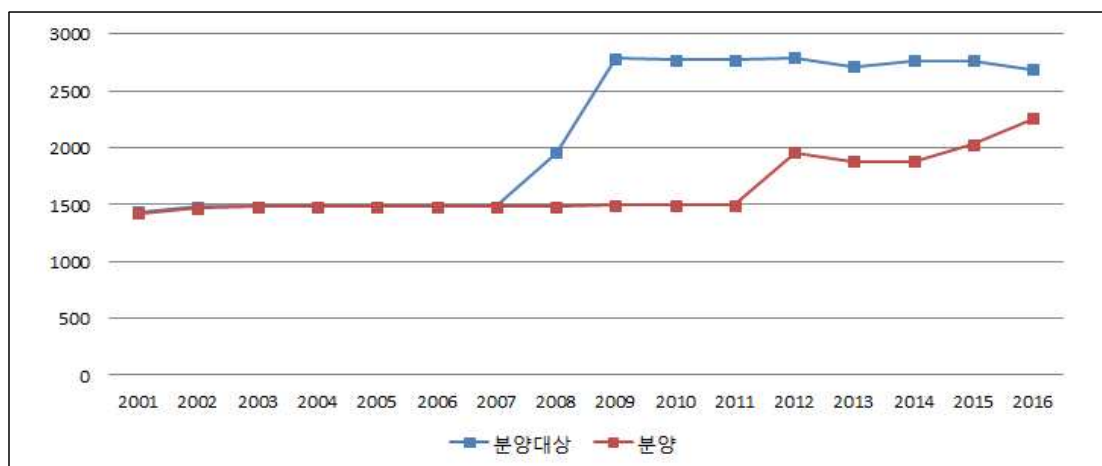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	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4	-	1,437	-	1,437	1,423	-	99.0	14	-
2002	4	-	1,484	47	1,484	1,470	47	99.1	14	-
2003	4	-	1,484	-	1,484	1,484	14	100.0	-	-14
2004	4	-	1,484	-	1,484	1,484	-	100.0	-	-
2005	4	-	1,484	-	1,484	1,484	-	100.0	-	-
2006	4	-	1,484	-	1,484	1,484	-	100.0	-	-
2007	4	-	1,484	-	1,484	1,484	-	100.0	-	-
2008	5	1	1,956	472	1,484	1,484	-	100.0	473	473
2009	6	1	2,783	827	1,497	1,497	13	100.0	1,287	814
2010	6	-	2,774	-9	1,497	1,497	-	100.0	1,277	-10
2011	6	-	2,774	-	1,497	1,497	-	100.0	1,277	-
2012	6	-	2,795	21	1,960	1,960	463	100.0	835	-442
2013	6	-	2,714	-81	1,879	1,879	-81	100.0	835	-
2014	6	-	2,767	53	1,907	1,879	-	98.5	888	53
2015	6	-	2,763	-4	2,392	2,030	151	84.9	734	-154
2016	6	-	2,691	-72	2,409	2,259	229	93.8	432	-302
연평균		0.1		78.4			52.3	98.5		26.1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8] 보은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5) 옥천군

[표 6-16] 옥천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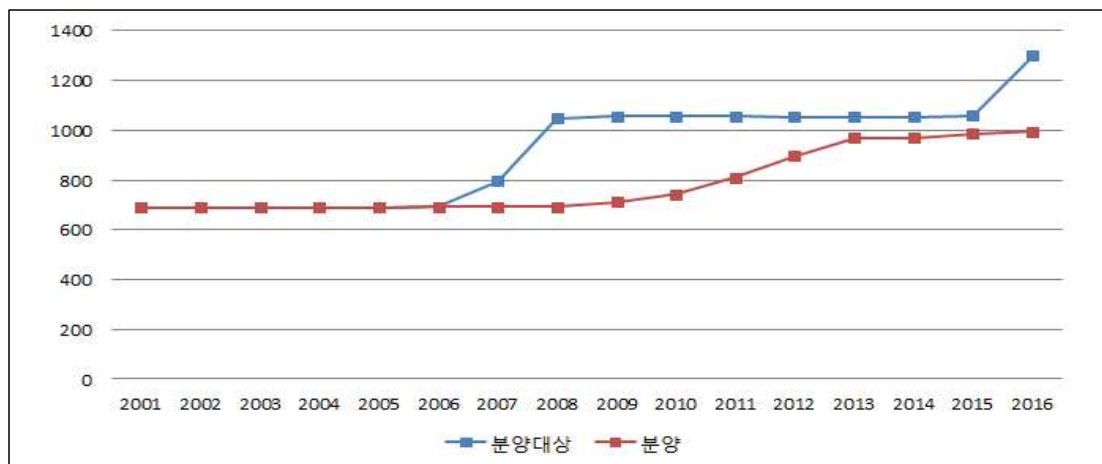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5	-	691	-	691	691	-	100.0	-	-
2002	5	-	691	-	691	691	-	100.0	-	-
2003	5	-	691	-	691	691	-	100.0	-	-
2004	5	-	691	-	691	691	-	100.0	-	-
2005	5	-	691	-	691	691	-	100.0	-	-
2006	5	-	692	1	692	692	1	100.0	-	-
2007	6	1	796	104	692	692	-	100.0	104	104
2008	7	1	1,047	251	692	692	-	100.0	356	252
2009	7	-	1,055	8	798	712	20	89.2	343	-13
2010	7	-	1,055	-	798	742	30	93.0	314	-29
2011	7	-	1,056	1	811	811	69	76.8	244	-70
2012	7	-	1,054	-2	1,054	898	87	85.2	157	-87
2013	7	-	1,054	-	1,054	969	71	91.9	86	-71
2014	7	-	1,054	-	1,054	969	-	91.9	86	-
2015	7	-	1,058	4	1,058	987	18	93.3	71	-15
2016	8	1	1,300	242	1,058	994	7	94.0	306	235
연평균		0.2		38.1			18.9	94.7		19.1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9] 옥천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6) 영동군

[표 6-17] 영동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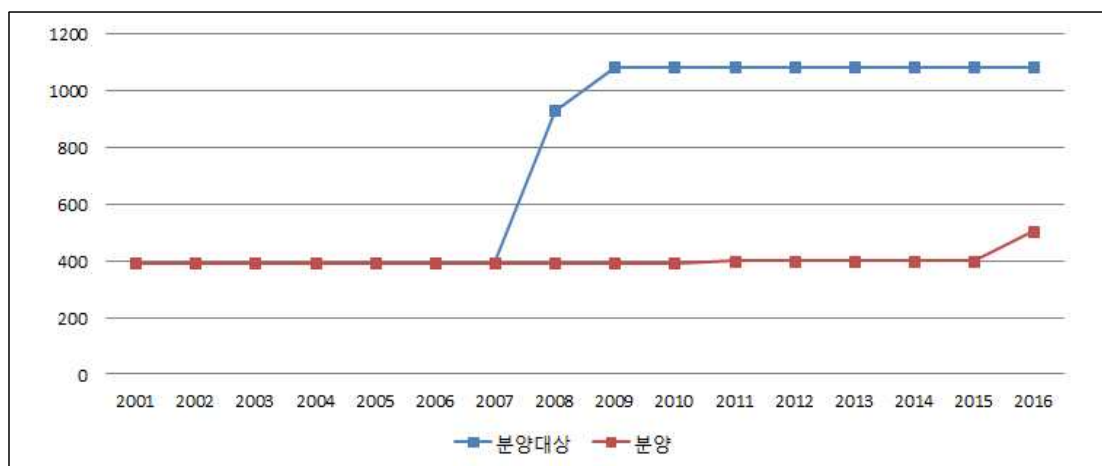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	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3	-	392	-	392	392	-	100.0	-	-
2002	3	-	392	-	392	392	-	100.0	-	-
2003	3	-	392	-	392	392	-	100.0	-	-
2004	3	-	392	-	392	392	-	100.0	-	-
2005	3	-	392	-	392	392	-	100.0	-	-
2006	3	-	392	-	392	392	-	100.0	-	-
2007	3	-	392	-	392	392	-	100.0	-	-
2008	4	1	931	539	392	392	-	100.0	539	539
2009	5	1	1,085	154	392	392	-	100.0	693	154
2010	5	-	1,085	-	392	392	-	100.0	693	-
2011	5	-	1,085	-	401	401	9	100.0	684	-9
2012	5	-	1,085	-	401	401	-	100.0	684	-
2013	5	-	1,085	-	401	401	-	100.0	684	-
2014	5	-	1,085	-	401	401	-	100.0	684	-
2015	5	-	1,085	-	1,013	401	-	39.6	684	-
2016	5	-	1,085	-	1,013	505	104	49.9	580	-104
연평균		0.1		43.3			7.1	93.1		36.3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0]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7) 증평균

[표 6-18] 증평균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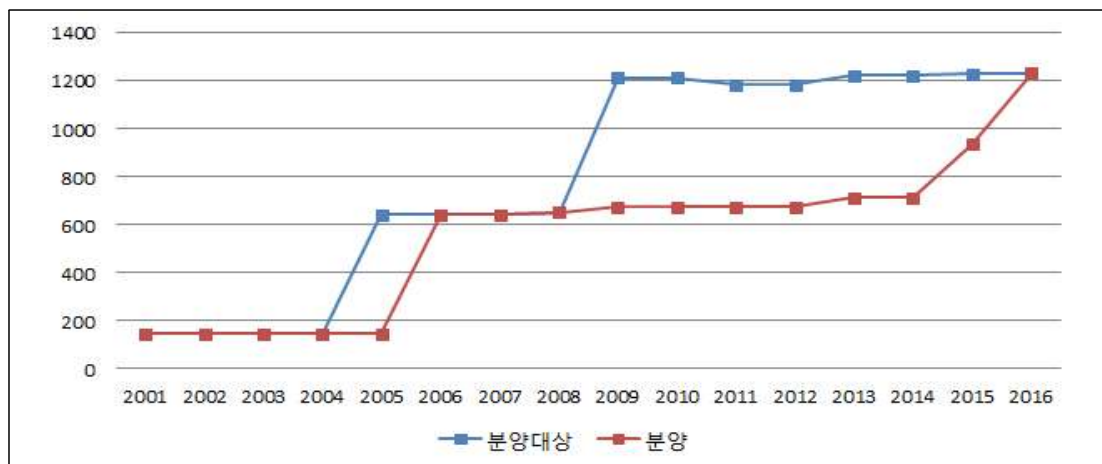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2	-	145	-	145	145	-	100.0	-	-
2002	2	-	145	-	145	145	-	100.0	-	-
2003	2	-	145	-	145	145	-	100.0	-	-
2004	2	-	145	-	145	145	-	100.0	-	-
2005	3	1	642	497	145	145	-	100.0	497	497
2006	3	-	642	-	642	642	497	100.0	-	-497
2007	3	-	642	-	642	642	-	100.0	-	-
2008	3	-	653	11	653	653	11	100.0	-	-
2009	4	1	1,212	559	676	676	23	100.0	536	536
2010	4	-	1,212	-	676	676	-	100.0	536	-
2011	4	-	1,185	-27	676	676	-	100.0	509	-27
2012	4	-	1,185	-	676	676	-	100.0	509	-
2013	5	1	1,224	39	715	715	39	100.0	509	-
2014	5	-	1,224	-	1,224	715	-	58.4	509	-
2015	5	-	1,229	5	1,229	935	220	76.1	294	-215
2016	5	-	1,232	3	1,232	1,232	297	100.0	-	-294
연평균		0.2		67.9			67.9	95.9		0.0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1] 증평균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8) 진천군

[표 6-19] 진천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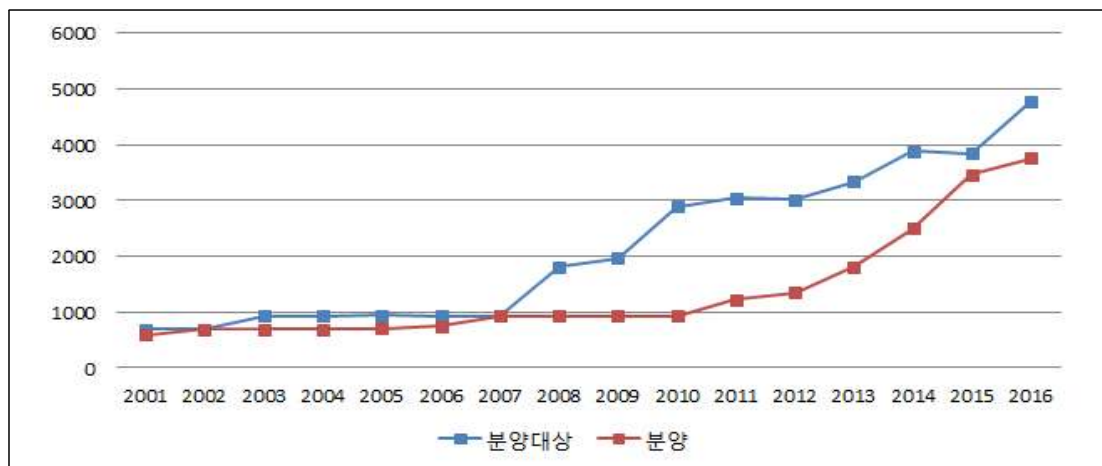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7	-	698	-	595	595	-	100.0	103	-
2002	7	-	698	-	698	698	103	100.0	-	-103
2003	7	-	934	236	698	698	-	100.0	-	-
2004	8	1	934	-	698	698	-	100.0	236	236
2005	8	-	942	8	706	706	8	100.0	236	-
2006	8	-	930	-12	750	750	44	100.0	180	-56
2007	8	-	935	5	935	935	185	100.0	-	-180
2008	10	2	1,814	879	934	934	-1	100.0	880	880
2009	13	3	1,973	159	934	934	-	100.0	1,040	160
2010	14	1	2,896	923	934	934	-	100.0	1,962	922
2011	15	1	3,053	157	1,229	1,229	295	100.0	1,824	-138
2012	14	-1	3,025	-28	1,345	1,345	116	100.0	1,679	-145
2013	15	1	3,342	317	1,819	1,819	474	100.0	1,523	-156
2014	16	1	3,887	545	2,495	2,495	676	100.0	1,392	-131
2015	16	-	3,850	-37	3,461	3,461	966	100.0	389	-1,003
2016	18	2	4,787	937	3,766	3,766	305	100.0	1,021	632
연평균		0.7		255.6			198.2	100.0		57.4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2] 진천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9) 괴산군

[표 6-20] 괴산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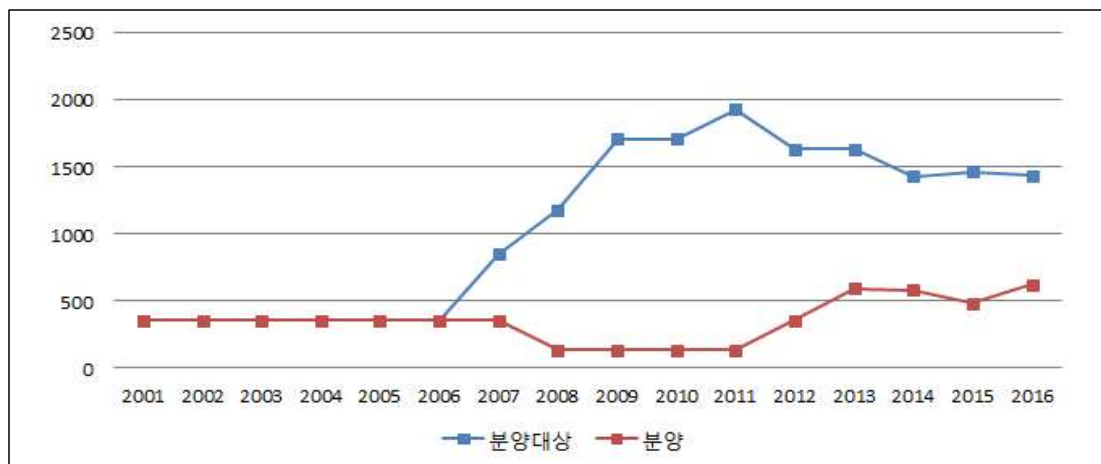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3	-	357	-	357	357	-	100.0	0	
2002	3	-	357	-	357	357	-	100.0	0	
2003	3	-	357	-	357	357	-	100.0	0	
2004	3	-	357	-	357	357	-	100.0	0	
2005	3	-	357	-	357	357	-	100.0	0	
2006	3	-	357	-	357	357	-	100.0	0	
2007	4	1	849	492	357	357	-	100.0	492	492
2008	4	-	1,181	332	138	138	-219	100.0	1,043	551
2009	6	2	1,710	529	138	138	-	100.0	1,572	529
2010	6	-	1,710	-	138	138	-	100.0	1,572	
2011	7	1	1,932	222	138	138	-	100.0	1,794	222
2012	6	-1	1,637	-295	360	360	222	100.0	1,277	-517
2013	6	-	1,637	-	596	596	236	100.0	1,041	-236
2014	6	-	1,429	-208	1,133	584	-12	51.5	845	-196
2015	7	1	1,466	37	1,132	482	-102	42.6	984	139
2016	7	-	1,436	-30	1,115	623	141	55.9	814	-170
연평균		0.2		67.44			16.6	90.6		50.9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3] 괴산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0) 음성군

[표 6-21] 음성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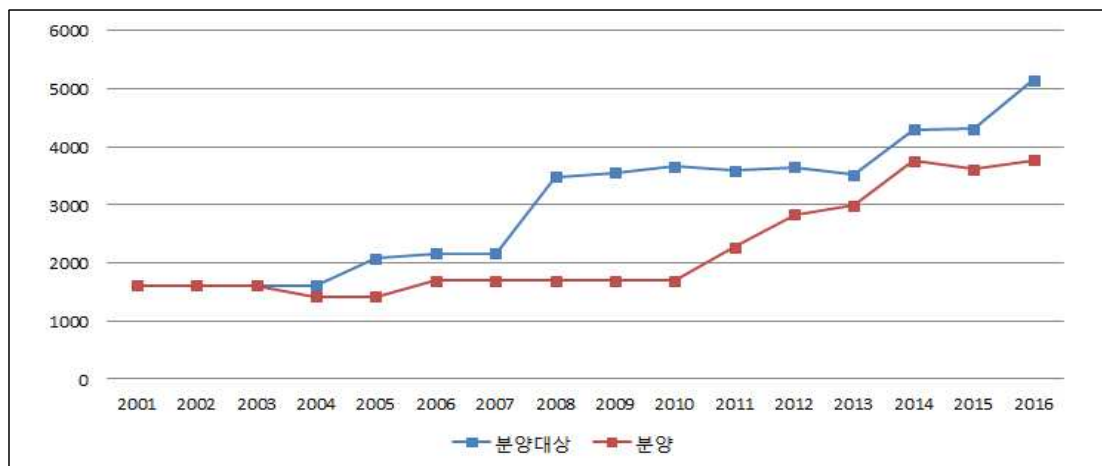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	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8	-	1,611	-	1,611	1,611	-	100.0	-	-
2002	8	-	1,611	-	1,611	1,611	-	100.0	-	-
2003	8	-	1,611	-	1,611	1,611	-	100.0	-	-
2004	8	-	1,610	-1	1,610	1,419	-192	88.1	191	191
2005	9	1	2,085	475	1,610	1,419	-	88.1	666	475
2006	9	-	2,169	84	1,693	1,693	274	100.0	475	-191
2007	9	-	2,169	-	1,694	1,694	1	100.0	475	-
2008	12	3	3,478	1,309	1,694	1,694	-	100.0	1,784	1,309
2009	14	2	3,559	81	1,694	1,694	-	100.0	1,865	81
2010	15	1	3,660	101	1,694	1,694	-	100.0	1,967	102
2011	16	1	3,593	-67	2,267	2,267	573	100.0	1,326	-641
2012	16	-	3,651	58	3,003	2,836	569	94.4	814	-512
2013	16	-	3,519	-132	3,055	2,987	151	97.8	532	-282
2014	19	3	4,301	782	4,073	3,760	773	92.3	542	10
2015	19	-	4,314	13	3,835	3,621	-139	94.4	694	152
2016	20	1	5,155	841	3,868	3,765	144	97.3	1,391	697
연평균		0.8		221.5			134.6	97.0		86.9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4] 음성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11) 단양군

[표 6-22] 단양군 산업단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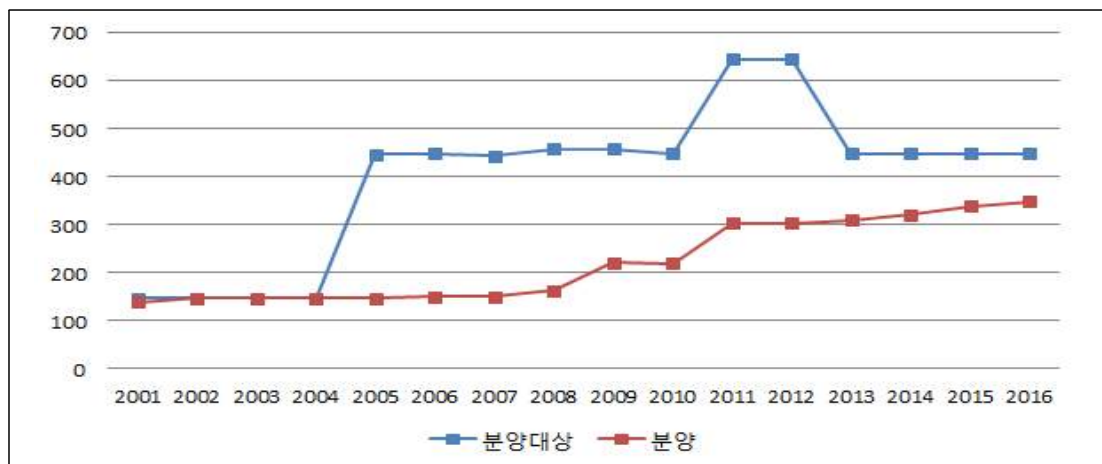
(단위: 년, 개소, 천 m², %)

연 도	단 지 수		산업시설용지							
	누계	증가	분양대상		분양공고	분양		분양률	미분양	미공고
			누계	증가	누계	누계	증가		누계	증가
2001	2	-	148	-	148	139	-	93.9	9	-
2002	2	-	148	-	148	148	9	100.0	-	-9
2003	2	-	148	-	148	148	-	100.0	-	-
2004	2	-	148	-	148	148	-	100.0	-	-
2005	4	2	447	299	148	148	-	100.0	298	298
2006	4	-	449	2	151	151	3	100.0	298	-
2007	4	-	444	-5	151	151	-	100.0	293	-5
2008	4	-	458	14	164	164	13	100.0	293	-
2009	4	-	458	-	266	222	58	83.5	236	-57
2010	4	-	449	-9	449	220	-2	49.0	229	-7
2011	5	1	646	197	310	304	84	98.1	341	112
2012	5	-	646	-	448	304	-	67.9	342	1
2013	4	-1	448	-198	448	310	6	69.2	137	-205
2014	4	-	448	-	448	321	11	71.7	127	-10
2015	4	-	448	-	448	339	18	75.7	109	-18
2016	4	-	448	-	448	349	10	77.9	99	-10
연평균		0.1		18.8			13.1	86.7		5.6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미분양률의 전체는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의 합계 기준, 개발은 개발용지 기준

[그림 6-15] 단양군 산업단지 지정면적(누계) 추이



3)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 2015년 말 현재, 향후 충북의 신규 산업단지는 32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총 18.35km²임.

[표 6-23] 충북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2015년 현재)

(단위: m²)

지역	경과	유형	조성기간	단지명	전체 면적	산업시설용지
충북(32)					31,862,411	18,353,685
청주시 (9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20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2,582,000	1,325,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6~2019	옥산제2산업단지	501,000	330,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4~2019	국사산업단지	973,000	560,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6~2022	오송화장품일반산업단지	2,582,000	1,325,000
	선정	첨단		청주도시첨단산업단지	402,000	229,140
	계획 중	국가일반		오송3산업단지	342,056	175,817
	계획 중	일반		오송바이오벤처임대산업단지	186,216	95,715
	계획 중	일반		청주그린밸리복합단지	311,507	160,115
	계획 중	일반		현도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전환	1,012,954	520,658
소 계					8,892,733	4,721,445
충주시 (7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8	충주한홍건설화학석산업단지	71,000	50,000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4~2017	충주인프라시티산업단지	149,000	98,318
	계획 중	일반	2014~2020	충주 북부산업단지	2,011,000	1,261,256
	계획 중	일반	2016~2022	북충주IC일원산업단지	3,393,000	1,744,002
	계획 중	일반	2016~2022	양성일원산업단지	809,000	415,826
	계획 중	일반	2016~2018	충주산척일반산업단지	107,264	86,292
	확장	농공	2008~2016	가금농공단지	224,724	70,721
소 계					6,764,988	3,726,415
옥천군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9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351,661	242,709
증평군 (2개)	계획 중	일반	2007~2016	증평3일반산업단지	900,000	462,600
	계획 중	첨단	2016~2020	증평첨단복합산업단지	964,000	495,496
소 계					1,864,000	958,096
진천군 (2개)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2~2017	진천송두산업단지	836,382	654,614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9	에스폼산업단지	415,104	272,070
소 계					1,251,486	926,684
음성군 (11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성안산업단지	137,000	71,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1,054,000	745,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대풍2산업단지	760,000	586,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성안2산업단지	199,000	119,000
	2016년 지정계획	일반		성분산업단지	1,975,543	803,896
	계획 중	일반		용산산업단지	806,000	537,000
	계획 중	일반		인곡산업단지	2,153,000	1,529,000
	계획 중	일반		금왕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1,706,000	906,000
	계획 중	일반		신평산업단지	1,806,000	1,202,000
	계획 중	일반		오선2산업단지	460,000	236,440
	계획 중	일반		삼성산업단지	1,681,000	1,043,000
소 계					12,737,543	7,778,336

주1) 자료: 각 시군(2016년, 2017년 조사 결과 반영)

주2) 산업시설용지 중 음영표시는 산업시설용지비율(일반 57%, 농공 55.2%)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

주3) 충주시 가금농공단지는 확장면적임

4) 시·군별 개발가능지 및 공장용지 소요면적 검토

○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에서 분석한 개발가능지와 공장용지 소요면적 등을 검토하였음.

(1) 청주시

○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은 청주시의 개발가능지가 120.34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24] 도시기본계획의 청주시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940.349	100.00	
기개발지		151.87	16.15	
미개발지	소계	788.48	83.85	
	개발가능지	120.34	12.80	
	개발억제지	276.69	29.42	
	개발불능지	391.46	41.63	

○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2015년 21.83km²에서 2025년 31.76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표 6-25] 도시기본계획의 청주시 공업용지 소요면적

(단위: 인, m², %, km²)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기정	21.83	23.82	25.80	26.30	
재산정	33.48	36.52	39.56	40.32	
금회적용	21.83	29.782	31.762	32.262	

(2) 충주시

○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은 충주시의 개발가능지가 233.9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26] 도시기본계획의 충주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983.8	100.0	
기개발지	62.6	6.4	
개발억제지	115.6	11.7	
개발불능지	571.7	58.1	
개발가능지	233.9	23.8	



- 2016년~2025년 충주시 시가화예정용지 중 공업용지의 면적은 9.886km²가 될 것으로 보았음.

[표 6-27] 도시기본계획의 충주시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단위: km²)

구 분	계	1·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비 고
공업용	15.564	5.352	4.534	5.678	

(3) 제천시

- 「2020년 제천도시기본계획」은 제천시의 개발가능지가 182.23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28] 도시기본계획의 제천시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82.47	100.0	
개발가능지	기개발지	20.08	2.3	
	미개발지	182.23	20.6	
개발억제지		116.66	13.2	
개발불능지		565.09	63.9	

- 제천시 공업용지는 2015년에 5.59km², 2020년에 6.08km²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

[표 6-29] 도시기본계획의 제천시 공업용지 면적 산정

(단위: 명, %, m², km²)

계획년도	계획인구	2차산업인구	공업용지내 종사자 비율	공공용지율	1인당 점유면적	소요면적
2005년	138천인	11,250	90	25	300	4.05
2010년	150천인	14,389	90	25	300	5.18
2015년	160천인	15,536	90	25	300	5.59
2020년	170천인	16,900	90	25	300	6.08

(4) 보은군

- 「2020년 보은군기본계획」은 보은군의 개발가능지가 89.86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30] 도시기본계획의 보은군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가능지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584.48	89.86	15.37	9.25	1.58	442.68	75.74	343.6	58.79
보은읍	62.29	19.38	31.11	2.55	4.09	37.23	59.77	16.93	27.18
속리산면	92.31	0.52	0.56	1.08	1.17	86.52	93.73	89.22	96.65
장안면	29.86	6.39	21.40	1.02	3.42	22.63	75.79	15.34	51.37
마로면	68.47	11.81	17.25	0.55	0.80	53.54	78.19	36.75	53.67
탄부면	31.72	10.17	32.06	0.51	1.61	20.17	63.59	4.94	15.57
삼승면	28.27	10.46	37	0.46	1.63	16.51	58.40	5.15	18.22
수한면	48.73	10.17	20.87	0.03	0.06	37.91	71.64	25.87	53.09
회남면	46.61	-	-	-	-	44.89	96.31	33.66	72.22
장안면	54.03	-	-	0.5	0.93	38.45	71.16	35.12	65.00
내북면	63.48	10.19	16.05	1.77	2.79	46.24	72.84	42.09	66.30
산외면	58.71	10.77	18.34	0.78	1.33	41.59	70.84	38.53	65.63

○ 2020년까지 시가화예정용지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은 약 2.8km²가 될 것으로 보았음.

[표 6-31] 도시기본계획의 보은군 시가화예정용지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 계획

(단위: 천 m²)

구 분	보은첨단산업단지	동부지방산업단지	계
면 적	2,150	686	2,836

(5) 옥천군

○ 「2030 옥천군기본계획」은 옥천군의 개발가능지가 59.77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32] 도시기본계획의 옥천군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 분	행정구역면적	개발가능지		기개발지		개발억제·불능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537.09	59.77	11.13	10.81	2.01	466.51	86.86
옥천읍	47.56	8.50	17.87	5.64	11.86	33.42	70.27
동이면	60.26	6.32	10.49	0.34	0.56	53.60	88.95
안남면	31.77	2.99	9.42	0.25	0.80	28.52	89.78
안내면	64.41	5.91	9.18	0.40	0.61	58.11	90.21
청성면	82.76	11.49	13.88	0.09	0.11	71.18	86.01
청산면	72.36	11.24	15.53	1.17	1.62	59.95	82.85
이원면	66.39	9.63	14.51	1.17	1.76	55.58	83.73
군서면	45.94	3.21	6.99	0.67	1.46	42.06	91.55
군북면	65.64	0.48	0.74	1.08	1.65	64.09	97.61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군의 공업용지는 0.783km²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표 6-33] 도시기본계획의 옥천군 공업용지 수요추정

(단위: 인, m², %, km², km)

계획년도	계획인구	제조업인구	평균부지면적	공업용지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적용면적 (+9.8%)
2015	52,000	6,270	220.3	84	40	1.933	2.122
2020	56,000	7,272	228.8	84	40	2.329	2.557
2025	56,000	7,956	237.6	84	40	2.647	2.905
2030	56,000	8,409	246.8	84	40	2.905	3.189

(6) 영동군

○ 「2020 영동군기본계획」은 영동군의 개발가능지가 39.867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34] 도시기본계획의 영동군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 분	영동군	기개발지	미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비 고
면적	844.985	22.351	39.867	332.279	450.488	
구성비	100.00	2.7	4.7	39.3	53.3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동군의 공업용지는 0.48km²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표 6-35] 도시기본계획의 영동군 공업용지 수요추정

(단위: 인, m², %)

계획년도	계획인구	2차산업 인구	공업용지내 종사자인구	1인당 부지면적	공 업 용지율	공 공 용지율	혼합률	공업용지 면적(km ²)
2010년	51,500	3,570	2,860	319	75	30	10	1.09
2015년	55,000	5,030	4,020	319	75	30	10	1.53
2020년	56,000	6,620	5,300	319	75	30	10	2.01

(7) 증평군

○ 「2030 증평군기본계획」은 증평군의 개발가능지가 13.257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36] 도시기본계획의 증평군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81.832	100.0	
기개발지	5.237	6.4	
개발가능지	13.257	16.2	
개발억제지	13.911	17.0	
개발불능지	49.427	60.4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증평군의 공업용지는 1.665km²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표 6-37] 도시기본계획의 증평군 공업용지 소요면적 추정결과

(단위: km²)

구분	종사자수에 의한 소요면적 추정	개별공자 입지유도	최종 소요면적
2015년	2.176	0.063	2.239
2020년	2.856	0.126	2.982
2025년	3.715	0.189	3.904
2030년	4.637	0.252	4.889

(8) 진천군

○ 「2030 진천군기본계획」은 진천군의 개발가능지가 86.2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38] 도시기본계획의 진천군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단위: km², %)

구분		합 계	개발불능지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전체	면적	407.2	214.6	29.8	76.6	86.2
	비율	100.0	52.7	7.3	18.8	21.2
중부 생활권	면적	210.8	135	9.9	31.8	34.1
	비율	100.0	64.0	4.7	15.1	16.2
동부 생활권	면적	111.3	52.8	10.4	23.0	25.1
	비율	100.0	47.4	9.3	20.7	22.6
북부 생활권	면적	85.1	26.8	9.5	21.8	27.0
	비율	100.0	31.5	11.2	25.6	31.7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진천군의 공업용지는 8.839km²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표 6-39] 도시기본계획의 진천군 단계별·생활권별 공업용지 배분계획

(단위: km²)

생활권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비도시지역
전체	합계	28.215	5.811	0.449	9.215	12.740
	중부	4.061	1.578	0.126	1.689	0.668
	동부	13.384	1.044	0.054	1.726	10.560
	북부	10.770	3.189	0.269	5.800	1.512
2단계 (2016 ~ 2020)	소계	26.404	5.329	0.205	8.200	12.670
	중부	3.770	1.497	0.085	1.520	0.668
	동부	12.926	0.936	-	1.500	10.490
	북부	9.708	2.896	0.120	5.180	1.512
3단계 (2021 ~ 2025)	소계	1.166	0.303	0.154	0.639	0.070
	중부	0.162	0.045	0.023	0.094	-
	동부	0.264	0.054	0.027	0.113	0.070
	북부	0.740	0.204	0.104	0.432	-
4단계 (2026 ~ 2030)	소계	0.645	0.179	0.090	0.376	-
	중부	0.129	0.036	0.018	0.075	-
	동부	0.194	0.054	0.027	0.113	-
	북부	0.322	0.089	0.045	0.188	-

(9) 괴산군

○ 「2025 괴산군기본계획」은 괴산군의 개발가능지가 103.29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40] 도시기본계획의 괴산군 개발가능지 분석

(단위: km², %)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842.229	100.0	
기개발지 지역	5.318	0.6	
개발가능 지역	103.290	12.3	
개발불능 지역	581.871	69.1	
개발억제 지역	151.750	18.0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괴산군의 시가화예정용지 중 공업형은 0.738km²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표 6-41] 도시기본계획의 괴산군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단위: km²)

구 분		1단계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
합계		841.929	841.929	841.929	841.929
시가화 용지	소계	5.813	5.816	5.813	5.813
	주거용지	1.529	1.529	1.529	1.529
	상업용지	0.178	0.178	0.178	0.178
	공업용지	2.017	2.017	2.017	2.017
	관리용지	2.089	2.089	2.089	2.089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4.846	8.063	10.065	11.175
	주거형	0.198	0.198	0.198	0.198
	공업형	2.564	2.564	3.302	3.302
	제2종지구단위계획형	2.084	5.301	6.565	7.675
보전용지		831.270	828.053	826.051	824.941

(10) 음성군

○ 「2030 음성군기본계획」은 음성군의 개발가능지가 131.81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42] 도시기본계획의 음성군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단위: km², %)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520.30	100.0	
개발가능지	131.81	25.3	
기개발지	36.78	7.1	
개발억제지	330.15	63.5	
개발불가능지	21.56	4.1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음성군의 공업용지는 16.48km²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표 6-43] 도시기본계획의 음성군 공업용지 수요면적 산정결과

(단위: km²)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9.74	23.27	26.22	26.22
음성중생활권	0.94	6.60	6.60	6.60
금왕중생활권	2.46	4.53	6.93	6.93
대소중생활권	5.24	7.51	7.74	7.74
감곡중생활권	1.10	4.63	4.95	4.95

(11) 단양군

○ 「2020 단양군기본계획」은 단양군의 개발가능지가 144.32km²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표 6-44]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개발가능지 분석표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80.11	100.0	
개발가능지	144.32	18.5	
기개발지	14.58	1.9	
개발억제·불능지	621.21	79.6	

○ 단양군의 2차 산업 종업원 수 기준, 공업용지면적은 2020년까지 1.031km²가 될 것으로 보았음.

[표 6-45]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단위: 인, m², %, km²)

종업원 수	1인당 부지면적	공업용지율	공공용지율	공업용지면적
4,581	150	90	40	1.031

○ 단양군의 2020년까지 시가화예정용지는 12.61km²(Eco-Valley 농공단지 0.272km²)가 될 것으로 보았음.

[표 6-46] 도시기본계획의 단양군 토지이용계획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780.11	100.0	
시가화용지	계	14.76	1.89
	주거용지	2.38	0.31
	상업용지	0.39	0.05
	공업용지	2.37	0.30
	관리용지	9.62	1.23
시가화예정용지	계	12.61	1.62
			Eco-Valley 농공단지 0.272km ²
보전용지	752.74	96.49	

5)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과정

(1) 시·분별 및 권역별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추이

○ 최근 10년간(2006~2015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증가 면적의 비중을 보면, 청주시가 24.8%, 진천군이 16.9%, 음성군이 12.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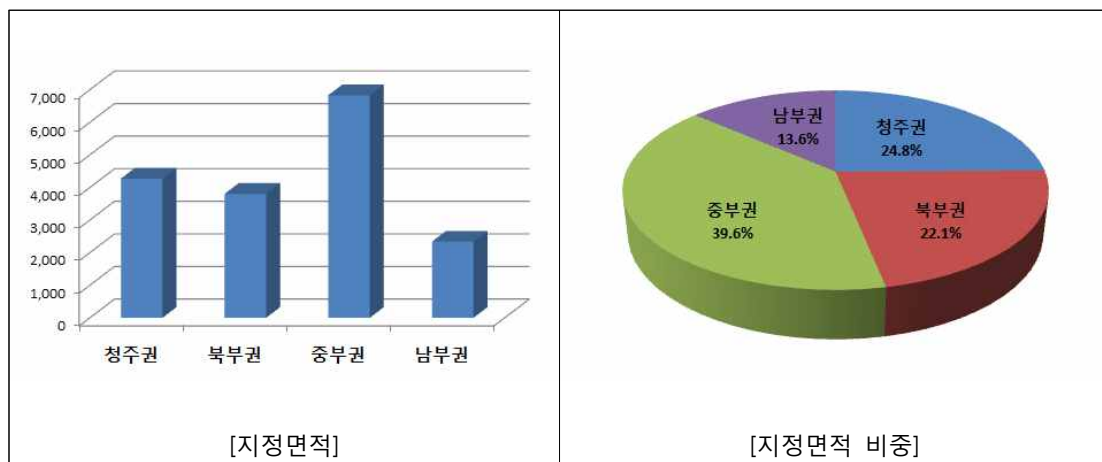
[표 6-47]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및 비중

(단위: 천㎡,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년)										합계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171	1,441	6,069	3,816	2,588	23	-677	1,252	1,490	1,084	17,257	100.0
청주	청주시	87	14	2,130	1,128	1,266	-497	-397	225	309	10	4,275	24.8
북부	충주시	8	0	163	268	281	41	39	1,081	6	219	2,106	12.2
	제천시	0	830	-30	102	34	-2	-71	-2	3	836	1,700	9.9
	단양군	2	-5	14	0	-9	197	0	-198	0	0	1	0
	소 계	10	825	147	370	306	236	-32	881	9	1,055	3,807	22.1
중부	증평군	0	0	11	559	0	-27	0	39	0	5	587	3.4
	진천군	-12	5	879	159	923	157	-28	317	545	-37	2,908	16.9
	괴산군	0	492	332	529	0	222	-295	0	-208	37	1,109	6.4
	음성군	84	0	1,309	81	101	-67	58	-132	782	13	2,229	12.9
	소 계	72	497	2531	1328	1024	285	-265	224	1,119	18	6,833	39.6
남부	보은군	0	0	472	827	-9	0	21	-81	53	-4	1,279	7.4
	옥천군	1	104	251	8	0	1	-2	0	0	4	367	2.1
	영동군	0	0	539	154	0	0	0	0	0	0	693	4.0
	소 계	1	104	1262	989	-9	1	19	-81	53	0	2,339	13.6

주)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그림 6-16]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및 비중(최근 10년)



(2) 시·군별 및 권역별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추이

○ 최근 10년간 증가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의 비중을 보면, 청주시가 29.9%, 진천군이 18.9%, 음성군이 15.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6-48]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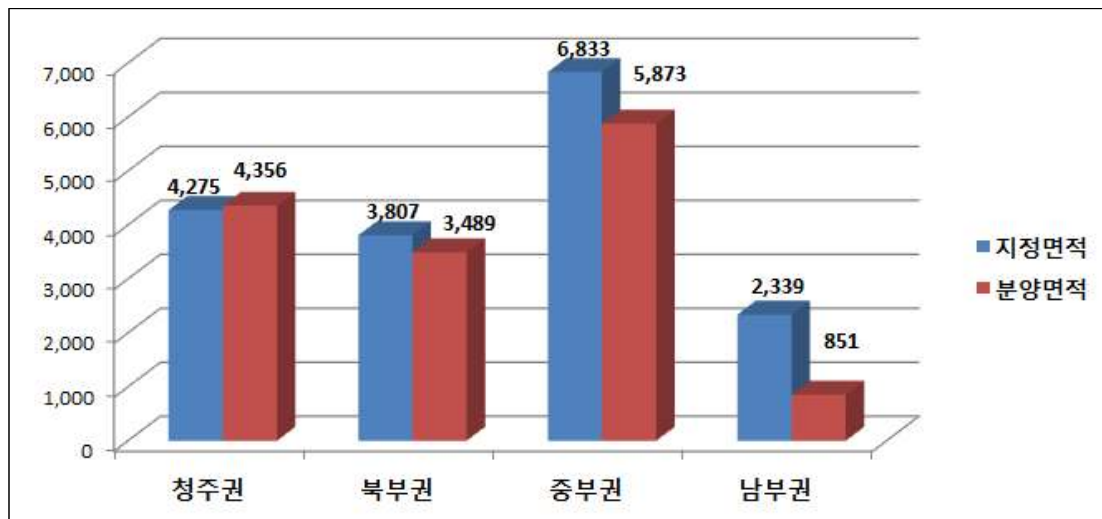
(단위: 천 m², %)

구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전년도 대비 증가 면적(년)										합계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충 북		1,784	1,165	585	819	868	2,296	1,677	1,032	2,361	1,982	14,569	100.0
청주	청주시	734	790	601	227	374	648	143	-48	666	221	4,356	29.9
북 부	충주시	0	168	164	360	273	619	-5	46	90	461	2,176	15.0
	제천시	232	20	16	118	193	-2	83	137	156	169	1,122	7.7
	단양군	3	0	13	58	-2	84	0	6	11	18	191	1.3
	소 계	235	188	193	536	464	701	78	189	257	648	3,489	24.0
중 부	증평균	496	1	11	23	0	0	0	40	0	220	791	5.4
	진천군	44	185	-1	0	0	296	115	474	677	965	2,755	18.9
	괴산군	0	0	-219	0	0	0	222	236	-12	-102	125	0.9
	음성군	274	1	0	0	0	573	569	151	773	-139	2,202	15.1
	소 계	814	187	-209	23	0	869	906	901	1,438	944	5,873	40.3
남 부	보은군	0	0	0	13	0	0	463	-81	0	151	546	3.7
	옥천군	1	0	0	20	30	69	87	71	0	18	296	2.0
	영동군	0	0	0	0	0	9	0	0	0	0	9	0.1
	소 계	1	0	0	33	30	78	550	-10	0	169	851	5.8

주1)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주2) 100% 비율을 구하기 위해 소수점을 절상 또는 절하함

[그림 6-17] 권역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과 분양면적 비교(최근 10년)



(3) 시·군별 및 권역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 비중

○ 앞에서 기술한 충북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각 시·군별 및 권역별 산업시설용지 비중을 보면, 음성군이 42.4%, 청주시가 25.7%, 충주시가 20.3% 등의 순임.

[표 6-49] 시·군 및 권역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산업시설용지) 비중

(단위: 개, 천㎡, %)

구분		단지 수	조성계획면적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중	비고
			전체	산업시설용지		
충북		32	31,862	18,354	100.0	일반 30
청주	청주시	9	8,893	4,722	25.7	첨단 1
북부	충주시	7	6,765	3,726	20.3	농공 1
	제천시	-	-	-	0.0	
	단양군	-	-	-	0.0	
	소계	8	6,765	3,726	20.3	
중부	증평군	2	1,864	958	5.2	첨단 1
	진천군	2	1,251	927	5.1	
	괴산군	-	-	-	0.0	
	음성군	11	12,737	7,778	42.4	
	소계	15	15,852	9,663	52.7	
남부	보은군	0	-	-	0.0	
	옥천군	1	352	243	1.3	
	영동군	-	-	-	0.0	
	소계	1	352	24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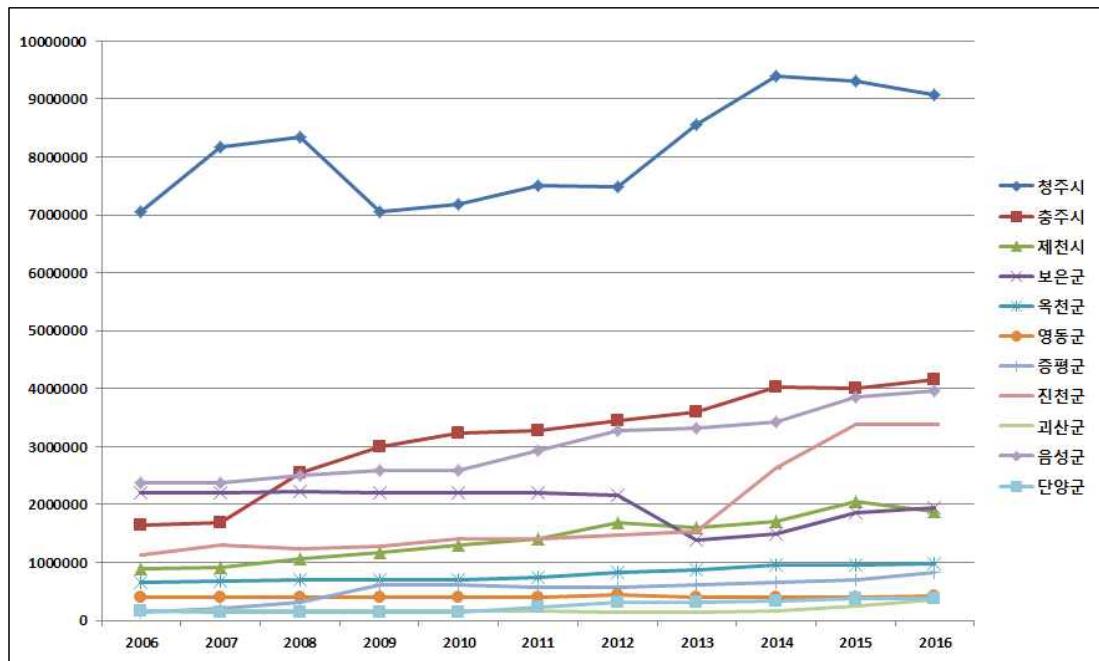
주) 세부 면적은 앞의 표(충북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참조

(4) 과거 추세법으로 예측한 향후 지역별 계획입지 비중 및 기타

○ 앞에서 기술한 충북 각 시·군의 계획입지 면적(FEMIS 기준) 추이를 보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계획입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계획입지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주시로 해당 기간 동안 2.5㎢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진천군이 약 2.3㎢, 청주시가 약 2㎢, 음성군이 약 1.6㎢가 증가하여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18]충북 시·군별 계획입지면적 추이



주) 단위: 년, m²

-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향후 시·군 및 권역별 계획입지 비중을 예측하여 반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시·군별 원자료(raw data)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당한 예측치를 구할 수가 없었음.
- 시·군별 계획입지면적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지수평활법, ARIMA, 곡선추정회귀분석 등 여러 통계모형을 통한 예측을 실행하였으나 원자료의 불명확한 추세성과 추정결과의 현실성 부족(급격한 증가, 음의 결과) 등으로 예측결과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앞에서 살펴본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면적과 예측면적의 괴리가 매우 컸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에서 배제하였음.

□ 기타 고려사항

- 향후 계획입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시·군별로 계획입지비중이 낮은 지역에 대한 안배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시·군별 공급규모 산정 결과, 계획입지비중이 낮은 지역에 비교적 큰 공급면적이 산정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
- 또한 시·군별로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면적비율을 검토한 결과, 작은 규모 또는 큰 규모의 공급면적이 산정된 지역 간의 미분양면적비율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역별 공급규모 산정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음.

6)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2015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의 계획입지 공급규모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음.
- 시·군별 공급규모는 ①과거의 실적에 해당하는 부문으로서,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과 분양면적의 각 시·군별 비중과 ②향후 수요에 해당하는 부문으로서, 산업단지 조정계획면적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1)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 2016년~2025년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청주시는 5.84㎢, 충주시는 3.74㎢, 진천군은 2.54㎢, 음성군은 6.21㎢ 등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청주권이 5.84㎢, 북부권이 4.8㎢, 중부권이 10.23㎢, 남부권이 1.24㎢임.

[표 6-50] 시·군 및 권역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

(단위: %, ㎢)

구 분		산정 기준					2016~2025년 계획입지 공급규모	비 고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실적 비중 ㉔수요 비중 (조성계획)	㉕적용비율			
		㉑지정면적	㉒분양면적			㉓평균		
총 북		100.0	100.0	100.0	100.0	100.0	22.11	
청주	청주시	24.8	29.9	27.3	25.7	26.4	5.84	
북 부	충주시	12.2	15.0	13.6	20.3	16.9	3.74	
	제천시	9.9	7.7	8.8	0.0	4.4	0.97	
	단양군	0.0	1.3	0.7	0.0	0.4	0.09	
	소 계	22.1	24.0	23.1	20.3	21.7	4.80	
중 부	증평군	3.4	5.4	4.4	5.2	4.8	1.06	
	진천군	16.9	18.9	17.8	5.1	11.5	2.54	
	괴산군	6.4	0.9	3.7	0.0	1.9	0.42	
	음성군	12.9	15.1	13.9	42.4	28.1	6.21	
	소 계	39.6	40.3	39.8	52.7	46.3	10.23	
남 부	보은군	7.4	3.7	5.6	0.0	2.8	0.62	
	옥천군	2.1	2.0	2.1	1.3	1.7	0.38	
	영동군	4.0	0.1	2.1	0.0	1.1	0.24	
	소 계	13.6	5.8	9.8	1.3	5.6	1.24	

주) ㉓는 ㉓와 ㉓의 평균, ㉓는 ㉓와 ㉓의 평균, 공급규모는 충북 전체 규모에서 각 지역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산업용지 유형별 공급규모

- 시·군별 개별입지의 공급규모는 앞에서 예측한 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33.85km²)에서 계획입지(21.8km²)를 제외한 면적(12.05km²)에 각 시·군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산업단지 조성규모는 계획입지 공급면적에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 비중(57.6%), 즉 공장용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2016년~2025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충북 전체적으로는 38.39km², 청주시는 10.14km², 충주시 6.49km², 진천군 4.41km², 음성군 10.78km² 등으로 계획하였음.

[표 6-51] 시·군 및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산업용지 유형별 공급규모

(단위: %, km²)

구 분	2016~2025년 산업입지 공급규모			2016년~2025년 산업단지 조성규모	비 고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		
충 북	22.11	12.05	34.16	38.39	
청주	청주시	5.84	2.69	8.53	10.14
북 부	충주시	3.74	1.76	5.50	6.49
	제천시	0.97	0.37	1.34	1.68
	단양군	0.09	0.12	0.21	0.16
	소 계	4.80	2.25	7.05	8.33
중 부	증평군	1.06	0.28	1.34	1.84
	진천군	2.54	1.77	4.31	4.41
	괴산군	0.42	0.69	1.11	0.73
	음성군	6.21	3.94	10.15	10.78
	소 계	10.23	6.68	16.91	17.76
남 부	보은군	0.62	0.19	0.81	1.08
	옥천군	0.38	0.06	0.44	0.66
	영동군	0.24	0.18	0.42	0.42
	소 계	1.24	0.43	1.67	2.16

주1) 개별입지는 과거 추세치에 의한 산업입지 예측결과(33.85km²)에서 계획입지(21.8km²)를 제한 면적(12.05km²)을 기준으로 과거(2006년~2015년) 개별입지 증가면적의 각 시·군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함

주2) 산업단지 조성규모는 계획입지면적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산업시설용지면적 비중(57.6%) 적용

VII.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제7장 충청북도 산업입지수급계획

1. 「산업입지법(제5조의2 제6항)」에 따른 사항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① 이주 기업 등 기업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산업입지 공급

- 수도권 규제, 기업경영여건 악화, 산업단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으며 공장 이전의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충북지역의 산업입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도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향후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이전 기업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서 산업입지의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② 낮은 수준의 계획입지비중 제고를 위한 계획입지 공급 확대

- 충북의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6% 수준으로, 전국 50.42%보다 낮고 전북 대비 -34.06%p, 전남 대비 -40.3%p 수준에 불과함.
- 개별입지의 공장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이고 원활한 산업입지의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계획입지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개별입지에 소재한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여 계획입지의 비중을 제고하고자 함.

③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산업입지 강화

- 충북은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발전부품(셀, 모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화학비료, 기능성식품, 항공부품 등의 생산이 활발한 지역이며 관련 기업들의 산업입지 수요가 많음.
- 충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학업종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업종별 특화유치 전략이 필요하여 이러한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를 관리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 산업입지의 개발과 공급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충북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바이오의학연구센터 등 국가 및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공급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4대 국책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전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역량이 산업단지의 기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업체의 신규 유치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④ 친환경 · 저비용 산업입지로 개선 및 개발

- 에너지 과다소비 사업장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이행의무대상으로 환경문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등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입지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 충북의 주요 산업이기도 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정하고 저렴한 전기와 증기, 공업용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입지로 만들어 나감과 더불어 산업입지의 매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국가의 환경정책, 지역의 생태환경 등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개선 및 개발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업활동여건과 종사자·지역민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⑤ 산업입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충북 지역별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청주, 진천, 음성 등)에 산업입지가 집중되어 있음.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투자유치활동 지원, 성장촉진지역 투자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정부(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이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가 시행될 경우, 충북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적용함.
- 그 밖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임대공장의 공급, 지역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수요 확대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⑥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활성화

- 관내 노후산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구조도도화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함.
- 관내 농공단지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에 편익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⑦ 외국인투자기업 확대를 위한 효과적 산업입지 공급

- 저성장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창출은 물론 연관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또한 국내에 부족한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해주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 됨.
-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산업입지를 공급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공급방안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의 효율적 유치 추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효과 극대화 외에도 역차별의 효과적 방지, 규제 극소화와 환경규제 운용 등이 있음.

⑧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 및 적정 수급 관리

- 지역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한 규모의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단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산업단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산업단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 등의 수요검증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평가 등에 유의하고자 함.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입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시·군별 개별입지의 공급규모는 앞에서 예측한 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33.85㎢)에서 계획입지(21.8㎢)를 제외한 면적(12.05㎢)에 각 시·군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산업단지 조성규모는 계획입지 공급면적에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 비중(57.6%), 즉 공장용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계획기간(2016년~2025년) 내 충북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충북 전체적으로는 38.39㎢, 청주시는 10.14㎢, 충주시 6.49㎢, 진천군 4.41㎢, 음성군 10.78㎢ 등으로 계획하였음.

[표 7-1] 충북 시·군(권역별) 및 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와 산업단지 조성규모

(단위: ㎢)

구 분		2016~2025년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규모			2016년~2025년 산업단지 조성규모	비 고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		
충 북		22.11	12.05	34.16	38.39	
청주	청주시	5.84	2.69	8.53	10.14	
	충주시	3.74	1.76	5.50	6.49	
북 부	제천시	0.97	0.37	1.34	1.68	
	단양군	0.09	0.12	0.21	0.16	
	소 계	4.80	2.25	7.05	8.33	
	증평균	1.06	0.28	1.34	1.84	
중 부	진천군	2.54	1.77	4.31	4.41	
	괴산군	0.42	0.69	1.11	0.73	
	음성군	6.21	3.94	10.15	10.78	
	소 계	10.23	6.68	16.91	17.76	
남 부	보은군	0.62	0.19	0.81	1.08	
	옥천군	0.38	0.06	0.44	0.66	
	영동군	0.24	0.18	0.42	0.42	
	소 계	1.24	0.43	1.67	2.16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로는 기존 인프라가 우수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인 청주시에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도 여건 변화와 수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추진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이 완료(2016년)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중인 청주시와 증평군을 위주로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도 수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함.
- 일반산업단지는 수요와 여건에 맞는 규모로 각 시·군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농공단지에는 기존의 단지를 확장하여나 수요에 따라 추가 조성하도록 함.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기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표 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제도

구 분	관련 법률 및 조항	주 요 내 용
비용부담	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국가·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50%이나,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 낙후지발개발에 특히 필요의 경우는 100% 보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산업입지법 제29조, 영 제27조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등의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서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으로 지원
조세 및 자금 지원	산업입지법 제45조, 제46조	국가·지자체는 산업단지조성의 육성을 위해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
토지개발지원	산업입지법 제22조 내지 제27조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이 용이하도록 토지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가 마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의제처리 및 일부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정부는 의제 처리 및 타 법률의 적용 특례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확보에 대해 지원
농공단지 지원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내의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전문단지 등에 우선 지원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진흥기금을 운용하고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사항

1)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2015년 말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별로 지정이 계획되어 있는 신규 산업단지는 32개임.

[표 7-3] 충북 시·군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2015년 현재)

지역	경과	유형	조성기간	단지명	지정면적(m ²)
충북(32)					31,862,411
청주시 (9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20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2,582,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6~2019	옥산제2산업단지	501,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4~2019	국사산업단지	973,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6~2022	오송화장품일반산업단지	2,582,000
	선정	첨단		청주도시첨단산업단지	402,000
	계획 중	일반		오송3산업단지	342,056
	계획 중	일반		오송바이오벤처임대산업단지	186,216
	계획 중	일반		청주그린밸리복합단지	311,507
	계획 중	일반		현도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전환	1,012,954
소 계					8,892,733
충주시 (7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8	충주한흥건철화석산업단지	71,000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4~2017	충주인프라시티산업단지	149,000
	계획 중	일반	2014~2020	충주 북부산업단지	2,011,000
	계획 중	일반	2016~2022	북충주IC일원산업단지	3,393,000
	계획 중	일반	2016~2022	양성일원산업단지	809,000
	계획 중	일반	2016~2018	충주산척일반산업단지	107,264
	확장	농공	2008~2016	가금농공단지	224,724
소 계					6,764,988
옥천군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9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351,661
증평군 (2개)	계획 중	일반	2007~2016	증평3일반산업단지	900,000
	계획 중	첨단	2016~2020	증평첨단복합산업단지	964,000
소 계					1,864,000
진천군 (2개)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2~2017	진천송두산업단지	836,382
	2016년 지정계획	일반	2015~2019	에스폼산업단지	415,104
소 계					1,251,486
음성군 (11개)	2017년 지정계획	일반		성안산업단지	137,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1,054,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대풍2산업단지	760,000
	2017년 지정계획	일반		성안2산업단지	199,000
	2016년 지정계획	일반		성분산업단지	1,975,543
	계획 중	일반		용산산업단지	806,000
	계획 중	일반		인곡산업단지	2,153,000
	계획 중	일반		금왕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1,706,000
	계획 중	일반		신평산업단지	1,806,000
	계획 중	일반		오선2산업단지	460,000
	계획 중	일반		삼성산업단지	1,681,000
소 계					12,737,543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1)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수요

- 과거 추세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충북의 향후 산업입지 면적은 2025년에 108.78km²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향후 10년간 33.85km²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7-4]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 면적 예측

(단위: km²)

구 분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조업 외	계
2015년 (실제)	10.39	2.34	4.65	18.11	20.38	9.33	8.58	1.16	74.93
2016년 (실제)	10.60	2.22	4.69	18.43	21.26	9.66	8.77	1.18	76.81
2017년	11.45	2.19	4.99	19.39	22.08	10.02	9.44	1.15	80.71
2018년	12.00	2.16	5.21	20.20	22.70	10.35	9.98	1.13	83.73
2019년	12.57	2.14	5.44	21.04	23.33	10.70	10.55	1.12	86.87
2020년	13.17	2.11	5.68	21.91	23.99	11.05	11.15	1.10	90.15
2021년	13.79	2.08	5.93	22.82	24.66	11.41	11.78	1.09	93.57
2022년	14.45	2.06	6.19	23.77	25.35	11.79	12.46	1.08	97.14
2023년	15.14	2.03	6.46	24.76	26.05	12.18	13.17	1.06	100.86
2024년	15.86	2.01	6.75	25.78	26.78	12.58	13.92	1.05	104.73
2025년	16.62	1.98	7.04	26.86	27.53	13.00	14.71	1.04	108.78
수 요	6.23	-0.35	2.39	8.75	7.16	3.67	6.13	-0.12	33.85

주) 수요는 2025년 면적에서 2015년 면적을 뺀 값임

- 장래 산업입지(전체) 면적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2016년~2025년의 충북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순수요 면적은 21.8km²로 추정되었음.

[표 7-5]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단위: km²)

(단위: km²)

구 분	현황 (2015년)	면 적					비 고
		누 적		증 가 분			
		2020년	2025년	2016~`20년	2021~`25년	2016~`25년	
산업입지 면적	74.93	90.15	108.78	15.22	18.63	33.85	전체
계획입지 면적	27.14	36.94	48.94	9.80	12.00	21.80	연간 2.18km ²

(2) 2016년~2025년 충북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

○ 계획입지 공급면적 산정 과정에 따라 산정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충북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공급면적은 22.11km²임.

[표 7-6] 2016~2025년 충북 계획입지 공급면적

구 분	산정 · 적용방법	산정 결과
A. 순수요 면적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의 예측치 (2015년 74.93km ² → 2025년 108.78km ²)	33.85km ²
	• 계획입지비율 : 2011년~2015년 평균	64.4%
	• 산업용지면적 × 계획입지 비율	21.80km ²
B. 선공급 면적	• A 중 3년치에 해당하는 면적	6.54km ²
C. 재개발·재정비 면적	• 법에 의해 지정된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중 타용도 전환 면적	2.20km ²
소 계	• A + B + C	30.54km ²
D. 미분양·미개발 면적	• 2015년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의 미분양·미개발 면적	7.72km ²
E. 휴·폐업 면적	•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의 휴업 및 폐업 공장 부지 면적	0.71km ²
소 계	• D + E	8.43km ²
계획입지 공급 면적	• (A + B + C) - (D + E)	22.11km²

3)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된 충북 내 산업단지는 청주일반산업단지로 재생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임.
- 청주일반산업단지는 1969년에 지정되어 1989년에 준공되었으며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3,025천㎡로, 2016년 10월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부터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표 7-7] 충북 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사업 현황

단지명	지정일자	준공일	지정 면적	산업시설 용지 면적	재생사업 기간	재생사업지구 추진상황	향후 계획
청주일반 산업단지	1969.03.29	1989.12.30	4,099천㎡	3,025천㎡	2015~2024년	지정 승인 (2016.10)	2017년 재생 사업 추진

- 2015년 말 현재, 충청북도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는 총 4개로, 청주시 2개, 충주시와 음성군이 각 1개임.

[표 7-8] 충북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현황(2015년 말 현재)

지 역	단 지 명	지정면적(천㎡)	준공일	비 고
청주시	청주일반산업단지	4,099	1989.12.30	재생사업 추진 중
	현도일반산업단지	719	1994.12.29	
충주시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1,286	1993.12.07	
음성군	대풍일반산업단지	439	1996.12.10	

- 향후,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등 준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산업단지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임.

3. 시·군 의견수렴 협조 공문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총북!



충 청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538호(2016. 2.16.)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2017~2026년)의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3. 보다 신뢰성 있는 계획수립(과잉 및 과소 산정 방지)을 위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한 후 **2017. 2.13.(월)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기본계획(요약) 1부.
2. 기본계획(시군협의를)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도시개발사업단장(도시개발과장), 충주시장(신성장전략과장), 제천시장(투자유치과장), 보은군수(경제정책실장), 옥천군수(경제정책실장), 영동군수(경제과장), 증평군수(경제과장), 진천군수(명품도시추진소장), 괴산군수(경제과장), 음성군수(산업개발과장), 단양군수(지역경제과장)

주무관 박종관 입지지원팀장 권선욱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전결 2017. 2. 7.

협조자 주무관 김국진 주무관 이응철 주무관 이종기

시행 투자유치과-1444

접수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 www.chungbuk.go.kr

전화번호 043-220-3335 팩스번호 043-220-3319 / gx3374@korea.kr / 대국민 공개

2017 국가안전대진단(2.6-3.31)